중학교

역사 ①

이성호 • 강화정 • 고진아 • 박상민
양현승 • 오지원 • 윤세병 • 이지현
정희연 • 천장수

“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을 키우는 교과서입니다.

”



해냄에듀

책의 구성

교육 과정에 맞춰 학습 수준과 범위를 최소화하고 역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도록 구성했습니다.

❶ 대단원 도입



단원을 대표하는 사진들과 중단원 목차를 통해 배울 내용을 가볍게 파악합니다.

❸ 생각 쑥쑥 탐구



본문과 관련된 주제를 특집처럼 구성해 다양한 자료를 보며 생각을 키웁니다. 함께 탐구해요의 질문들로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논쟁성을 경험합니다.

❷ 본문



❶ **이번 중단원에서는** | 해당 중단원의 학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❷ **관련 주제** | 해당 주제와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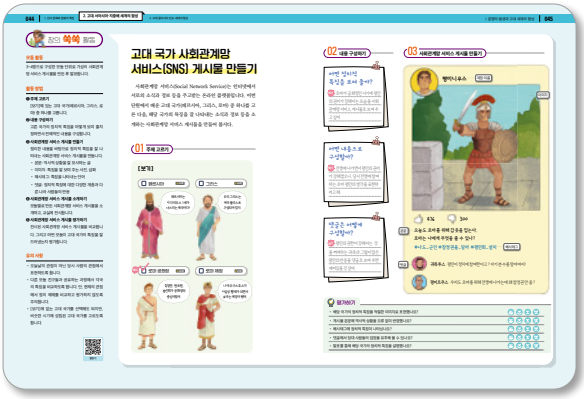
❸ **핵심 질문** | 주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❹ **본문 서술** | 역사적 사실을 쉬운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습니다.

❺ **용어 해설** | 이해하기 힘든 역사 용어를 쉽게 풀이했습니다.

❻ **단어 설명** | 어려운 단어 설명을 주석 형태로 달았습니다.

④ 창의 쑥쑥 활동



대단원마다 창의력을 기르는 프로젝트 활동을 구성해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학습을 실천합니다. 원활한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안내와 예시를 제공했습니다.

⑤ 대단원 마무리



문제로 확인하기 단답형, 서술형 등의 문항으로 대단원의 주요 내용을 복습합니다. **역사로 세상 읽기** 대단원 내용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오늘날 사회 문제를 살펴봅니다.



7 자료 |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사료, 읽기 자료, 사진, 지도, 삽화 등의 시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8 탐구 | 해당 주제의 핵심 내용과 자료를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탐구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릅니다.

9 함께 확인해요 | 빈칸 채우기 문제를 풀며 해당 주제의 핵심 개념을 복습하고, **생각 UP**과 **검색 UP**의 질문에 답하며 사고력을 키우도록 구성했습니다.

차례

프롤로그 역사 학습의 기초

- 역사 학습의 의미와 목적 008
- 역사 학습의 기본 다지기 010
- 나도 역사가! 018

I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1. 선사 문화와 문명의 특징

주제 1 인류의 출현과 선사 문화 022
주제 2 세계 고대 문명의 형성 028

2. 고대 서아시아·지중해 세계의 형성

주제 3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034
주제 4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동서 융합 038
주제 5 로마의 발전과 크리스트교의 성립 040

3. 고대 동아시아·인도 세계의 형성

주제 6 불교의 전파와 인도 고대 왕조의 성장 046
주제 7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 050
주제 8 천하를 양분한 한과 흉노 052

생각 쑥쑥 탐구
농업 혁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026
간다라 양식, 헬레니즘과 불교의 만남 048
비단길, 아시아와 유럽을 잇다 054

창의 쑥쑥 활동
고대 국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게시물 만들기 044

대단원 마무리
약탈당한 로제타석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056

II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발전

1.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과 발전

주제 9 유목민과 융합하며 발전한 중국 060
주제 10 당의 발전과 동아시아 문화 064

2. 지역 문화의 형성과 발전

주제 11 인도에 꽃핀 힌두 문화 070
주제 12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성장 074
주제 13 크리스트교 세계의 발전 078

3. 지역 문화의 교류와 충돌

주제 14 이슬람 세계의 확대와 변화 082
주제 15 봉건 질서의 형성과 교황권의 확대 086
주제 16 십자군 전쟁과 그 영향 090

생각 쑥쑥 탐구
중국에 뿌리내린 불교와 도교 062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 068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동남아시아 072
이슬람 문화의 발전과 확대 084
같은 하느님을 믿는 두 개의 교회 088
미켈란젤로의 생애로 살펴보는 르네상스 시대 094

창의 쑥쑥 활동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카드 뉴스 만들기 096

대단원 마무리
종교는 분쟁의 씨앗일까, 평화의 도구일까? 098









Ⅲ 지역 세계의 교류와 변화

1. 유라시아 교역과 문화 교류의 확대

주제 17 송의 발전과 북방 민족의 성장 102
주제 18 몽골 제국과 교류의 확대 106

2. 동아시아·인도 지역 질서의 변화

주제 19 명·청의 발전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 110
주제 20 명·청의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 112
주제 21 에도 막부의 성장 116
주제 22 인도에서 발전한 무굴 제국 118

3. 서아시아와 유럽 사회의 변화

주제 23 다양한 이슬람 왕조의 성장과 오스만 제국 120
주제 24 유럽의 종교 개혁 124
주제 25 신항로 개척과 아메리카 대륙의 변화 126
주제 26 세계적인 교역망의 형성 130
주제 27 재정과 군사를 독점한 국가들 132

생각 쑥쑥 탐구

유럽에 파견된 중국인 114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와 아프리카 노예의 비극 128
새로운 변화의 시작, 과학 혁명과 계몽사상 134

창의 **쑥쑥** 활동

각 나라를 상징하는 가상 국기 만들기 136

대단원 마무리

플랜테이션은 오늘날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138



Ⅳ 제국주의와 국민 국가 건설 운동

1.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 국가 체제

주제 28 미국 혁명과 민주 공화국의 탄생 142
주제 29 프랑스 혁명의 발발과 전파 144
주제 30 빈 체제와 1848년 혁명 150
주제 31 새롭게 등장한 국민 국가 154
주제 32 미국의 성장과 독립을 이룬 라틴 아메리카 156

2. 산업 사회의 등장과 제국주의

주제 33 산업화와 사회 변화 160
주제 34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화 166

3. 아시아의 국민 국가 건설 운동

주제 35 서아시아의 국민 국가 건설 운동 170
주제 36 인도의 국민 국가 건설 운동 174
주제 37 동아시아 3국의 개항 178
주제 38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민족 운동 180
주제 39 일본의 대외 침략과 신해혁명 184

생각 쑥쑥 탐구

혁명을 위해 거리로 나선 프랑스 여성들 148
미국 원주민, 빼앗긴 권리를 찾아 나서다 158
산업화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164
산업화와 인종주의의 전시 공간, 박람회 168
인물로 보는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 176

창의 **쑥쑥** 활동

국민 국가 건설 운동의 특징이 담긴 화폐 만들기 186

대단원 마무리

제국주의 침략은 아프리카에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 188



차례





V 세계 대전과 사회 변동

1. 제1차 세계 대전과 세계 질서의 변화

주제 40 제1차 세계 대전과 이후의 세계 192
주제 41 러시아 혁명과 소련의 성립 196
주제 42 발전하는 민주주의 198

2.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주제 43 중국의 민족 운동 202
주제 44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 204
주제 45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206

3. 제2차 세계 대전과 평화를 위한 노력

주제 46 전체주의와 제2차 세계 대전 208
주제 47 대량 학살과 인권 침해 212
주제 48 평화와 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 216

생각 쑥쑥 탐구
서프러제트를 찾아서 200

창의 쑥쑥 활동
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평화상 수여하기 218

대단원 마무리
난민들은 새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220

VI 현대 세계의 전개와 과제

1.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제3 세계의 등장

주제 49 냉전 체제의 형성 224
주제 50 식민지 해방과 제3 세계의 평화 모색 228

2. 냉전 체제의 완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

주제 51 베트남 전쟁과 냉전 체제의 변화 232
주제 52 1968년, 권위와 억압에 맞선 사람들 234
주제 53 냉전 체제의 붕괴와 국제 사회의 변화 238
주제 54 대중 소비 사회와 생태환경의 위기 242

3. 세계화와 지역 세계의 변화

주제 55 세계화의 여러 얼굴 244
주제 56 오늘날 세계의 과제 246

생각 쑥쑥 탐구
냉전과 우주 개발 경쟁 226
혁명가와 예술가의 삶으로 본 라틴 아메리카의 냉전 230
진실과 화해를 통해 어두운 과거 극복하기 240

창의 쑥쑥 활동
국제 분쟁을 주제로 탐사 보도 방송 대본 만들기 250

대단원 마무리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남겼을까? 252

- 찾아보기 254
- 인용 자료 및 사진 출처 258
- 연표로 역사 읽기 262
- 역사 학습을 돕는 누리집들 266
- 저자 소개 267
- 판권 268
- 오늘날의 세계 269



| 프롤로그 |

역사 학습의 기초



- 역사 학습의 의미와 목적
- 역사 학습의 기본 다지기
- 나도 역사가!

역사 학습의 의미와 목적



역사의 의미



역사란 인류가 살아온 기간의 이야기로,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말해요. 그러나 과거의 일을 모두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누군가가 기록한 사실 중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해 배워요. 따라서 역사란 '**과거에 일어난 사실**'과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록'은 기록하는 사람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만날 수 있어요. 역사책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소설책 등에서도 역사 속 사건이나 인물을 접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나 오래된 물건에도 역사가 담겨 있답니다.



역사 학습의 목적

역사가 무엇인지는 이해했지만, 역사 공부는 외울 게 많아 힘들다고요? 왜 과거의 일을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사실 역사는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낯선 과거로 떠나는 여행과 같아요. 여행을 하며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 것처럼 역사를 공부하며 다양한 지식을 쌓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탐구 1 각 학생의 말풍선과 관련된 역사 학습의 목적을 찾아 연결해 보자.



오늘날에 대한 이해

"과거는 현재를 낳고 미래도 낳는다."라는 말이 있다. 역사를 공부하면 오늘날의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다른 지역·시대와 비교하며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삶의 교훈과 지혜

과거에도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있었다. 역사 속 사람들의 고민과 시행착오(시도와 실패를 되풀이하다 점차 목표에 이르는 것)를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갈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일을 탐색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논리적·비판적 사고력과 폭넓은 시야

역사 자료를 꼼꼼히 읽고 그 의미를 찾을 때 논리적·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역사 속 다양한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신에 대해 폭넓은 시야와 유연한 사고를 갖출 수 있다.

다른 의견에 대한 이해와 존중

같은 사실을 다르게 해석·평가하는 다양한 견해를 만나고 논쟁하면서 나와 다른 의견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함께 살아가는 시민 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역사 학습의 기본 다지기



역사 탐구의 필수 자료, 사료



바닥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누군가 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서가 남아 있다면 과거를 추측할 수 있어요. 역사학에서는 과거를 탐구하는 데 단서가 되는 자료를 **사료**라고 불러요. 사료에는 문헌(문자 사료), 유적과 유물 등(비문자 사료)이 있어요.

• 우리는 역사 속 인물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문헌

과거 사람들이 문자로 기록한 사료이다. 문서, 책, 비석, 일기, 편지 등이 포함된다.



← **낭야대 각석**(중국국가박물관) 진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후 전국을 돌며 세운 비석 중 하나이다.



↑ **『사기』** 중국 한대에 쓰인 역사책으로, 시황제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유적과 유물

유적은 집터, 궁궐, 무덤 등 과거 사람들이 생활하거나 활동한 공간이다. 유물은 생활 도구와 같이 과거 사람들의 삶을 보여 주는 모든 물건이다.

↓ **병마용갱**(중국 시안) 진시황릉 근처에서 발견된 유적이다. 안에는 다양한 유물이 있었으며, 흙으로 빚은 병사 인형은 현재까지 8천여 개나 발견됐다.





역사를 탐구하는 방법



역사가는 사료를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상상력을 동원해 과거를 추론해요. 그러나 사료에는 작성자의 관점이 담겨 과거의 사실이 과장 또는 축소되어 있을 수 있고, 오류나 조작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는 **사료 비판**을 통해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를 서술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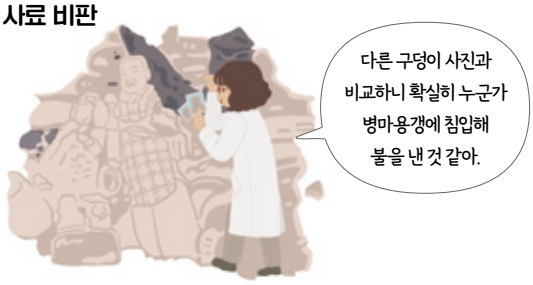
역사 탐구 및 서술

01 사료 수집



유적을 조사하거나 문헌, 유물 등을 수집한다.

02 사료 비판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사료의 내용이 믿을 만한지 검증한다.

03 역사 해석



검증한 사료를 바탕으로 과거를 추론하고 해석한다.

04 역사 서술



새롭게 추론한 역사적 사실을 글로 작성해 발표한다.

역사를 학습하는 방법

우리는 역사가들이 탐구해서 밝힌 내용을 학습해요. 이를 위해 주로 교과서를 활용하는데, 이때 역사 지도, 연표 등도 살펴보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역사를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요.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는 역사책을 읽거나 인터넷 자료 보관소(아카이브)(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공간)를 활용해요. 조금 더 생생하게 역사를 이해하고 싶다면 박물관이나 문화유산을 찾아가 보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볼 수도 있어요.

역사 학습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까?

역사 지도

역사적 사실이나 현상을 지도에 표현한 자료이다. 범례, 기호 등을 해석하면 많은 역사적 사건을 공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중국 문명의 영역

❶ **지도 제목 읽기** 지도가 다루는 시기, 지역, 주제 등을 안내한다.

❷ **범례 파악하기** 지도에 표현한 면, 선, 기호 등의 뜻을 알려 준다.

- 수도
- 일반 지명(주요 지명)
- 전쟁터나 분쟁 지역
- 성터나 산성
- 산
- 비(비석)
- 절
- 고분

❸ **위치도 확인하기** 지도가 세계 지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 준다.

연표 (262쪽 참고)

역사상의 사건을 연대순으로 나타낸 표이다. 표시된 사건명과 연도를 확인하면 역사 전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신라의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사전

단어의 뜻을 알려 주는 매체이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려운 단어를 접하면, 인터넷의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책으로 된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❷ 알맞은 단어 골라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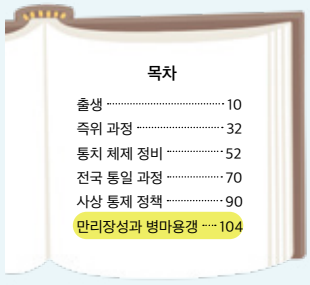


역사책

❶ 역사책 찾기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다루는 책을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는다.



❷ 역사책 읽기 차례를 활용해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 읽거나, 책의 전체 내용을 읽는다.



❸ 내용 정리 및 검토하기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두고, 비슷한 내용이 담긴 자료들과 비교하며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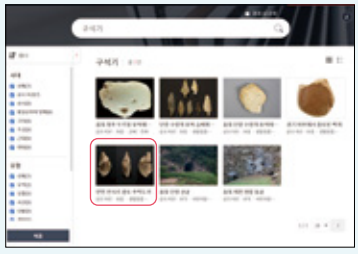


인터넷 자료 보관소 (266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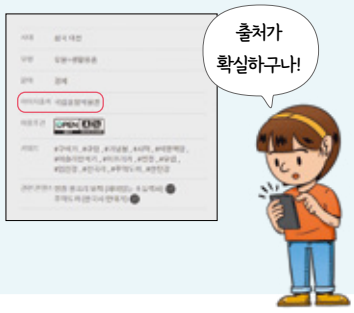
❶ 누리집 접속하기 국가 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운영하는 역사 자료 보관소를 찾아 누리집에 접속한다.



❷ 내용 검색하기 더 알고 싶은 내용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 중 알맞은 것을 선택한다.



❸ 출처 및 내용 검토하기 참고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믿을 만한 자료를 고른 후, 다른 자료들과 비교해 본다.



박물관·문화유산

관심 있는 역사와 관련된 문헌, 유물이 있는 박물관이나 문화유산을 방문해 자세히 살펴본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안내 자료를 수집해 역사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구술 자료

역사 속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경험자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거나 경험자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이나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역사의 무대, 시간과 공간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탐구해요. 특히 세계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변화를 다루죠. 이 때문에 역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확인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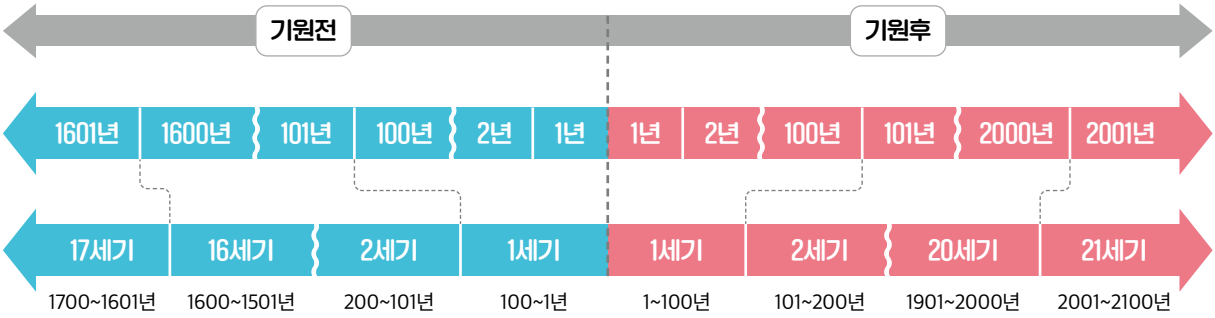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 구분하기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을 '**선사 시대**', 그 이후를 '**역사 시대**'라고 한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문자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연대 표시하기

나이를 세는 기준, 즉 시작점은 태어난 연도이다. 그렇다면 연도를 세는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서력기원(서기)을 사용해 연도를 표시한다. 이는 서양 달력 기원이라는 뜻이다.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서양에서는 예수가 탄생했다고 추정되는 해를 연대의 기준으로 삼아 그 이전을 **기원전**, 그 이후를 **기원후**로 구분해 왔다.

연대 표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세기 사용하기

연도를 일일이 표시하기 어려울 때는 100년을 묶어 '**세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1년부터 100년까지를 1세기, 101년부터 200년까지를 2세기라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2001년부터 2100년 사이에 있으므로 21세기인 셈이다.

탐구 ① 기준이 달라지면 연도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래 질문에 답해 보자.

Q. 기원전의 연도는 어떻게 셀까?



서기에서는 예수 탄생 이전을 '기원전 ○○년'이라고 표시하는데, 수학의 음수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 기원전 313년과 기원전 612년 중 언제가 더 옛날일까?

Q. 서기가 아닌 단기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서기가 아니라 단기를 사용해 연도를 표시한 적도 있대. 단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는 단기 몇 년일까?

추천 검색어 단기 몇 년

Q. 이슬람력은 무엇일까?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이슬람력을 서기와 함께 사용하기도 해. 이슬람력은 '헤지라'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한대. 이슬람력으로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일까?

추천 검색어 이슬람력(Hijri Calendar)

탐구 ② 세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기억하며 아래 질문에 답해 보자.

❶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1492년은 몇 세기일까?

❷ 임진왜란과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일까?

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원정에 나선 기원전 334년은 기원전 몇 세기일까?

❹ 고조선이 멸망한 기원전 108년은 기원전 2세기 초일까, 말일까?

잠깐! 기원전의 연도는 숫자가 클수록 더 옛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역사 학습의 기초

• 우리는 지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지명을 만난다. 혹시 모르는 곳이 나오면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찾아보는 것이 제일 좋다. 또한 흔히 쓰이는 지역 구분을 알아 두면 큰 도움이 된다.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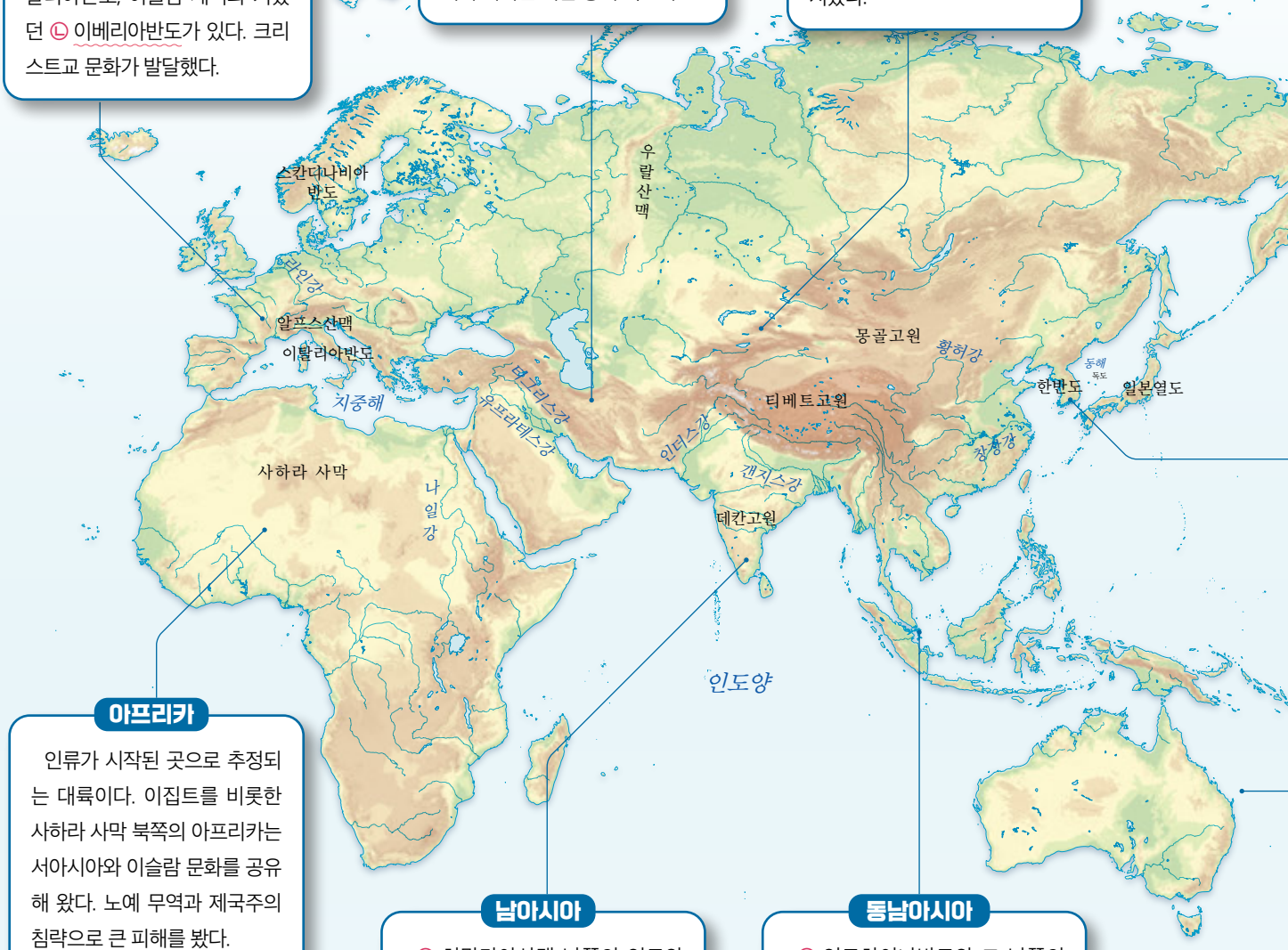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 문명이 시작된 ㉠ 발칸반도, 로마 제국이 성장한 이탈리아반도, 이슬람 세력과 겨뤘던 ㉡ 이베리아반도가 있다. 크리스트교 문화가 발달했다.

서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지역이다. 유럽과 접한 ㉢ 소아시아(아나톨리아반도), 이슬람교가 시작된 ㉣ 아라비아반도, 페르시아에서 이어진 이란 등이 속한다.

중앙아시아

건조 기후 지역으로, 오아시스에는 농경민이, 초원에는 유목민이 살았다. 초원길, 사막길 등 동서를 잇는 교역로가 이곳을 지났다.



아프리카

인류가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대륙이다. 이집트를 비롯한 사하라 사막 북쪽의 아프리카는 서아시아와 이슬람 문화를 공유해 왔다. 노예 무역과 제국주의 침략으로 큰 피해를 봤다.

남아시아

㉤ 히말라야산맥 남쪽의 인도와 그 주변 지역으로, 불교가 시작되고 힌두교 문화가 발달했다. 비단길과 인도양을 통해 주변 지역과 영향을 주고받았다.

동남아시아

㉥ 인도차이나반도와 그 남쪽의 여러 섬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바다를 통한 동서 교역의 중심지여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다.

탐구 ③ 각 지역에 대한 설명을 읽고, ㉠~㉤에 해당하는 곳을 찾아 지도에 표시해 보자.

잠깐! 검색을 하거나 사회과 부도에 있는 세계 지도를 활용해 보자.

북아메리카

서쪽으로 태평양, 동쪽으로 대서양을 접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있으며,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앵글로아메리카라고도 한다.

중앙아메리카

마야 문명이 발달했던 곳으로, 멕시코 등 여러 나라가 있다. 유럽의 신항로 개척 이후 대서양 삼각 무역이 이뤄진 곳이다.

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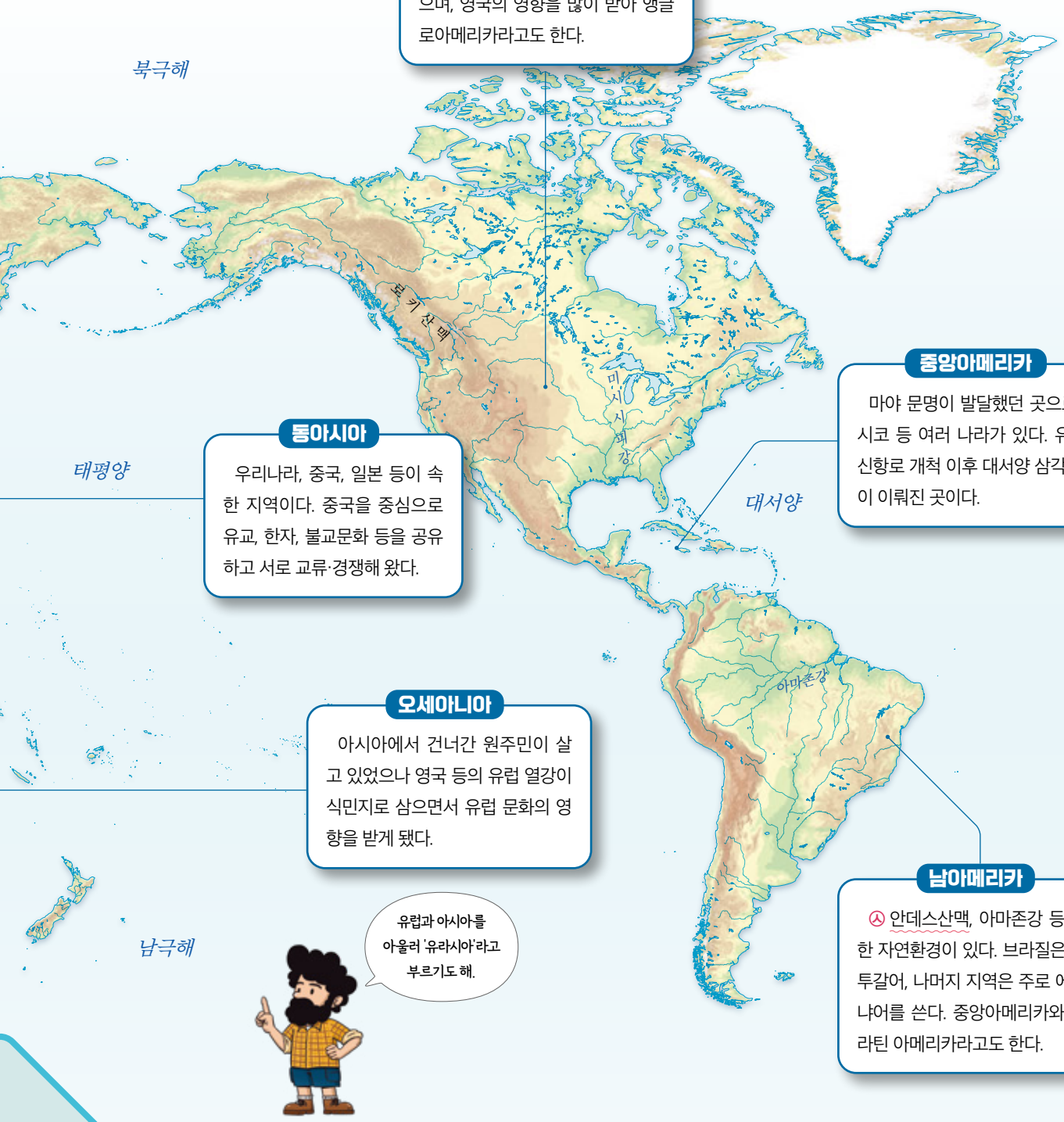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이 속한 지역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유교, 한자, 불교문화 등을 공유하고 서로 교류·경쟁해 왔다.

오세아니아

아시아에서 건너간 원주민이 살고 있었으나 영국 등의 유럽 열강이 식민지로 삼으면서 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됐다.

남아메리카

㉤ 안데스산맥, 아마존강 등 다양한 자연환경이 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나머지 지역은 주로 에스파냐어를 쓴다. 중앙아메리카와 묶어 라틴 아메리카라고도 한다.



나도 역사가!



잠깐! 사료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 정해진 답을 맞히려고 하기보다는 각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활동 ① 다음 사료를 분석해 보자.

사료 1 「중국에 대해, 왕과 황제들의 파이」

1898년 1월 한 프랑스 신문에 실린 그림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이라는 글자가 쓰인 파이 앞에 모여 있고, 그들 뒤에는 놀란 표정을 한 중국의 관리가 서 있다.

❶ 파이를 자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❷ 파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각각 어느 나라를 상징할까?

❸ 중국의 관리가 할 말을 상상해 써 보자.

❹ 그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자유롭게 추측해 써 보자.

❺ 그림에 표현된 역사적 상황을 교과서에서 찾아보자. (183쪽 참고)



사료 2 3·1 운동에 대한 일본 언론과 중국 언론의 보도

일제의 식민 통치에 시달리던 한국인들은 1919년에 3·1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자 일본과 중국의 언론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❶ 일본 언론과 중국 언론에서 3·1 운동을 표현한 단어를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❷ 두 나라가 3·1 운동을 다르게 표현한 까닭을 자유롭게 추측해 써 보자.

❸ 사료와 관련된 역사적 상황을 교과서에서 찾아보자. (202쪽 참고)

일본 언론의 보도

3월 중순경부터 경상남북 양도, 특히 불량한 주민의 소굴인 안동을 중심으로 폭도가 자주 일어났다. …… 불량한 한국인의 선동이 군중을 난폭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조선 총독부는 주모자를 검거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진압에 힘쓰고 있다.

- 『도쿄 아사히 신문』, 1919. 4. 6.

중국 언론의 보도

서울과 기타 지역에서 한국인의 혁명 행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행동이 조직적이고 용감한 것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 한국인의 독립운동은 지극히 수준이 높고 평화롭기 그지없다. 입으로 목청껏 "독립 만세"를 외쳤을 뿐이다.

- 『민국일보』, 1919. 3. 23.

활동 ② 지난해에 일어난 사건을 조사해 해당 연도의 역사를 써 보자.

활동 도우미

사건 검색하기 지난해에 일어난 사건을 검색해서 빈칸을 채워 보자. 추천 검색어 ○○○○년 10대 뉴스

'5대 사건' 고르기 검색한 사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흥미로운 것을 5가지 골라 자세히 조사해 보자.

사건					
날짜					
설명					
고른 까닭					

지난해의 역사 쓰기 직접 고른 5대 사건을 활용해 지난해의 역사를 써 보고, 모둠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31 쪽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는 자신을 태양신 아들로 칭했고 사람들로부터 살아 있는 최고신으로 여겨졌다. 파라오는 정치와 종교를 장악했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41 쪽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내전 끝에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권력을 차지했다. 원로원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바쳤다.



51 쪽

진왕은 스스로 시황제라고 칭하고, 농민들을 만리장성과 병마용갱 등의 대규모 공사에 동원했다.

46 쪽

석가모니는 오랜 고행 끝에 욕심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며, 브라만교의 신분 차별을 부정했다.

I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1. 선사 문화와 문명의 특징
2. 고대 서아시아·지중해 세계의 형성
3. 고대 동아시아·인도 세계의 형성

이번 중단원에서는 선사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해하고, 각 문명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주제 1

인류의 출현과 선사 문화

핵심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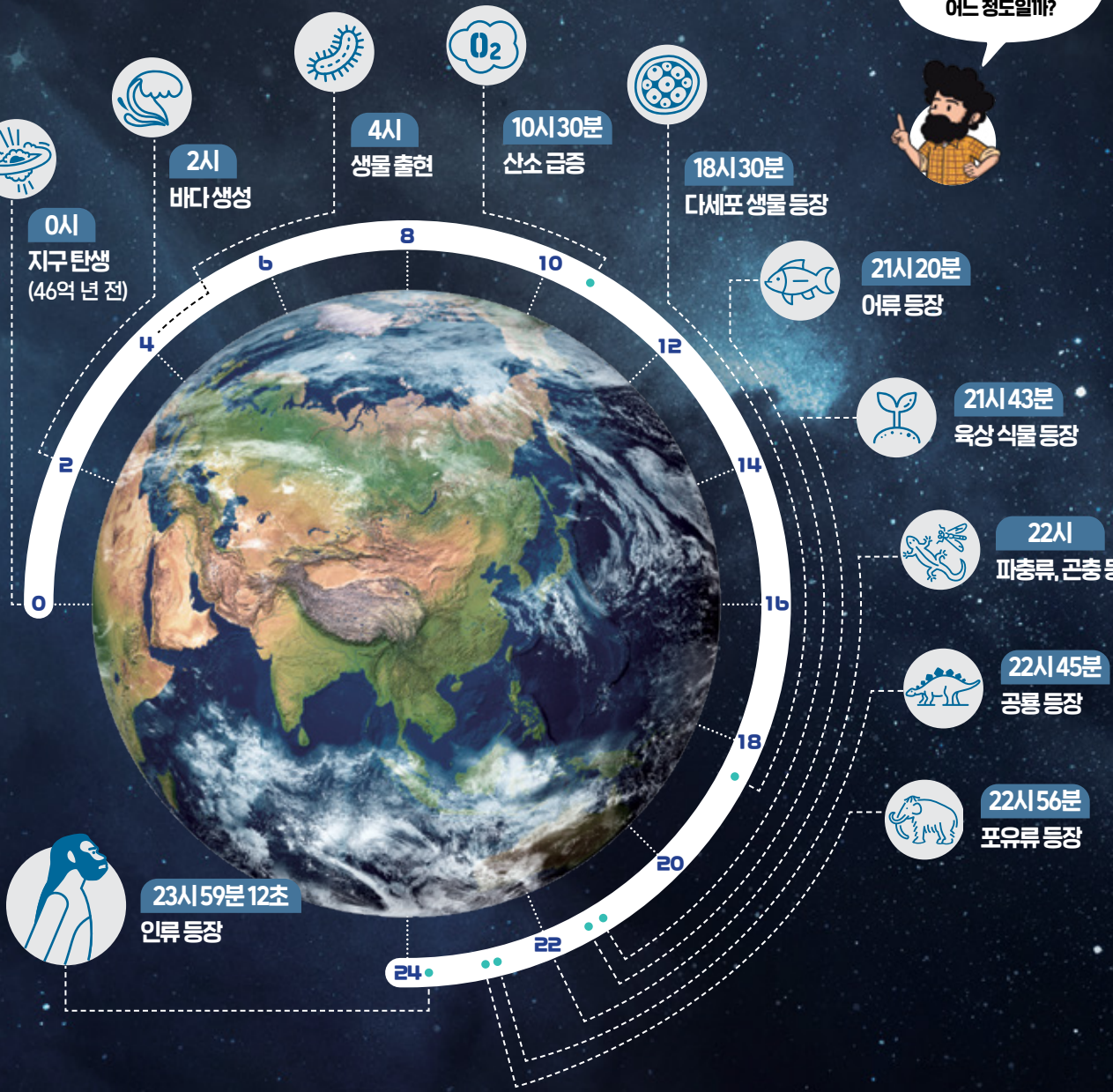
인류는 언제 등장했고, 선사 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

01 지구의 탄생과 인류의 등장

약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다. 거대한 용암 덩어리였던 지구가 서서히 식어가며 육지와 바다가 만들어졌다. 이후 여러 변화가 일어나 생명체가 등장했고, 단세포 생명체는 점점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인류(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해 이르는 말)가 등장했다. 지구의 역사에서 인류의 등장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현재의 인류는 지구상 먹이 사슬의 가장 위에 존재하며, 바다·공기·토양 등 생태계 전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됐다.

• 24시간으로 표현한 지구의 역사

- 생태 문화 전시관 '더 플래닛'



02 인류의 진화

인류는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등장했다. **허리를 펴고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일부 영장류(인간과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등을 포함한 생물종)는 네 발로 걸을 때보다 멀리 보고 적은 힘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했다.

초기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등장했다. 뼈 화석과 발자국 화석 등으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인류의 진화는 일직선이 아닌 나무줄기처럼 여러 갈래로 일어났다. 진화 과정에서 많은 종이 등장했다가 사라졌고, 동시에 여러 종이 공존하며 경쟁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현재 인류의 직계(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한 종만 남았다.



↑ **뼈 화석**(에티오피아국립박물관)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뼈 화석이다. 이 화석은 '루시'라고 불리며, 연대가 오래된 화석 중에는 드물게 몸 전체 뼈의 40%가 발굴됐다. 루시는 초기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속한다.

● 발자국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1. 두 발로 걷던 원시 인류가 발자국을 진흙에 남겼다.
2. 발자국이 말라 굳고, 그 위에 화산재 등이 쌓여 발자국 모양이 유지됐다.
3. 지층이 쌓이면서 발자국 화석은 더욱 땅속 깊이 파묻혔다.
4. 여러 자연 현상으로 지층이 깎여 나가면서 발자국 화석이 드러난다.



← **라에톨리 발자국 화석**(탄자니아 엔둘레니) 1978년에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발자국이다. 인류가 두 발로 서서 걸었다는 증거로, 화산재 위에 남은 발자국이 굳어 생겼다.

● 인류의 진화 과정

- 이상희, 『인류의 진화』



03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인류가 처음으로 돌을 깨뜨려 도구를 만들던 시기를 **구석기 시대**라고 한다. 구석기 시대에는 빙하기(땅 표면의 많은 부분이 빙하로 덮여 있던 추운 시기)가 길었고, 기후 변화가 잦았다. 구석기인은 무리 지어 생활하며 언어, 도구, 그리고 불을 사용했다.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약 30만 년 전부터 구석기 문화가 나타났다. 이 시기 한반도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연결되어 사람들이 서로 이동하며 살 수 있었다.

구석기 도구들

도구 구석기인은 자연 상태의 나무와 돌을 사용하다가 점차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내 만든 **뗀석기**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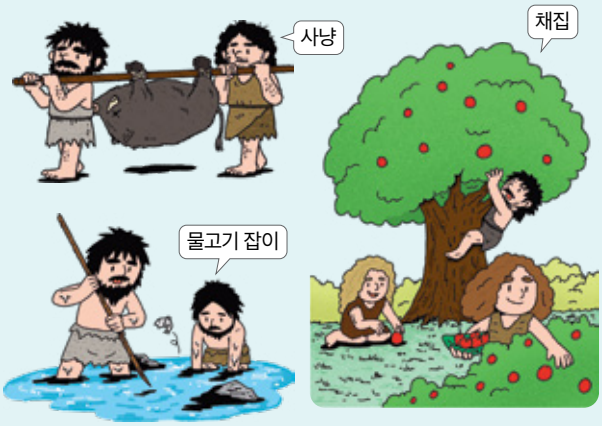
(프랑스 툴루즈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 **주먹 도끼**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돌도끼로, 손에 쥐는 쪽은 둥글고 반대쪽은 뾰족하게 날을 세운 형태가 대표적이다.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이런 형태의 주먹 도끼가 동아시아 최초로 발견됐다.

거주 구석기인은 먹을 것을 찾아 주로 **이동 생활**을 했다. 먹을거리가 풍부한 곳에서는 동굴과 바위 그늘 등에 한동안 머무르거나 막집을 짓고 살았다.

식량 구석기인은 주로 나무 열매와 식물 뿌리를 채집(필요한 것을 찾아 얻거나 캐면서 모으는 일)하거나 짐승과 물고기를 사냥해 먹을거리를 구했다.





← **불의 사용** 불을 사용해 추운 날씨를 견디고, 짐승의 공격을 막아냈다. 불로 익힌 음식이 소화하기 더 좋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인류의 뇌가 발달하는 데 영향을 줬다.

신앙 동굴 벽에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흙으로 예술품을 빚었다.



→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오스트리아 빈자연사박물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라스코 동굴 벽화**(프랑스 몽티냑) 소, 말, 사슴과 같은 동물이 많이 그려져 있다. 약 1만 5천 년 전에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며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04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다. 이 시기에는 따뜻해진 날씨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오늘날과 비슷한 생태환경이 만들어졌다. 신석기인은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농경**(논밭을 갈아 농사를 지음.)과 **목축**(소·말·양·돼지 등의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하며 식량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다.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8000년경에 신석기 문화가 나타났다.

신석기 도구들



도구 신석기인은 돌을 갈고 다듬어 뗀석기보다 더 정교한 **간석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보관하거나 간단한 조리를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이라크 아르빌문명박물관)

↑ **빗살무늬 토기와 메소포타미아 토기**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토기가 만들어졌다.

↑ **돌도끼날** (국립중앙박물관)



거주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먹을거리가 더 풍부해지자,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며 **정착 생활**을 하는 집단이 늘었다. 농경을 시작하면서 마을은 점점 커졌다.

식량 신석기인은 곡식을 기르고 야생 동물을 길들여 가축으로 키웠다. 그러나 이후에도 식량을 마련하기 위한 채집과 사냥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 **타실리나제르 동굴 벽화 속 농경과 목축**(알제리 일리지) 땅에 있는 이삭을 줍는 모습과 소를 사육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신앙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인간의 사상과 신앙도 함께 발전했다. 주로 농사에 영향을 주는 해, 달, 물 등의 자연물이나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탐구 ②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 **암사동 선사 유적지의 움집**(서울 강동)



함께 확인해요

❶ 여러 종의 인류가 공존하고 경쟁하며 진화했고, 오늘날에는 □□ □□ □□ 한 종만이 남았다.

❷ **생각 UP** 생태환경의 변화는 선사 시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 쑥쑥 탐구

농업 혁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이 주는 먹을거리를 찾아 먹던 인류는 신석기 시대부터 식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농경의 규모가 커졌고, 이는 '농업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류의 역사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농경이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왔다고 흔히 말하지만, 오히려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 두 입장을 읽고 농경의 시작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까요?

주장

01 농업 혁명은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왔다

농업 혁명은 인류의 생활을 많이 바꿨습니다. 더 많은 곡식을 재배해 곡물 중심의 식생활이 자리 잡았고, 정착 생활이 늘어나면서 식량을 찾아 떠돌아다녀야 했던 수렵 시대보다 아이를 낳는 간격이 짧아져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류 안에서 수많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고, 이는 오늘날 다양한 인류가 만들어지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농경에 필요한 물을 다루는 기술이나 농사 시기를 파악하는 전문 지식 등이 발전했습니다. 농경으로 협동 노동을 경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다 보니 대규모 집단생활도 가능해졌죠. 그 결과 도시가 발달하고 많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쌓여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인간답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농경의 시작에서부터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혜택이 농경 없이 가능했을까요?



주장

02 농업 혁명은 인류가 빠진 함정이다

농경을 시작하기 전 인류는 채집과 수렵하는 시간 외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경을 시작하면서 노동 시간이 늘어났죠. 게다가 한정된 종류의 곡식에 의존하는 식생활로 섭취하는 영양소가 다양하지 않았고, 몸집은 이전보다 작아졌습니다.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수확량도 일정하지 않았죠.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마을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전염병에도 더 많이 노출됐습니다. 게다가 농경지를 늘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곡식 위주로 농사를 지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식물의 다양성이 훼손됐어요.

농경으로 이전보다 인류의 생활이 풍요로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사람마다 가질 수 있는 식량의 양이 달라졌고, 식량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지배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먹는 석기 시대의 평등 사회는 이제 없어진 거죠. 권력을 지닌 지배 계급은 왕궁과 무덤을 만들거나 전쟁할 때 사람들을 동원해 노동시켰습니다. 이렇듯 농경의 시작은 여러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탐구해요

❶ 농업 혁명에 대한 두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구분	근거
주장 1	
주장 2	

❷ 논술 UP) 농업 혁명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문장으로 쓰고, [보기]의 단어들을 참고해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보기]
집단생활, 기술, 전문 지식, 영양, 문명, 노동 시간, 식물 다양성, 지배 계급



주제 2

세계 고대 문명의 형성

관련 주제
→ 주제 3(34쪽)
→ 주제 6(46쪽)
→ 주제 7(50쪽)

핵심 질문
세계 곳곳에서 고대 문명이 등장한 배경과 각 문명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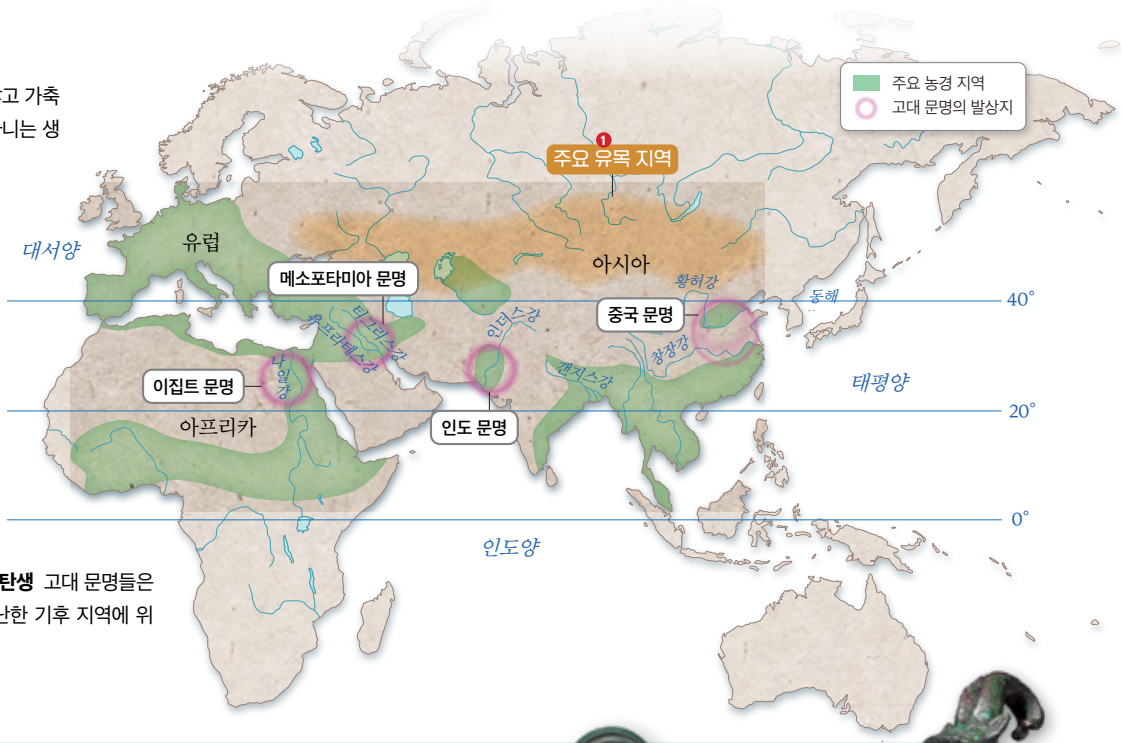
01 고대 문명의 등장

인류가 이룩한 물질·사회적 발전

농경을 시작한 인류는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큰 강 유역(강물이 흐르는 언저리)에 모여 살았다. 이들은 홍수를 막고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관개 시설(농사에 필요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공 시설)을 설치하며 농업 생산량을 늘렸다. 쓰고 남은 생산물을 나눠 가지면서 **사유**(개인이 가지는 것) **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재산과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는 집단이 나타나 **계급**이 발생했다.

지배 계급은 사람들을 동원해 대규모 관개 시설, 궁전과 신전 등을 지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도시 중 일부는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이용해 **정복 전쟁**을 벌이며 세력을 넓히고, 주변 지역과 교역(지역 또는 나라 간에 물건을 교환하거나 사고파는 것)하며 **도시 국가**로 성장했다. 또한 원활한 통치와 교역을 위해 **문자**가 활용됐다. 이로써 인류는 문자가 없는 선사 시대에서 문자로 기록하는 역사 시대로 들어섰다.

❶ **유목**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않고 가축이 먹을 풀밭과 물을 찾아 옮겨 다니는 생활을 뜻한다.



→ **주요 농경 지역과 고대 문명의 탄생** 고대 문명들은 북위 20도에서 40도 사이의 온난한 기후 지역에 위치한 큰 강 유역에 모여 있다.

• 새로운 도구, 청동기의 등장

청동은 구리를 주성분으로 주석과 아연 등을 섞어 만든 합금이다. 청동을 만들려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했고, 재료인 주석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든 도구(청동기)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다. 그래서 주로 전쟁에서 활용하기 위해 무기로 만들거나, 장신구와 제사 도구로 만들어 지배층의 권력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했다.



↑ **청동 무기**(영국박물관)



→ **청동 팔띠**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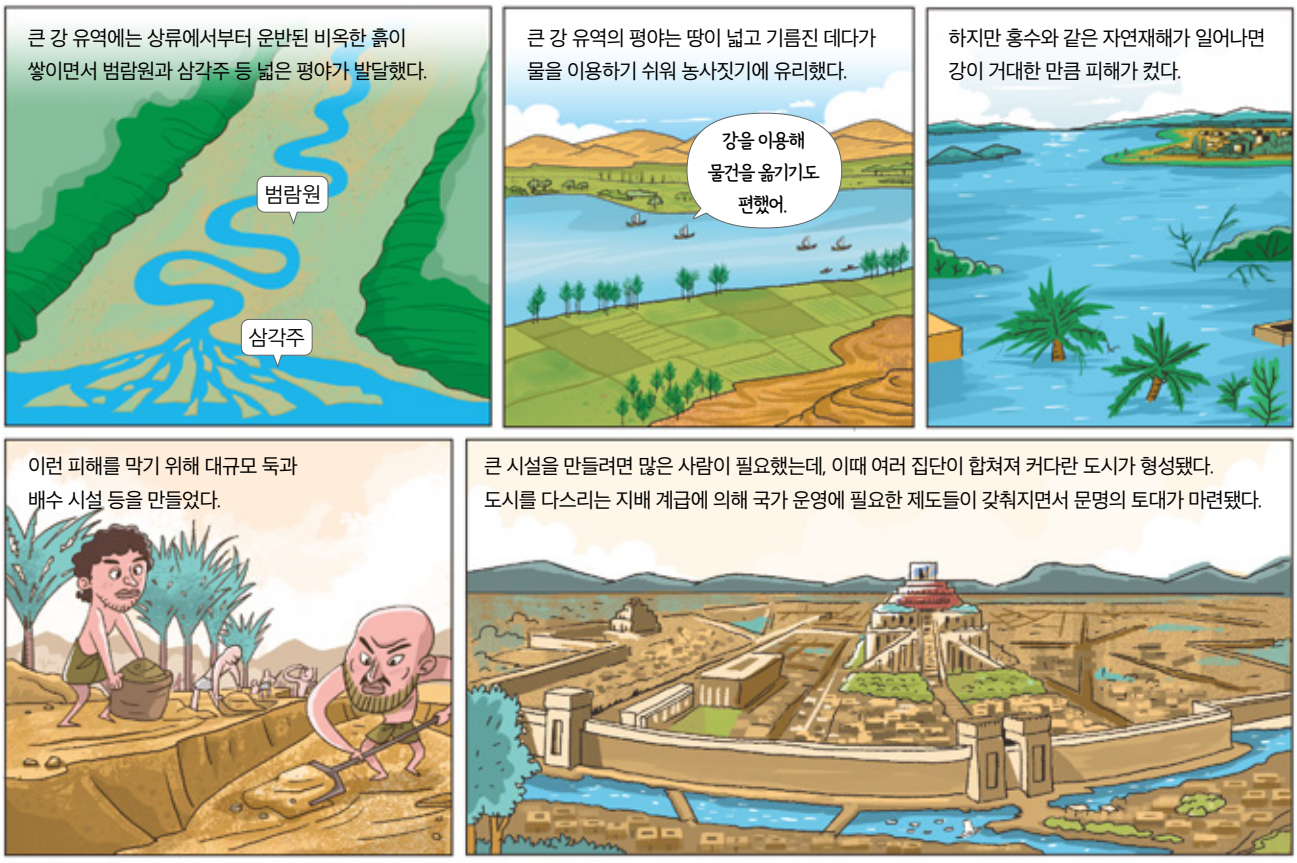


→ **청동 거울**(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 **청동 신상**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왜 큰 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했을까?



Q. 문명은 큰 강 유역에서만 발생할까?

문명이 반드시 큰 강 유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야. 산림이 많은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옥수수나 토마토 등을 재배하기 위해 산비탈에 계단식 밭을 만들고, 숲의 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돌담을 쌓으며 문명을 발전시켰어.

Q. 고대 문명은 4개밖에 없을까?

보통 '4대 문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러 지역에서 고대 문명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 특히 페루에서는 기원전 30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문명의 흔적이 발견됐대.



올멕 두상 (멕시코 할라파 인류학박물관)



노르테 치코 문명의 피라미드(페루 리마)



↑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역**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두 강 사이에 놓인 땅'을 뜻한다.

02 비옥한 초승달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땅으로, 토지가 비옥해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했다.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인이 도시 문명을 이뤘고, 도시 중심에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신전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왕은 신을 대신하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쐐기 문자**를 점토판에 새겨 왕의 통치와 제사, 교역 내용 등을 기록했다.

기원전 18세기에는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왕**이 이 지역 대부분을 장악했다. 그는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해 통치 체제를 정비하며 전성기를 이뤘다. 이후 바빌로니아 왕국은 약 200년간 유지됐지만, 기원전 16세기에 철기로 무장한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 쐐기



↑ **쐐기 문자** 점토 위에 뾰족한 갈대로 새겨 쓴 문자이다. 문자의 선이 쐐기 모양과 같아서 붙은 이름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문자이다.

쐐기 문자 기록

『함무라비 법전』으로 보는 메소포타미아 사회

- 195조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 196조 귀족이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도 멀게 한다.
- 198조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 1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 199조 귀족이 다른 사람 노예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그 노예 가격의 반을 지불해야 한다.



↑ **쐐기 문자로 새긴 법령**

→ **함무라비 법전비**(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상단에는 신에게 지휘봉과 반지를 받으며 왕권을 인정받는 함무라비왕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하단에는 쐐기 문자로 총 282개 조항이 새겨져 있다.

탐구 1 법전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사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 **지구라트**(이라크 나시리야) 벽돌로 높은 기단을 쌓고 꼭대기에 신전을 지었다.



03 나일강의 선물, 이집트 문명

이집트 지역의 나일강은 일정 시기마다 범람(큰물이 흘러넘치는 것)해 강 주변에 비옥한 흙이 많이 쌓였다. 이에 많은 사람이 나일강 유역에 모여 농사를 지었고, 일부 지역에는 도시가 출현했다.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기 위해 천문학과 수학이 발달했으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1년으로 정한 달력(태양력)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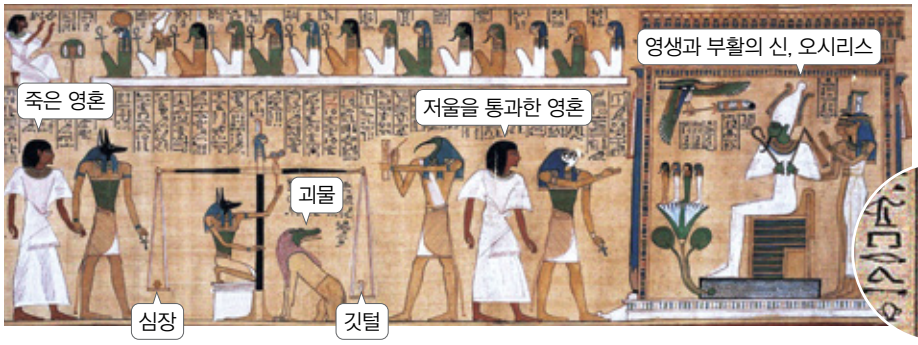
기원전 3000년경에는 여러 도시를 통합한 통일 왕국이 등장했다.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는 자신을 태양신 아들로 칭했고 사람들로부터 살아 있는 최고신으로 여겨졌다. 파라오는 정치와 종교를 장악했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이집트인은 **상형 문자**(물건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로 파라오의 업적을 비롯한 다양한 기록을 파피루스 등에 남겼다.



↑ **이집트 문명의 영역** 매년 8, 9월에 나일강이 규칙적으로 흘러넘쳐 주변에 물과 흙을 공급했다.

영혼의 부활을 믿은 고대 이집트인

이집트인은 죽은 뒤에도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저승으로 간다고 믿었다. 저승에서 심판받고 영혼이 부활하려면 육체가 필요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파라오가 죽으면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거대한 피라미드에 모셨고, 사후 세계의 안내서인 『사자의 서』를 함께 묻었다.



↑ **『사자의 서』 중 심장 무게를 재는 장면**(영국박물관) 심장은 살아 있을 때의 양심을 뜻하며, 이 심장을 저울에 올려 정의를 상징하는 깃털과 함께 무게를 잰다.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괴물이 심장을 먹고, 깃털보다 가벼우면 영생을 얻어 부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파피루스** 나일강에서 자라는 식물로, 줄기를 가늘게 자르고 말려 종이처럼 사용했다. 'paper(종이)'의 어원이다.



← **『사자의 서』에 있는 상형 문자**

탐구 ② **영혼의 부활에 관한 이집트인의 믿음을 보여 주는 다른 유물과 유적을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스핑크스, 미라관

내세관과 관련된 이집트 유물들



→ **피라미드**(이집트 기자) 피라미드 공사는 주로 강물이 범람해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 진행됐고, 농민에게 노동의 대가로 품삯을 제공했다.

→ **미라관**(네덜란드 국립고고학박물관)



인도 문명의 영역과 아리아인의 진출 인더스강 유역은 평야 지대이자, 서아시아와 접해 있는 교통의 요지였다.



하라파에서 발굴된 인장(영국박물관) 상형 문자가 담긴 인장으로,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는 않았다.

❷ **불가촉천민** 접촉할 수 없는 천민이란 뜻으로, 인도의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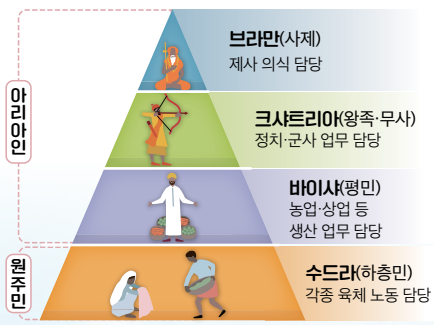
04 인더스강 유역에서 피어난 인도 문명

인도의 북서부에 있는 인더스강 유역에서는 기원전 2500년경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등의 계획도시들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청동기와 상형 문자를 사용했다. 또한 상업이 발달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활발히 교역했다.

기원전 1500년경에 중앙아시아 유목민이었던 **아리아인**이 인더스강 유역을 침입했다. 이들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기원전 1000년경에는 갠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했다. 아리아인은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 농업을 발전시켰고, 철제 무기로 정복 전쟁을 벌여 도시 국가를 세웠다. 아리아인은 원주민(그 지역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카스트**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베다**』라는 경전을 만들어 농경과 관련 있는 태양, 물, 바람 등의 자연 현상을 신으로 여기고 믿었다. 이런 믿음이 발전해 **브라만교**라는 종교가 탄생했고 브라만 계급의 권위를 높였다.

아리아인이 만든 신분 제도, 카스트

고대 인도에서는 카스트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됐다. 카스트는 사람을 4개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시간이 흘러 카스트에 속하지 못하는 ❷**불가촉천민**도 생겼다. 서로 다른 카스트끼리는 결혼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는 일도 금지됐다. 현재 인도에서는 카스트로 인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일상생활에는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



카스트제의 신분 구조

탐구 ③ 아리아인이 엄격한 신분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모헨조다로(파키스탄 라르카나) 도로와 하수 시설, 벽돌로 만든 집, 공중목욕장 등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약 3만 5천 명의 인구가 살았던 계획도시였다. 건물과 도시 시설을 만들기 위해 계속 벽돌을 구웠는데, 불을 피울 나무를 구하는 과정에서 숲이 파괴됐다. 이에 홍수와 가뭄에 취약해져 문명이 쇠퇴하는 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한다.



05 황허강 유역에 자리잡은 중국 문명

황허강과 창장강 유역에는 기원전 2500년경부터 청동기를 사용하고 정치 조직을 갖춘 도시 국가가 출현했다. 기원전 1600년경에 상이 황허강 유역의 여러 국가를 통합했다. 상의 왕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크고 화려한 청동기를 만들었다. 또한 농사나 전쟁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거북의 배딱지(갑)나 동물 뼈(골)를 이용해 점을 쳤다. 점친 내용을 갑골에 기록했는데, 이를 **갑골문**이라고 한다.

상의 서쪽에서 성장한 주는 기원전 1100년경에 세력을 넓혀 상을 멸망시켰다. 주는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왕이 수도와 주변 지역을 직접 통치하고, 지방은 혈연관계인 왕족이나 공신(나라를 위해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을 제후(황제로부터 일정 영토를 받아 그 지역의 백성을 다스린 사람)로 삼아 다스리는 **봉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제후의 세력이 커지면서 주 왕실의 통제력이 약해졌고, 이런 가운데 기원전 8세기에 유목 민족의 침입으로 쇠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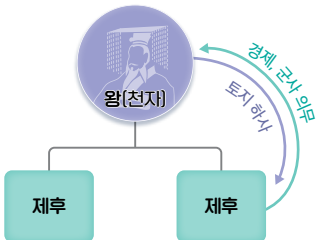
↑ 중국 문명의 영역


← **갑골문**(중국 은허박물관) 동물 뼈에 구멍을 내고 불에 구워 갈라진 모양으로 점을 쳤다. 오늘날 한자의 기원이 됐다.

갑골문 기록

제후들이 지방을 다스리게 한 봉건제

봉건은 '토지를 나눠 주어 제후로 삼고(封: 봉할 봉) 제후국을 세운다(建: 세울 건)'라는 뜻이다. 왕은 제후에게 다스릴 토지를 주고, 제후는 왕에게 물자와 군사를 제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왕과 제후 간의 혈연관계가 멀어지고, 제후에 대한 왕실의 통제력도 약해졌다.



↑ 주의 봉건제

탐구 ④ 주의 봉건제가 지닌 한계를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 권력의 상징이었던 중국 고대의 청동기

상과 주에서는 청동기를 주로 제사에 사용했고, 이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권력을 상징했다. 신분에 따라 왕과 제후 등이 가질 수 있는 청동기의 개수도 정해져 있었다.


↑ **청동 솥**(중국 상하이박물관) 왕이 제후에게 토지를 나누어 줄 때 청동 솥에 그 내용을 적어 전달하기도 했다.


→ **코끼리 모양 청동 그릇**(중국 허난성박물관) 청동 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동물 모양 청동 그릇도 만들어졌다.

함께 확인해요

[보기]
문자 사용, 파라오, 큰 강 유역, 갑골문, 함무라비 법전, 청동기 사용, 파피루스, 지구라트, 카스트, 계급, 봉건제, 브라만교

❶ [보기]에서 4대 문명의 공통점을 보여 주는 단어를 찾아 써 보자.

❷ [보기]에서 각 문명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제시어를 찾아 빈칸에 알맞게 써 보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이번 중단원에서는 서아시아와 지중해 세계의 정치 체제들을 비교하고, 종교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3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관련 주제
→ 주제 2(28쪽)
→ 주제 12(74쪽)

핵심 질문
서아시아를 통일한 페르시아는 제국으로 성장했지만, 그리스에는 여러 도시 국가가 발전했다. 두 지역은 어떻게 달랐을까?

01 서아시아를 정복한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왕국 멸망 이후(30쪽 참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포함한 서아시아에는 많은 나라가 등장해 세력을 다퉜다. 기원전 7세기에 아시리아 ❶제국이 메소포타미아 대부분을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위협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정복지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과도한 세금을 걷는 강압적 통치 때문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 멸망했다. 이후 기원전 6세기 중엽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분열된 서아시아를 다시 통일했다.
(같은 왕가에 속하는 통치자들이 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제국 지배

> 신은 온 세계를 뒤져 정의로운 왕을 찾았다. …… 신은 나를 전투 없이 평화롭게 입성하게 해 바빌론을 고난에서 구했다. …… 나는 키루스, 온 세상의 왕, 위대한 왕, …… 온 사방의 왕이다. …… 주변의 모든 왕이 …… 바빌론에 와 내 발에 입을 맞췄다. …… 나는 모든 백성을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게 했다.
>
> - 키루스 2세의 원통 비문



↑ **키루스 2세의 원통**(영국박물관) 키루스 2세가 바빌로니아의 수도인 바빌론을 정복한 후 자신의 업적을 쐐기 문자로 새겼다.

탐구 ① 키루스 2세가 밑줄 친 내용의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❶ **제국** '황제 국가'라는 뜻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주변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큰 나라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 **날개 달린 사자 장식 뿔잔**(이란 국립박물관)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유물로, 다리우스 궁전에서 출토됐다.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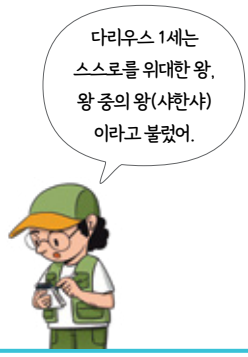


왕의 길은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약 2,400km에 이르는 도로망이야. 일정 거리마다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역참이라는 시설을 뒀어.



02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반란을 진압하고 이집트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영토를 정복했다. 그는 중앙 집권 체제(나라의 권력이 중앙(왕)에 집중된 정치 형태)를 강화하기 위해 넓은 제국을 20여 개 주로 나눠 총독(맡은 구역의 행정 책임자)을 파견하고, 총독들을 감시하기 위해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관리의 비리 등을 감독하는 사람)도 보냈다. 그리고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왕의 길**'이라는 도로를 건설하고,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도 만들려 했으며, 화폐 및 도량형(길이, 부피, 무게 등의 단위를 재는 법)을 정비했다.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조로아스터교**를 강조하는 한편, 다양한 종교와 전통을 인정해 제국을 안정시키려 했다.



조로아스터교는 어떤 종교일까?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신 아후라 마즈다는 빛과 진리를 상징한다. 세계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이 대립하며, 선을 택하면 구원받고 악을 택하면 벌을 받는다고 믿었다. 최후의 심판을 하는 날이 오면 죽은 자들이 부활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도 생각했다. '최후의 심판', '부활', '천국과 지옥' 등의 요소는 훗날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끼쳤다.



➔ **아후라 마즈다 아래에서 포로를 밟고 있는 다리우스 1세 조각**(이란 케르만샤)

탐구 ② 다리우스 1세가 오른쪽 조각을 새긴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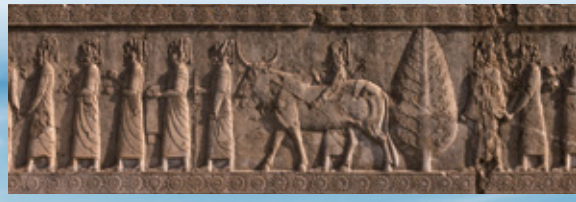
●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이란 시라즈)

다리우스 1세와 그 후계자가 건설한 수도로, 제국 곳곳의 다양한 건축 재료와 건축 기법을 총동원해 제국의 위용을 과시했다.

만국의 문과 동물 투쟁도

평평한 면에 글자나 그림 등을 새기는 것

아파다나 궁전의 계단 부조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다양한 조공품을 바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다리우스 궁전 페르세폴리스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세워진 건물 중 하나로, 다리우스 1세의 여름 궁전이라고도 불린다.

03 도시 국가들로 구성된 고대 그리스



↑ **올림피아 제전의 달리기 모습**(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달리기, 멀리 뛰기, 창 던지기, 레슬링 등의 종목이 있었고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으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주로 가리킴.

그리스는 일찍부터 오리엔트 지역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했다. 산과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해 곳곳에 여러 도시 국가가 발전했는데, 이를 **폴리스**라고 한다. 대표적인 폴리스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다. 폴리스들은 서로 경쟁했지만, 대부분 그리스어를 쓰고 같은 신을 믿는 등 동족 의식도 있었다. 정기적으로 올림피아 제전을 열어 화합을 추구하기도 했다.



↑ **도편 추방에 쓴 도기 조각**(그리스 아고라박물관) 아테네에서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적게 했고, 그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10년간 추방했다.

아테네

초기에는 귀족이 정치를 이끌었으나,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부유한 평민이 등장하고 이들이 정치 참여를 요구하면서 **민주정**이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도편 추방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스파르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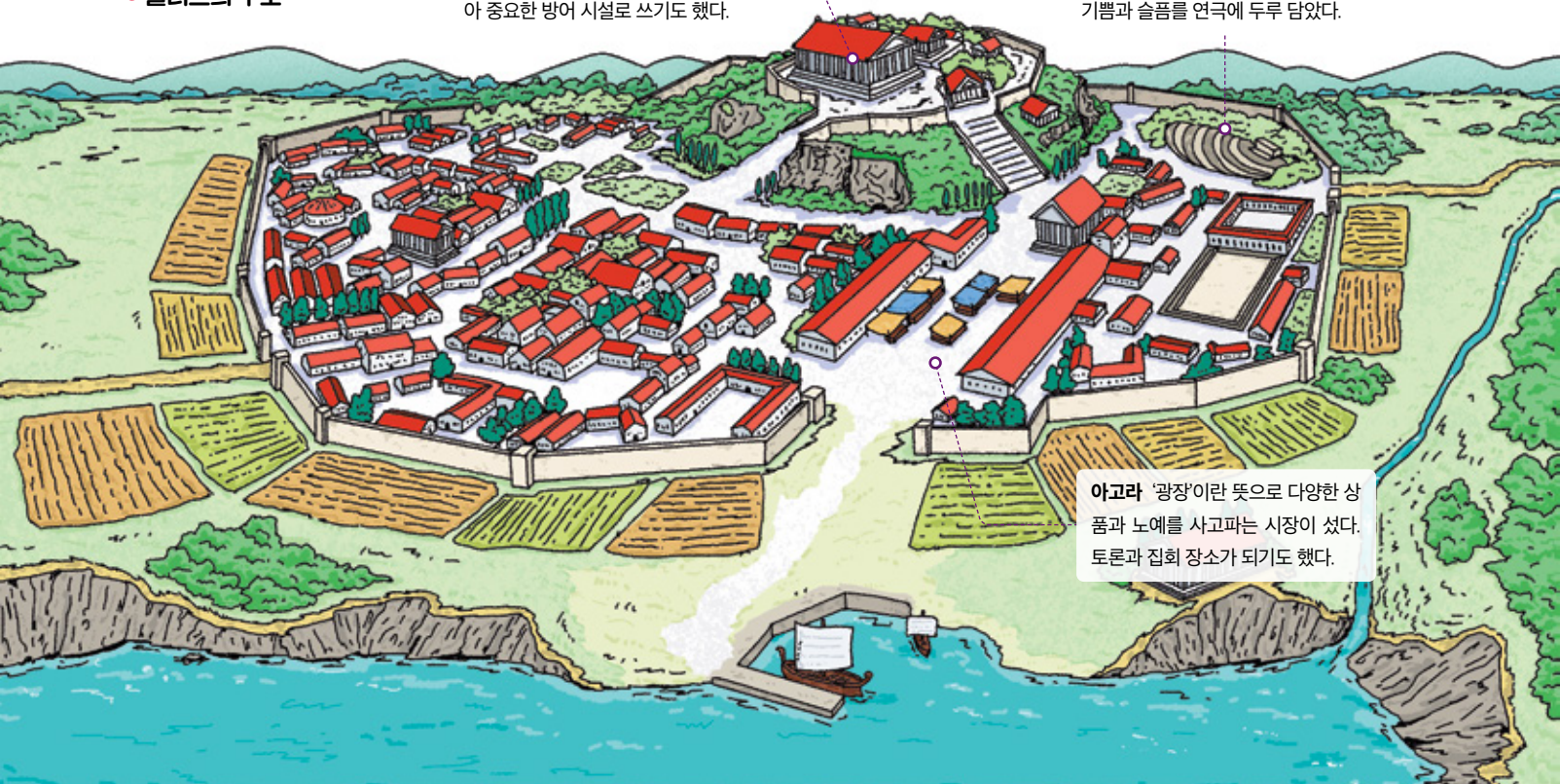
이웃 폴리스를 정복해 노예로 삼으면서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통제하는 폐쇄적인 사회로 발전했다. 모든 남성 시민을 강한 전사로 키우기 위해 어릴 때부터 엄격한 교육과 군사 훈련을 시켰다.



• 폴리스의 구조

아크로폴리스 '높은 도시'라는 뜻으로 신전과 군사 시설이 있으며, 성벽을 쌓아 중요한 방어 시설로 쓰기도 했다.

원형 극장 그리스인에게 연극은 중요한 오락거리였다. 신에 대한 찬양, 삶의 기쁨과 슬픔을 연극에 두루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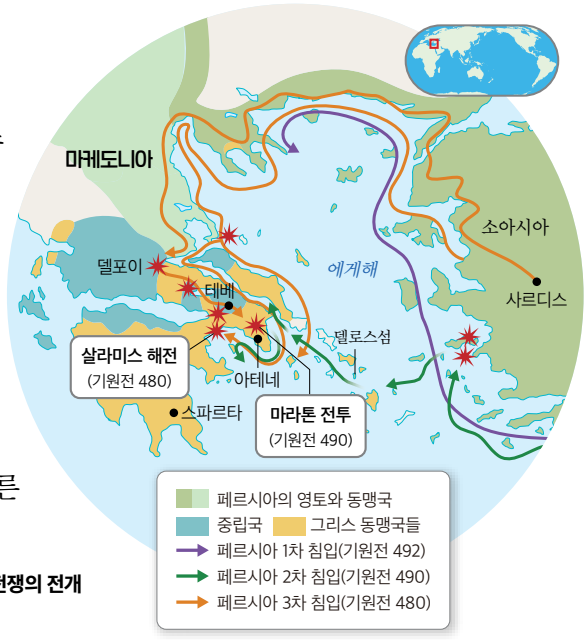
아고라 '광장'이란 뜻으로 다양한 상품과 노예를 사고파는 시장이 섰다. 토론과 집회 장소가 되기도 했다.

04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과 그 영향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통로

그리스가 소아시아에서 세력을 키워 나가자, 기원전 5세기 초 페르시아는 대군을 동원해 그리스를 공격했다(**그리스·페르시아 전쟁**). 그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뭉쳐 이를 막아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정복의 실패로 세력이 약해졌다.

한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테네는 그리스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아테네는 **민회**를 중심으로 민주 정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페르시아가 다시 침입할 것을 대비해 **델로스 동맹**을 주도하며 다른 폴리스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의 전개**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공직자 대부분과 배심원은 **추첨**으로, 장군 등 일부는 선거로 뽑았다.



가난한 사람이 경제적 문제 없이 공직과 재판에 참여하도록 **수당**을 줬다.



여성과 외국인, 노예를 제외한 성인 남성만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부여받았다.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페리클레스의 연설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므로 우리 정치 체제를 **민주 정치**라고 부릅니다.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다. 주요 공직 취임에는 …… 능력이 중요합니다. ……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페리클레스**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승리 후 아테네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탐구 ③ 밑줄 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테네가 시행한 정책은 무엇일까?

탐구 ④ 아테네 민주정이 지닌 한계는 무엇일까?

탐구 ⑤ 공직 추첨제를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함께 확인해요

❶ 다리우스 1세는 아후라 마즈다를 섬기는 □□□□□□을/를 이용해 왕의 권위를 높였다.

❷ 아테네는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❸ **생각 UP**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주제

4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동서 융합

관련 주제
주제 6(46쪽)

핵심 질문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와 이집트, 페르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제국 안에서 다양한 이들은 어떻게 섞였을까?

01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장

페르시아와의 전쟁 후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주도하며 여러 이익을 독점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폴리스들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아테네에 맞섰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립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펠로폰네소스 전쟁).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 쪽이 승리를 거두었으나 양쪽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 혼란에 빠진 그리스는 기원전 4세기에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았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34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침략해 치열한 전쟁 끝에 중앙아시아와 인도 서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워 그리스인을 이주시키고, 그리스인과 현지인의 혼인을 장려했다. 그 결과 그리스 문화와 이집트, 페르시아 등의 동서 문화가 융합해 **헬레니즘 문화**가 나타났다(47쪽 참고).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제국은 분열됐으나, 헬레니즘 문화는 계속 이어졌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발전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하는 알렉산드로스 (이탈리아 폼페이) 알렉산드로스는 부하들에게도 정복한 지역의 현지인과 결혼하도록 장려했다.



탐구 ① 알렉산드로스의 혼인 정책으로 알 수 있는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소스 전투 모자이크화(이탈리아 나폴리국립고고학박물관)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전투를 묘사한 그림이다.



02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인은 신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감정을 가지며 실수도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그리스 문화의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탐구는 철학과 민주정의 발달로 이어졌고, 논리적인 말솜씨나 웅변술도 강조됐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했다. 제국의 성장으로 폴리스라는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졌고, 제국의 시민에게 걸맞은 삶을 추구하는 **세계 시민주의**도 나타났다.

종교 그리스인들은 자연 현상과 인간 운명을 담당하는 여러 신이 있다고 믿었고, 폴리스의 중요한 일을 신에게 묻는 의식이 있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리스와 이집트, 페르시아의 신이 서로 섞이기도 했다.



↑ **그리스 신상들**(그리스 아테네학술원)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여러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 **페르가몬 신전 제단**(독일 베를린페르가몬박물관) 알렉산드로스 제국 분열 후 그리스계 왕국이 지배한 튀르키예에 건설된 제우스 신전 제단의 일부이다. 아테나가 거인족을 물리치는 장면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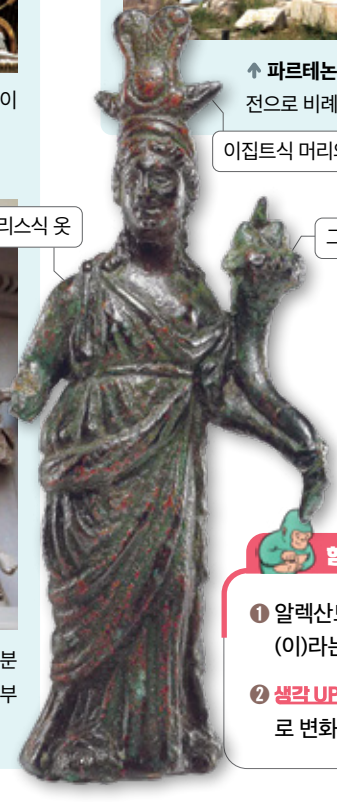
철학 그리스인은 세상의 근원과 인간을 탐구하며 철학을 발전시켰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을 통해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도록 가르쳤다.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철학을 집대성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에 대한 탐구가 많이 이뤄졌다.

역사 **헤로도토스**는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한 『역사』를,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다. 이 책들은 서양에서 역사학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예술 그리스인은 신전과 신상을 건설하며 건축과 조각, 미술을 발전시켰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오리엔트 지역의 영향으로 소재가 다양해지고 표현도 더 생생해졌다.



↑ **파르테논 신전**(그리스 아테네) 아테나 여신을 모신 신전으로 비례와 균형미가 뛰어나다.



← **이시스-티케 여신상**(이란 국립박물관) 이집트의 대지의 여신 이시스와 그리스의 행운의 여신 티케가 결합한 신상으로, 옛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굴됐다.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함께 확인해요

❶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지마다 □□□□□□(이)라는 도시를 세워 그리스인을 이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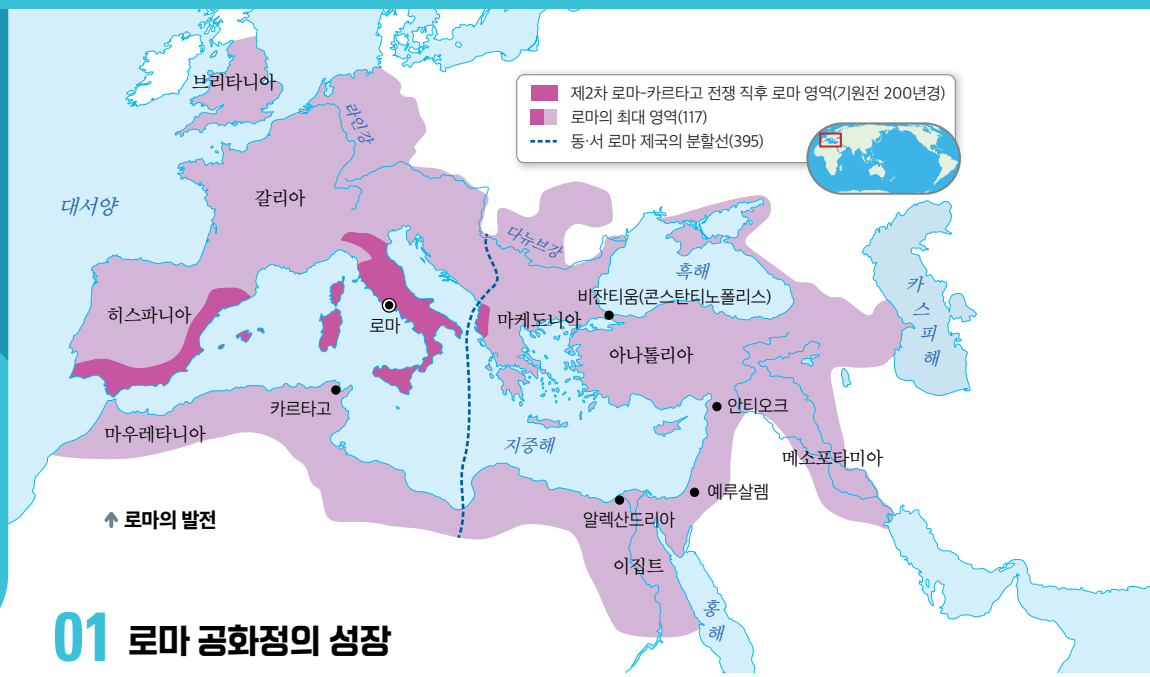
❷ **생각 UP** 그리스 문화가 어떻게 헬레니즘 문화로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말해 보자.

주제 5

관련 주제
→ 주제 12(74쪽)
→ 주제 13(78쪽)

로마의 발전과 크리스트교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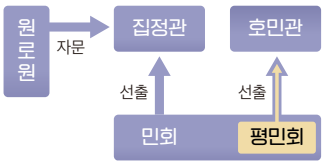
핵심 질문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던 크리스트교는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가 됐을까?



로마의 발전

01 로마 공화정의 성장

도시 국가였던 로마는 기원전 6세기 말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왕 없이 여러 세력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 형태)을 수립했다. 로마 공화정은 행정을 맡은 집정관, 귀족 대표 기구이자 자문(어떤 일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묻는 것) 기관인 원로원, 법률과 정책을 의논해 결정하는 민회로 이뤄진 정치 체제였다. 초기에는 귀족들이 정치를 주도했지만, 이후 전쟁에서 역할이 커진 평민들이 참정권을 요구했다. 그 결과 평민 대표 기구인 평민회가 만들어져 평민을 보호하고 원로원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호민관**을 선출했다.



로마 공화정의 구조

기원전 3세기에 이탈리아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지중해 패권(자기 세력을 넓히려는 권력 또는 어떤 영역을 주도하는 힘이나 권력)을 놓고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여 승리했다(❶로마-카르타고 전쟁). 그러나 전쟁 이후 정복지로부터 값싼 곡물과 노예가 들어와 자영농(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 몰락하고, 이들의 토지를 귀족이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기원전 2세기에 호민관이었던 **그라쿠스 형제**가 귀족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❶ **로마-카르타고 전쟁** 지중해 무역을 주도하던 카르타고와 로마가 기원전 264년부터 벌인 전쟁이다. 약 120년간 세 차례를 싸운 끝에 로마가 승리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연설

조국을 위해 죽도록 싸운 사람들은 공기와 햇빛만 향유할 뿐, …… 집도 없이 떠돌고 있다. …… 세계의 지배자가 됐지만 자기 소유의 땅은 한 조각도 없다. -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그라쿠스 형제(프랑스 오르세미술관)



그라쿠스 형제는 귀족이 가질 수 있는 토지 면적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의 땅은 몰수해 가난한 농민들에게 돌려주려 했다. 또한 가난한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식량을 싸게 공급하는 등 자영농을 기르는 개혁을 추진했다.

탐구 ① 그라쿠스가 연설할 때 당시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탐구 ② 그라쿠스 형제가 추진한 개혁 내용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02 제국으로 발전한 로마

기원전 1세기에는 정복 전쟁의 승리로 인기가 높아진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았으나, 공화정을 지지한 귀족들은 그가 황제가 되려 한다며 암살했다. 이후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내전 끝에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권력을 차지했다. 원로원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바쳤다(기원전 27).

이후 로마에서는 사실상 공화정이 무너지고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이 시작됐다. 200년 동안 유능한 황제가 여러 명 등장하면서 로마 제국은 전성기를 누렸다. 지중해 동쪽 지역까지 정복해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가 됐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의 평화(팍스 로마나)'가 지속됐다.

그러나 2세기 말부터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3세기에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해 황제가 수시로 바뀌면서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비잔티움)로 옮기고(330) 부흥을 꾀했지만, 그가 죽은 후 다시 내란이 일어나는 등 어려움은 계속됐다. 결국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됐다(395).



• 제국을 다스리며 발달한 실용적인 로마 문화

로마의 도로와 수도교



1 로마법(미국 루이즈페투스기록보관소) 로마는 제국의 모든 시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노력은 『로마법 대전』으로 집대성됐다(80쪽 참고).

2 아피우스 가도(이탈리아 로마)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표준화된 도로를 제국 곳곳에 건설했다. 그 결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로망이 확충됐다.

3 수도교(프랑스 가르) 인구가 늘면서 물이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근처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수로를 건설했고, 중간에 골짜기가 있는 경우 다리를 놓았다.

4 콜로세움(이탈리아 로마)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맹수와 검투사의 대결, 병사들 간 모의 전투 등을 보여 주는 원형 경기장으로, 관객들에게 빵을 나눠주기도 했다. 구경거리와 빵은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수단이었다.

5 개선문(이탈리아 로마)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를 기념해 개선문을 세웠다.





↑ **카타콤**(이탈리아 로마) 로마 근교 지하에 만든 묘지이다. 크리스트교도는 박해를 피해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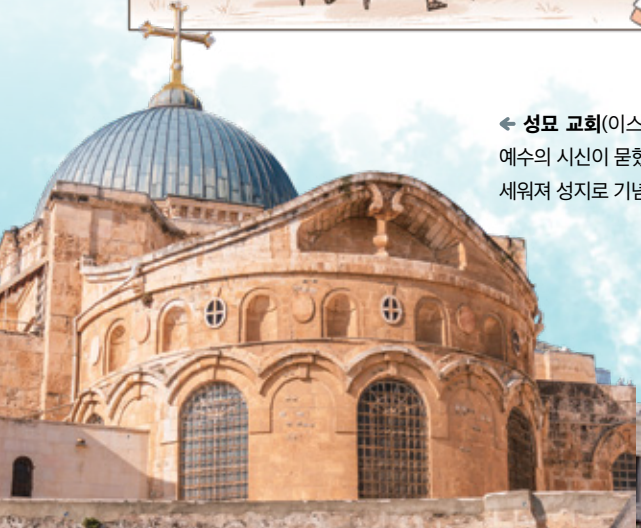
03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자 독립을 추구하며 구원자를 기다렸다. 구세주(크리스트)를 자처한 **예수**는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나 하느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며, 민족과 신분을 넘어선 신 앞에서의 평등을 주장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자, 로마는 예수를 처형했다.

예수가 죽은 후 제자들은 곳곳에 교회를 세워 예수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 결과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크리스트교**가 널리 퍼졌다. 크리스트교 신도들은 신이 아닌 인간이나 물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것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로마의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의 억눌러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는 것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도 세력이 계속 커지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크리스트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313). 이후 크리스트교는 로마의 국교가 됐고(392), 그리스·로마 문화와 함께 유럽 문화의 뿌리로 성장했다.

크리스트교의 전파와 로마 교회





← **성묘 교회**(이스라엘 예루살렘) 예수의 시신이 묻혔던 곳에 교회가 세워져 성지로 기념되고 있다.



↓ **성 베드로 대성당**(바티칸 시국)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진 교회이다.

04 로마에 맞서며 발전한 파르티아 제국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서아시아에 그리스계 국가가 들어섰지만, 기원전 3세기에 이란계 유목민이 이를 몰아내고 파르티아를 세웠다. 파르티아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왕 중의 왕(샤한샤)'을 자처하며 정복지에 총독을 파견하는 등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통을 이으려 했다(35쪽 참고).

파르티아는 중국(한)과 로마 사이에서 중계 무역(다른 나라에서 사들인 물건을 또 다른 나라에 파는 무역 형태)으로 번성했다. 그러나 서쪽의 로마가 세력을 뻗어오자, 기원전 1세기 중반부터 로마에 맞서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다. 나중에는 동쪽의 쿠샨 왕조와도 맞서면서 국력이 약해졌다(47쪽 참고). 결국 반란 등으로 쇠약해진 파르티아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했다(74쪽 참고).





↑ **파르티아 기마병**(영국박물관) 말을 타고 뒤돌아 활을 쏘는 기술을 '파르티안 샷'이라고 부를 정도로 파르티아 기마병은 실력이 뛰어났다.



→ **파르티아 뿔잔**(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동물과 연결된 뿔 모양 잔은 지중해 연안과 서아시아에서 두루 발견되는 유물이다(34쪽 참고). 풍요를 상징하는 뿔잔 위에 새겨진 포도 덩굴 무늬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런 뿔잔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거쳐 신라까지도 전해졌다.



↑ **날개 달린 사자와 수련 화분이 있는 조각**(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문 위에 달려 있던 장식이다. 동물 표현에서는 헬레니즘과 로마의 영향이 보이지만, 날개 달린 사자와 수련 화분이라는 소재는 페르시아와 이집트의 전통을 잇고 있다.

↓ **파르티아의 전승 기념 부조**(이란 이제) 말을 탄 파르티아 왕이 로마 병사들을 줄줄이 포로로 잡은 모습을 새겼다.



함께 확인해요

❶ 로마는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상 황제가 되면서 공화정에서 □□(으)로 변화했다.

❷ 페르시아를 계승한 □□□□은/는 로마에 맞서며 동서 중계 무역으로 번성했다.

❸ 생각 UP 크리스트교가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창의 쑥쑥 활동

모둠 활동

3~4명으로 구성한 모둠 단위로 가상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을 만든 후 발표합니다.

활동 방법

❶ 주제 고르기

[보기]에 있는 고대 국가(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중 하나를 고릅니다.

❷ 내용 구성하기

고른 국가의 정치적 특징을 어떻게 보여 줄지 정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합니다.

❸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 만들기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을 만듭니다.

- 본문: 역사적 상황을 잘 묘사하는 글
- 이미지: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사진, 삽화
- 해시태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
- 댓글: 정치적 특징에 대한 다양한 계층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반응

❹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 소개하기

모둠별로 만든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을 소개하고, 교실에 전시합니다.

❺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 평가하기

전시된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둠이 고대 국가의 특징을 잘 드러냈는지 평가합니다.

유의 사항

- 오늘날의 관점이 아닌 당시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도록 합니다.
- 다른 모둠 친구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특징을 비교하도록 합니다. 단, 현재의 관점에서 정치 체제를 비교하고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보기]에 없는 고대 국가를 선택해도 되지만, 비슷한 시기에 성립된 고대 국가를 고르도록 합니다.

활동지

고대 국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게시물 만들기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인터넷에서 서로의 소식과 정보 등을 주고받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고대 국가(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중 하나를 고른 다음, 해당 국가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소식과 정보 등을 소개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을 만들어 봅시다.

01 주제 고르기

[보기]

☐ 페르시아 34쪽



☐ 그리스 36쪽



예시 ☑ 로마 공화정 40쪽



☐ 로마 제정 41쪽



02 내용 구성하기

어떤 정치적 특징을 보여 줄까?

예시 로마가 공화정인 시기에 평민의 권리가 강해지는 모습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 게시물로 보여 주고 싶어.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까?

예시 전쟁에 나가면서 평민의 권리가 강해졌으니, 당시 전쟁에 참여하는 로마 평민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해.

댓글은 어떻게 구성할까?

예시 평민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을 꺼려하는 귀족과 그렇지 않은 평민의 반응을 댓글로 보여 주면 재미있을 것 같아.

03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 만들기



평미니우스 ····· 계정 이름



이미지

476 300

본문 ····· 오늘도 로마를 위해 갑옷을 입는다.
로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
#나도_군인 #참정권을_달라 #평민회_설치 ····· 해시태그

댓글 ····



귀족투스 평민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평미르쿠스 우리도 로마를 위해 전쟁에 나가는데 왜 참정권 안 줌?

평가하기

- 해당 국가의 정치적 특징을 적절한 이미지로 표현했나요?
- 게시물 본문에 역사적 상황을 오류 없이 반영했나요?
- 해시태그에 정치적 특징이 나타났나요?
- 댓글에서 당대 사람들의 입장을 유추해 볼 수 있나요?
- 발표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정치적 특징을 설명했나요?

이번 중단원에서는 인도, 중국의 정치 변화와 종교·사상 성립의 관계를 탐구하고, 유라시아 교류를 탐색할 수 있다.

주제 6

관련 주제
→ 주제 2(28쪽)
→ 주제 4(38쪽)
→ 주제 11(70쪽)

불교의 전파와 인도 고대 왕조의 성장

핵심 질문
불교가 고대 인도 사회에서 널리 퍼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01 불교의 탄생

기원전 6세기경 갠지스강 유역은 철기 문화의 확산으로 국가 간 정복 전쟁이 치열해지고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했다. 이에 정치·군사를 담당하는 크샤트리아와 상업에 종사하는 바이샤 계급이 성장했다(32쪽 참고). 영향력이 커진 이들은 브라만 중심의 신분 차별에 점점 불만을 느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어떤 사상이나 학설을 처음으로 내세움.)했다. 석가모니는 오랜 고행(육체적 고통을 견디며 수행하는 것) 끝에 욕심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며, 브라만교의 신분 차별을 부정했다. 불교의 가르침은 신분 차별에 불만을 가진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에게 큰 환경을 받았다. 불교는 이후 인도를 지배한 왕조들의 보호 아래 주변 지역으로 퍼져 그 지역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고행 중인 석가모니상
(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
석가모니는 인도 북부의 작은 나라 카필라 왕국의 왕자였다.

02 불교를 장려한 마우리아 왕조

기원전 4세기 마우리아 왕조는 인도 북부를 처음으로 통일했다. **아소카왕**은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 지역을 점령한 후, 도로를 정비하고 관료제(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업무를 나누고 관리의 등급 등을 정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해 전성기를 이끌었다.

평등을 강조한 불교는 인도의 다양한 지역을 통합하려던 아소카왕에게 유용한 종교였다. 그는 불경을 정리하고 사원과 탑을 세우며 불교를 주변 지역에 전파했다. 이 시기에는 개인의 엄격한 수행을 강조하는 ❶**상좌부 불교**가 발전했다.

❶ **상좌부 불교** '상좌부'는 '오래 수행한 승려의 길'이라는 뜻으로, 이를 본받아 각 개인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강조한다.

03 쿠샨 왕조의 성장과 불교의 확산

기원후 1세기경 서쪽에서 온 쿠샨족이 쿠샨 왕조를 세웠다. 쿠샨 왕조는 인도 서북부와 간다라 지역을 차지하면서 동서 무역을 주도했다. 전성기를 이끈 **카니슈카왕**은 불경을 다시 정리하고, 불교의 확산을 지원했다. 이 시기에는 대중의 구제(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를 강조하는 ❷**대승 불교**가 발전했다.

이 시기에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불교문화가 융합한 **간다라 양식**이 유행해 인간의 모습으로 불상을 제작하기도 했다(48쪽 참고). 간다라 양식은 대승 불교와 함께 동아시아로 전해졌다.

❷ **대승 불교** '대승'은 '중생을 태우는 큰 수레'라는 의미로, 개인의 깨달음에만 치우친 상좌부 불교를 비판하고 대중에게 불교를 전할 것을 주장했다.

아소카왕의 고뇌와 불교

전쟁 이후 나(아소카왕)는 마음속에서 다르마(진리)를 향한 큰 갈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복에 대한 후회도 생겼다. 자유민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노예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제 나는 이런 일에 고뇌를 느낀다.

- 아소카왕의 대석비문

탐구 ① 전쟁 이후 아소카왕이 불교를 장려한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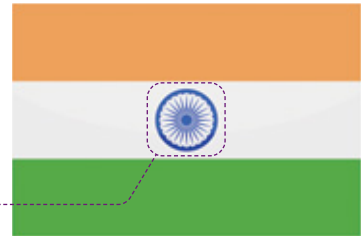


→ **아소카왕의 돌기둥 머리 부분**(인도 사르나트박물관) 아소카왕은 자신의 통치 철학을 기둥에 적어 전국에 세웠다. 이 돌기둥은 1950년에 인도의 국가 상징으로 지정되어 국기와 화폐 등에 사용됐다. 수레바퀴(법륜)는 불교의 법과 진리를 뜻한다.

탐구 ② 오늘날 인도에서 왜 아소카왕의 돌기둥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생각해 보자.



↑ 인도 지폐



↑ 인도 국기



함께 확인해요

❶ 석가모니는 브라만교를 비판하며 □□을/를 창시해 모든 인간의 평등을 강조했다.

❷ 생각 UP 인도 고대 왕조들의 정책은 불교의 정착과 확산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 쑥쑥 탐구

간다라 양식, 헬레니즘과 불교의 만남

간다라 양식은 수 세기에 걸쳐 간다라 지역에서 유행한 독특한 불교 미술을 말합니다. 간다라 양식이 독특한 이유는 불상의 모습에서 그리스 신상과 유사한 특징, 즉 헬레니즘 문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종교와 서방의 예술이 융합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융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01 전파

동방으로 향한 그리스 문화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이후 그와 그의 후계자들은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다. 이곳에 그리스인이 이주하면서 그리스 문화가 점차 동쪽으로 퍼져 이집트와 서아시아 지역에도 그리스 양식이 나타났다. 여러 지역에 전파된 그리스 문화는 이후 지역 문화와 융합해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했다.

알카즈네(요르단 와디 무사) 서아시아 지역의 고대 도시 페트라에 있는 신전으로, 바위산을 반쯤 깎아 만든 건축물이다. 입구에는 그리스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진 기둥과 조각상들이 있다.



02 만남

간다라는 어떤 지역?

간다라는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오늘날 파키스탄 북서부와 아프가니스탄 동부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만나고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다. 특히 알렉산드로스 사후 간다라 지역에 성립한 그리스계 국가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동서양 문화가 섞인 독특한 예술 양식이 탄생하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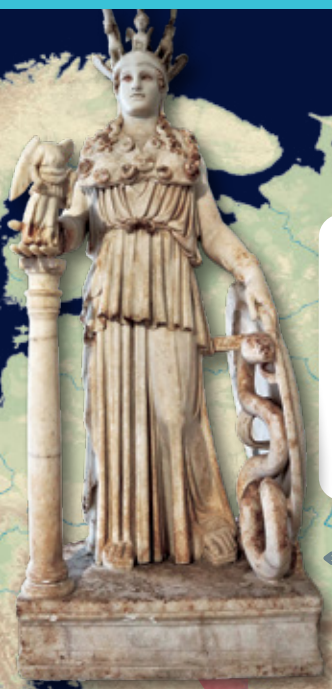


03 융합, 그리고 다시 전파

초창기 불교에서 표현한 부처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된 불상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를 발자국 혹은 수레바퀴의 형태로 표현했다. 간다라 지방에서 헬레니즘(39쪽 참고)이 불교와 만나면서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불상이 처음 등장했다. 이는 동아시아로도 전파되어 한·중·일의 불교 미술에 큰 영향을 줬다.



← **아테네 조각상**(그리스 아테네국립고고학박물관)



→ **룽먼 불상**(중국 뤄양)

↓ **부처를 상징하는 발자국**(인도 부다가야)



영향

구불거리는 머리 모양



전파



변화

옷 주름

전파

← **이집트에서 발견된 불상**(이집트 국립박물관) 최근 이집트에서도 간다라 불상이 발견됐다.

← **간다라 불상**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함께 탐구해요

❶ 간다라 양식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❷ 논술 UP 오른쪽 글을 읽고 '헬레니즘'이라는 용어가 지닌 한계를 비판해 보자.

'헬레니즘(Hellenism)'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중엽 독일의 역사학자가 지은 용어입니다. 이 용어에는 자신들을 '헬레네스'라고 부르던 그리스인의 문화가 동방으로 널리 퍼졌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주제 7

관련 주제 → 주제 2(28쪽)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

핵심 질문

진의 통치 정책은 중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01 경쟁의 시대, 춘추 전국

기원전 770년 주는 유목 민족의 침입으로 수도를 옮겼다(33쪽 참고). 주 왕실이 약해지면서 제후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됐다. 이 시대에는 청동기에 비해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철기가 보급되면서 많은 사회 변화가 나타났다. 철제 무기를 활발히 사용하면서 전쟁의 규모가 커졌고, 철제 농기구의 이용으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했다.

늘어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각국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이를 위해 신분과 상관없이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뽑았는데, 이때 나타난 다양한 사상가와 그들의 학파를 **제자백가**라고 한다. '제자(諸子)'는 여러 학자, '백가(百家)'는 수많은 학파를 뜻함.



제자백가가 꿈꾼 사회



탐구 ① 내가 춘추 전국 시대의 제후라면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할 것인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 보자.

02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 진

진(秦)은 법가를 받아들여 국력을 키우고 기원전 221년에 중국 전역을 통일했다. 진왕은 스스로 '첫 번째 황제'라는 뜻 **시황제**라고 칭하고,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해 지방을 다스리는 **군현제**를 시행했다. 이 밖에도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 진의 최대 영역과 도량형, 화폐, 문자 통일



> 천하를 36개 군으로 나누고 군마다 군수를 뒀다. 법률과 도량형을 통일하고, 수레의 바퀴 폭을 같게 했으며, 문자를 통일했다.
>
> - 사마천, 『사기』

탐구 ② 봉건제에서의 제후와 군현제에서의 군수는 어떻게 다를까?

한편 시황제는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북쪽에 **만리장성**을 쌓고(53쪽 참고), 남쪽으로도 군대를 보내 영토를 넓혔다. 이런 대외 정책으로 진(Chin)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이는 오늘날 중국을 부르는 **차이나**(China)의 유래가 됐다.

그러나 진은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 집행과 ❶**분서갱유**와 같은 사상 통제로 사람들의 원성을 샀다. 또한 농민들을 만리장성과 병마용갱 등의 대규모 공사에 동원해 큰 고통을 줬다. 결국 진은 시황제가 죽은 뒤 ❷진승·오광의 난으로 국력이 약해졌고, 전국에서 농민 봉기(많은 사람이 어떤 일에 항의하거나 뜻을 펴기 위해 저항하는 것)가 일어나 곧 멸망했다(기원전 206).

❶ **분서갱유** 법가 사상이나 실용적인 서적을 제외한 많은 책을 불태우고(분서), 시황제의 통치를 비판한 학자들을 땅에 묻은(갱유) 사건이다.

❷ **진승·오광의 난** 진승과 오광은 변방 수비의 명을 받고 길을 떠났으나, 큰비를 만나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당시 법에 따라 처형될 위기에 처하자, 농민들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 **병마용갱**(중국 시안) 진시황릉 근처에 있는 큰 구덩이로, 병사와 말 모양의 흙 인형들이 발굴됐다. 병마용은 죽은 시황제를 호위하는 군대 역할을 했다.

↓ **만리장성**(중국 청더) 시황제 때는 흙을 다져 만리장성을 쌓았다. 현재 모습의 벽돌로 쌓은 장성은 훗날 명대에 세운 것이다.

함께 확인해요

❶ 시황제는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국 북쪽에 □□□□을/를 쌓았다.

❷ **생각 UP** 진이 더 오래 왕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통치했어야 할까?



주제 8

관련 주제 → 주제 9(60쪽)

천하를 양분한 한과 흉노

핵심 질문

진이 멸망한 후 중국을 지배한 한은 유목 지역을 지배한 흉노와 대립했다. 두 제국은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

01 한의 성립과 발전

진이 멸망한 뒤 유방(고조)이 세운 한이 중국을 다시 통일했다(기원전 202). 이후 **무제**는 수도 부근에만 시행되던 군현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황제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했고, **유교** 이념으로 통치를 뒷받침했다.

국가 운영의 기본 이념이 된 유교

무제는 유학을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삼아 진의 가혹한 통치와 구별되면서도 강력한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화를 추구했다. 이를 위해 유학 교육 기관(**태학**)을 세우고, 유학 지식을 갖춘 인물을 관리로 선발했다. 유학은 부모에 대한 효와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기에 국가의 지배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해 줬고, 통치 이념이자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탐구 ① 한 무제는 왜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을까?

중간에 나라가 무너진 시기를 기준으로 앞 시기를 전한, 그 이후를 후한이라고 불러.



무제는 대외 정복에 나서 영토도 넓혔다. **흉노**에게 승리한 뒤 서역(한의 서쪽 지역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나라들)으로 진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단길**(실크로드)을 활용해 중앙아시아 나라들과 교류했다(54쪽 참고). 이어서 동쪽의 고조선과 남쪽의 베트남도 공격했다.

그러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과도한 세금을 걷어 농민들이 몰락했고, 관리와 상인들은 농민들의 토지를 사들여 대토지 소유자(**호족**)가 됐다. 또한 권력 다툼으로 나라가 무너졌다가 후한이 다시 세워지기도 했다. 후한 중기부터 어린 황제들의 잇따른 즉위(왕의 어머니 쪽 친척)로 외척과 환관(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의 정치 개입이 심해져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결국 ❶황건적의 난 등 농민 봉기가 이어져 후한은 멸망했다(220).

❶ **황건적의 난** 난에 참여한 사람들이 머리에 노란색 두건을 써서 '황건적'이라고 불렸다.

역사를 시간 흐름대로 서술하지 않고 각 사건과 인물별로 따로 서술했지.



← 사마천

• 동아시아에 영향을 준 한의 문화

역사 중국의 신화 시대부터 무제 시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사기』가 편찬됐다. 사마천이 쓴 이 역사서는 이후 중국 역사서의 모범이 됐고, 고려의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도 영향을 줬다.

제지술 후한의 채륜은 나무껍질, 천 등을 으깨어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을 발전시켰다. 채륜이 개량한 종이는 가볍고 만들기 쉬웠으며 값이 쌌다. 이는 학문의 발달에 영향을 줬고, 한반도와 일본에도 전해졌다.



→ **한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종이**(중국 간쑤성박물관)

한은 400여 년 동안 통일 제국을 유지하며 사상과 문화를 발전시켰어. 그래서 중국 고전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지.



02 유목 제국을 이룬 흉노

유라시아 북부에 펼쳐진 초원 지대에는 여러 유목 민족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중 흉노는 기원전 3세기 후반 진이 중국을 통일할 무렵 세력을 빠르게 키웠지만 시황제의 공격을 받아 황허강 북쪽으로 밀려났다.

진이 멸망하자 흉노의 **묵특** ❷**선우**는 흉노와 여러 유목 부족을 통합해 유라시아 동부 초원에 유목 제국을 건설했다. 또한 한 고조의 군대와 싸워 이긴 후 평화를 유지하는 대가로 옷감과 식량 등을 받았다. 흉노의 세력이 커지면서 변경(나라의 경계가 되는 변두리 땅)에 살던 주민이나 한 출신 인물들이 흉노로 들어오기도 했다. 이들은 군사나 행정 분야에서 활약했다.

이후 흉노는 기마병을 육성한 무제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고 분열했다. 그중 일부는 한에 ❸**조공**하는 등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으나 점점 약해졌다.

❷ **선우** 흉노 제국의 군주를 뜻하는 말이다. 중국의 '황제'와 비슷한 표현으로, 선우 아래에 여러 흉노왕이 있었다.

❸ **조공** 책봉을 받은 왕이 황제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을 뜻한다. 책봉은 황제가 지역의 지배자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공·책봉은 직접적인 지배·종속 관계가 아니라 두 나라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형식적인 외교 관계였다.

한과 흉노 관리의 대화 속 유목 사회의 모습

한

흉노의 풍속은 노인을 천대한다고 하던데요?

흉노

한에서도 자식이 군대에 가면 부모가 자식을 챙기지 않소? 노인은 전투에 참여할 수 없소. 그러니 좋은 건 젊은이에게 줘서 잘 싸우도록 하고, 그 젊은이가 노인을 지키는 거요. 이렇게 해야 아비와 자식이 각각 오랫동안 서로를 보호할 수 있소.

한

흉노는 일상 예절과 왕실 예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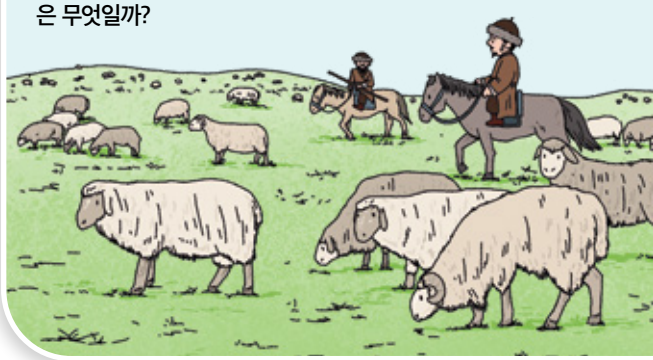
흉노

흉노인은 가축의 고기와 젖, 가죽을 활용하기 위해 계절마다 옮겨 다니며 가축에게 풀과 물을 먹이오. 덕분에 흉노인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고, 일이 없을 때 휴식을 즐기오. 또한 흉노인의 약속은 간단해 실행하기 쉽소.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단순해 정치가 한 몸처럼 편하게 움직이는 거요.

이에 비해 한은 친족이 혈연적으로 멀어지면 서로 죽이고 반역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한 한의 백성은 좋은 집을 짓는 데 힘을 다 쓰고, 성 안에서 농사로 먹고사니 전투에 서툴지 않소?

-『사기』

탐구 ❷ 위 대화에서 찾을 수 있는 유목 사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흉노의 새 장식 금관
(중국 네이멍구박물관)

함께 확인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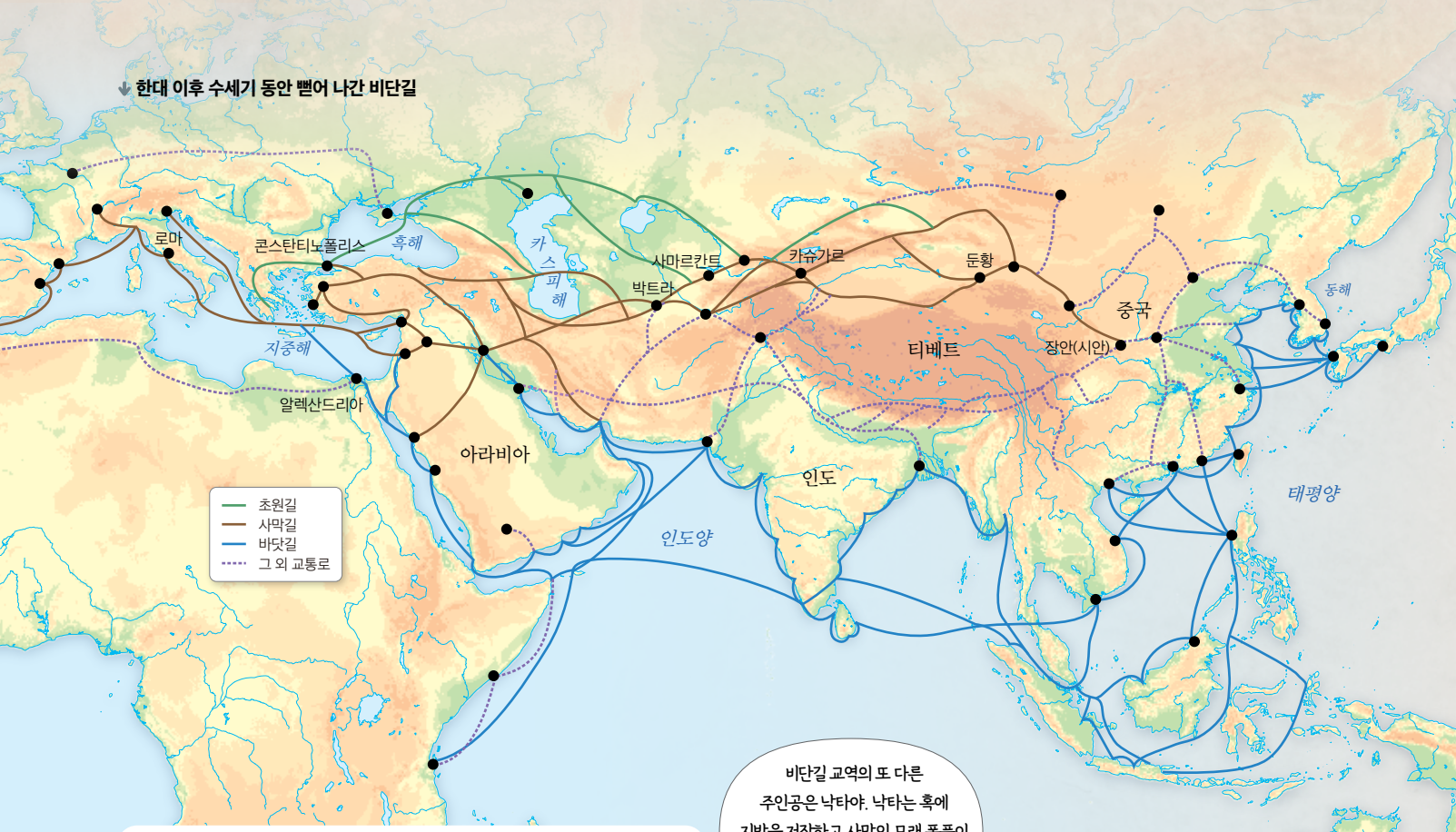
❶ 한은 □□을/를 국가 운영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❷ **생각 UP** 흉노와 한족 왕조인 진·한은 시기별로 어떤 관계였을까?

생각 쑥쑥 탐구

비단길, 아시아와 유럽을 잇다

비단길(실크로드)은 비단을 사고팔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연결됐던 길입니다. 처음에는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들을 연결하는 사막길만 의미했습니다. 이후 사막길의 남북에 있던 초원길과 바닷길, 그리고 초원, 사막, 바다의 세 길을 남북으로 이어주는 길까지 포함한 그물 모양의 교통로로 그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동서 문화의 교류가 활발했던 비단길은 누가 개척했고, 비단길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01 누가 비단길을 개척했을까?

기원전 3000년경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던 유목민들은 초원을 찾아 이동하며 가축을 기르고 주변 지역과 교류했다. 이런 유목민들의 활동으로 오아시스 지역에 있는 도시 간의 교통로가 연결됐다. 이처럼 비단길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민과 오아시스 도시 사람들의 활동으로 개척됐다.



02 한이 비단길 교역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일까?

중국의 비단은 흉노를 통해 서쪽 오아시스 도시들로 전해졌고, 다시 각 지역 상인을 통해 인도와 파르티아 등을 거쳐 로마까지 전해졌다. 무제는 흉노와 사이가 좋지 않은 월지와 손잡을 목적으로 장건을 파견했다. 비록 동맹을 맺는 데는 실패했지만, 장건의 여정 덕분에 한은 서역으로 가는 길과 그곳의 정치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이후 한은 흉노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서역으로 가는 비단길 교역을 장악했다.



↑ **장건이 서역으로 출발하는 장면을 그린 벽화**(중국 둔황)

03 비단길을 통해 무엇을 교류했을까?

비단길은 신항로 개척 이전까지 중요한 동서 교역로였다. 상인, 사신, 순례자, 예술가 등 많은 사람이 비단길을 이용했고, 비단 외에도 보석, 향료, 포도, 말 등 다양한 물품을 거래했다. 이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와 문화가 더 풍성해졌다.





↑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서커스 흙 인형**(중국 지난시박물관)



← **인도에서 발굴된 로마 금화**(영국박물관) 인도는 바닷길을 통해 한과 로마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다.

↓ **비단옷을 입은 로마의 귀부인**(이탈리아 나폴리국립고고학박물관) 먼 길을 거쳐 수입되는 동안 가격이 수십 배 뛰었지만, 로마와 지중해 도시의 부유층 사이에 중국 비단으로 만든 옷이 유행했다.



→ **날아가는 제비를 밟고 달리는 청동말**(중국 간쑤성박물관) 중앙아시아산 말은 유라시아 여러 지역에서 활용됐다. 특히 한은 유목 세력과의 전쟁에 필요한 기마병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중앙아시아산 말을 구하려고 했다.



함께 탐구해요

❶ 비단길의 탄생과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❷ 논술 UP 장건은 '비단길의 개척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런 평가가 적절한지 오른쪽 글을 읽고 자기 생각을 말해 보자.

한동안 비단길은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망으로만 여겨졌다. 이는 유럽 또는 중국 중심적 시각으로, 초원과 오아시스를 무대로 세계사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 중앙아시아라는 역사적 공간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비단길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며, 기원전 3000년경부터 만들어진 여러 거점이 교역망으로 이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로 확인하기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 봅시다.

1 다음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를 빈칸에 써 보자.



이 시기부터 인류는 식물과 동물을 길러 식량을 구했어.



이 시기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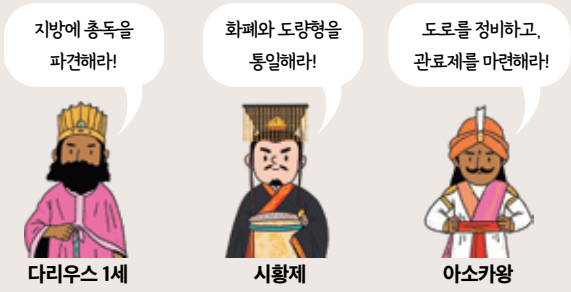


이 시기 사람들은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뤄 살았어.

너희들의 말을 종합해 보니 이 시기는 _____ 시대야.



2 다음 정책들을 시행한 공통된 이유를 써 보자.



3 다음 종교에 관한 설명을 알맞게 연결해 보자.

크리스트교 ○	○ 부모에 대한 효와 임금에 대한 충성 강조
불교 ○	○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를 것을 강조
유교 ○	○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길 강조

추가 확인 문제

역사로 세상 읽기

다음 자료를 읽고 빈칸을 채워 봅시다.



약탈당한 로제타석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01 로제타석은 무엇일까?



검은 돌 위로 글씨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특히 윗부분에 새겨진 문자는 마치 그림 같아!



이 문자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라고 해. 마치 유적지에 가면 볼 수 있는 안내판처럼 같은 내용을 각기 다른 세 종류의 문자로 새겼어.



이 로제타석에는 이집트를 다스렸던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고 해.

02 로제타석은 왜 중요할까?

알렉산드로스 정복 전쟁 이후 이집트 지역에도 그리스계 왕국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세워졌다. 로제타석에는 그리스 문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인 신성 문자(동물, 사물, 신체 등의 모습을 본뜬 문자)와 민중 문자(신성 문자보다 간소화된 문자)가 모두 새겨져 있다. 그리스 문자를 통해 상형 문자를 해독할 실마리를 찾았고, 마침내 1822년에 프랑스 학자가 상형 문자 해독에 성공했다. 덕분에 오늘날 파피루스나 유물에 적힌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됐다.



→ **로제타석 탁본**

03 로제타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가) 로제타석의 고향은 런던의 영국박물관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어야 합니다.

← **자히 하와스**(이집트 유물최고위원회위원장)

(나) 그리스와 이집트의 문화유산들은 영국박물관에서 세계의 다른 문화유산과 함께 있을 때 더 가치가 있습니다.



→ **하나 볼튼**(영국박물관 홍보담당)

1798년에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침입하면서 학자들과 예술가 167명을 함께 데려갔다. 이 학술 조사단은 이집트에 머무르는 3년 동안 고대 이집트의 문화유산을 무단으로 수집했다. 1801년에 이집트에 머무르고 있던 프랑스군이 영국군에 항복하면서 로제타석은 영국 소유로 넘어갔고, 이후 영국박물관에 전시됐다. 오늘날 이집트 정부는 영국에 로제타석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많은 약탈 문화유산을 보유한 영국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검색해요

약탈 문화유산의 다른 사례를 찾아 소개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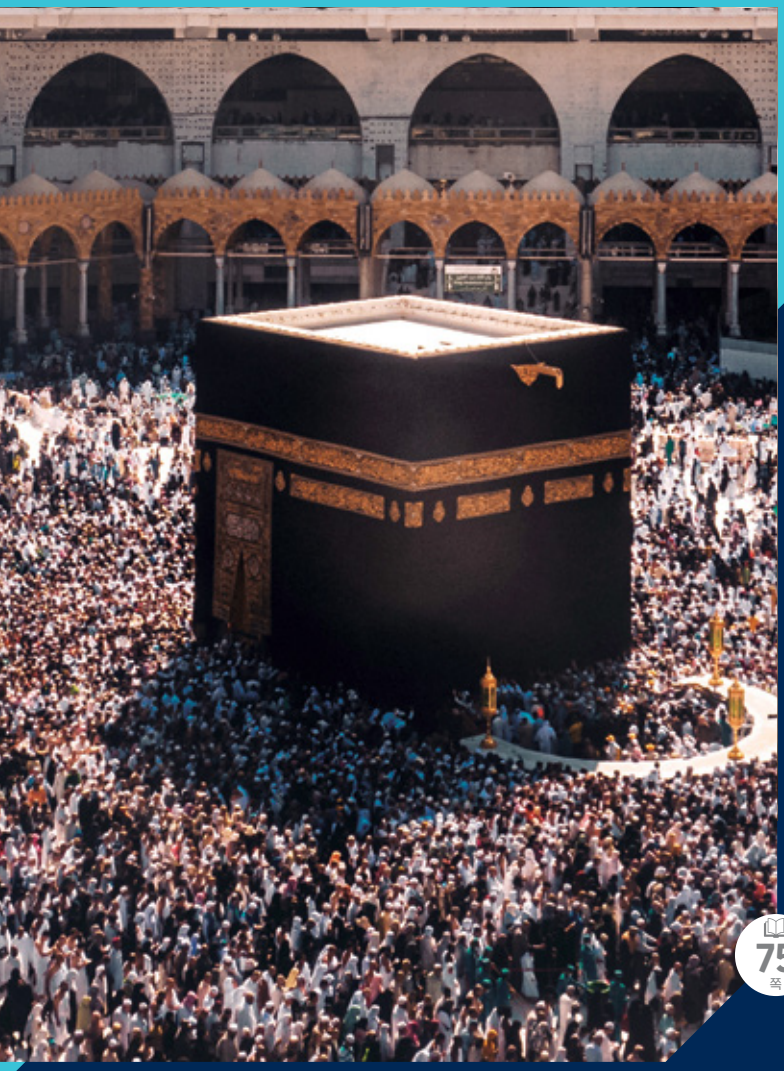
- 미국 대법원이 반환을 결정한 이라크의 니네베 유적
-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서 약탈해 간 조각품(엘긴 마블스)
- 프랑스가 약탈했던 조선의 외규장각 의궤
- _____

“ 내가 지지하는 입장은 (가) / (나) 이다.
왜냐하면 _____
_____ ”

62 쪽

한족이 아닌 선비족 출신 황제들은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고심했고, 그 결과 불교를 권장하고 거대한 불상을 만들었다.







79 쪽

카롤루스 대제는 정복지에 교회를 세워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고 더 많은 땅을 교황에게 바쳤다.

75 쪽

이슬람교도는 평생에 한 번은 성지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

II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발전

1.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과 발전
2. 지역 문화의 형성과 발전
3. 지역 문화의 교류와 충돌

이번 중단원에서는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가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을 탐구할 수 있다.



주제 9

유목민과 융합하며 발전한 중국

관련 주제 → 주제8(52쪽)

핵심 질문

유목민이 화북에 여러 나라를 세우면서 중국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01 중국의 분열과 남북조 시대의 시작

3세기 초 후한(52쪽 참고)이 멸망한 후, 중국은 위·촉·오로 분열됐다. 위를 이은 진(晉)이 중국을 다시 통일했지만 혼란은 계속됐다. 이미 만리장성을 넘나들던 흉노, 선비 등의 유목민들은 이 혼란을 틈타 화북(황허강 중하류 유역과 그 북쪽 지방)을 점령하고 여러 나라를 세워 경쟁했다(❶**5호 16국**).

유목민이 화북을 장악하자, 진의 유민들은 창장강 유역의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 동진을 세웠다. 이를 계기로 화북의 농업 기술이 전해지고, 농경지 개간(거친 땅을 논밭으로 만드는 일)이 활발히 이뤄져 강남 지역의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었다. 여러 나라가 난립하던 화북을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통일했고(북조), 강남에서는 동진을 이은 한족 왕조들이 세워졌는데(남조), 이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❶ **5호 16국** 5호는 흉노, 선비, 갈, 강, 저의 다섯 유목민을 뜻한다. 16국은 유목민이 화북에 세운 여러 나라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16개보다 더 많았고 한족이 세운 나라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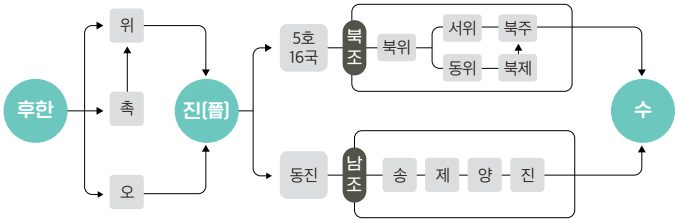
삼국지 연의



→ 남북조의 영역(5세기)



↓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전개



유목민들은 왜 이동했을까?



02 북위의 한화 정책과 유목 문화의 확산

유목민이 세운 화북의 여러 나라는 대부분 오래 가지 못했다. 북위의 효문제는 통치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족의 제도와 문화를 폭넓게 받아들였다.

균전제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고, 그 대가로 세금을 거두는 균전제를 시행했다.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국가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화 정책 유목민과 한족 간 갈등을 줄이고, 통치 체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 한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유목민과 한족의 결혼을 권장하고, 한족의 옷을 입도록 했으며, 한족의 언어뿐 아니라 한족의 성과 이름을 사용하도록 했다.

효문제의 **한화 정책**에 일부 선비족이 반발해 북위가 분열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유목민과 한족의 융합이 이뤄지고 통치 제도는 더욱 발전했다. 이는 선비족 출신들이 수와 당을 세우는 토대가 됐다(64쪽 참고).

• 중국에 전해진 유목 문화

의복 솔이나 망토, 바지 같은 유목민의 옷이 유행했다.

음식 양고기와 젖을 먹게 됐고,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구워 먹는 빵도 즐기게 됐다.

주거 침대나 의자가 전해져 입식 생활에 익숙해졌다.



03 귀족 사회의 형성과 새로운 사상의 유행

잦은 왕조 교체로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추천으로 관리를 뽑는 제도를 악용해 힘 있는 몇몇 가문이 관직을 독점하면서 **귀족 사회**가 만들어졌다. 귀족 가문은 서로 혼인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지위를 강화해 갔다.

한편 사회가 어지러워지자, 불교와 도교에 의지해 안정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졌다(62쪽 참고). 특히 남조에서는 ❷**청담 사상**이 유행했다. 정치적 혼란에 지친 귀족들은 세속을 떠나 자유롭게 사는 죽림칠현의 삶을 동경했다.

❷ **청담 사상** 어지러운 세상일을 입에 담지 말고 맑고 깨끗한 이야기만 하자는 사상이다.



↑ **죽림칠현** 현실을 피해 대나무 숲으로 숨은 일곱 명의 선비이다. 유교 예절이나 관습을 부정하고 자연에 머무는 자유로운 삶을 강조했다. 이런 도가적 삶의 추구는 남조의 정치 혼란을 반영한 것이다.

함께 확인해요

❶ 유목민 왕조가 화북에, 한족 왕조가 강남에 세워진 시기를 □□□ 시대라고 한다.

❷ **생각 UP** 북위와 같은 유목민 왕조가 왜 한족의 통치 제도를 받아들였을까?

생각 쑥쑥 탐구

중국에 뿌리내린 불교와 도교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유교와 함께 불교와 도교가 성행했습니다. 불교와 도교는 이후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종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기에 불교와 도교가 왜 발전했는지 알아볼까요?



01 위진 남북조 시대의 불교

후한 시대 비단길로 전해진 불교는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인도와 서역에서 승려와 불경이 들어오면서 더욱 발전했다. 익숙한 유교나 도가의 개념을 빌려 교리를 설명했기 때문에 불교는 중국인에게 한층 친숙한 종교가 됐다. 이 시기 불교는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왕이 곧 부처'라는 생각은 왕권 강화에 도움을 줬다.

북조 북조의 황제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불교를 활용했다. 황제의 모습을 본떠 거대한 불상을 만들거나 웅장한 석굴 사원을 지어 황제의 권위를 과시했다.

남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된 남조에서 불교는 마음의 위안을 주는 종교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특히 귀족들은 청담 사상이나 도교처럼 불교를 통해서도 세속의 번거로운 일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였다.



룽먼 석굴(중국 뤄양) 북위 시대 때부터 시작해 당대까지 만들어졌다.



윈강 석굴(중국 다퉁) 한족이 아닌 선비족 출신 황제들은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고심했고, 그 결과 불교를 권장하며 거대한 불상을 만들었다.

02 위진 남북조 시대의 도교

한대부터 민간에서는 도가적 신앙이 유행했다. 황건적의 난도 도가 집단이 일으켰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이런 도가적 신앙을 바탕으로 불로불사를 추구하는 신선 사상, 복을 비는 민간 신앙이 합쳐져 도교로 체계화됐다. 도교는 노자와 장자를 비롯한 여러 신선과 신령한 동물을 숭배하고, 주문·부적·도술 등으로 화를 막고 복을 빌기도 했다. 몇몇 국가는 도교를 지원해 불교를 견제하는 등 통치 수단으로 활용했다.





↑ **「송자천왕도」에 묘사된 신선**(일본 오사카시립미술관) 도교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신선이나 도술을 부리는 도사를 숭배하고 신기한 동물을 상상했다.

← **도교삼존상**(일본 도쿄예술대학교미술관) 도교는 불교와 경쟁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다. 노자를 삼존상으로 숭배한 것도 삼존불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도교는 중국에 전해 내려온 다양한 사상과 신앙이 혼합된 종교구나.



신비한 약을 만들어 먹으면 불로불사 한다고 믿기도 했대.



↑ **백제 금동대향로**(국립부여박물관) 뚜껑의 봉황이나 몸체를 떠받치고 있는 용, 몸체에 새겨진 산과 악기를 연주하는 신선 등은 도교의 영향을 잘 보여 준다.

↓ **도교 사원에서 향을 피우며 소원을 비는 중국인들**



함께 탐구해요

❶ 민간에서 불교와 도교가 유행한 까닭은 무엇일까?

❷ 논술 UP › 불교와 도교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됐을까?

주제

10 당의 발전과 동아시아 문화

관련 주제
- 주제14(82쪽)
- 주제17(102쪽)

핵심 질문
강력한 통일 제국으로 발전한 당의 문화는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01 유목 세계를 아우른 돌궐 제국

중국이 남북조로 분열됐을 때, 중국 서북쪽 초원 지대에는 돌궐이 여러 유목민을 아우르며 중앙아시아에서 몽골 초원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돌궐은 북조의 여러 나라에 조공을 요구할 정도로 세력이 강했고, 넓은 영토를 동서로 나눠 다스렸다. 그러나 수가 내분을 부추겨 제국은 동서로 분열됐다.

02 중국을 다시 통일한 수

수를 건국한 양견(문제)은 돌궐에 내분이 일어난 틈을 타 남조를 점령해 중국을 다시 통일했다(589). 문제는 귀족의 관직 독점을 막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교 경전에 대한 시험으로 관리를 뽑는 **과거제**를 시행했다.

뒤를 이은 양제는 **대운하**를 완성해 강남의 풍부한 물자를 화북으로 운송했다. 그러나 대운하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와 잦은 대외 원정으로 백성의 원성을 샀다. 결국 고구려 원정 실패를 계기로 전국에 반란이 일어나 건국한 지 38년 만에 멸망했다(618).



돌궐과 수·당의 영역 당은 한때 중앙아시아 일대를 장악했으나 돌궐의 반격, 토번의 공격으로 곧 지배 영역이 축소됐고, 탈라스 전투에서 아바스 왕조(82쪽 참고)에게 패하면서 서역 정복을 멈춰야 했다. 한편 돌궐은 더 서쪽으로 이동해 튀르크로 이어졌다.

대운하 남북조 시대 이후 강남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강남과 화북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대운하는 강남과 화북을 이어 중국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평가받는다.



오늘날 대운하 모습(중국 장쑤)



03 서역까지 세력을 넓힌 당

당을 세운 이연(고조)은 동돌궐의 도움을 받아 수를 무너뜨렸다(618). 뒤를 이은 태종은 오히려 동돌궐을 정복하고 토번(티베트)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 서역으로 세력을 넓혔다. 태종 이후로도 정복 활동은 계속되어 서쪽의 서돌궐과 동쪽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대제국으로 성장한 당은 점령한 지역의 세력가들에게 관직을 주는 방식으로 넓은 정복지를 간접 지배했다. 또한 당은 이전 왕조들의 제도를 잘 이어받아 **율령 체제**를 완성했다. 당의 통치 제도는 이후 중국의 여러 왕조와 이웃 나라들의 모범이 됐다(68쪽 참고).

그러나 8세기 중엽 ❶**안·사의 난** 이후 ❷절도사 세력이 강해져 황제권이 약해졌다. 이 틈을 타 권력 다툼이 이어졌고, ❸황소의 난이라는 대규모 농민 봉기까지 일어났다. 쇠퇴해진 당은 결국 절도사 세력에게 멸망했다(907).

❶ **안·사의 난** 절도사였던 안록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으로, 9년이나 지속됐다(755~763).

❷ **절도사** 병사를 이끌고 국경을 지키던 군사령관이었다. 그러나 안·사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커져 지방을 장악하고 중앙 정부에 맞서기도 했다.

❸ **황소의 난** 당 말기에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특히 황소의 난(875~884) 때는 장안성이 함락되기도 했다.

동아시아의 모범이 된 당의 통치 체제

❶ 율(律)

'율'은 범죄에 대한 형벌 규정이다. 이를 통해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 질서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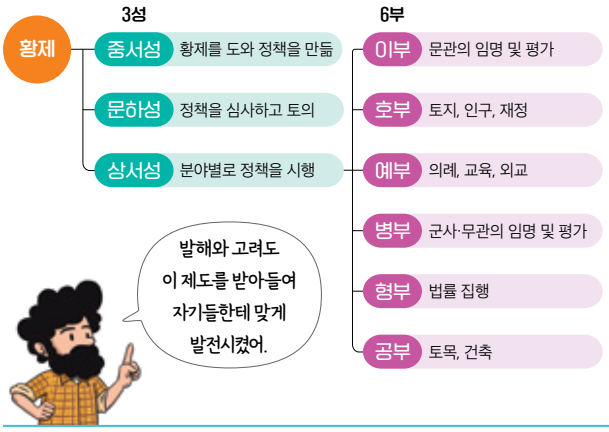
탐구 ① 오른쪽의 처벌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당 법률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자.

- 남을 손으로 때리면 회초리 40대, 흉기로 때리면 매 60대를 맞는다.
-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죄가 되지 않지만) 자식이 부모를 욕하면 교수형, 때리면 참수형으로 다스린다. -『당률』

❷ 령(令)

'령'은 여러 제도를 정한 규정이다. 중앙에는 3성 6부로 행정 조직을 갖췄고, 지방에는 주현을 두어 관리를 파견했다. 그리고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 주는 대가로 세금을 거두고 병사로 복무하도록 했다. 그러나 온전히 시행되지는 못했다.

당의 3성 6부제





호적 조사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

↓

균전제 성인 남자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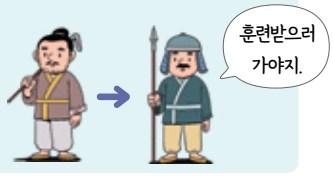
↓

토지를 받은 농민들은

세금 납부 곡물과 노동력, 또는 옷감 등을 세금으로 냄.



부병제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시기에 군사 훈련을 받음.



당의 토지, 세금, 군사 제도

탐구 ② 당이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탐구 ③ 6부가 오늘날 어떤 정치 기구와 비슷한지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대한민국 중앙 행정 기관

04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당

당은 외국인의 왕래와 외래문화 수용에 개방적이었다. 당의 지배 영역이 서역까지 확대되면서 교류의 폭은 더욱 넓어졌다. 이에 당의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했다. 또한 한대부터 전파된 한자, 유교에 더해 당대에 불교와 율령이 주변 나라로 널리 전해지면서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성이 커졌다(68쪽 참고). 다양한 종교가 유입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시, 회화, 서예, 공예 등 화려한 귀족 문화가 꽃피었다.

유교

수에 이어 당도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유교가 더욱 발달했다. 과거 시험의 기본 교재로 활용된 ❹『오경정의』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불교

현장 등 여러 승려가 인도에서 불교 경전을 가져왔다. 이 경전들이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불교 이해의 수준이 높아졌고, 한반도와 일본에도 전해졌다.

다른 종교들

도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으며, 서역으로부터 조로아스터교와 ❺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전해졌다.

❹ **『오경정의』** 유교의 기본서인 오경(서경, 시경, 역경, 춘추, 예기)의 해설서이다.

❺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의 교리가 정리되면서 이단으로 몰린 네스토리우스파는 동쪽으로 이동해 중국까지 이르렀다. 한자로는 '경교'라고 한다.

● 화려한 귀족 문화의 발달

한시 당대에는 글자 수를 맞춰 운율을 살린 한시를 잘 짓는 것이 귀족의 교양이었다.



問余何事棲碧山	묻노니, 왜 푸른 산에 사는가
笑而不答心自閑	웃으며 답하지 않지만, 마음은 저절로 한가롭네.
桃花流水杳然去	복숭아꽃 물 따라 아득히 흘러가니,
別有天地非人間	이곳이 인간 세계가 아닌 별천지라네.

- 이백, 「산중문답」

이백의 시 당의 대표 시인 이백은 속세를 떠난 자연 속의 삶을 주로 노래했다.

회화 서예와 함께 그림도 귀족의 교양으로 여겨져, 전문 화가의 그림과 별개로 문인화가 발전했다.



「장강적설도」 시인이자 문인화의 시조로 알려진 왕유가 그린 산수화이다.

서예 당은 과거 시험에서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도 중요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서예가 발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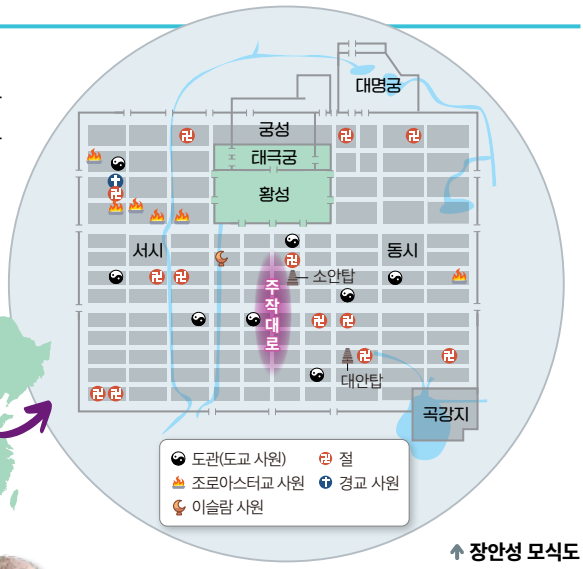


구양순체 명필 구양순의 글씨체는 신라와 고려에서도 유행했다.

동서가 만난 국제도시 장안

당의 수도 장안은 인구 백만이 넘는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장안에는 다른 나라의 사신뿐 아니라 수많은 상인, 학생, 승려가 방문했고, 외국에서 들어온 다양한 종교의 사원이 곳곳에 지어졌다. 동쪽과 서쪽의 시장에는 서역과 주변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가득했다. 도성 안 북쪽에 궁궐을 짓고 궁궐 남문에서 도성 남문까지 큰길을 낸 후 이를 중심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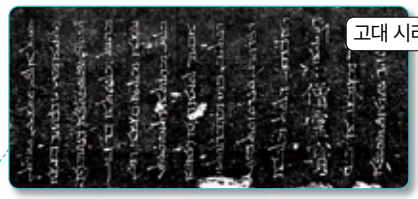
↑ 장안성 모식도



↑ **예빈도**(중국 시안) 당의 황족 무덤에 그려진 벽화로, 당의 관리가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장면이다.



대진국의 사제 아라본이 멀리서 장안까지 와서 경전과 성상을 바쳤다. 그 교리를 살펴보니 …… 만물을 구제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천하에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중국 시안비림박물관) 로마(대진)로부터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경교)가 당(중국)에 전해진(유행) 과정이 한자와 고대 시리아어로 적혀있다.



← **대안탑**(중국 시안) 승려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모신 탑이다.



→ **당삼채**(중국국가박물관) 세 가지 색을 섞어 다양한 색을 표현한 도자기이다. 낙타를 탄 서역 상인의 모습에서 당의 활발한 대외 교류를 짐작할 수 있다.

함께 확인해요

❶ 당 태종은 □□ 제국을 물리치고 서역으로 세력을 넓혔다.

❷ 당은 이전의 제도들을 잘 이어받아 □□ 체제를 완성했다.

❸ 생각 UP 외래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당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 쑥쑥 탐구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

동아시아 각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습니다. 특히 제국으로 성장한 중국에 때로는 맞서고 때로는 협조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화적 공통성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01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점



한자 독자적인 문자가 없었던 동아시아 각국은 일찍부터 한자를 받아들여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한자를 바탕으로 각국의 문자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유교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이념이자, 백성들을 복종시키는 규범 역할을 했다. 동아시아 각국은 유교 지식을 갖춘 관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 기관을 설치했다.



불교 동아시아 각국은 한자로 번역된 불경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다. 불교는 동아시아 각국의 왕실과 귀족의 보호 아래 성장했고, 많은 불교 사원과 불상이 제작됐다.



율령 동아시아 각국은 중국의 율령을 참고해 관리의 등급과 그에 따른 복장을 정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또한 독자적인 율령을 발표하기도 했다(역사② 23쪽 참고).

02 중국 문화의 수용과 발전

만주·한반도

삼국 시대 3~5세기에 걸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춰 나갔다. 이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유교와 불교를 수용했고, 중국의 제도를 참고해 율령을 발표했다.

통일 신라와 발해 7세기 이후 신라와 발해는 모두 유학생과 승려, 외교 사절을 당에 파견해 문화를 받아들였다. 당의 관리가 된 유학생, 당을 거쳐 인도까지 간 승려도 있었다.



일본

야마토 정권 수립 4세기 전후에 주변 소국들을 복속하며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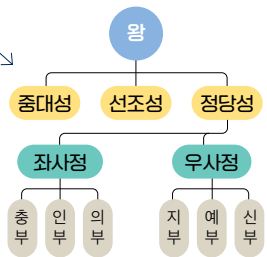
아스카 문화와 다이카 개신 야마토 정권은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유교와 불교를 받아들여 문화를 발전시켰다. 7세기에는 중국에 대규모 사신을 보내 중국 문화를 배워왔고, 그 결과 왕권을 강화하는 다이카 개신을 단행했다.

일본과 천황 왕권이 강화되자 7세기 말부터 나라 이름을 '일본'이라 하고 국왕을 '천황'이라고 높여 불렀다. 8세기 초에는 율령을 발표하고, 당의 장안성을 모방해 수도 헤이조쿄를 새로 건설했다.

헤이안 시대 8세기 말 수도를 헤이안(지금의 교토)으로 옮긴 후 견당사 파견을 중단하고 독자적인 일본 문화를 발전시켰다. 한자를 변형해 가나 문자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문학 작품도 많이 나왔다.



(역사② 55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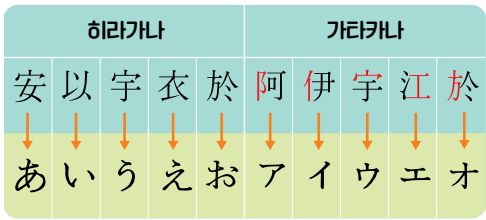
발해의 3성 6부제 당의 3성 6부제를 발해의 상황에 맞게 변용해 운영했다.

추천 검색어 일본의 2관 8성제



일본의 헤이조쿄 모식도

추천 검색어 발해의 상경성



가나 문자



도다이지 대불을 청소하는 모습
(일본 도다이지) 동아시아 각국은 국력을 과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거대한 불상을 제작했다.

함께 탐구해요

❶ 동아시아 각국이 중국 문화를 수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❷ 논술 UP 문화의 전파와 수용을 대하는 옳은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다음 주장을 비판해 보자.

> 만주·한반도의 고대 문화는 모두 중국이 전해 준 거야. 한자, 유교, 불교, 율령 등 모든 것에서 중국이 원조이고 삼국은 이를 모방했을 뿐이지.



이번 중단원에서는 인도, 서아시아, 유럽의 정치적 변동과 각 지역에서 발달한 종교·문화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

주제 11

관련 주제
주제6(46쪽)
주제14(82쪽)

인도에 꽃핀 힌두 문화

핵심 질문
인도에서 불교를 대신해 힌두교가 전통 종교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01 굽타 왕조의 발전과 힌두교

쿠샨 왕조가 쇠퇴한 후 인도에는 여러 나라가 경쟁을 벌였다. 이 중 갠지스강 유역에서 등장한 굽타 왕조가 인도 북부에서 세력을 키웠다. 특히 4세기 말에 즉위한 찬드라굽타 2세는 북인도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다. 경제적으로는 동쪽의 중국, 서쪽의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교역하며 번성했다.



이 시기에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민간 신앙과 불교가 더해진 **힌두교**가 등장했다. 굽타 왕조의 왕들은 자신을 힌두교의 신에 비유하며 힌두교를 지원했다. 힌두교는 브라만교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카스트에 따른 신분 차별이 다시 강화됐다. 카스트에 따라 지켜야 할 규범과 의무를 정해놓은 『**마누 법전**』이 일상생활의 기준이 되어 이후 인도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힌두교는 어떤 종교일까?

❶ 힌두교가 유행한 까닭

불교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엄격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어. 그래서 일반인이 따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반면 브라만교는 복잡한 제사 의식과 비싼 제물을 간소화했어. 그리고 석가모니를 비롯한 다른 종교의 신들까지 받아들이며 힌두교로 거듭났지.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인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인도인 대다수가 믿는 종교가 됐어. 오늘날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신이 숭배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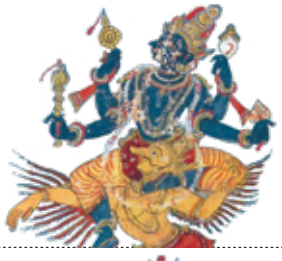
탐구 ① 힌두교의 신들을 더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인드라, 아수라, 가네샤, 락슈미, 시타 등

❷ 힌두교를 대표하는 신들



1. **브라흐마**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으로, 힌두교에서 우주의 근본적 원리를 상징한다. 동서남북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팔을 가지고 있으며,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백조를 타고 다닌다.



2. **비슈누** 세상을 유지·보존하는 신으로, 네 개의 팔에 각각 무기를 들고 있다. 여러 화신(아바타)으로 등장해 인간을 구원한다. 사람 몸에 독수리 날개를 한 가루다를 타고 다닌다. 인도의 왕들은 자신을 비슈누의 화신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3. **시바** 파괴의 신이자 재생의 신이다. 갠지스강을 상징하는 흘러내리는 머리, 세상을 파괴한다는 두 눈 사이의 세 번째 눈, 삼지창을 든 모습으로 표현된다. 흰 소를 타고 다니는데, 힌두교에서 소를 숭배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02 인도 고전 문화와 자연 과학의 발전

굽타 왕조에 이르러 힌두교를 바탕으로 인도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 주는 고전 문화가 확립됐다. 문학에서는 힌두교 세계관을 잘 보여 주는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와 같은 서사시가 인도 고유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범어)로 정리됐다. 미술에서는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는 **굽타 양식**이 유행했다. 불교 사원인 아잔타 석굴과 불교·힌두교 사원이 함께 있는 엘로라 석굴의 벽화와 조각이 대표적이다.

우주의 탄생과 만물의 근원에 대한 관심은 자연 과학의 발달로 이어졌다. 지구가 둥글며 스스로 돈다고 생각했고, 일식(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과 월식(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의 원인도 밝혀냈다. 불교의 ❶'공(空)' 사상은 숫자 '0'의 사용과 10진법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런 자연 과학 지식은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전해졌다.

❶ **공 사상** 세상 모든 것은 비어있지만, 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불교 사상이다. '비어 있다'라는 개념이 숫자 0으로 표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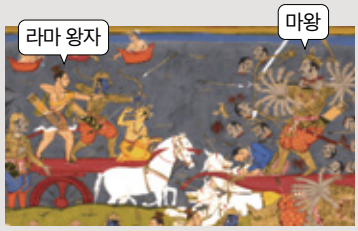
인도	०	१	२	३	४	५	६	७	८	९
아라비아	٠	١	٢	٣	٤	٥	٦	٧	٨	٩
현대	0	1	2	3	4	5	6	7	8	9

숫자의 변화 인도에서 사용된 0과 숫자는 아라비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져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정착됐다. 아주 작은 수와 아주 큰 수에 대한 탐구도 이어져 무한대(∞) 개념도 나왔다.

탐구 ② 불교에서 유래한 아주 작은 수와 아주 큰 수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보자.

추천 검색어 찰나, 억겁, 불가사의, 무량대수

인도의 고전 문학



『라마야나』 비슈누의 화신인 라마 왕자가 마왕과 싸워 아내와 왕국을 되찾는 이야기이다. 타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마하바라타』 바라타 왕국의 후계자인 다섯 형제가 사촌들로부터 왕위를 되찾기 위해 벌인 전쟁 이야기다. '마하'는 '위대한'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인도인은 자신들을 바라타족의 후예라고 여긴다.



엘로라 석굴(인도 아우랑가바드) 엘로라 석굴은 굽타 왕조가 쇠퇴한 7~10세기에 만들어진 불교·힌두교 사원으로, 30개 이상의 석굴이 있다. 석굴에 사원을 만드는 문화는 중국과 한반도에도 전해졌다.

연꽃을 손에 든 보살 벽화(인도 아우랑가바드) 기원전부터 수백 년간 조성된 아잔타 석굴 사원에 있는 벽화이다. 인도인을 닮은 둥근 얼굴, 화려한 장신구, 몸매가 드러나는 얇은 옷 등 굽타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함께 확인해요

❶ 굽타 왕조의 왕들은 자신을 □□□의 신에 비유했다.

❷ 검색 UP 오늘날 인도인의 생활 속에 힌두교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바라나시, 요가, 소 숭배

생각 쑥쑥 탐구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인도차이나반도와 그 남쪽 섬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지었고, 어업과 해상 교역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왕국이 등장했고, 필요에 따라 중국과 인도의 문화를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유적을 통해 이들이 수용한 다양한 문화를 알아볼까요?

타이

11세기부터 미얀마의 영향으로 상좌부 불교를 받아들였다. 오늘날에도 국민 대다수가 불교 신자이다.

→ **왓 마하탓**(타이 아유타야) 13세기에 타이를 최초로 통일한 수코타이 왕조의 왕실 사원이다.



미얀마

11세기 파간 왕조 때 상좌부 불교를 받아들여 수많은 사원과 탑을 세우고 경전을 모아 동남아시아의 불교 중심지가 됐다. 오늘날에도 국민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다.

↓ **파간**(미얀마 파간) 2,000개가 넘는 탑과 사원이 보존되어 있어 '불탑의 도시'라고 불린다.





↑ 오늘날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바다를 통해 인도와 교역하면서 불교와 힌두교를 수용했다. 자와섬 중앙에는 대승 불교를 받아들인 사일렌드라 왕조가 8세기부터 번성했지만, 섬 동쪽에는 힌두교를 받아들인 다른 세력이 있었다.

→ **보로부두르 사원**(인도네시아 마겔랑) 8세기 무렵 자와섬 중앙에 세워진 거대한 불교 사원이자 탑이다. 꼭대기의 원뿔형 탑 주변에 72개의 탑이 있고, 불상이 탑 안에 있다.





베트남

베트남 북부 지역은 한 무제에게 정복당한 이후 약 1000년간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그래서 한자, 유교, 율령, 대승 불교가 자연스럽게 베트남에 전해졌다. 오늘날에도 불교를 믿는 인구가 많다. 이와 달리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는 힌두교를 받아들인 참파 왕조가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 **문묘**(베트남 하노이) 유교의 성인인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자, 유학자를 키운 교육 기관이다.

문명의 교차로 동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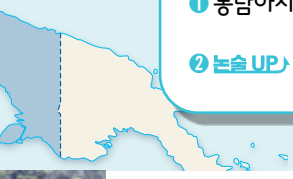
인도차이나반도 남쪽으로 이어지는 섬들은 동서로 인도양과 태평양, 남북으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이 바닷길을 따라 배를 타고 계절풍을 이용해 동서를 오갈 수 있었다. 동쪽에서는 중국 상인들이, 서쪽에서는 인도 상인들이 향료 등 특산물을 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동서를 오가며 교역을 주도했다. 이에 다양한 문화가 서로 만나고 섞이면서 동남아시아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됐다.



↑ **미선 유적**(베트남 주이쑤옌) 베트남 중부에 있는 참파 왕국의 힌두교 사원으로, 시바를 주로 모신다.



↑ **화옌사**(베트남 옹 비) 베트남 북부의 대표 사찰로,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셨다고 전해진다.



함께 탐구해요

❶ 동남아시아에 어떤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❷ 논술 UP♪ 동남아시아에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배경은 무엇일까?

캄보디아

9세기 초부터 앙코르 왕조가 등장해 힌두교를 받아들이고 제국을 이루며 번성했다. 후에 점차 불교를 받아들여 오늘날에는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다.



↓ **앙코르 와트**(캄보디아 시엠립) 비슈누에게 바치는 거대한 힌두교 사원이었지만, 상좌부 불교가 유행하면서 불교 사원으로 이용됐다.





↑ **프람바난 사원**(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9~10세기에 자와섬 동쪽에 세워진 힌두교 사원이다. 가장 큰 사원은 시바에게 바친 것이다.

주제

12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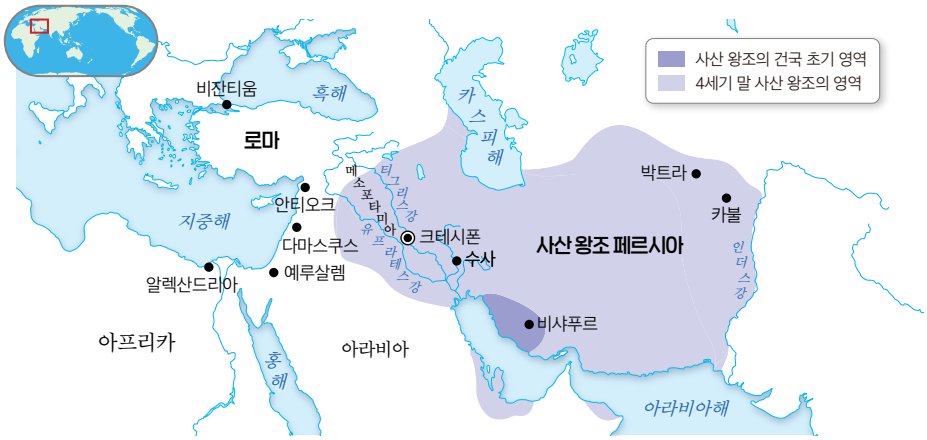
관련 주제
주제3(34쪽)
주제5(40쪽)
주제14(82쪽)

핵심 질문
오늘날 전 세계에 약 18억 명이 이슬람교를 믿는다. 이슬람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했을까?

01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발전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43쪽 참고)를 멸망시키고 서아시아를 정복했다. 사산 왕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34쪽 참고)를 계승했다. 왕을 '샤한샤'라 칭하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아케메네스 왕조의 전성기 영토를 회복하려 했다.

사산 왕조는 동서 중계 무역을 주도하며 경제적으로 번성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중국과 교류하며 조로아스터교와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경교)를 전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비잔티움 제국(80쪽 참고)과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점점 쇠약해져 결국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했다(651).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3세기에 동쪽으로 쿠샨 왕조를 압박하고, 서쪽으로는 로마와 겨뤘다. 4세기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이루었다.



봉수형 유리병(국립경주박물관) 경주에서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유리병이 발견됐다.

아케메네스 왕조를 계승한 사산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샤푸르 1세 때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겨 로마 황제를 포로로 잡았다. 그 순간을 묘사한 부조는 다리우스 1세를 모신 영묘(영혼을 모신 사당) 아래편에 새겨져 있다. 이는 사산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를 계승하려 했음을 잘 보여 준다.



샤푸르 1세의 부조 로마의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샤푸르 1세 아래에 무릎을 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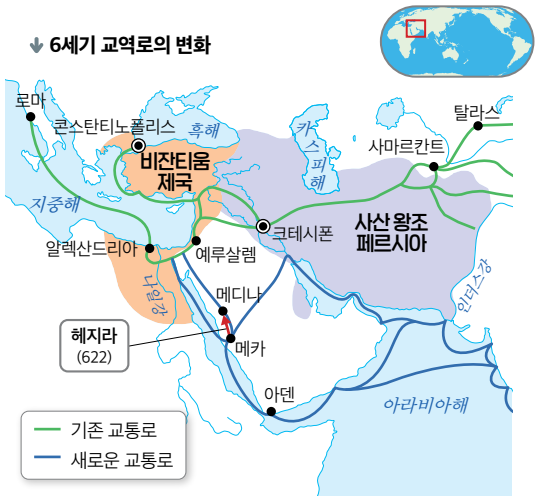
페르시아왕들의 영혼을 모신 낙쉐 로스탐(이란 마르브다슈트) 페르세폴리스 북서쪽에 다리우스 1세 등 4명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왕들의 영묘가 조성되어 있다.

02 예언자 무함마드와 이슬람교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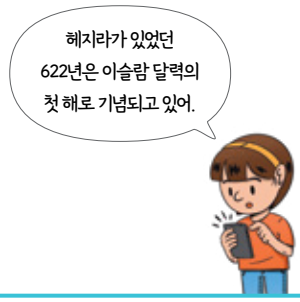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 간의 전쟁은 동서 교역을 힘들게 했다. 그러자 상인들은 아라비아해로 우회하는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했다. 그 결과 메카, 메디나 같은 도시들이 번성했다. 하지만 도시의 일부 유력자(세력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독점하면서 빈부 격차가 커졌고, 부족 간 갈등과 전쟁도 빈번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며 **이슬람교**를 창시했다. '유일신 알라를 믿는 자는 모두 평등하다'라는 그의 가르침은 하층민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메카의 유력자들은 그를 박해했고, 무함마드와 추종자들은 메디나로 피신했다(622, 헤지라). 무함마드는 신자들을 모아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어 메디나를 장악했고, 이후 메카까지 정복해 아라비아반도 대부분을 차지했다.

6세기 교역로의 변화



탐구 ① 메카는 오늘날 어느 나라에 속할까?



이슬람교는 어떤 종교일까?

이슬람교도가 지켜야 할 5가지 의무



1. 신앙 고백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가 보낸 예언자임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



2. 예배
하루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 쪽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



3. 헌금
자기 수입 중 일부를 가난한 자를 위해 내어 놓아야 한다.



4. 금식
이슬람력으로 아홉째 달(라마단)에는 한 달 동안 금식해야 한다.



5. 성지 순례
평생에 한 번은 성지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

'이슬람'은 아랍어로 '복종'이란 뜻이다. 상인으로 아라비아 여러 곳을 다녔던 무함마드는 조로아스터교나 크리스트교의 교리를 참고해 이슬람교를 창시했다. 그래서 이슬람교 경전 『쿠란』에는 아브라함, 모세, 예수 이야기도 들어있다. 다만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알라가 보낸 여러 예언자 중 하나로 여겨진다.

Q. 한 달을 어떻게 굶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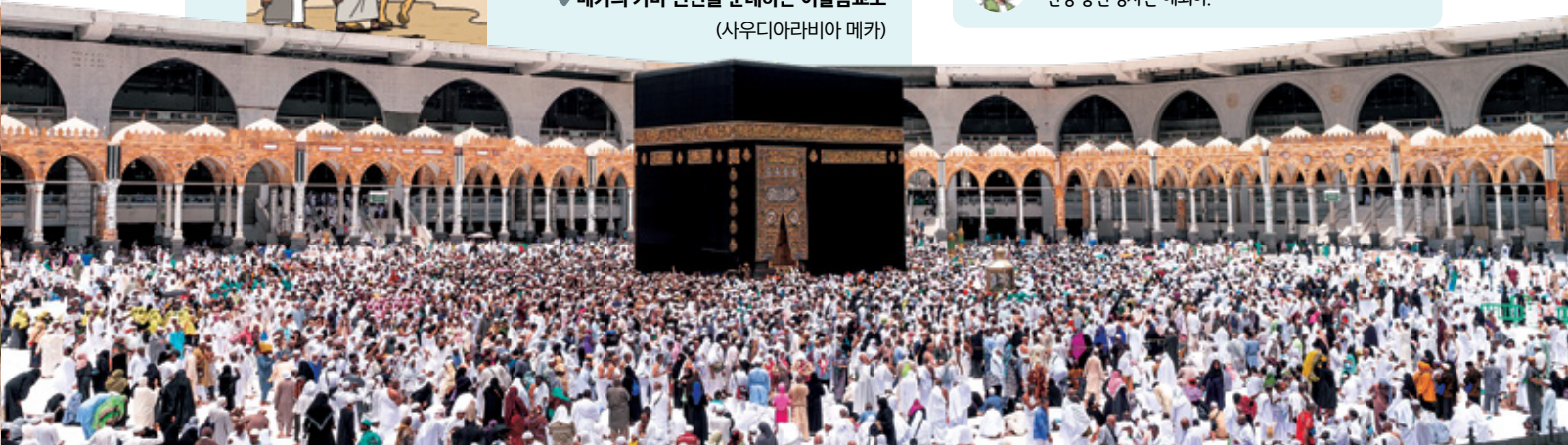
해가 떠 있는 낮 동안만 금식하고, 해가 지면 먹을 수 있어. 낮에는 물도 못 마시니 쉬운 일은 아니지.

Q.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



환자나 노인,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 어린이나 여행자, 전쟁 중인 병사는 예외야.

↓ 메카의 카바 신전을 순례하는 이슬람교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03 정통 칼리프 시대와 이슬람 세계의 확대

❶ **칼리프** 무함마드의 후계자로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를 뜻한다. 무함마드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권위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권한까지 가졌다.

❷ **『쿠란』** 이슬람교의 경전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 규율도 규정했다 (84쪽 참고).

무함마드가 죽은 후 이슬람 공동체는 한동안 후계자인 ❶**칼리프**를 선출했다(**정통 칼리프 시대**). 칼리프들은 무함마드가 받은 신의 계시를 모아 ❷**『쿠란』**으로 정리했고, 알라의 뜻을 널리 전하기 위해 정복 활동도 계속했다. 그 결과 이슬람 세력은 아라비아반도를 넘어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집트까지 정복했다. 정복지에서 강제 개종은 없었지만, 이슬람교도가 아니면 **지즈야**라는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러나 칼리프 선출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면서 칼리프가 잇달아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 자리를 세습하면서 정통 칼리프 시대는 막을 내렸다(661).



전투 중인 이슬람 전사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의 뜻을 실현할 이슬람 공동체의 건설을 중요히 여긴다. 그래서 알라의 뜻을 전하는 정복 활동을 신성한 일로 평가했다.



이슬람 세계의 확대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

Q. 4대 칼리프 알리는 누구?

3대 칼리프가 암살당한 혼란 속에서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가 4대 칼리프로 선출됐어. 무함마드와 피를 나눈 친척이자, 신앙심이 깊었던 알리는 정복지의 총독들이 신앙 대신 땅과 재물만 탐한다며 이들을 교체하려 했지.

Q. 총독들이 반발했을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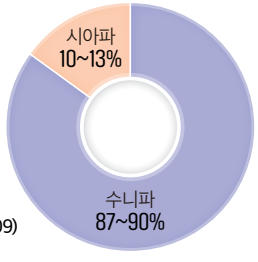
맞아. 여러 총독이 반발했고 시리아 총독은 반란까지 일으켰어. 이를 계기로 알리 세력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 알리가 암살됐지. 이 틈을 타 시리아 총독이 칼리프 자리를 차지하고 후손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어 우마이야 왕조가 생겼어.

Q. 그럼 수니파와 시아파는 뭐야?

억울하게 죽은 무함마드의 혈통 알리만이 진정한 칼리프라고 믿는 소수파를 '시아파', 4명의 칼리프와 우마이야 왕조 모두를 인정하는 다수파를 '수니파'라고 해. 수니파와 시아파는 대체로 평화롭게 공존해 왔지만,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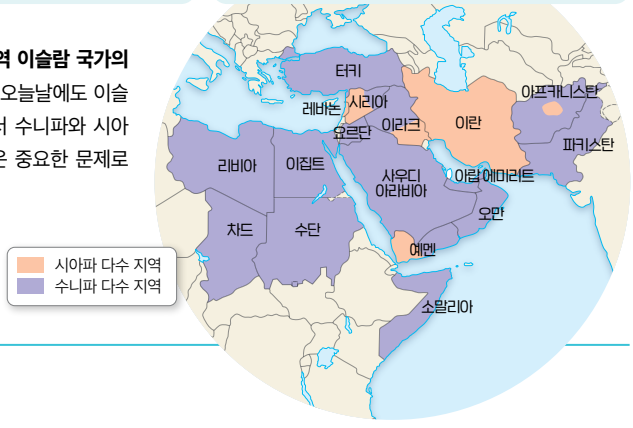
수니파와 시아파 전체 비율

서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각각 수니파와 시아파를 대표한다.



- 퓨 리서치 센터(2009)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의 종파 분포 오늘날에도 이슬람 세계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은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04 제국으로 발전한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 왕조는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고,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과 중앙아시아,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바다 건너 이베리아반도(에스파냐, 포르투갈 등이 위치한 유럽 서남쪽 끝에 있는 반도)까지 정복했다. 이에 우마이야 왕조는 유럽·아프리카·아시아에 걸친 제국으로 발전했고, 제국 안에는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살았다. 곳곳에 화려한 **모스크**(예배가 이뤄지는 이슬람교 사원)(84쪽 참고)가 세워졌고, 문화 교류뿐 아니라 동서 중계 무역도 활발했다.

하지만 우마이야 왕조는 여전히 아랍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아랍인만이 높은 관리나 장군이 될 수 있었다. 비아랍인들은 알라 앞에 모든 이슬람교도가 평등하다는 가르침에 따라 이슬람교로 개종했지만, 차별 대우에 점점 불만을 느꼈다. 이는 결국 우마이야 왕조의 분열과 쇠퇴로 이어졌다.





우마이야 모스크(시리아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는 비잔티움 문화와 크리스트교의 영향이 강한 곳이었다. 우마이야 왕조는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크리스트교 교회가 있던 곳에 화려한 모스크를 건설했다.

히잡은 존중해야 할 이슬람 전통일까, 극복해야 할 여성 억압일까?

❶ 히잡을 쓰는 이유

『쿠란』에는 여성의 순결을 강조해 머릿수건을 써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당시의 인식을 보여준다.



히잡 머리와 상체를 가리는 이슬람교도의 의복이다. 얼굴과 신체를 가리는 정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❷ 오늘날 히잡에 대한 논쟁



「히자비」 미국 이슬람교도 힙합 가수의 노래로, 개인이 히잡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히잡 시위(2022) 이란에서 히잡을 잘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종교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이에 많은 이란 여성이 히잡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였다.

탐구 ② 히잡의 착용 여부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 보자.

함께 확인해요

❶ 칼리프의 정통성을 놓고 다수파인 □□□과/와 소수파인 □□□(으)로 나뉘었다.

❷ **생각 UP** 이슬람교에 많은 사람이 호응한 까닭은 무엇일까?

주제

13 크리스트교 세계의 발전

관련 주제
→ 주제5(40쪽)
→ 주제15(86쪽)

핵심 질문
로마가 동서로 분리된 이후, 크리스트교는 유럽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을까?

01 서로마 제국의 붕괴와 프랑크 왕국의 성립

4세기 초 동쪽에서 ❶훈족이 침입해 오자 국경 밖의 ❷**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으로 대거 이동해 왔다. 로마 제국은 이들을 통제하지 못했고, 게르만족은 곳곳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다. 결국 게르만족 용병(돈을 받고 고용된 병사)이 황제를 몰아내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다(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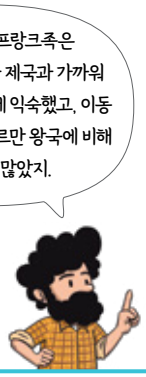
서유럽에 자리 잡은 게르만 왕국들은 서로 경쟁하며 세력을 다퉜다. 이 중 일부는 비잔티움 제국(동로마)에게 다시 정복당했다. 하지만 프랑크 왕국은 일찍부터 로마 문화와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며 발전했고, 다른 게르만 왕국들을 제압하며 서유럽의 중심 국가로 점점 성장했다.



↑ **게르만족의 이동**

❶ **훈족** 중앙아시아에서 흑해 동부를 거쳐 유럽으로 침입해 게르만족의 이동을 자극한 유목민이다.

❷ **게르만족** 원래 로마 제국의 북쪽에서 수렵과 목축, 농업을 하며 살던 여러 종족을 통틀어 말한다.



크리스트교는 서로마 멸망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❶ 일상에 스며드는 크리스트교

교회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도시와 마을을 보호하고, 다양한 토속 신앙을 믿던 게르만족에게 크리스트교를 전파했다. 교회와 수도원은 각 지역의 문화 중심지이자 학교, 병원 역할까지 했다.



↑ **기도하고 노동하는 수도사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성경 공부뿐 아니라, 숲을 개간하는 일꾼이자 마을을 지키는 전사로도 활약했다.

❷ 교황을 중심으로 조직된 교회 체제

크리스트교로 개종하는 게르만족이 늘자, 게르만 왕국들도 교회의 협조가 필요해졌다. 이에 권력이 커진 로마 주교는 교황이 됐고, 그를 수장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 **가톨릭의 교계 제도**

❸ **교구** 교회를 지역별로 구분하는 단위이다.

02 서유럽 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카롤루스 대제

8세기 들어 우마이야 왕조가 바다를 건너 이베리아반도를 차지했다(77쪽 참고). 이슬람 세력이 서유럽으로 세력을 넓히려 하자, 프랑크 왕국의 재상(왕을 돕는 관리 중 최고 책임자) 카롤루스 마르텔이 이를 물리치고 서유럽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켜냈다. 이후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은 프랑크 왕국의 왕이 되려고 했다. 교황이 그의 즉위를 인정해 주자, 그는 그 대가로 게르만족에 대한 선교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정복하고 이를 교황에게 바쳤다(교황령).

뒤를 이은 **카롤루스 대제**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서유럽 영토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는 정복지에 교회를 세워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고 더 많은 땅을 교황에게 바쳤다. 그 보답으로 교황은 그를 **서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했다(800).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로마 교회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81쪽 참고).



↑ **프랑크 왕국의 발전** 이슬람 세력을 막은 이후 프랑크 왕국은 카롤루스 대제 때 많은 영토를 차지했다.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후 프랑크 왕국은 그의 후손들에 의해 셋으로 나뉘어 오늘날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원이 됐다.



← **카롤루스 대제상을 받는 유럽 중앙 은행 총재**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하나로 다스렸던 카롤루스 대제는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독일 아헨에서는 매년 유럽 통합과 발전에 공헌한 인물에게 카롤루스 대제상을 수여하고 있다. 2002년에는 유럽의 경제적 통합을 이끈 '유로화'가 수상자로 선정되어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대신 상을 받았다.

↓ **카롤루스 대제 동상**(독일 아헨)



↓ **아헨 대성당**(독일 아헨) 카롤루스 대제는 아헨을 수도로 삼아 궁전과 대성당을 짓고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 결과 아헨은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로마 문화와 게르만 문화가 융합된 중세 서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와 수행원들** 왼쪽에는 관료와 군인, 오른쪽에는 성직자가 서 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종교와 정치에서 큰 권한을 행사했다.

03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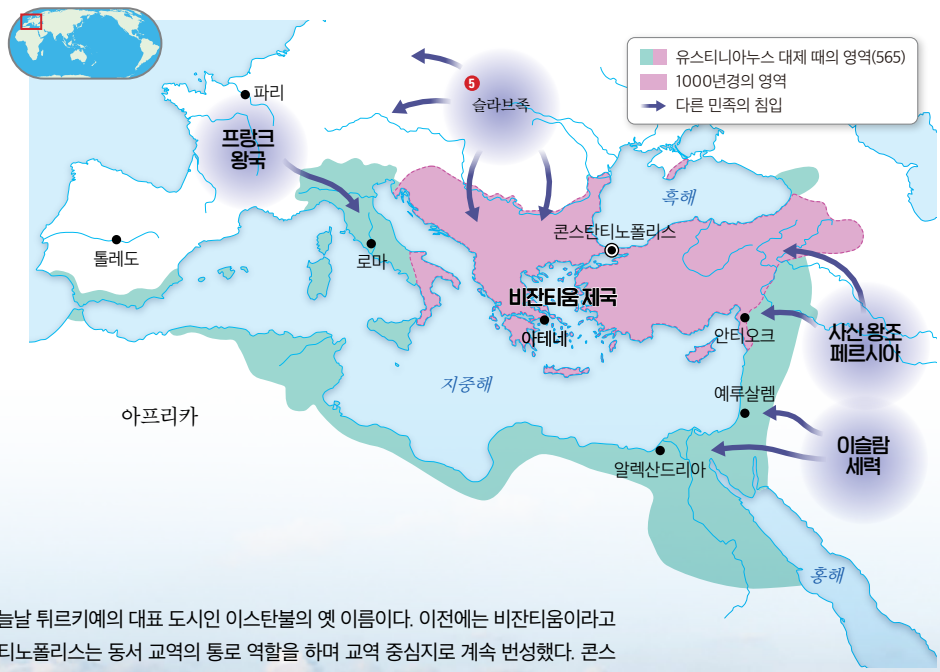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비잔티움 제국(동로마 제국)은 훈족과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았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도 다투는 등 계속 외침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를 잘 막아내며 10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다.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6세기에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는 게르만 왕국들을 물리치고 지중해 연안을 장악해 옛 로마 제국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다. 또 기존의 로마법을 정리해 ❹**『로마법 대전』**을 완성하고, 웅장한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가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을 건설했다(88쪽 참고).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이후 제국은 계속된 외침으로 위기에 빠졌다. 이에 맞서 비잔티움 제국은 군인에게 땅을 주고 사령관에게 지방 행정을 맡겨 그 지역을 지키게 했다. 또 귀족과 수도원의 대토지 소유를 견제하고 자영농을 보호하는 등 황제 중심의 정치를 이어가려 했다.

❹ **로마법 대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도 부른다. 제국 시민 모두에게 적용할 법을 만들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이후 유럽의 법체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 **비잔티움 제국의 영역**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 그러나 곧 게르만 왕국에 이탈리아를 빼앗겨 로마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졌다. 이후 북쪽의 슬라브족, 동쪽의 이슬람 세력에게 침입당해 영토가 크게 줄었다.



❺ **슬라브족** 동유럽 지역에 주로 거주했던 종족으로, 오늘날 동유럽과 러시아인이 여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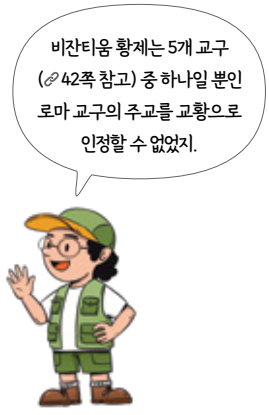
↓ **콘스탄티노폴리스**(튀르키예 이스탄불) 오늘날 튀르키예의 대표 도시인 이스탄불의 옛 이름이다. 이전에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렸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서 교역의 통로 역할을 하며 교역 중심지로 계속 번성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높이 12m에 달하는 이중, 삼중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어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다.



04 동서 교회의 분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비잔티움 황제는 자신이 유일한 로마 제국 황제이자 크리스트교 세계의 수호자임을 밝혔다. 또한 종교 회의를 열어 교리를 다듬고 교회의 주교를 직접 임명했다. 로마의 교황은 비잔티움 황제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이는 8세기에 **성상 숭배 금지**를 둘러싼 대립으로 격화됐다.

비잔티움 제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로마 교황은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했다.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 제국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었다. 비잔티움 제국 황제와 로마 교황의 계속된 대립은 동·서로마 교회의 분열로 이어졌다(1054). 이후 교황을 따르는 서유럽 교회는 **로마 가톨릭**, 황제가 주도하는 동유럽 교회는 **그리스 정교**로 불렸다.



성상 숭배를 둘러싼 논쟁에는 종교적인 이유만 있었을까?



탐구 ① 교황은 왜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했을까?

탐구 ②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도 성상을 허용했고, 오늘날 그리스 정교에서는 성상을 신성시하고 있다. 동·서로마 교회가 분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함께 확인해요

❶ 프랑크 왕국의 □□□□ 대제는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됐다.

❷ 성상 숭배 논쟁 이후 교회는 그리스 정교와 □□ □□□(으)로 분열됐다.

이번 중단원에서는 크리스트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충돌한 배경과 이후 이뤄진 교류를 탐구할 수 있다.

주제 14

이슬람 세계의 확대와 변화

관련 주제
→ 주제10(64쪽)
→ 주제11(70쪽)
→ 주제12(74쪽)
→ 주제22(118쪽)
→ 주제23(120쪽)

핵심 질문
이슬람교가 서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01 아바스 왕조의 등장과 이슬람 세계의 다양화

비아랍인을 차별하던 우마이야 왕조는 시아파와 페르시아인의 지원을 받은 **아바스 왕조**에게 무너졌다(750). 아바스 왕조는 여전히 수니파를 따르고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지만, 페르시아에 가까운 **바그다드**를 수도로 정하고 비아랍인도 관리로 등용하는 등 모든 이슬람교도를 동등하게 대했다. 또 학문을 권장하고 다양한 문헌을 연구·보존하기도 했다. 그 결과 바그다드는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의 시장으로 번성했다.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이전처럼 이슬람 세계 전체를 다스리지는 못했다. 이베리아반도에서는 우마이야 왕조의 후손들이,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에는 시아파가 각각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에도 독자적인 이슬람 왕조가 등장했다. 여러 이슬람 왕조의 등장은 오히려 지역별로 다양한 이슬람 문화가 발전하고 이슬람교가 더욱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다.

유럽의 이슬람 왕조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한 후 그 후손들은 유럽의 이베리아반도에 자리 잡았다. 이 지역은 로마 문화의 전통 위에 이슬람교가 융합해 독특한 문화가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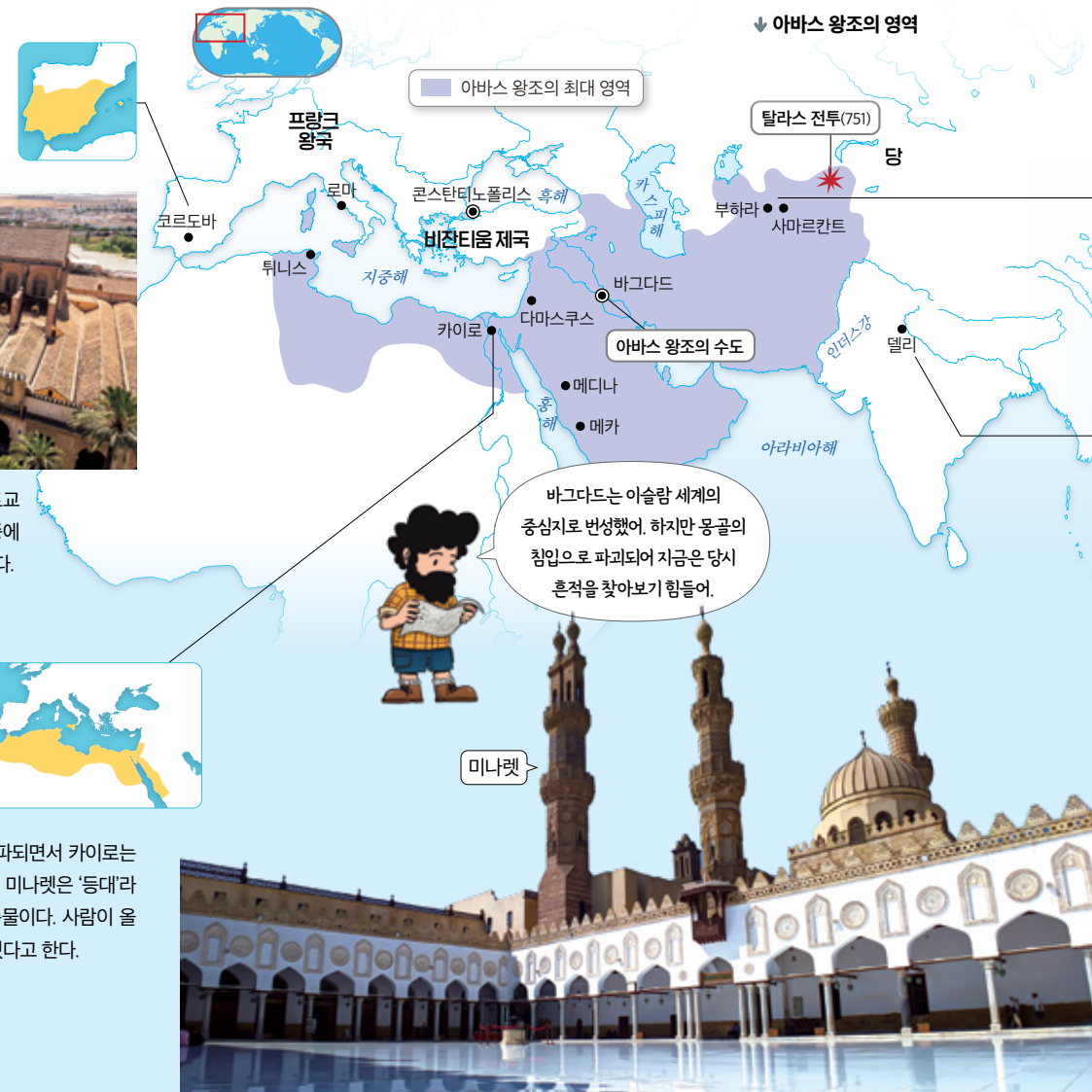


↑ **코르도바의 모스크**(에스파냐) 크리스트교 교회가 있던 자리에 세운 모스크이다. 나중에 이슬람교도를 몰아내고 다시 교회로 개조했다.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왕조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에도 독자적인 이슬람 왕조가 등장했다. 이들은 아바스 왕조와 달리 시아파를 따랐다.

→ **카이로의 모스크**(이집트)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카이로는 '1000개의 미나렛을 가진 도시'로 발전했다. 미나렛은 '등대'라는 뜻으로, 기도 시간을 알릴 때 활용된 건축물이다. 사람이 올라가 큰 소리로 신자들에게 예배 시간을 외쳤다고 한다.



02 이슬람 세계의 주역이 된 셀주크 튀르크

돌궐 제국이 무너진 후 **튀르크** 계통의 유목민은 서쪽으로 이동했다(65쪽 참고). 이들은 이슬람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일부는 이슬람 왕조의 전사로 활약했다. **셀주크 튀르크**도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로 이동하며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이슬람 왕조의 용병으로 힘을 키워 이후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11세기에 셀주크 튀르크는 바그다드를 점령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❶**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셀주크 튀르크가 이슬람 세계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에 이어 튀르크인도 이슬람 세계의 주역(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다.



↑ **셀주크 튀르크의 영역** 셀주크 튀르크는 세력을 확장하면서 서쪽으로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해 소아시아를 차지하고 비잔티움 황제를 포로로 잡기도 했다. 이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90쪽 참고).

❶ **술탄**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지배자를 이르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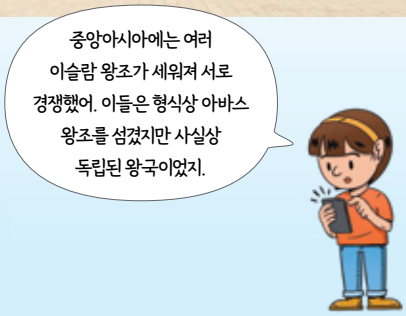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왕조

동서 교역에 적극적이었던 아랍과 페르시아의 이슬람교도들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과 계속 접촉했다. 이를 통해 이슬람교가 중앙아시아 유목민에게도 전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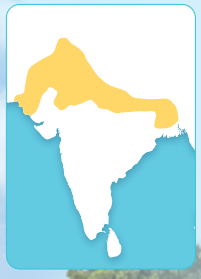
→ **부하라의 영묘**(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이슬람 건축물로, 왕족들의 영혼을 모신 사당이다.



인도의 이슬람 왕조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접해있는 인도 북부에도 일찍부터 이슬람교가 전해졌고, 13세기 초부터는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가 이어졌다. 카스트제에 불만이 많던 하층민들은 이슬람교를 환영했다.

↓ **델리의 미나렛**(인도) 델리 지역을 정복한 왕조가 이를 기념해 세운 탑이다. 힌두교에 대한 이슬람교의 승리를 상징한다.



함께 확인해요

❶ 셀주크 튀르크는 바그다드를 점령한 후 칼리프로부터 □□(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❷ **생각 UP** 아바스 왕조와 우마이야 왕조의 통치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일까?

생각 쑥쑥 탐구

이슬람 문화의 발전과 확대

이슬람 왕조가 지배한 지역에서는 이슬람교와 아랍어를 공통 요소로 하는 이슬람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서로 섞이고 전파됐습니다. 제지술이나 나침반, 화약 같은 중국의 발명품도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슬람 문화의 주요 특징을 알아볼까요?



↑ **지혜의 집** 아바스 왕조가 운영한 도서관으로 세상의 여러 지식을 수집해 아랍어로 번역하고 연구했다.

01 이슬람교 중심의 문화, 『쿠란』과 모스크

이슬람교는 종교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쳤다. 『쿠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쿠란』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까지 세세히 규정했기 때문에 일종의 법전 역할도 했다.

이슬람교 사원을 모스크라고 하는데, 크고 화려한 모스크는 이슬람 문화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이슬람교는 우상숭배를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에 모스크는 추상적인 아라베스크 무늬나 『쿠란』 구절로 장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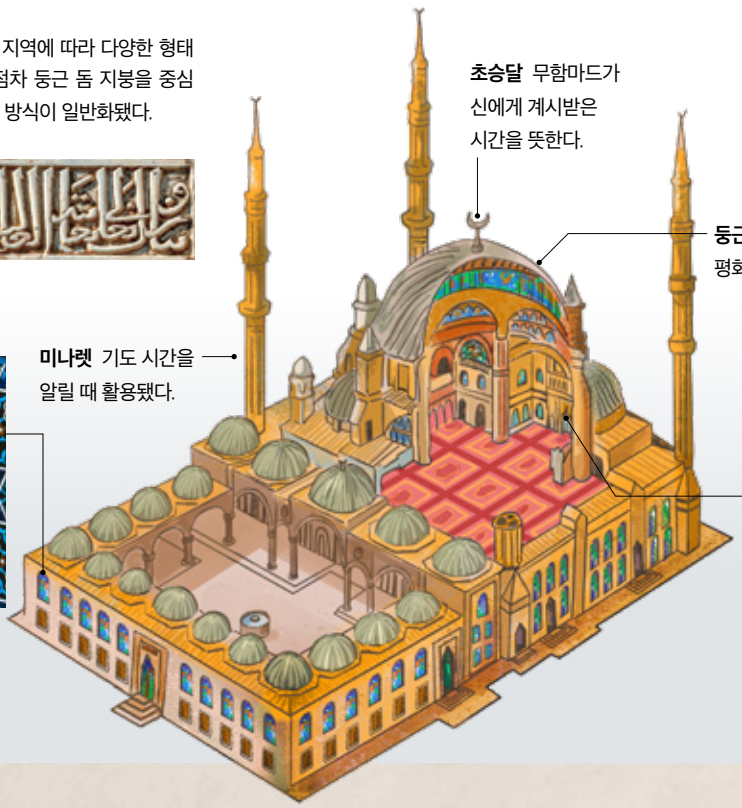


← **『쿠란』** '쿠란'은 아랍어로 쓰였는데,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슬람 문화권은 아랍어를 공용어로 받아들였다.

↘ **모스크의 구조** 초기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스크가 만들어졌지만, 점차 둥근 돔 지붕을 중심으로 주변에 미나렛을 세우는 방식이 일반화됐다.



벽에 새겨진 『쿠란』 구절



초승달 무함마드가 신에게 계시받은 시간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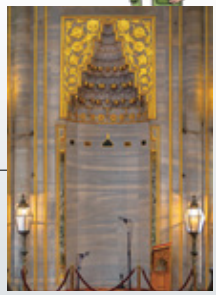
초승달에는 '진리의 시작'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에는 대부분 초승달이 그려져 있어.

둥근 돔 지붕 평화를 상징한다.

미나렛 기도 시간을 알릴 때 활용됐다.



아라베스크 다각형, 직선, 곡선 또는 식물의 줄기 문양을 반복해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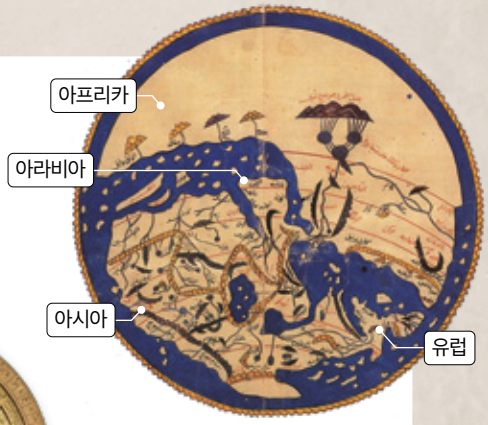
미흐랍 메카의 방향을 알려 주는 장식물이다.

02 이슬람 문화와 함께 발달한 과학

지리학과 천문학 이슬람교도들은 성지 메카를 순례할 의무가 있었다. 넓어진 이슬람 세계 곳곳에서 메카로 오는 길을 안내할 지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리학이 발달했다. 사막과 바다를 누비며 교역하던 이슬람교도들은 하늘의 태양과 별을 보며 방향과 시간을 알아냈다. 이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태양의 운행을 측정해 정확한 달력도 만들었다. 이들의 천문학 지식은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도 전해졌다(109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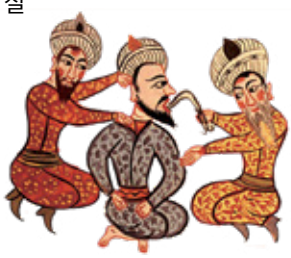


→ **아스트롤라베**(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태양과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방향과 시간을 알아내는 용도가 더해져 항해에도 이용됐다.



↑ **이슬람의 세계 지도**(영국 보드레이언도서관) 알 이드리시라는 지리학자가 만든 지도이다. 메카가 있는 아라비아반도를 중심으로 지도를 표현했다.

화학과 의학 이슬람 학자 중 일부는 흔하고 값싼 물질을 섞어 값비싼 금을 만드는 연금술에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 실험 방법이 개발됐고 새로운 용어도 만들어졌다. 한편 실용적인 이슬람 의학은 유럽으로 전해져 17세기까지 의학 교과서 역할을 했다.



→ **치과 치료 모습**

아랍어	영어	의미
a-kohl	alcohol	알코올
al-qaliy	alkali	알칼리
al-kimya	alchemy	알케미(연금술, 화학)
al-khawarizmi	algorithm	알고리즘(셈법)

↑ **아랍어에서 유래한 과학 용어들** '알고리즘'은 9세기 페르시아의 수학자 '무함마드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03 다양한 문화의 융합, 『천일야화』

이슬람 세계가 넓어지면서 아라비아반도를 중심으로 서쪽의 유럽과 아프리카, 동쪽의 페르시아와 인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문화가 서로 만나고 섞였다. 이런 융합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아라비안나이트』로 알려진 『천일야화』이다. 『천일야화』는 1001일 밤 동안 이어진 이야기라는 뜻으로, 페르시아의 설화를 바탕으로 아랍과 인도 등 주변 지역의 이야기가 계속 추가되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정리됐다. 신드바드의 모험, 하늘을 나는 양탄자, 알라딘의 요술 램프 등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 **신드바드의 모험을 표현한 그림**



함께 탐구해요

❶ 이슬람 문화에서 천문학과 지리학이 크게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

❷ 논술 UP♪ 『천일야화』 속 주인공은 신드바드나 알리바바처럼 뱃사람 또는 상인이 많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슬람 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❸ 검색 UP♪ 한국에도 모스크가 있는지 검색해 보자.

주제

15 봉건 질서의 형성과 교황권의 확대

관련 주제 → 주제13(78쪽)

핵심 질문

봉건제 아래의 서유럽 사회에서 교황과 황제가 대립한 까닭은 무엇일까?

중세 서유럽 봉건 사회 구조

01 봉건제의 성립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9세기에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유럽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❶**바이킹**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침입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바이킹은 해안뿐 아니라 내륙까지 침략했다.



↑ 바이킹의 침입

이때 침략자를 막아 낸 기사들이 각 지역에서 성장했고, 농민들도 자신을 보호해 준 기사를 지배자로 받아들였다. 계속된 침략으로 권력이 약해진 왕은 세력이 큰 기사를 **영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영주는 왕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제후(공작, 백작 등 작위를 받고 대대로 영지를 다스리는 사람)가 되어 자신의 지역(영지)을 **장원** 형태로 다스렸고, 자신을 따르는 기사들에게 땅을 나눠 주거나 급여를 주며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 이렇게 여러 겹의 주종(주인과 그를 따르는 사람) 관계를 바탕으로 한 **봉건제**가 서유럽에 자리 잡았다.

❶ **바이킹** 바이킹은 발트해 주변 북유럽에 살다가 배를 타고 내려온 게르만족으로, 노르만족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 중 일부는 유럽 곳곳에 정착해 나라를 세웠다.

장원의 모습

↓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기사

영주 영주는 세금을 걷고, 재판하는 등 자기 영지에 대해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다스릴 권한이 있었다. 대신 자신이 모시는 왕이나 제후가 부르면 기사들을 거느려 전쟁에 나갔고, 충성의 표시로 공물을 바쳤다.

기사 어릴 때부터 승마, 검술, 창술을 연마하고 예의범절을 익혀 왕이나 제후의 인정을 받아야 기사가 될 수 있었다.



농노 장원에서 일하는 농민으로, 가족과 함께 살며 집과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에 며칠은 영주의 땅에서 일해야 했다. 또한 각종 세금과 공동 시설(방앗간, 대장간, 목초지, 숲 등) 이용료를 내야 했고, 허락 없이 장원을 떠날 수 없었다.

↓ 수확하는 농노들

탐구 ❶ 농노의 처지가 노예보다 나은 점은 무엇일까?

02 교황과 황제의 대립

바이킹 등 외부의 침략이 계속되자, 교회는 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왕이나 제후에게 보호를 요청했다. 왕과 제후는 그 대가로 **성직자 임명**에 관여해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을 주교나 수도원장으로 임명하는 일이 늘었다.

자격 없는 성직자가 늘면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이들은 세속 권력(왕, 제후 등이 지닌 정치 권력을 주로 뜻함)이 신성한 교회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립 끝에 ❷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는 사건(**카노사의 굴욕**, 1077)이 일어났고, 교황의 권위는 더 높아졌다.

❷ **신성 로마 제국**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후 서로마 황제 자리는 동쪽 유목민의 침입을 막아낸 동프랑크 왕국에 넘어갔다. 이후 동프랑크 왕국은 신성 로마 제국으로 불렸다.

황제는 왜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을까?

수도원 출신으로 교황이 된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회 개혁 운동을 이끌며 세속 권력이 성직자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하인리히 4세는 성직자도 황제의 백성일 뿐이라며 맞섰다. 이에 교황이 그를 파문해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하자, 제후들이 황제에게 등을 돌렸다. 결국 황제는 교황이 있는 카노사성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싼 세속 권력과 교황의 다툼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 **카노사의 굴욕** 하인리히 4세가 카노사성의 성주인 백작 부인과 클뤼니 수도원장에게 교황과 화해할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다.

탐구 ② 황제가 왜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려 했을까?

일상을 지배한 가톨릭교회


장원의 중심에는 영주의 성과 함께 교회가 있구나. 이 시기 교회는 중요한 시설이었던 것 같아.


맞아. 영주는 교회의 성직자와 영지의 일을 의논했고, 천국을 희망하며 땅과 재물을 바쳤다고 해.


농민들에게도 교회는 중요한 장소였어.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 기도를 했고, 여러 성사를 받기 위해 신부를 찾아갔지. 추수 때는 수확물의 10분의 1을 십일조로 바치며 하느님께 감사함을 표현했어.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었구나.


↑ **성사** 하느님의 은혜를 받는 크리스트교 예식이다. 크리스트교도가 되는 세례 성사, 결혼할 때 받는 결혼 성사, 잘못한 일을 고백하는 고해 성사, 아프거나 죽을 때 받는 종부 성사 등이 있다.


↑ **천국과 지옥** 교회는 글을 모르는 농민에게 성경을 표현한 그림 등으로 교리를 가르쳤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를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거나, 여전히 민간 신앙을 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함께 확인해요

❶ 영주의 장원에 속해 있는 농민들을 □□(이)라고 한다.

❷ 카노사의 굴욕 사건은 □□□ □□□을/를 두고 교황과 황제가 다툰 사건이다.

생각 쑥쑥 탐구

같은 하느님을 믿는 두 개의 교회

중세 서유럽과 비잔티움 제국은 모두 하느님을 섬기며 크리스트교를 믿었지만, 교회 조직은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나뉘었습니다. 이에 교회 건물이나 종교 생활 등에서 각자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두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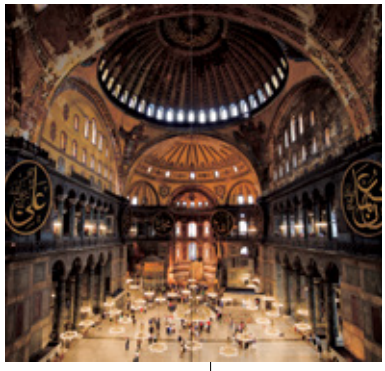
01 비잔티움 문화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헬레니즘 문화의 전통 위에 그리스 정교가 결합해 독특한 문화가 발전했다. 원래는 로마 제국을 계승해 라틴어를 썼으나 6세기 이후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썼고, 이슬람 세력과 맞서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 소피아 성당을 비롯한 비잔티움 양식의 교회들은 비잔티움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비잔티움 문화는 이후 키예프 공국을 비롯한 동유럽과 러시아로 전해졌다.

성 소피아 성당(튀르키예 이스탄불) 비잔티움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정교한 모자이크 벽화로 치장한 내부와 거대한 돔 지붕을 가진 외부가 특징이다. 비잔티움 제국이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한 후 성당은 모스크가 됐다.



성당 내부 모자이크화



성당 내부 돔



키릴 문자 9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선교사들은 그리스 정교를 슬라브인에게 전파하기 위해 그리스 문자를 변형한 키릴 문자를 만들었다. 오늘날 러시아와 동유럽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폐와 성 소피아 성당(우크라이나 키이우)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영향을 받아 키이우에도 13개의 돔을 가진 비잔티움 양식의 성 소피아 성당이 만들어졌다. 지폐에는 옛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몽골의 침입으로 파괴된 후 현재 모습으로 다시 지어졌다.







02 중세 서유럽 문화

라틴어를 공용어로 쓴 서유럽은 로마의 유산과 게르만의 전통 위에 가톨릭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했다. 가톨릭교회의 세력이 커지면서 지역마다 거대한 교회가 지어졌고, 고딕 양식이라는 새로운 건축 양식이 발달했다. 학문의 중심지로 수도원과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봉건제의 영향으로 기사의 활약을 다룬 기사도 문학이 유행했다.



↑ **필사하는 수도사** 수도사들은 성경을 포함한 다양한 책을 옮겨 쓰며 신학을 공부했다.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학도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말도 생겼다.



↑ **볼로냐 대학 강의 모습** 12세기 들어 교회나 수도원을 기반으로 교수 조합과 학생 조합이 대학을 설립했다. 대학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성을 유지하려 노력해 '학문의 자유'라는 개념이 생겼다.



↑ **「아서왕 이야기」** 아서왕은 영국의 전설 속 왕으로, 다양한 모험담이 전해지고 있다. 이 시기 기사도 문학은 기사들의 사랑과 결투, 왕과 신하 사이의 충성과 반역 등을 소재로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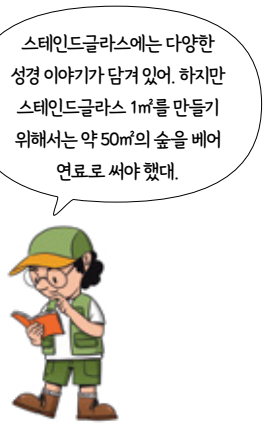
↓ **노트르담 대성당**(프랑스 파리) 고딕 양식은 하늘을 향해 치솟은 뾰족탑과 옆에서 기둥을 받치는 날개 기둥, 그리고 아치형 천장과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가 특징이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노트르담은 '우리의 귀부인'이라는 뜻이며 성모 마리아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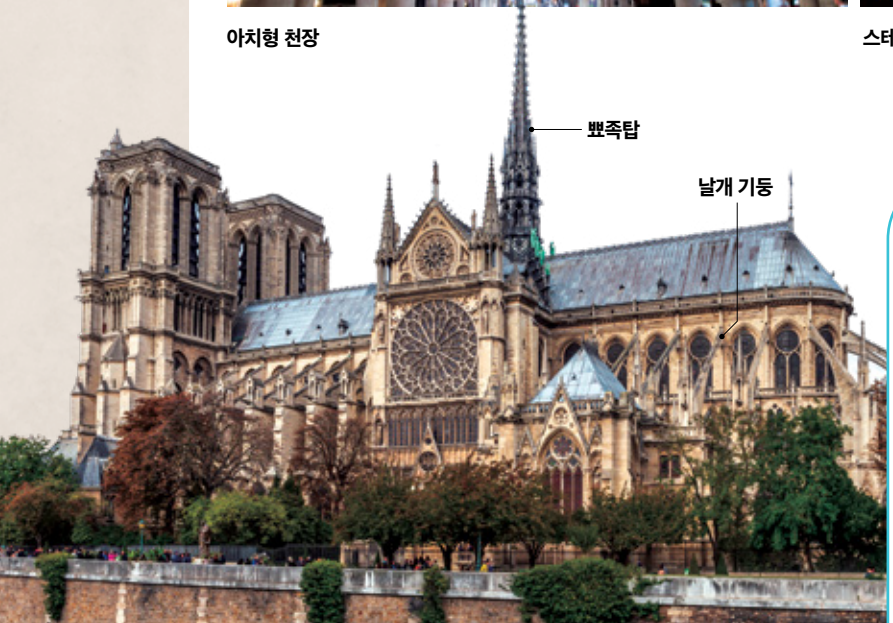


아치형 천장



스테인드글라스





함께 탐구해요

❶ 검색 UP› 한국에도 그리스 정교 교회가 있는지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한국 정교회

❷ 검색 UP› 유럽의 대표적인 고딕 양식 성당을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솔즈베리 대성당, 샤르트르 대성당, 쾰른 대성당

❸ 논술 UP› 서유럽 문화와 비잔티움 문화를 비교해 보자.

주제

16 십자군 전쟁과 그 영향

관련 주제
주제18(106쪽)
주제24(124쪽)
주제27(132쪽)

핵심 질문
십자군 전쟁은 크리스트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에 각각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01 십자군 전쟁의 전개

로마 교황은 이슬람 세력에게서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자고 서유럽인들에게 호소했다(1095). 셀주크 튀르크의 압박에 고전하던 비잔티움 제국이 교황에게 지원을 청하자 이에 화답한 것이다. 많은 왕과 영주, 기사, 상인, 농민이 이에 호응해 **십자군**이 조직됐다.

제1차 십자군은 많은 이슬람교도를 학살하며 곳곳에 크리스트교 국가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되찾았다. 하지만 곧 이슬람 세력이 반격해 점령지 대부분을 빼앗겼다. 이후 200년간 여러 차례 십자군이 조직됐지만, 끝내 예루살렘 탈환에 실패했다.



↑ **예루살렘을 공격 중인 십자군**



↑ **십자군 전쟁의 전개** 십자군 전쟁에서 많은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가 신의 심판이라는 명목으로 학살됐다. 십자군 전쟁은 이베리아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자는 탈환 운동으로도 이어졌다(82쪽 참고).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일어났을까?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열정뿐 아니라 현실적 이익을 추구한 전쟁이었다. 나중에는 성지 탈환과 무관하게 전쟁이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제4차 십자군 때는 같은 크리스트교 국가이자 도움을 요청했던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십자군이 점령해 약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탐구 ① 각 계층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까닭을 알맞게 연결해 보자.

교황	왕과 제후	상인	농민
			
•	•	•	•
•	•	•	•
전쟁에 이겨 더 넓은 영토, 새로운 영지를 차지하리라.	장원을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야.	동방의 물건을 가져와서 큰 이익을 얻어야지.	크리스트교 세계 전체를 나의 통제 아래 두리라.



↓ **세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성전의 흔적, 예수가 묻혔다고 전해지는 곳,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해 계시받았다는 장소가 있다. 그래서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가 모두 성지로 여긴다.

02 지중해 무역권의 발달

십자군 전쟁은 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전쟁 중에 상인들이 오가며 지중해 무역이 크게 발달했다. 이에 베네치아, 제노바 등 이탈리아 도시가 무역 중심지로 번성했다. 이런 무역은 북유럽으로도 확대됐고, 이 지역의 상업 도시들은 ❶**한자 동맹**을 맺어 서로 협력했다.

지중해 무역의 발달로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다. 이슬람 세계가 보전하고 있던 그리스·로마 문화가 서유럽에 다시 알려졌고, 이슬람의 과학 기술과 문화도 전파됐다. 그 결과 이탈리아에서는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새로운 문화 운동인 **르네상스**가 일어났다(94쪽 참고).



↑ **십자군 전쟁 이후 발전한 도시들**

❶ **한자 동맹** 한자(HANSA)는 독일어로 상인 조합을 뜻한다. 상업이 발달한 북독일 도시들이 결성해 유럽 내의 무역을 주도했다. 이들은 국가에 맞서 전쟁을 벌일 정도로 세력이 컸다.

03 중세 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

상업과 무역으로 부유해진 상공업자들은 **도시**를 발전시켰다. 이들은 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치권을 돈으로 사거나 힘으로 획득했다. 도시민들은 시의회를 구성해 도시를 스스로 다스렸다. 농노도 도시로 도망쳐 1년 넘게 살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14세기 중엽부터 **흑사병**이 크게 유행했다. 많은 사람이 죽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영주의 지배력은 더 약해졌고 농노의 지위는 향상됐다. 돈을 내거나 도시로 도망쳐 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농노도 많아졌다. 그 결과 장원은 점점 해체됐고, 서유럽의 봉건 사회도 저물어 갔다.



↑ **영주에게 특허장을 받는 도시민** 특허장은 자치권을 인정하는 증서였다. 도시의 성벽을 '부르그', 그 안에 사는 상공업자를 '부르주아'라고 불렀다.

•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휩쓴 흑사병

흑사병은 페스트균에 의해 피부가 검게 변하며 죽는 무서운 전염병이야.

14세기에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 유럽과 인도, 중국 등 전 세계로 퍼졌어. 특히 유럽인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했대.

성직자와 영주들도 흑사병을 피할 수 없었어. 그래서 교회와 영주의 권위가 크게 떨어졌고, 일할 사람이 없는 장원은 황폐해졌다고 해.

탐구 ② 흑사병의 유행은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 **화형 당하는 유대인들**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어 흑사병을 퍼뜨린다는 소문이 돌아 곳곳에서 유대인 학살이 벌어졌다.

↓ **「죽음의 춤」** 흑사병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04 교황권의 약화와 왕권의 강화

교황의 권력은 십자군 전쟁 때 절정에 달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왕들도 성지를 되찾자는 교황의 말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원정에 나설 정도였다. 하지만 예루살렘 탈환 실패로 교황의 권위는 추락했고, 흑사병은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겼다.

반면 왕의 권력은 더 커졌다. 14세기 초 프랑스 왕은 성직자에게 세금을 거두는 문제로 교황과 대립했다. 이에 프랑스왕은 군대를 동원해 교황을 체포하고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 자신의 통제 아래 두었다. 이후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는 혼란을 겪으며 교회의 권위는 더욱 떨어졌다.



백년 전쟁이 왕권에 끼친 영향

14세기 중엽에 왕위 계승 문제와 프랑스 안에 있는 영국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백년 전쟁(1337~1453)을 벌였다. 긴 전쟁을 치르며 영주와 기사가 많이 희생됐다. 게다가 화약 무기의 보급으로 (㉠)의 중요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반해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는 권한이나 군사를 동원하는 권한이 (㉡)에게 집중됐다. 특히 프랑스는 노르망디와 플랑드르 등 왕국 안에 있던 영국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면서 왕권이 더욱 강화됐다.



➔ **잔 다르크** 영국은 한때 프랑스 영토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잔 다르크의 활약으로 프랑스가 전세를 뒤집어 전쟁에서 승리했다.

탐구 3 ㉠,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

탐구 4 백년 전쟁 이후 왜 왕권이 강해졌을까?

05 십자군 전쟁 이후 이슬람 세계의 변화

십자군 전쟁 당시 셀주크 튀르크는 내란이 일어나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에 맞서지 못했다. 대신 이집트와 예루살렘 주변의 이슬람교도들이 십자군에 맞서 싸웠다. 이들은 결국 12세기 말에 십자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았다.



↑ **살라흐 앗딘에게 항복하는 예루살렘 성주** 살라흐 앗딘은 십자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은 술탄이다. 그는 몸값을 받는 조건으로 십자군 포로를 풀어 줬고, 크리스트교도의 예루살렘 순례를 허용했다.

13세기에 칭기즈 칸의 몽골군이 동쪽에서 침입해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대부분을 지배했다 (106쪽 참고). 몽골인은 이슬람교를 허용했고 이후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지배층도 많아졌다. 이슬람 상인들은 몽골 제국의 안정된 동서 교역망을 통해 더욱 활발히 무역 활동에 나섰고, 이슬람 세계는 더 넓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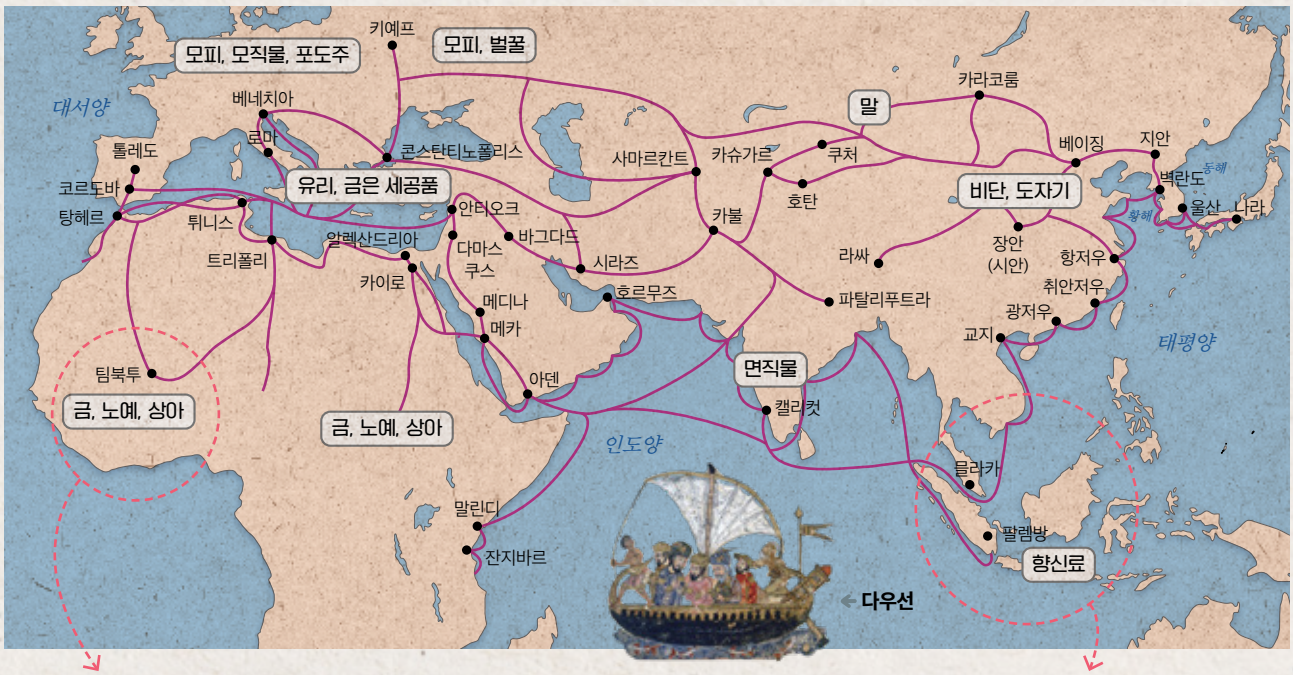


↑ **바그다드를 점령한 몽골군** 1258년에 몽골군은 셀주크 튀르크의 보호를 받던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했다.

●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이슬람 상인

예언자 무함마드는 상인 출신이었고, 이슬람교는 상업을 권장했다. 아랍과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상인들은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세계를 누비며 교역망을 넓혀 갔다. 특히 몽골 제국의 등장은 유라시아 교역로를 한층 안정시켰다(108쪽 참고). 이슬람 상인들은 육지에서는 낙타와 말, 바다에서는 목재 범선(다우선)에 몸을 싣고 세계를 누볐다. 이들의 활동으로 이슬람교는 더 널리 퍼졌다.

이슬람 상인의 국제 교역로 (13~14세기)



아프리카 내륙으로 퍼진 이슬람교

이집트와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이슬람교는 이슬람 상인의 활동으로 동부 해안과 서부 내륙까지 퍼졌다. 1240년 서아프리카에 세워진 이슬람 국가인 말리 왕국은 당시 전 세계 황금의 절반을 생산한다고 여겨질 만큼 부유했다.



말리 왕국의 만사 무사 1세 만사 무사 1세는 1324년에 한 마리당 100kg이 넘는 황금 덩어리를 짊어진 수십 마리의 낙타를 이끌고 메카 순례에 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동남아시아로 퍼진 이슬람교

이슬람 상인들이 바닷길로 드나들던 동남아시아에도 이슬람교가 전파됐다. 특히 믈라카 왕국은 15세기 초에 이슬람교로 개종한 후 동서 교역으로 번성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해양부에 이슬람교가 널리 퍼졌다.



인도네시아의 모스크(인도네시아 데막) 자와섬 중앙에 15세기에 지어진 모스크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모습이다.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함께 확인해요

❶ □□□ 전쟁은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자는 교황의 호소에 유럽인들이 호응하면서 시작됐다.

❷ **생각 UP** 십자군 전쟁 이후 크리스트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일까?

생각 쑥쑥 탐구

미켈란젤로의 생애로 살펴보는 르네상스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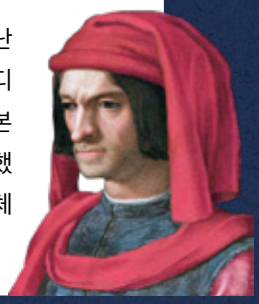


교회의 권위가 약해지자, 14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예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지닌 르네상스는 인간적인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로 되돌아가자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대표적인 예술가인 미켈란젤로의 발자취를 따라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01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조각 수업을 받다

피렌체 출신의 미켈란젤로는 어릴 때부터 조각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당시 피렌체는 금융업으로 부자가 된 메디치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다.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본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는 그를 데려와 조각 수업을 받게 했다. 이후 미켈란젤로는 수도원 병원에서 해부를 통해 인체 골격을 공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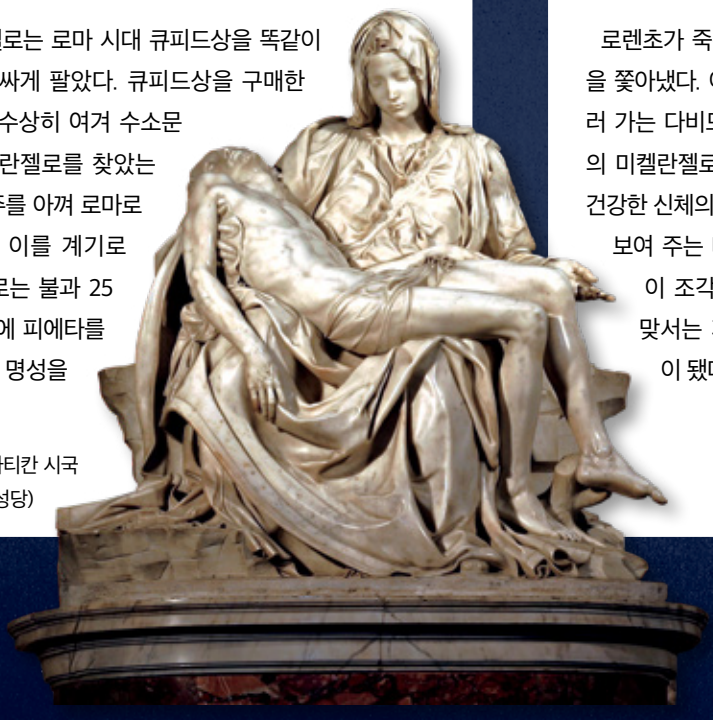




로렌초 데 메디치

02 위조품으로 기회를 얻어 '피에타'를 조각하다

미켈란젤로는 로마 시대 큐피드상을 똑같이 조각해 비싸게 팔았다. 큐피드상을 구매한 추기경이 수상히 여겨 수소문 끝에 미켈란젤로를 찾았는데, 그 재주를 아껴 로마로 초대했다. 이를 계기로 미켈란젤로는 불과 25세의 나이에 피에타를 조각해 큰 명성을 얻었다.



피에타(바티칸 시국 성베드로대성당)

03 피렌체 공화국 시민을 위해 '다비드상'을 만들다

로렌초가 죽은 후 시민들은 메디치 가문을 쫓아냈다. 이를 기념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가는 다비드상을 제작하려 했다. 26살의 미켈란젤로는 3년간 정성을 쏟아 건강한 신체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다비드상을 조각했다. 이 조각상은 메디치 가문에 맞서는 피렌체 시민의 상징이 됐다.



다비드상(이탈리아 아카데미아미술관)

04 교회의 간섭을 물리치고 '천지창조'를 완성하다

미켈란젤로의 명성은 교황에게 알려졌고, 교황은 그에게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부탁했다. 천장의 높이는 무려 22m, 면적은 모두 800㎡였다. 33세의 미켈란젤로는 불편한 자세로 떨어지는 물감을 맞으며, 4년에 걸쳐 「천지창조」를 천장과 벽에 그렸다. 등장인물만 340명이 넘는 이 대작을 그리는 동안 미켈란젤로는 교회의 간섭을 피하고자 완성할 때까지 그림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 **「천지창조」 중 「아담의 창조」**(바티칸 시국 시스티나 성당)

05 '최후의 심판'에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리다

시스티나 성당 VR

교황은 미켈란젤로에게 다시 시스티나 성당의 정면 벽화를 요청했다. 60대에 접어든 미켈란젤로는 가로 12m, 세로 13.7m의 거대한 공간에 6년에 걸쳐 벽화를 그렸다. 그러나 교회는 그의 그림에 불만을 표현했다. 예수와 성인들이 후광도 없이 벌거벗은 모습인 데다, 천사들도 날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목욕탕 같다'라는 비난까지 있었다. 한 추기경이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하자, 미켈란젤로는 그의 얼굴을 지옥의 사신 미노스로 그려 복수했다. 결국 미켈란젤로가 죽은 후 민감한 부분을 가리는 덧칠 작업이 이뤄졌다.



↑ **「최후의 심판」**(바티칸 시국 시스티나 성당)



함께 탐구해요

다음 언급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분위기를 미켈란젤로의 생애에서 찾아보자.

분위기 ① 이탈리아에는 고대 로마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고, 비잔티움 제국에서 많은 사람이 이동해 와 고대 그리스 유산도 함께 전해졌다. 사람들은 잊혔던 그리스·로마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열광했다.

분위기 ② 피렌체, 베네치아 등의 이탈리아 도시들은 십자군 전쟁을 거치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했다. 이 도시들은 왕이나 귀족, 교회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분위기 ③ 무역으로 부를 쌓은 상인 중에는 예술가와 예술 활동을 후원하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다.

분위기 ④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의 개성과 이성을 존중하는 '인문주의(휴머니즘)'가 유행했고, 원근법을 이용한 사실적인 그림, 인체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그림과 조각이 인기를 끌었다.

분위기 ⑤ 르네상스를 거치며 예술가들은 그저 왕이나 귀족, 교회의 주문을 받아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가라는 자각을 가졌다.

창의 쑥쑥 활동

개인 활동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하고 싶은 문화유산을 골라 카드 뉴스를 제작합니다.

활동 방법

❶ 문화유산 고르기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 있는 문화유산 중 방문하고 싶은 곳을 고릅니다.

❷ 내용 구성하기

소개하고 싶은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어떤 순서로 소개할지 정리합니다.

❸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 카드 뉴스 만들기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알려주는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 접속한 후, 카드 뉴스를 제작합니다.

- 카드는 5~10장을 이용할 수 있고, 카드마다 제목, 사진 또는 그림, 글을 넣습니다.
- 첫 번째 카드에는 제목과 시작하는 글을 배치합니다.
- 마지막 카드에는 과제를 수행하며 새로 알게 된 점, 역사적 교훈, 현재 의미, 수행 소감 등 마무리 글을 씁니다.
- 각 카드의 제목과 글은 직접 쓰고, 사진과 그림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링크를 걸거나 내려받아 넣습니다.

❹ 다른 친구의 카드 뉴스 감상하고 평가하기

다른 친구의 카드 뉴스를 살펴보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카드 뉴스에 어떤 점이 좋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칭찬 댓글을 남깁니다.

유의 사항

- 사진이나 그림을 내려받아 올린 경우, 출처를 꼭 표기합니다.
- 다른 친구의 카드 뉴스에 평가 댓글을 남길 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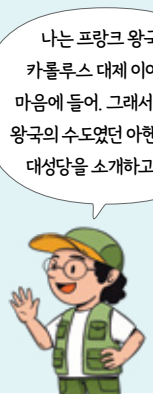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카드 뉴스 만들기

카드 뉴스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뉴스 보도의 형태로, 주로 이미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여러 지역 중 하나를 골라, 그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 카드 뉴스를 올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봅시다.

01 문화유산 고르기

우리가 배운 지역

- ☐ 중국
- ☐ 인도
- ☐ 서아시아
- 예시 ☑ 유럽



02 내용 구성하기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까?

예시



1번 카드
아헨 대성당은 어떤 곳일까?



2~4번 카드
아헨 대성당에서 찾을 수 있는 문화 요소들



5~8번 카드
카롤루스 대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아헨 대성당



9번 카드
아헨 대성당의 현재 의미
= 유럽 통합의 상징

03 카드 뉴스 만들기

예시

카드 뉴스 제목과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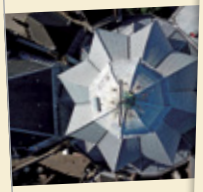
1
프랑크 왕국의 문화 중심, 아헨 대성당



카롤루스 대제가 건설한 아헨 대성당은 로마 제국의 유산과 게르만족의 전통, 그리고 크리스트교 문화가 어우러진 ……

카드 뉴스 주제 1 아헨 대성당에서 찾을 수 있는 문화 요소들

2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 팔각형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던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발달한 문화 들이려 했어요. ……

3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 모자이크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교회의 내부에 색색의 타일을 붙여 모자이크 그림을 그려 장식했는데, ……

4
나중에 더해진 고딕 양식



팔각형 본당 서쪽의 뾰족탑이나 동쪽 건물의 스테인드글라스는 고딕 양식이 유행하던 ……

카드 뉴스 주제 2 카롤루스 대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아헨 대성당

5
카롤루스 대제와 아헨 대성당



아헨 대성당은 카롤루스 대 전 안에 있던 성당이자 왕실 에요. ……

6
카롤루스 대제의 왕좌



아헨 대성당 안에는 카롤루스 대제가 앉았던 왕좌가 보존되어 있어요. ……

7
카롤루스 대제의 유골과 관



이곳은 카롤루스 대제가 묻힌 곳이기도 해요. ……

8
프랑크 왕국의 보물 보관소



카롤루스 대제의 왕관과 크리스트교의 성스러운 유물 등이 보관되어 있어요. ……

카드 뉴스 마무리

9
유럽 통합의 상징, 아헨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하나로 다스렸던 카롤루스 대제는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



[칭찬 댓글]

아헨 대성당이 오늘날 가지는 의미에 대해 잘 알게 됐어.

평가하기

- 해당 시기 역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화유산을 선정했나요?
- 문화유산을 소개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했나요?
- 보는 사람이 흥미를 느끼고 내용을 파악하도록 카드 뉴스를 제작했나요?
- 다른 친구의 결과물을 잘 살펴보고 구체적인 평가를 담은 칭찬 댓글을 남겼나요?

스스로 생각하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로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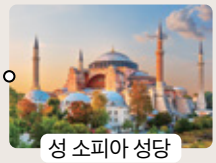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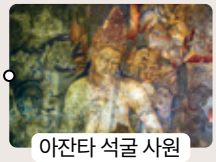
1 다음 문항을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맞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1) 동진 이후 북조 왕조의 강남 개발로 강남의 경제력이 성장했다.
(2) 북위의 효문제는 유목민의 전통을 지키려는 정책을 펼쳤다.
(3) 수는 대운하를 건설해 화북의 물자를 강남으로 운송했다.
(4) 당은 흉노를 정복해 유목 세계까지 아우르는 제국을 건설했다.
(5) 당의 수도 뤄양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국제적 도시였다.

2 서로 관련 있는 나라와 문화유산을 연결해 보자.

굽타 왕조 ○ ○ 
우마이야 모스크

프랑크 왕국 ○ ○ 
성 소피아 성당

비잔티움 제국 ○ ○ 
아잔타 석굴 사원

우마이야 왕조 ○ ○ 
아헨 대성당

3 [보기]의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해 보자.

[보 기]

㉠ 카노사의 굴욕 ㉡ 아바스 왕조의 성립
㉢ 교황, 아비뇽에 유배 ㉣ 제1차 십자군 전쟁
㉤ 바이킹의 침입

추가 확인 문제

역사로 세상 읽기

다음 자료를 읽고 빈칸을 채워 봅시다.



종교는 분쟁의 씨앗일까, 평화의 도구일까?

01 지하드? 십자군 전쟁?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의 모습이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지하드(성전)'라며 이 사건을 일으켰고, 미국은 이런 테러와의 전쟁을 '십자군 전쟁'에 비유했어.



지하드는 원래 믿음을 방해하는 것에 맞서는 굳센 노력을 뜻해. 민간인을 공격한 테러를 지하드라고 할 수는 없지.



십자군 전쟁을 언급한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경솔했다는 비판이 있어. 이슬람 국가와 이슬람교도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종교 갈등을 유발했기 때문이지.

02 경계해야 할 종교적 극단주의

십자군 전쟁에서 보듯 종교 대립만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뒷면에는 영토와 자원, 경제적 이익, 정치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를 무시하고 종교나 문명의 충돌로 전쟁을 단순화하면 갈등이 더 커질 위험성이 높다. 오히려 인류는 늘 다른 생각,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공존하며 살아왔다.

다만 종교적 극단주의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경전과 교리를 절대불변의 진리로 믿고 이를 그대로 실천하려는 경향을 '근본주의', '원리주의', '극단주의'라고 한다. 이런 종교적 극단주의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의 보편 가치와 맞지 않는 종교적 믿음을 강요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03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위한 노력

2011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평화를 위한 종교 간 기도 모임'에서 크리스트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역사 속 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보다 앞서 2001년 그리스를 방문한 요한 바오로 2세는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십자군의 침략과 약탈을 '교회가 저지른 범죄'라며 정식으로 사과했다.

종교는 대부분 진리나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평화를 추구한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와 대화하며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례는 다른 종교에서도 두루 찾아볼 수 있다.



나는 한 사람의 크리스트교도로서, 지난 역사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이 점을 크게 부끄러워하며 인정한다. 이는 분명히 신앙의 남용이며 크리스트교의 진정한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



검색해요

종교적 차원에서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검색해 보자.

- 종교 간 화합
-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의 구호 활동
- _____

"전쟁을 종교나 문명의 충돌로 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_____ _____"

108 쪽

칭기즈 칸이 건설한 몽골 제국은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정비했다. 육로와 해로가 정비되면서 유럽과 아시아가 하나로 연결됐다.





126 쪽

지중해 무역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다.



121 쪽

오스만 제국은
술레이만 1세 때
헝가리를 정복하고
유럽 연합 함대까지
물리쳐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다.



119 쪽

무굴 제국이 인도를
오랜 기간 지배하면서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한
인도·이슬람 문화가
발전했다.

III 지역 세계의 교류와 변화

1. 유라시아 교역과 문화 교류의 확대
2. 동아시아·인도 지역 질서의 변화
3. 서아시아와 유럽 사회의 변화

이번 중단원에서는 유라시아의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교역망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탐구할 수 있다.

주제 17

송의 발전과 북방 민족의 성장

관련 주제 → 주제10(64쪽)

핵심 질문
중국 대부분을 통합한 송과 북방에서 성장한 유목 민족들의 관계는 어땠을까?

01 송의 건국

당이 멸망한 이후 절도사들이 중국 각지에 여러 나라를 세웠다(65쪽 참고). 960년에 카이펑을 수도로 세워진 송은 중국 대부분을 다시 통일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폈다. 송 태조는 절도사의 권한을 억제하고 군사권을 장악했다. 또한 무인보다 문인 관료를 우대하는 **문치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과거제를 개혁해 황제권을 뒷받침할 세력을 길러냈다.

송의 과거제 개혁

송은 과거제를 개혁해 관리 선발의 공정성을 높였다. 답안지의 이름을 가리고 채점하는 등 출신 가문이나 인간관계보다는 실력을 기준으로 관리를 뽑고자 했다. 그리고 황제가 직접 과거의 최종 시험을 관리하고 합격자의 등수를 매기도록 했다.


↑ 과거를 주관하는 황제

탐구 ① 송의 과거제 개혁은 황제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02 북방 민족의 성장

10세기 초 당이 약해진 틈에 거란이 나라를 세웠다. 세력을 넓힌 거란(요)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리장성 남쪽의 ❶연운 16주를 차지했다. 거란은 남쪽으로 나아가면서 송과 여러 차례 부딪혔으며, 송을 견제하고자 고려를 공격하기도 했다. 11세기에는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가 서하를 건국했다. 서하는 비단길을 장악하고 동서 무역의 이익을 얻어 번영을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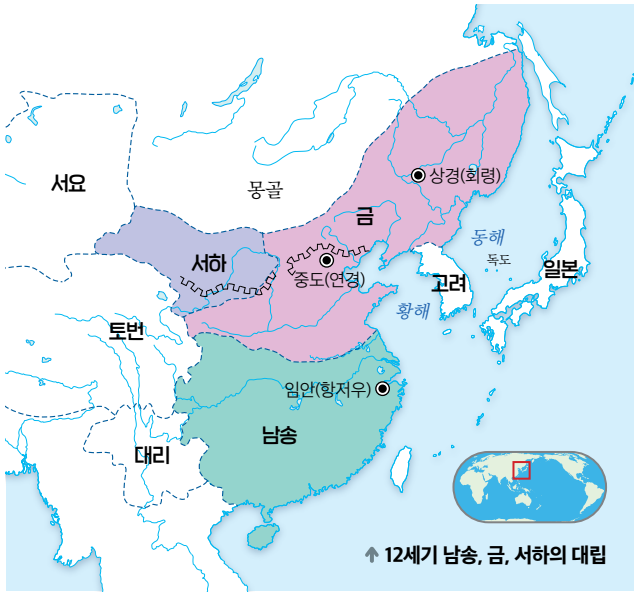
❶ **연운 16주** 오늘날의 베이징, 다퉁을 중심으로 하며, 농경민인 한족의 거주지였다. 송은 이곳을 차지하고자 거란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으나 끝내 실패했다.

10세기 동아시아의 상황





11세기 송, 거란, 서하의 대립



12세기 남송, 금, 서하의 대립

03 송과 북방 민족의 관계

송은 건국 초부터 문치주의 정책을 펼쳐 국방력(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힘)이 약해졌다. 북방 민족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송을 압박하자 송은 거란과 서하에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 차 등을 보냈다. 그 결과 군사적 충돌은 피할 수 있었으나 송의 재정은 점차 어려워졌다. 이에 왕안석이 나라의 재정을 늘리고 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전통적인 것을 지키고 유지하려 함.)을 시도했으나 보수파 관료와 대지주(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반대로 실패했다.

12세기 초에는 거란의 지배를 받던 여진이 부족을 통일해 금을 세웠다. 송은 금과 연합해 거란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후 금의 공격을 받아 화북 지방을 빼앗기고, 수도를 창장강 남쪽의 임안(항저우)으로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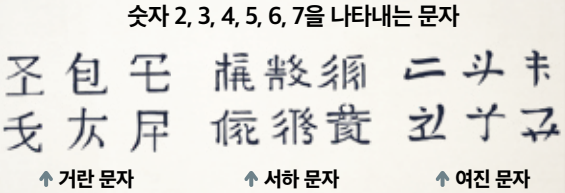
북방 민족의 통치 방식

거란 태종대에 중국을 함께 통치하게 되자 관직을 남북으로 나눴다. 나라(거란)의 제도로 거란을 통치하고 한족의 제도로 한인을 통치했다. -『요사』



거란과 금은 한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이중적인 통치 방식을 사용했다. 유목민은 고유한 부족제로 다스리고, 한족은 주현을 설치해 관리했다.

숫자 2, 3, 4, 5, 6, 7을 나타내는 문자



북방 민족은 중국식 통치 방식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그들은 한자를 참고해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다.

탐구 ② 거란과 금이 이중적인 통치 방식을 활용하고 고유한 문자를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04 사대부의 성장과 성리학의 발달

송대에는 개인의 실력으로 과거에 합격해 관리가 된 **사대부**가 지배층으로 등장했다. 사대부들은 유교를 새롭게 해석해 **성리학**을 발달시켰다. 성리학은 경전의 문구를 해석하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우주의 원리나 인간의 본성과 같은 철학적 주제를 연구하는 학문이었다. 남송의 주희가 성리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이것은 이후 동아시아 여러 왕조의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05 송의 경제 발전과 서민 문화



↑ **송의 동전과 지폐** 송대에는 동전이 널리 사용됐으며, 지폐도 등장했다.

어린 모를 따로 기른 후 논으로 옮겨 심는 농사 방법

송대에는 활발한 개간으로 강남의 농경지가 늘고 모내기법이 보급됐다. 또한 재배 기간이 짧은 벼 품종이 도입되면서 1년에 두 번 수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농업 생산력이 향상하고 인구가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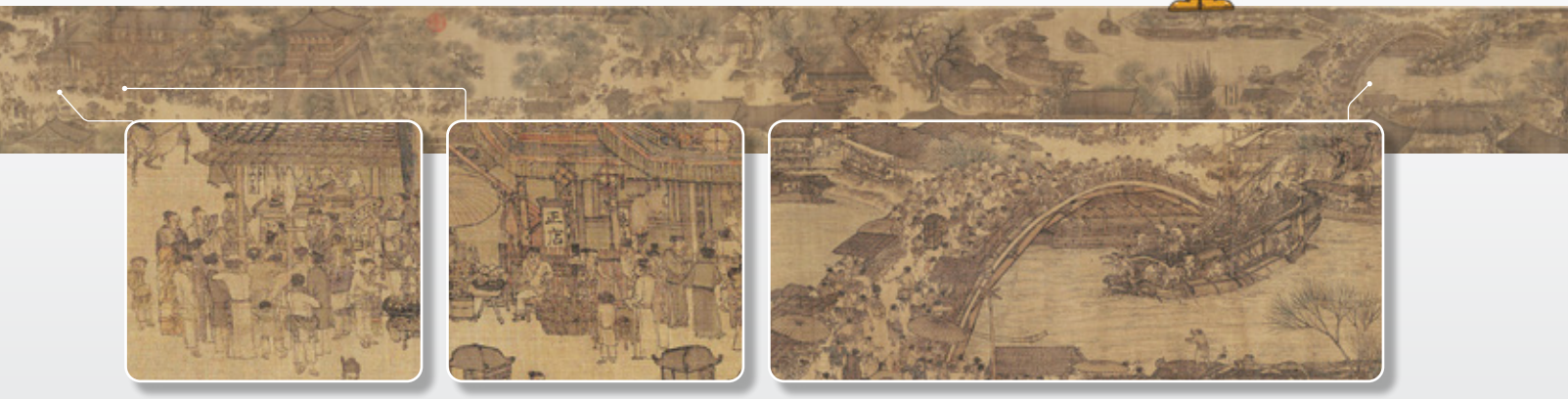
상업과 수공업 역시 활발해져 곳곳에 시장이 들어섰다. 특히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했고, 이는 고려청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동전, 지폐와 같은 화폐를 사용해 생산물을 효율적으로 교환했다.

인구가 증가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성장했다. 경제 발전으로 서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졌다. 카이펑 등의 도시에서는 서민들이 즐기는 오락 시설과 전문 공연장이 세워지는 등 **서민 문화**가 발전했다.

● **송대의 경제와 서민 문화가 담긴 「청명상하도」**(중국 고궁박물원)

「청명상하도」는 송의 궁정 화가인 장택단이 그린 풍속화로, 수도인 카이펑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그림에는 번성한 도시와 서민들의 생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 **만담꾼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만담, 곡예, 인형극 등이 유행했다.

↑ **규모가 큰 음식점** 거리에는 음식점, 여관, 상점 등이 늘어서 있었다.

↑ **다리 위에 늘어선 점포와 물자를 실어나르는 배**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며 운송 경제가 발전했다.

06 송의 과학 기술과 해상 교역

송대에는 과학 기술이 두드러지게 발전했다. 이 시기의 여러 발명품과 과학 기술은 이후 세계 여러 지역에 전파됐다.

활판 인쇄술



↑ **점토 활판**(복원 모형)

글자 하나하나를 판에 배열해 인쇄하는 활판 인쇄술이 개발됐다. 이는 지식의 보급에 기여했다.

나침반



← **나침반**(복원 모형)

나침반을 만들어 항해에 이용했다. 바다에서도 방위를 알 수 있어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졌다.

화약



↑ **불화살과 폭탄**(복원 모형)

화약을 발명하고 제조했다. 송은 화약 무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실제 전쟁에서도 사용했다.



배를 만듦.

조선 기술의 발달과 나침반의 이용으로 **해상 교역**이 활발해졌다. 송의 배는 도자기, 비단, 서적, 차 등의 수출품을 싣고 동남아시아와 인도양까지 나아갔다. 항저우, 취안저우 등 동남 연안의 항구는 해상 교역의 중심지로 발달했다.



↑ **송의 도자기**(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송의 주요 수출품으로, 배에 실려 아라비아반도를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전해질 만큼 인기가 좋았다.

함께 확인해요

❶ 송의 사대부는 유교를 새롭게 해석해 □□□을/를 발달시켰다.

❷ **생각 UP** 송대 과학 기술의 발전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주제

18 몽골 제국과 교류의 확대

관련 주제
주제16(90쪽)
주제19(110쪽)
주제20(112쪽)

핵심 질문
유라시아에 걸친 제국을 건설한 몽골은 세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01 몽골의 세계 제국 건설


칭기즈 칸

13세기 초 테무친은 몽골고원의 유목민을 통합하고 칭기즈 ❶칸으로 추대됐다. 칭기즈 칸은 국가 체제를 갖추고 강력한 군주권을 확보해 **몽골 제국**의 토대(어떤 일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를 닦은 후, 서하를 포함한 주변 국가를 침략했다.

칭기즈 칸의 뒤를 이은 칸들도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금을 멸망시키고 중국 동북부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아시아와 동부 유럽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제국은 칭기즈 칸이 죽은 후 여러 개의 ❷울루스로 나뉘어 통치됐다.

몽골의 정복 전략


천호장

효율적인 군사·행정 조직을 마련했다. 부족민을 1천 호씩 나눠 천호장이 다스리도록 했다. 천호장에는 칸의 가족이나 동료가 임명됐다.



몽골 기마병은 여러 마리의 말을 바꿔 타고, 가벼운 갑옷을 입어 이동이 빨랐다. 또한 몽골군은 투석기, 화약 등의 최신 무기를 활용했다.



몽골의 정복 활동에 협조한 민족은 우대했다. 이슬람 상인에게는 정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제국 내 교역 활동을 보장했다.

❶ **칸** 몽골, 튀르크가 군주를 이르던 칭호이다.

❷ **울루스** '사람들' 또는 '백성'을 뜻하는 몽골어이다. 그 뜻이 확대되어 '부족', '국가'를 가리키게 됐다.

탐구 ① 몽골이 짧은 기간에 세계 제국을 건설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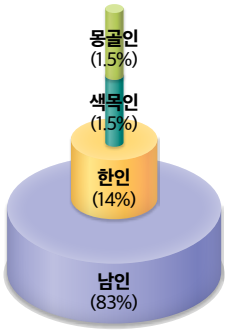
02 원의 중국 지배

칭기즈 칸의 손자인 쿠빌라이는 수도를 대도(베이징)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원으로 정했다. 이어서 그는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했다. 원은 소수의 유목 민족으로서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중국의 전통적인 관료 제도와 지방 행정 제도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라 안의 여러 민족을 몽골인, 색목인, 한인, 남인으로 나눠 다스렸다.



원의 사회는 어떻게 구성됐을까?

❶ 원의 인구 구성



- 『중국 역사(하)』(2003)

탐구② 원이 색목인을 우대한 까닭은 무엇일까?

❷ 각 계층의 특징



몽골인과 색목인 몽골인은 원의 핵심 계층이었다. 색목인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주로 서역 출신을 가리켰다. 몽골인과 색목인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였으나 중요한 고위 관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인과 남인 한인은 여진족, 거란족, 금의 한족이다. 남인은 몽골에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남송의 한족이다. 두 계층에서 관리가 되는 이들의 비율은 매우 낮았으며,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대부분 중·하급 관리에 그쳤다.

03 원의 사회·경제와 서민 문화

원대에는 과거제가 한때 폐지됐다가 나중에 부활하는 등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았고, 사대부의 사회적 지위도 이전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경제는 활기를 띠어 ❸교초를 비롯한 화폐의 사용이 늘었다. 송대 이래의 서민 문화도 도시민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달했다.

❸ **교초** 원대에 널리 사용된 지폐로, 제국 전체에 통용됐다. 원 후기에는 남발되어 경제 혼란을 불러왔다.

구어체 문학

중국의 문학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형식과 운율에 따라 쓰였다. 서민 문화가 발전하면서 일상 언어인 구어체로 다양한 문학 작품이 탄생했다. 이런 구어체 소설은 오늘날 중국에서 사용되는 일상 언어인 백화문의 기초가 됐다.

잡극

원대에는 음악, 노래, 춤, 연기가 합쳐진 잡극이 크게 유행했다. 특히 잡극은 시장이나 도시의 축제에서 서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 **원대 잡극 배우 조각상**(중국 허난박물관)

04 유라시아·인도양 교역권의 성장

몽골 제국은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정비했다. 주요 도로에는 **역참**을 설치해 황제의 명령을 전하는 관리나 사신, 군인 등이 제국 곳곳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여행자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나라이다. …… 전국의 모든 역참에는 숙소가 있는데, 관리자가 몇몇 기병과 보병을 데리고 상주하고 있다. …… 안내자는 다음 역참의 관리로부터 전원이 도착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온다.

- 이븐바투타, 『여행기』

몽골 제국의 역참



원의 패자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몽골 제국은 관리, 사신 등에게 음식을 먹고 잠을 잘 공간과 말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 약 40km마다 역참을 세웠다. 대규모 역참에는 400마리의 말이 있었다. 역참을 이용하려면 통행증인 패자가 필요했는데, 여행자나 상인도 패자가 있으면 역참에서 쉬어 갈 수 있었다.

대도를 중심으로 대운하가 정비되고 조선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상 교역이 활기를 띠었다. 이에 동아시아에서 인도양을 지나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해상 교통로가 더욱 발달했고, 항저우와 취안저우 등은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육로와 해로가 정비되면서 **유라시아·인도양 교역권**이 확대되어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묶었다.



05 활발해진 동서 교류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동서 교류는 날로 증가했고, 서역 상인이 자주 왕래했다. 교황이나 유럽의 군주들도 원에 사절을 파견했고, 유럽의 상인인 마르코 폴로와 북아프리카 출신 여행가인 이븐바투타 등도 원을 방문했다.

이 시기에 중국의 인쇄술, 나침반, 화약 등이 서아시아와 유럽에 전해졌다. 원에도 다양한 외국 문화가 들어왔는데, 천문학이 대표적이다. 몽골 제국은 다양한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다양한 종교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 등 여러 종교가 세력을 확장하기도 했다.



• 동서 교류를 바탕으로 역법을 발달시킨 곽수경

원의 천문학자인 곽수경은 여러 종류의 천문 관측(자연 현상의 상태나 변화를 관찰해 재는 것) 기기를 설계하고, 이슬람 역법을 참고해 수시력을 만들었다. 수시력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고 있어서 오늘날의 달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밀하다. 이는 고려와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 **원의 천문대**(중국 덩펑) 13세기 후반에 곽수경의 건의로 세워졌다. 이곳에 기기를 놓아두고 천문을 관측했다.

• 원에 다녀간 이탈리아 상인,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으로, 동방을 여행하며 중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했다. 그는 17년간 원에 머물며 쿠빌라이 칸을 만나고 원의 관리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후 그의 여정을 담은 『동방견문록』이 유럽에서 출간되어 동방에 대한 유럽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 지팡구(일본)에서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금이 나기 때문에 금이 대단히 많다.
- 후추를 비롯한 각종 향신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수많은 상인과 선박이 자와섬을 찾아온다고 한다.

-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



➔ **몽골의 전통 복장을 한 마르코 폴로**

↑ **『동방견문록』**

함께 확인해요

❶ 몽골인과 □□□은/는 중요한 고위 관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❷ 몽골 제국은 주요 도로에 □□을/를 설치했다.

❸ 검색 UP 몽골 제국 시기 여행가들의 활동을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이븐바투타, 카르피니, 랍반 사우마, 왕대연

이번 중단원에서는 동아시아와 인도에서 나타난 정치·사회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주제 19

명·청의 발전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

관련 주제
→ 주제18(106쪽)
→ 주제37(178쪽)

핵심 질문
원 이후 등장한 명과 청은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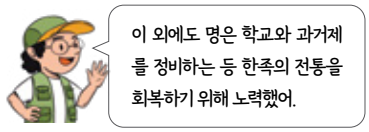
01 명의 발전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재편

14세기 중엽 원이 정치·경제적 혼란과 자연재해 등으로 쇠퇴하자 홍건적의 봉기가 일어났다. 이때 주원장(홍무제)이 난징을 도읍으로 명을 세웠다(1368). 한족 왕조인 명은 몽골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중국을 되찾았다. 명은 한족의 전통을 되살리고 ❶화이사상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자 했다. 또한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했으며, 향촌(작은 규모의 마을)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홍무제가 반포한 여섯 가지 유교 윤리, 육유

>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존경하며,
> 이웃과 화목하고, 자손을 잘 교육하며,
>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쁜 짓을 하지 말라.





탐구 ① 홍무제가 육유를 반포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후 영락제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자금성을 지었다. 그는 몽골과 베트남을 공격하고, 해외의 여러 나라에 **정화**의 함대(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해군 부대)를 여러 차례 파견해 조공·책봉 관계를 확대했다.

❶ **화이사상** 한족이 세운 국가를 천하의 중심인 중화로 여기고, 그 주변의 민족을 오랑캐로 여기는 사상이다.



자금성(중국 베이징) 영락제가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며 지은 궁전으로, 청대까지 계속 사용됐다.

아프리카까지 이른 정화의 항해

정화는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일곱 차례 항해에 나섰다. 정화의 함대는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까지 도달했다. 이 항해로 명은 30여 국가의 조공을 받게 됐고, 진귀한 보물도 얻었다.

탐구 ② 영락제가 대규모의 함대를 파견한 목적은 무엇일까?

정화의 배와 콜럼버스의 배

02 청의 등장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

명은 북쪽의 유목 민족과 남쪽의 왜구에게 침략당하며 점차 약해졌다. 특히 임진왜란에 군대를 보낸 이후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며 큰 반발을 샀고, 끝내 농민 봉기로 멸망했다(1644).

만주에서는 여진(만주족)이 부족을 통일해 후금을 세웠다(1616). 세력을 키운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을 침략했다(1636, 병자호란). 명 멸망 이후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청은 중국 전역을 지배했으며, 황제권을 강화하고 영토를 넓혔다.

청은 18세기 중반 건륭제 때 몽골과 티베트 등을 복속시키고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청 황제는 만주족, 한족을 포함해 다양한 민족을 통치했다.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사용해 다수의 한족을 다스렸으며, 일부 지역은 간접적으로 지배했다.

청은 자신들이 명을 잇는 중화라고 주장하며 조선, 베트남 등과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만주족 왕조인 청이 중화를 자처하자 조선과 일본에서도 자신들이 중화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다스린 비결은?



(가) 중요한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했다.



(나) 청 왕조를 비방하는 사상이나 글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다) 한족에게 만주족의 풍습인 변발과 호복을 강요했다.



(라) 과거제를 그대로 시행했으며, 유학 교육을 장려했다.

탐구 ③ 청의 한족 지배 정책을 강경책과 회유책으로 구분해 보자.



주제

20 명·청의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

관련 주제
→ 주제18(106쪽)
→ 주제25(126쪽)
→ 주제26(130쪽)

핵심 질문
명·청대 경제와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01 명·청의 경제와 대외 교역

명·청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꾸준히 발전했다. 교역을 통해 다양한 작물이 중국에 들어왔으며, 상공업도 발달했다.

농업 생산력의 향상

고추, 담배, 감자, 옥수수 등의 아메리카 작물이 보급됐다(130쪽 참고). 차, 사탕수수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됐으며, 창장강 중상류 지역에서 곡식이 많이 생산됐다.

상공업의 발달

공업이 크게 발전해 면직물·견직물·도자기 공장 등이 늘어났다. 시장도 활기를 띠면서 쑤저우와 항저우 같은 대도시가 발달하고 대상인 집단이 성장했다.

명은 초기에 무역을 조공국에만 허용하는 폐쇄적인 정책을 시행했으나 점차 부분적으로 민간 무역을 허용했다. 청 또한 일부 항구를 개방해 교역했으나 18세기 후반부터 서양 상인에게는 광저우에서의 ❶**공행** 무역만 허용했다.

유럽과 이슬람 상인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나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청화 백자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은**으로 지급했다. 이에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에 유입되어 화폐로 이용됐다.

❶ **공행** 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인들로, 외국 상인과 교역할 수 있었다.

그 많던 은은 왜 중국으로 모였을까?



↑ **16~18세기 은의 유통** -『스페인 은의 세계사』(2015)

명·청대에 중국을 찾은 해외 상인들은 아메리카와 일본에서 생산된 은을 가져와 중국산 제품으로 교환해 갔다. 막대한 양의 은이 유입된 중국에서는 은을 사용해 거래했고, 세금도 은으로 거두었다.

탐구 ① 지도에서 은의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표시해 보자.

탐구 ② 대량의 은이 유입된 후 중국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 **『신들의 연회』**(미국 워싱턴국립미술관) 16세기 이탈리아에서 그려진 작품에 청화 백자가 등장한다.



↑ **청화 백자**(영국박물관) 원대에 서아시아에서 푸른색 안료(코발트)를 수입해 만들기 시작했다(109쪽 참고). 명·청대에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02 명·청의 사회와 문화

명·청대 사회를 주도한 것은 **신사**층이었다. 신사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배층으로, 과거를 통해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거나 지방에 남아 사회 안정을 위해 힘썼다.

명·청대에는 학문적으로 여러 변화가 있었다. 성리학은 명대에도 과거 시험 과목으로 강조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리학을 비판하며 개인적인 깨달음과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이 등장했다. 청대에는 국가가 주도해 역대 주요 문헌을 모은 『사고전서』 등을 편찬했다. 이 같은 대규모 편찬 사업은 청 왕조를 비방하는 사상이나 서적을 가려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옛 문헌을 치밀하게 분석·연구하는 **고증학**이 크게 발전했다.

경제가 발전하며 서민 문화도 꾸준히 발달했다. 특히 『삼국지연의』, 『수호전』, 『서유기』, 『홍루몽』과 같은 소설이 인기를 끌었다. 또한 유럽의 상인들과 함께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서양의 종교와 학문이 소개되는 등 동서 교류의 폭이 넓어졌다(114쪽 참고).

● 흥미진진한 모험담, 『서유기』

『서유기』는 당대 승려인 현장이 인도에 다녀온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66쪽 참고). 원숭이 손오공, 돼지 괴물 저팔계, 하천 괴물 사오정 등이 삼장 법사(현장)와 함께 인도에 가서 불경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고난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소설은 세계 각지에서 만화 영화 등으로 각색됐다.



● 서양 문물의 전래와 세계관의 변화



↑ 「곤여만국전도」(일본 도호쿠대학교)

유럽의 선교사들은 크리스트교뿐 아니라 서양의 천문학, 역법, 지리학 등을 중국에 소개했다. 이들은 청의 궁정에서 천문학자와 화가로 일하기도 했다. 특히 마테오 리치는 명 말 『천주실의』를 지어 크리스트교의 교리를 중국에 소개했는데, 유교 경전을 인용하고 대화 형식으로 풀어 설명하는 등 중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곤여만국전도」를 만들어 중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의 세계관이 확대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 중국식 복장을 한 마테오 리치

탐구 ③ 위 사례와 반대로 명·청대에 유럽에 영향을 준 중국의 문화를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상수시 궁전의 다실, 예수회와 공자, 시누아즈리

함께 확인해요

❶ 유럽 상인과 이슬람 상인은 중국산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으)로 지급했다.

❷ 청대에는 옛 문헌을 치밀하게 분석·연구하는 □□□이/가 발전했다.

생각 쑥쑥 탐구

유럽에 파견된 중국인

명 말기부터 중국에 드나드는 유럽인이 늘어나고, 서양의 종교와 학문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접촉하면서 두 세계의 전통은 서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청에서 번수의라는 사람을 유럽으로 파견했고, 그는 13년간의 여행 끝에 청으로 돌아와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번수의의 여정을 따라가며 중국과 유럽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알아볼까요?

01 유럽으로 떠난 번수의

명 말부터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 활발히 활동했다. 마테오 리치는 『성경』을 유교 경전에 비유해 설명하는 등 선교를 위해 중국의 전통을 인정했지만, 이후 선교사 사이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공자와 황제를 모시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자 교황청은 크리스트교도의 제사 참여를 금지하고, 청 황제에게 이 결정을 전했다.

강희제는 당시 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을 로마에 특사(특별한 임무를 지닌 사절)로 보내 청의 입장을 전하고자 했다. 하지만 특사 중 청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강희제는 다시 특사를 파견했다. 이때 어려서부터 마을의 선교사와 함께 생활하고 그들에게 교육받아 크리스트교도가 된 번수의가 특사와 함께 유럽으로 떠났다. 그의 여정은 직접 쓴 여행기인 『신견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신견록』은 중국인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여행한 최초의 기록이다.



나는 길을 떠나 교황의 나라로 갔다. 그 수도를 로마라고 불렀다. 이곳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교황을 뵀다. 후하게 대접한 다음 궁전을 돌아보도록 명했다.

-『신견록』



-『중서교통사 5』(2021)



번수의가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로(추정) 번수의는 1708년에 마카오를 떠나 1709년 말 로마에 도착했고, 이후에도 이탈리아 각지를 방문했다. 1720년에 다시 청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3년간 해외를 여행한 셈이다.

02 번수의가 청에 돌아온 계기

이탈리아에 도착한 번수의는 라틴어, 철학, 신학을 공부하며 신부가 됐다. 그런 그가 어떻게 다시 청으로 돌아오게 됐을까? 강희제는 자신이 파견한 특사의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유럽으로 돌아가는 서양인에게 홍표를 발급했다. 결국 300건의 홍표 중 하나가 교황청에 도달하자 번수의는 청으로 돌아왔다.



홍표(프랑스국립도서관) 강희제가 교황에 전한 서신으로, 장식과 글자가 붉은색이라 홍표라고 한다.

우리는 강희 45년(1706)에 이미 서양인을 파견했고, 또 2년 후에 서양인 두 명을 파견했으나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편지가 없다. 거짓으로 온 편지가 있지만, 내가 보낸 사람이 돌아와야 믿을 수 있다. -홍표의 일부

03 금교령으로 끝맺은 두 세계의 만남



교황 클레멘스 11세의 교령(1715)

제사는 미신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크리스트교도는 참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크리스트교도는 …… 고인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제사상을 차리거나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옹정제의 금교령(1723)

"천주당(교회)은 모두 공공장소로 바꾸고 크리스트교를 믿는 자는 해당 지방관이 엄히 금지하며, 전처럼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 중죄로 다스리소서."라는 요청에 황제는 흔쾌히 "청한 대로 하라."라고 했다.



번수의가 특사와 함께 유럽에 파견된 목적은 제사 등의 중국 전통과 관련된 문제를 교황과 논의하고 조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황은 크리스트교도의 제사 참여를 포함해 중국의 전통을 끝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 황제도 금교령을 내려 대부분의 선교사를 청에서 추방했다. 이때부터 청과 서양의 문화 교류는 상당 기간 제한됐다.



함께 탐구해요

❶ 중국의 전통을 두고 선교사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자.

❷ 강희제가 로마에 여러 차례 특사를 파견하고 수백 건의 홍표를 발급한 까닭은 무엇일까?

❸ 논술 UP 청 황제와 로마 교황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까닭이 무엇일지 추측해 써 보자.

주제

21 에도 막부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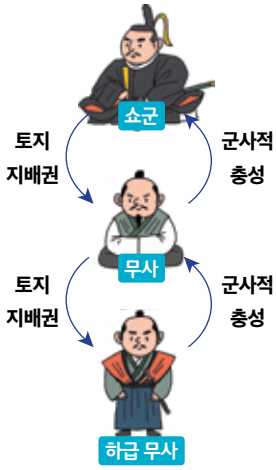
관련 주제
주제10(69쪽)
주제37(178쪽)

핵심 질문
에도 막부가 일본을 다스리게 되면서 어떤 정치·문화적 변화가 나타났을까?

01 막부의 성립

10세기에 일본에서는 귀족의 내분이 일어나며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 귀족은 무사를 고용해 재산과 토지를 보호하고자 했고, 이에 무사의 세력이 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중앙의 권력을 장악하고 무사 정권인 ❶**막부**를 세워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했다. 막부는 우두머리인 쇼군(장군), 그에게 받은 토지를 다스리는 무사, 그 아래 하급 무사가 있어 봉건제 구조를 이루었다.

• 일본의 봉건제



02 막부의 변화

막부는 몽골의 공격을 막아낸 후 한 차례 교체됐고, 15세기 후반에 쇼군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내전으로 쇠퇴했다. 이후 100여 년간 지방의 ❷다이묘들이 세력을 다투는 전국 시대가 지속됐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해 전국 시대를 끝내고,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그가 죽은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에 취임하면서 **에도**(도쿄) 막부를 열었다(1603).

에도 막부는 다이묘들의 영지와 독립적인 지위를 허용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엄격한 법률과 **산킨코타이 제도** 등으로 지방의 다이묘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며 200여 년간 안정을 유지했다.

❶ **막부** 전쟁터에서 무사들이 회의를 하던 천막을 가리켰으나 점차 쇼군 중심의 무사 정권 자체를 뜻하게 됐다.

❷ **다이묘** 하급 무사를 거느리고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로, 영지 내에서 군사권, 사법권, 행정권 등을 가졌다.

다이묘의 권력을 약화시킨 산킨코타이 제도



↑ **산킨코타이 행렬**(일본 난탄시) 각지의 영주가 많은 인원을 데리고 에도를 드나들며 전국의 도로망과 숙박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더욱 활발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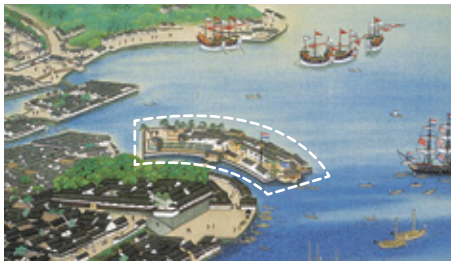
에도 막부는 다이묘들이 정기적으로 자신의 영지와 에도에서 번갈아 생활하게 하는 산킨코타이 제도를 시행했다. 다이묘의 처자식은 그가 영지로 돌아갔을 때도 에도에 인질로 남아 있어야 했다. 다이묘는 이동할 때마다 수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숙식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산킨코타이 비용으로 소비해 재정이 궁핍해졌다.

탐구 ① 에도 막부가 산킨코타이 제도를 시행한 목적은 무엇일까?

03 에도 시대의 대외 교류와 문화

전국 시대부터 일본에서는 유럽의 상인과 선교사가 들어와 활발히 활동했다. 에도 막부는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 크리스트교를 금지하고 무역을 통제했다. 다만 네덜란드와 중국 상인에게는 나가사키를 열어 무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임진왜란 이후 교류가 끊겼던 조선과도 무역을 재개했다.

에도 시대에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며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다. 다이묘의 성곽 밑에는 무사들이 모여 사는 구역(조카마치)이 형성됐고, 이곳에 상인과 수공업자가 거주하며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번영했다. 경제력을 갖춘 도시 상공업자(조닌) 사이에서 가부키와 우키요에 등의 **조닌 문화**가 유행했다.



↑ **나가사키의 데지마** 1636년 규슈의 나가사키에 건설한 인공 섬이다. 네덜란드 상인이 이곳을 드나들며 서양의 여러 학문(난학)을 일본에 전했다.

↓ **가부키**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일본의 전통 연극으로, 오늘날까지 전해 오고 있다.



↓ **에도 막부 시기의 조카마치**(상상화)



• 유럽 미술에 파고든 우키요에

우키요에는 일상생활이나 풍경 등을 목판에 새겨 찍어 낸 풍속화이다. 대량 인쇄도 가능했기 때문에 서민도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었다. 우키요에는 유럽에도 전해져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영향으로 19세기 유럽의 인상주의 화가들 사이에서는 일본풍(자포니즘)이 유행했다.



↑ **「미우라야의 다카오」** (네덜란드 반고흐미술관)



↑ **반 고흐의 「탕기 영감」**(프랑스 로댕미술관)



↑ **「요시츠네 벚나무와 노리요리의 사당」**(영국박물관)

탐구 ② **유럽의 예술 작품 중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은 것들을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기모노를 입은 카미유」, 「에밀 졸라의 초상」, 드뷔시 「바다」

함께 확인해요

❶ □□□□□ 제도는 다이묘들이 정기적으로 자신의 영지와 에도에서 번갈아 생활하도록 한 제도이다.

❷ 에도 시대에는 가부키와 우키요에 등의 □□ □□이/가 발전했다.

주제 22

인도에서 발전한 무굴 제국

관련 주제
- 주제14(82쪽)
- 주제23(120쪽)
- 주제25(126쪽)
- 주제26(130쪽)
- 주제33(160쪽)

핵심 질문
이슬람 왕조가 들어선 이후 인도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01 이슬람 세력의 확대와 무굴 제국

13세기 초부터 인도에서 이어진 이슬람 왕조는 델리를 중심으로 북인도 지역을 지배했다. 16세기 초에는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티무르 왕조의 후손이 델리를 정복하고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을 세웠다(1526, 120쪽 참고).

무굴 제국은 16세기 후반 **아크바르 황제** 때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비이슬람교도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며 번영을 누렸다. 델리 등의 도시가 번성하고 상공업이 발달했으며,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무역도 활발해졌다. 제국은 17세기 말 **아우랑제브 황제** 때 최대 영토를 확보했지만, 지나친 정복 활동에 따른 재정 문제와 이슬람 제일주의에 대한 반발로 점차 쇠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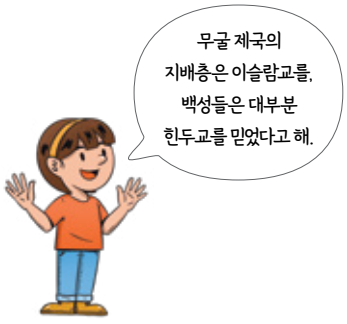


아크바르 황제의 정책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전 인도를 통일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힌두교도 왕비를 맞아들이고 지즈야를 폐지했으며, 힌두교도들도 군인과 관료로 등용했다.

아우랑제브 황제의 정책

인도 남부 지역을 정복해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 그러나 아크바르 황제 때 폐지됐던 지즈야를 부활시키고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는 등 이슬람교 이외의 종교를 탄압했다.



탐구 1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브 황제가 펼친 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무굴 제국의 대표 수출품, 면직물

Q. 면직물이 어떤 상품이길래?

면직물은 면화라는 풀에서 실을 뽑아 만들어 낸 천을 말해. 인도에서는 고대부터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했는데, 그중에서도 면직물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었어. 유럽 사람들은 이것을 '캘리코'라고 불렀지. 캘리코는 인도 캘리컷 지역의 옷감이라는 뜻으로, 포르투갈 사람들이 캘리컷 항구를 통해 인도산 면직물을 수입해 오면서 붙인 이름이야.

Q. 캘리코가 유럽에서 인기를 얻은 까닭은?

유럽 사람들은 캘리코에 금방 매료됐어. 무겁고 색깔도 어두침침했던 모직물과 달리 면직물은 가볍고 화려한 색을 입힐 수 있었던 데다가 세탁도 편리했거든. 17세기 영국에서는 왕족들이 캘리코 옷을 입으면서 캘리코 열풍이 불었어. 이것은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지(160쪽 참고).



인도 면직물을 사러 온 유럽 상인

02 인도·이슬람 문화의 발전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이 인도를 오랜 기간 지배하면서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한 **인도·이슬람 문화**가 발전했다. 이런 문화는 당시의 종교, 언어, 미술, 건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종교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절충한 **시크교**가 발전했다. 시크교는 힌두교의 영향으로 윤회 사상을 믿었으며,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유일신을 섬기고 인간의 평등을 주장했다. 카스트제를 부정했기 때문에 하층민의 지지를 받았다.



오늘날의 시크교도

언어

힌디어와 무굴 제국의 공용어인 페르시아어가 합쳐진 **우르두어**가 발달했다. 공식 문서나 외교 문서에서는 페르시아어가 사용됐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우르두어가 쓰였다. 우르두어는 현재 파키스탄의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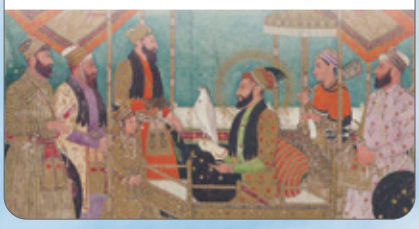
우르두어가 쓰인 파키스탄의 표지판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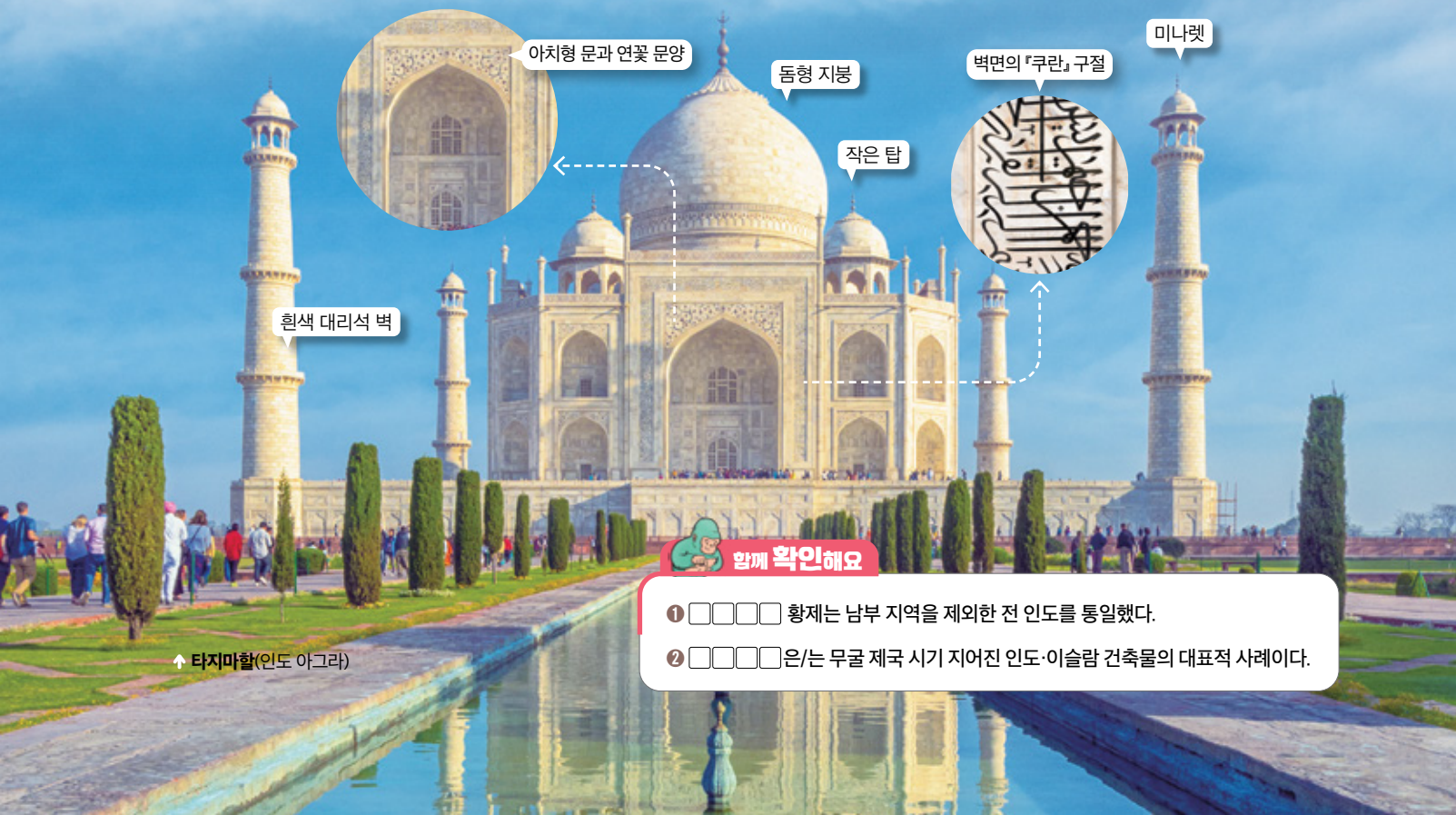
페르시아의 세밀화에 인도의 회화 기법이 융합한 **무굴 회화**가 발달했다. 궁전, 전쟁, 사냥과 같은 새로운 주제를 소재로 삼았을 뿐 아니라 원근법, 음영 등 새로운 기법도 도입했다.

아우랑제브 황제를 그린 작품(개인 소장)



건축

이슬람 건축 양식에 인도의 섬세한 문양이 더해진 인도·이슬람 건축이 발전했다.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황후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타지마할**이 대표적이다. 돔 옆의 작은 탑, 연꽃 문양, 흰색 대리석 벽 등은 인도 양식이고 돔형 지붕, 아치형 문, 미나렛, 벽면의 『쿠란』 구절 등은 이슬람 양식이다.



타지마할(인도 아그라)

함께 확인해요

❶ □□□□ 황제는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전 인도를 통일했다.

❷ □□□□은/는 무굴 제국 시기 지어진 인도·이슬람 건축물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번 중단원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성장과 유럽 사회의 근대적 변화를 탐구할 수 있다.

주제 23

다양한 이슬람 왕조의 성장과 오스만 제국

관련 주제
주제14(82쪽)
주제22(118쪽)
주제35(170쪽)

핵심 질문
오스만 제국이 동서 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01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이슬람 왕조

14세기 후반 티무르가 중앙아시아의 여러 유목 집단을 통합해 **티무르 왕조**를 세웠다(1370). 그는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우며 정복 활동을 벌여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티무르 왕조는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중계 무역을 하며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티무르 사후 왕조는 권력 다툼으로 쇠퇴하다가 16세기 초에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아 멸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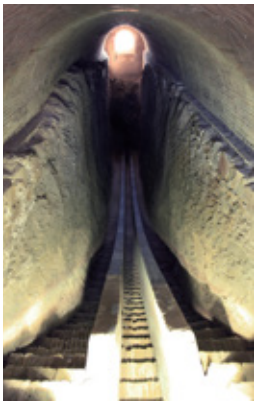
티무르 왕조가 쇠퇴한 후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파비 왕조**가 수립됐다(1501).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고대 페르시아왕의 칭호 '샤'를 사용하는 등 페르시아인을 통합하고자 했다. 사파비 왕조는 영역을 확대하며 오스만 제국과 영토를 다퉜다. 그리고 수도인 이스파한을 중심으로 중계 무역을 주도하다가 17세기 말 이후 내부 분열과 주변 민족의 침입으로 몰락했다.

비단길의 심장, 사마르칸트

티무르 왕조의 수도인 사마르칸트는 비단길의 중심지로, 중계 무역에 유리했다. 이 도시에는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인 레기스탄 광장과 울루그베그가 세운 천문대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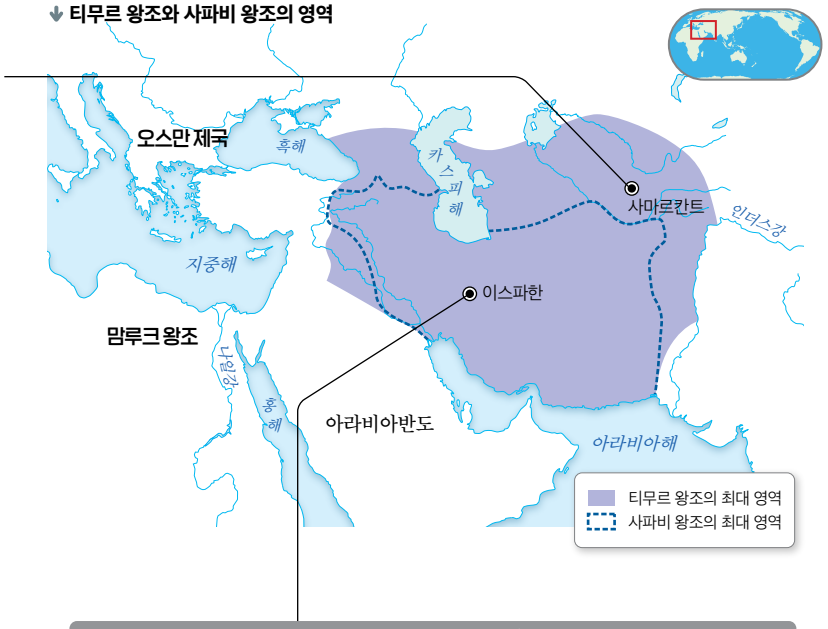
↑ **레기스탄 광장**(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 **울루그베그 천문대**(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울루그베그는 이곳에서 하늘을 관측해 당대 가장 정확한 별자리표를 완성했다. 그는 1년의 시간을 계산했는데, 이것은 곽수경의 계산보다 정밀했다.

천문대 살펴보기

↓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의 영역**



세계의 절반, 이스파한

사파비 왕조는 이스파한으로 수도를 옮긴 후, 이맘 광장을 중심으로 여러 시설을 짓고 도시를 장식했다. 이스파한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물건이 넘쳐나 당시 사람들에게 '세계의 절반'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 **이맘 광장**(이란 이스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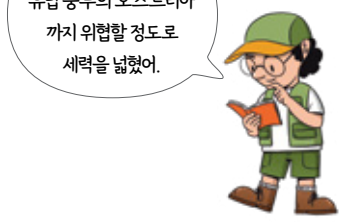
02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

셀주크 튀르크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소아시아 지역에 나라를 세웠다(1299). 이들은 몰락하고 있던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면서 발칸반도로 나아갔다. 이에 서유럽은 연합군을 결성해 맞섰으나 오스만 튀르크의 군대에 격퇴됐다. 이 무렵 오스만 튀르크는 술탄의 칭호를 사용했다.

오스만 튀르크는 메흐메트 2세 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1453). 이후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자들은 칼리프의 칭호까지 이어받아 **술탄·칼리프**라고 불리며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로 부상(좋은 위치로 올라섬.)했다.

오스만 제국은 계속 팽창 정책을 펼쳐 **술레이만 1세** 때는 헝가리를 정복하고 유럽 연합 함대까지 물리쳐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세력을 넓혀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슬람 왕조 변화





↑ 오스만 제국의 영역

치열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작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당시 세계 최고의 요새로 평가받을 만큼 견고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80쪽 참고).

오스만 튀르크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해안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자 산을 넘어 함대를 옮겼어. 그리고 성벽을 파괴하기 위해 길이가 약 8m에 달하는 대포를 사용했어.





오스만 튀르크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한 후 도시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고 수도로 삼았어.



↑ 오스만 제국의 군대가 육지로 배를 옮기는 모습



↑ 콘스탄티노폴리스 전투의 모습



↑ 오스만 제국의 대포
(영국 왕립무기고박물관)

03 오스만 제국의 통치

오스만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 다스린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국은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술탄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과 총독을 파견해 다스리는 지역을 나눠 관리했다. 또한 다양한 종교를 인정했고, 유능한 사람이라면 혈통이나 출신과 관계 없이 관리나 군인으로 등용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제국 내에 공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관용적인 종교 정책

오스만 제국은 비이슬람교도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고, 지즈야를 내면 그들의 종교를 인정했다. 그리고 종교별로 공동체를 구성해 그 안에서 자치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각 공동체에는 종교, 관습, 재판, 교육 등 폭넓은 자율권이 부여됐다.



→ **오스만 제국의 관리를 만나는 유대교도**

예니체리

오스만 제국은 8~20세 사이의 이교도 자제, 특히 크리스트교 청소년을 선발해 키워 냈다. 선발된 이들은 이슬람 교육을 받아 개종하고 튀르크화 교육을 받은 뒤 대부분 예니체리 군단에 편성됐다. 예니체리는 '새로운 군대'라는 뜻으로, 술탄에게만 복종하는 최정예 부대였다.



← **술탄을 호위하는 예니체리**

탐구 ① 오스만 제국이 관용적인 종교 정책을 펼치고 예니체리를 만든 공통된 목적은 무엇일까?

04 이스탄불과 동서 교류

크리스트교도들의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슬람 세계의 요충지(지형상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인 **이스탄불**이 됐다. 동서 교류의 중심지를 차지한 오스만 제국에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다양한 물건을 거래했다.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해 크게 번성했다. 그 영향으로 제국에서는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튀르크, 페르시아, 비잔티움 문화 등이 융합했다.



↑ **이스탄불의 시가지** 보스포루스 해협은 이스탄불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이라고 불린다. 이런 지리적 특징은 오스만 제국이 동서 교류의 중심지이자 요충지로 성장하는 배경이 됐다.



↑ **루멜리 히사르**(튀르키예 이스탄불)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을 위해 보스포루스 해협에 건설한 요새이다. 망루 위에 대포를 설치하고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무조건 멈춰서 검문받도록 했다.

오스만 제국 시기 이스탄불의 풍경

이스탄불 더 보기

이스탄불은 오스만 제국 시기 정치·경제·종교·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비잔티움 제국 시기에 건설된 성 소피아 성당은 네 개의 첨탑이 추가되어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됐으며, 그 맞은편에는 오스만 제국을 대표하는 이슬람 사원인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 건설됐다. 보스포루스 해협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평지에는 톱카프 궁전이 있었으며, 그랜드 바자르에는 동서양의 물건이 넘쳐났다.



↑ **술탄 아흐메트 사원**(튀르키예 이스탄불) 술탄 아흐메트 1세의 명령으로 지어졌다. 내부가 푸른색 타일로 장식되어 '블루 모스크'라고 불린다.



↑ **톱카프 궁전**(튀르키예 이스탄불)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거주했던 궁전으로, 제국 내 정치 활동의 중심지였다.

↓ **오스만 제국 시기의 그랜드 바자르**(상상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실내 시장으로, 메흐메트 2세 때부터 건설되기 시작했다.



커피 하우스

오스만 제국은 영토 확장 과정에서 커피 재배 지역을 여러 곳 차지했다. 16세기부터 바자르(시장) 주변에 커피 하우스가 나타났다. 이슬람 세계의 커피 문화는 17세기에 유럽으로 전해져 카페 문화로 발전했다.

튤립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반도에서 자라는 튤립을 국화로 정하고 곳곳에 심었다. 튤립은 이슬람교도의 머리 터번과 꽃 모양이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튤립은 16세기에 유럽에 전해졌고, 네덜란드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함께 확인해요

❶ 오스만 튀르크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이름을 □□□□(으)로 바꾸고 수도로 삼았다.

❷ 생각 UP ♪ 오스만 제국이 동서 교역의 중심지를 차지하자 유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주제 24

유럽의 종교 개혁

관련 주제
→ 주제16(90쪽)
→ 주제31(154쪽)

핵심 질문
종교 개혁 이후 구교와 신교의 대립은 유럽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01 종교 개혁과 신교의 등장

십자군 전쟁 이후 교황의 권위는 떨어지고 교회는 점점 부패했다. 14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94쪽 참고), 알프스 이북에서는 사회와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 증축(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늘려 짓는 것)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벌부를 대대적으로 판매했다.

독일의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해 교회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했다(1517). 그의 비판은 점차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교황의 권위로까지 확대됐다. 루터의 주장은 유럽 각지에 퍼져 많은 지지를 받았다. 오랜 투쟁 끝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각 제후의 결정으로 루터파가 공식 인정됐다(1555).

교회의 돈벌이 수단이 된 면벌부

면벌부란 가톨릭교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형벌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기 위해 발행한 증서이다. 16세기에는 교회가 면벌부를 남발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일부 성직자는 면벌부로 과거에 지은 죄,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 **레오 10세가 발행한 면벌부**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탐구 ① 교회가 면벌부를 남발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인쇄술의 발달

종교 개혁의 물꼬를 튼 루터

「95개조 반박문」

- **제6조** 교황은 신의 용서를 선언하거나 시인하는 것 이외에 어떤 죄도 용서할 권한이 없다.
- **제36조** 진심으로 회개하는 크리스트교도는 누구나 면벌부가 없더라도 죄와 벌에서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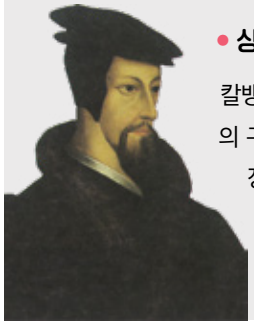
→ **루터 기념 동상**(독일 아이슬레벤)

독일의 신학 대학 교수였던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에서 구원은 오직 신앙과 은총으로만 가능하며,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이라고 주장했다. 루터의 주장을 담은 글은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빠르게 널리 퍼졌다.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출간했고, 모든 평신도가 기본적으로 성직자와 동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탐구 ② 루터의 주장이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02 신교의 확산과 종교 전쟁

제네바에서는 **칼뱅**이 예정설을 주장하며 종교 개혁에 나섰고, 그의 주장은 유럽 각지로 퍼져 나갔다. 영국에서는 국왕 헨리 8세가 스스로 교회의 수장이 되어 영국 국교회를 수립했다.



상공업자들에게 환영받은 칼뱅

칼뱅은 신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신의 구원을 믿고 자신의 직업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해 도시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 칼뱅



↑ 16세기 유럽의 종교 분포

종교 개혁이 확산되면서 크리스트교 세계는 구교(로마 가톨릭교)와 신교(루터파, 칼뱅파)로 나뉘어 서로 대립했다. 이에 유럽 각지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은 주변 여러 나라가 참가하면서 국제 전쟁으로 확대됐다. 이 전쟁은 오랫동안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끝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마무리됐다(1648). 이로써 칼뱅파도 공식으로 인정받게 됐다.



유럽의 종교 전쟁

종교 개혁에 대한 구교의 대응과 마녀사냥



↑ **마녀 처형을 표현한 그림**(1555) 독일에서 세 명의 여성을 처형한 장면을 담은 그림이다. 이 시기에 대략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마녀사냥으로 처형대에 올랐고, 그중 3분의 2가 여성이었다.

탐구 ③ 주로 여성이 마녀사냥을 당한 까닭을 추측해 보자.



신교과 확산되자 가톨릭교회는 위기의식을 느꼈어. 이에 예수회를 조직해 아시아와 아메리카 등지로 선교 활동에 나섰지. 또한 금서 목록을 작성하고 종교 재판소를 설립해 내부의 분열을 막고자 했어.



유럽의 종교 갈등이 심해진 16세기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흉작과 기근이 끊이지 않았어. 이에 민중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잠재우고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녀와 마법사라는 희생양을 만들어 종교 재판을 여는 경우도 있었어.



이런 종교 재판에서 주된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여성이었어. 죄가 없는 여성을 마녀라며 잡아들여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했대.



함께 확인해요

❶ 독일의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교회의 □□□ 판매를 비판했다.

❷ **검색 UP** 가톨릭교회와 신교의 차이점을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

주제

25 신항로 개척과 아메리카 대륙의 변화

관련 주제
주제20(112쪽)
주제22(118쪽)
주제33(160쪽)

핵심 질문
유럽의 신항로 개척 이후 아메리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01 유럽의 신항로 개척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아시아의 향신료, 면직물, 비단, 도자기 등에 대한 수요가 컸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하고 중계 무역을 하자 이런 상품의 가격이 더 비싸졌다. 동방에 크리스트교 왕국이 있다는 전설이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유럽인의 호기심을 더욱 부추겼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지중해 무역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다. 이슬람 세계로부터 받아들인 지리학, 천문학, 조선 기술, 항해 기술이 이런 탐험을 가능하게 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에 도착했다. 에스파냐는 대서양을 건너 아시아로 가려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렀고, 이후 태평양을 거쳐 아시아에 도착했다.

신항로 개척의 전개



1.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포르투갈왕의 명령으로 아프리카의 남쪽 끝인 희망봉에 도착했다(1488).
2. **콜럼버스**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 대서양을 지나 인도에 가려고 했으나 중앙아메리카에 도착했다(1492).
3. **바스쿠 다가마** 포르투갈 출신으로,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향하는 경로를 발견했다(1498).
4. **마젤란 일행**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 에스파냐로 돌아오는 세계 일주 여행에 성공했다(1519~1522).





↑ **정향과 후추** 동방에서 생산된 정향, 후추, 육두구 등의 향신료는 육식을 즐겼던 유럽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 **콜롬버스가 읽은 『동방견문록』** 신항로 개척에 나선 콜럼버스는 아시아에 대한 기록이 담긴 『동방견문록』을 필기하며 열심히 읽었다.

← **카라벨선**(상상화) 아랍의 조선 기술을 받아들여 만든 배로, 개량된 돛을 달아 원거리 항해에 유리했다. 유럽인들은 이 외에도 나침반(105쪽 참고), 아스트롤라베(85쪽 참고) 등을 활용했다.

02 아메리카 대륙의 변화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 아메리카에는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이 번영하고 있었고, 다양한 부족이 전통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에스파냐는 말과 총 등을 동원해 제국을 정복했고, 뒤이어 들어온 유럽 국가들도 원주민을 몰아내고 식민지를 건설했다.

유럽인은 아메리카에서 금과 은을 캐는 광산을 개발했다. 또한 대농장을 만들어 사탕수수, 담배 등의 ❶**플랜테이션** 작물을 재배했으며, 대규모 목축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숲이 대량으로 파괴됐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광산과 대농장에 끌려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으며, 유럽에서 전해진 전염병에 고통받았다. 이에 원주민 인구가 크게 줄어들자, 유럽인은 아프리카인을 아메리카로 데려와 노예로 삼았다(128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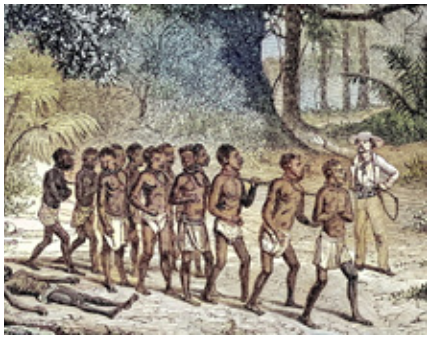


↑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

❶ **플랜테이션** 주로 열대 기후 지역에서 서양인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해 단일 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업 형태이다.



↑ 광산에서 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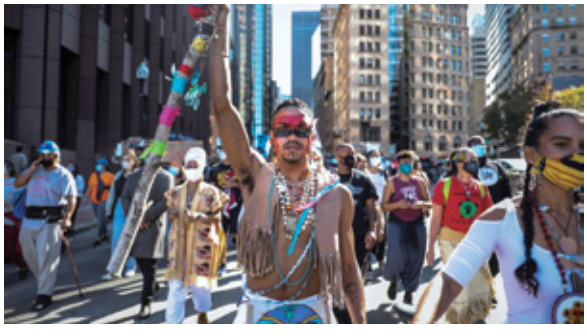


↑ 끌려가는 아프리카 노예들



↑ 카리브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아프리카인

'콜럼버스의 날'과 '원주민의 날'



↑ 콜럼버스의 날을 원주민의 날로 바꾸기를 주장하는 시위(2020)

탐구 ① 미국에서 '콜럼버스의 날'을 '원주민의 날'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온 까닭은 무엇일까?

오늘날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첫발을 내디딘 1492년 10월 12일을 기념하고 있다. 미국은 10월 둘째 월요일을 '콜럼버스의 날'로 정해 공휴일로 기념해 왔지만, 점차 이를 '원주민의 날'로 바꾸려는 주가 늘고 있다. 미국 정부도 2021년부터 이날을 '원주민의 날'로 선포했다. 볼리비아에서는 이날을 '탈식민화의 날'로 정해 콜럼버스의 항해로부터 비롯된 유럽인의 원주민 학살을 비판하고 있다.

함께 확인해요

❶ □□□ 무역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다.

❷ 유럽인은 아메리카에서 사탕수수, 담배 등의 □□□□□ 작물을 재배했다.

생각 쑥쑥 탐구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와 아프리카 노예의 비극

신항로 개척 이전 아메리카의 멕시코고원에는 아스테카 제국이, 안데스고원에는 잉카 제국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파냐 침략자가 들어오면서 제국은 멸망하고 아메리카 원주민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아프리카인도 아메리카로 끌려와 노예가 됐습니다. 신항로 개척이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볼까요?

01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

아스테카 제국 14세기 무렵 멕시코고원에서 발전했다. 호수 위에 건설된 수도 테노치티틀란은 20여만 명이 거주했던 곳으로, 거대한 피라미드형 신전이 있는 계획도시였다. 아스테카 제국에서는 역법이 발달해 일반인이 사용하는 365일 주기의 태양력 외에 종교 활동에 쓰이는 260일 주기의 달력이 따로 있었다.

잉카 제국 15세기 중엽 안데스 산지에서 제국으로 발전했다. 잉카인들은 수도 쿠스코에 거대한 태양 신전을 지었고, 전국적인 도로망을 건설했다. 이들은 관개 시설을 갖춘 계단식 밭을 만들어 옥수수와 감자를 재배하고, 뛰어난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높고 가파른 산맥의 꼭대기에 마추픽추와 같은 요새를 건설했다.



↑ **테노치티틀란 상상화**(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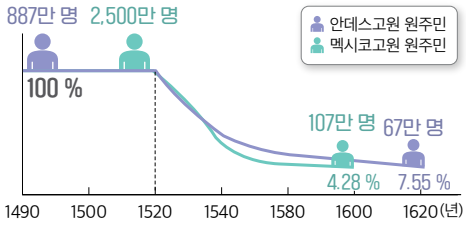
← **태양의 돌**(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 아스테카인의 시간 개념과 우주관을 엿볼 수 있다.

↓ **마추픽추**(페루 쿠스코)



02 희생당한 아메리카 원주민

신항로 개척 이후 아메리카에서는 유럽인의 가혹한 통치와 유럽에서 전해진 천연두, 홍역과 같은 질병으로 다수의 원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멕시코고원과 안데스고원의 원주민은 약 100년 만에 예전의 4~8% 정도로 줄었다.



-『디르케 세계 지도』(1996)

←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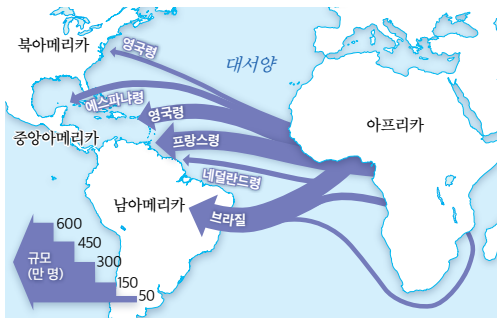


↑ **천연두로 고통받는 아메리카 원주민들**

03 아메리카로 끌려온 아프리카인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가 빠르게 줄자 유럽인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아프리카인을 아메리카로 강제 이주시켰다. 아프리카인은 광산이나 플랜테이션 농장에 투입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행위가 숱하게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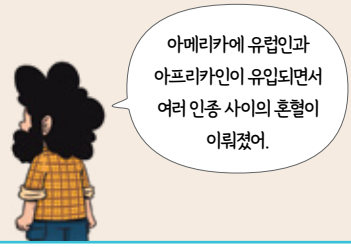
-『The Atlantic Slave Trade: A Census』(1969)



↑ **1701~1810년의 대서양 노예 무역** 16세기에 시작된 대서양 노예 무역은 오랜 기간 계속됐으며, 18세기에 절정에 달했다.



↑ **노예 수송선** 아프리카인은 쇠사슬에 묶인 채 비좁은 배 안에서 몇 개월을 견디며 대서양을 건너야 했다. 아메리카에 닿지 못하고 도중에 사망하는 사람도 많았다.



함께 탐구해요

❶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인들에게 '신항로 개척'은 어떤 의미였을지 한 문장으로 말해 보자.

❷ **논술 UP** 오른쪽은 '바야돌리드 논쟁'이라고 불리는 대화이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인들이 이런 논쟁이 벌어졌음을 알았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논쟁 자체를 비판하는 글을 써 보자.



세풀베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원래 열등한 존재입니다. 무력으로 정복하고 크리스트교로 개종시킨 후 노예로 부려도 됩니다.



라스카사스

아메리카 원주민도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개종시키며 보호해야 합니다. 그 대신 동물에 가까운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쓰면 됩니다.

주제

26 세계적인 교역망의 형성

관련 주제
주제20(112쪽)
주제22(118쪽)
주제34(166쪽)

핵심 질문
신항로 개척 이후 각 지역 교역망은 어떻게 세계 교역망으로 확대됐을까?

01 유럽의 상업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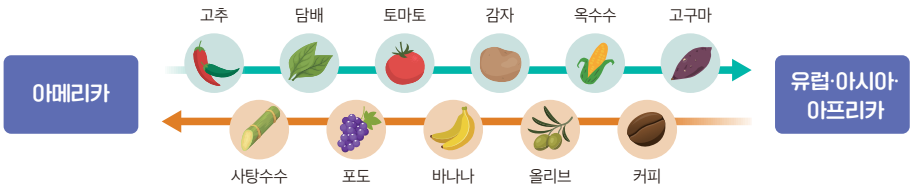


↑ 삼각 무역

신항로 개척 이후 대서양을 중심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삼각 무역**이 전개됐다. 유럽인은 총기, 직물 등을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와 교환하고, 이들을 아메리카의 광산이나 농장에 팔았다. 그리고 담배나 설탕을 사서 유럽으로 돌아와 큰 이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감자, 옥수수, 고추 등이 유럽에 전해졌다.

교역망이 확대되고 아메리카에서 채굴한 대량의 금은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다. 이에 상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큰 이익을 얻었고, 농업보다 상공업과 무역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커졌다(**상업 혁명**). 투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기업 형태가 등장했고, ❶어음과 보험 등의 금융 제도도 갖춰졌다.

❶ **어음**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주기로 약속한 증서이다. 회사가 운영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하며,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못하면 부도로 처리된다.



↑ **바다를 건넌 작물들** 담배, 감자, 옥수수 등은 유럽을 거쳐 세계 각지로 퍼지면서 세계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줬다. 특히 감자와 고구마는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사람을 굶주림에서 구했다.

주식회사 제도와 보험업의 발전

해상 무역은 비용이 많이 들고, 조난(재난을 만남.) 확률이 높아 파산 위험이 컸다. 이에 주식을 발행해 투자금을 확보하고, 주식 보유량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주식회사가 등장했다. 해상 무역의 파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험업도 발달했다. 이런 변화는 모험적인 창업을 가능하게 해 이후 자본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160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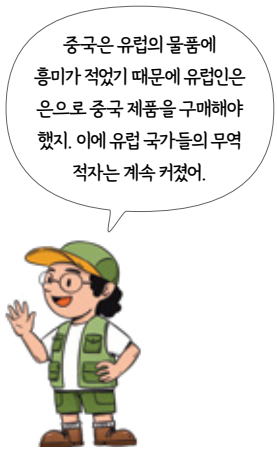
↑ **종호 사건**(1781) 노예를 태운 배가 위험에 빠지자 병든 노예들을 바다에 던진 사건이다. 비인간적 행위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모습**(1726)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최초의 주식회사로, 1602년에 세워졌다.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증권 거래소도 생겼다.

02 교역망의 세계적 확대

아시아에는 중국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를 잇는 해상 교역망이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다. 신항로 개척으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에 이어 네덜란드, 영국 등도 ❷**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이 교역망에 참여했다. 유럽 각국은 중국, 일본에서는 외교 교섭으로 무역을 허락받고,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무력을 동원해 식민지를 차지했다.

유럽은 아메리카에서 들여온 풍부한 은 덕분에 인도산 면직물, 동남아시아산 향신료, 중국산 차·도자기·비단 등을 살 수 있었다. 그 결과 교역망이 전 세계로 확대됐고, 은이 아시아로 흘러들었다. 특히 중국은 막대한 은을 보유하게 됐다(112쪽 참고).



❷ **동인도 회사** 정부로부터 무역 독점권을 얻었으며, 군대를 보유하고 조약을 맺을 권한까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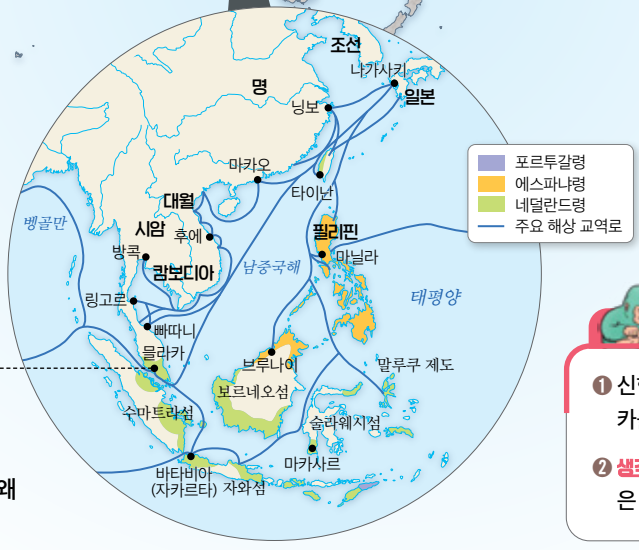
이와미 은광의 은으로 만든 은화



일본은 유럽과 교류하며 조총과 크리스트교 등을 받아들였다(117쪽 참고). 이 시기에 은광도 많이 개발됐는데, 17세기 일본의 은 생산량은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에 달했다.

16~18세기 주요 교역망

17세기 동남아시아 무역망



믈라카는 동남아시아 해상 교역의 요지였다. 이슬람 왕국이 이곳에서 번성했으나 16세기에는 포르투갈, 17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는 네덜란드가 차지했다.

탐구 ① 지도를 보고 믈라카가 왜 중요한 지역인지 말해 보자.

함께 확인해요

❶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 □□이/가 발달했다.

❷ **생각 UP** 은이 교역의 확대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주제

27 재정과 군사를 독점한 국가들

관련 주제
→ 주제16(90쪽)
→ 주제28(142쪽)
→ 주제29(144쪽)

핵심 질문
유럽에 등장한 재정·군사 국가는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01 재정·군사 국가의 등장

봉건 질서가 쇠퇴하고 구교와 신교가 분열하면서 유럽의 군사적 충돌이 심해졌다. 각 나라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화약 무기를 개발하고 군대를 육성했으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군사와 재정을 독점한 **재정·군사 국가**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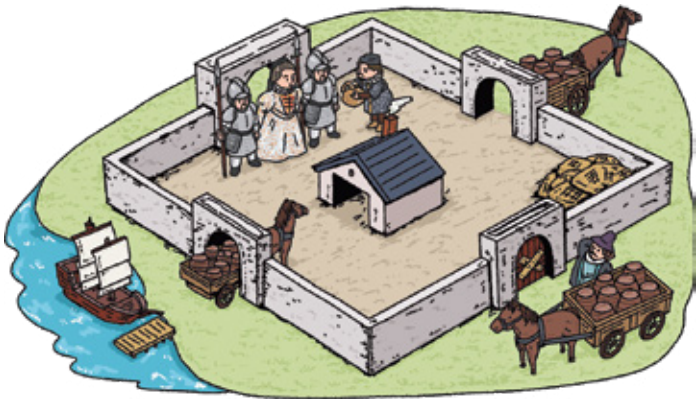
재정·군사 국가는 세금을 거두는 등의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료제**를 운용했다. 또한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상비군**을 두어 전문적인 군사력을 유지했다.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왕권신수설을 제시하는 국가도 있었다.

재정·군사 국가는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는 시민 계층의 활동을 보호해 주고 그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돈이 곧 힘이다! 중상주의 정책

❶ 국내 상공업 보호

재정·군사 국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통제했다. 특히 이들 국가는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많은 양의 금과 은을 확보하려고 했다. 또한 일부 특권 상인에게 무역 독점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헌금과 세금을 정부에 바치도록 하기도 했다.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
→ **중상주의 정책의 구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완성품의 수입과 원료의 수출을 금지했다.

❷ 해외 시장 확보

재정·군사 국가는 원료를 얻고 상품을 판매할 시장을 얻기 위해 식민지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 아시아 곳곳을 점령해 거점을 만들고 독점적인 무역을 했다.



→ **인도 뭄바이의 영국 동인도 회사**(18세기) 동인도 회사는 본사를 본국에 두고, 아시아의 거점에도 건물을 세워 무역을 했다.

탐구 ① **중상주의 정책으로 크게 성장한 계층은 누구일까?**

02 유럽 각지의 재정·군사 국가

유럽의 대표적 재정·군사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였다. 영국은 왕과 의회가 서로 타협해 의회 정치를 발전시켰으며, 프랑스는 의회를 무시하고 절대 왕권을 정당화했다. 한편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이 늦었던 동유럽에서는 농노제가 오래 유지되어 서유럽보다 늦게 재정·군사 국가가 나타났다. 러시아와 프로이센에서는 ❶**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군주들이 등장해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다 (134쪽 참고).

❶ **계몽사상**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상이다.

유럽 각지의 재정·군사 국가

함께 확인해요

❶ 재정·군사 국가는 상업을 중시하는 □□□□ 정책을 폈다.

❷ 검색 UP 계몽사상에 영향을 받은 군주를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프리드리히 2세, 표트르 대제

영국

16세기 이후 농촌의 지주와 도시의 시민이 의회에 많이 진출했다. 이들 가운데는 ❷청교도가 많았다. 청교도 중심의 의회는 17세기에 왕의 탄압에 무력으로 맞서 왕을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후 왕정이 부활하고 왕이 다시 전제 정치를 펴자 의회는 그를 추방하고 새 왕을 추대했다. 그리고 왕에게 의회의 권한을 존중한 법안을 승인받음으로써 ❸**입헌 군주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❷ **청교도** 영국의 칼뱅파 신교도로, 영국 국교회에 반대했다.

❸ **입헌 군주정** 군주권이 헌법이나 의회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 형태이다.



↓ 영국 의회의 모습(18세기)

프랑스

'태양왕'을 자처한 **루이 14세**가 강력한 상비군과 관료제를 토대로 절대 권력을 누렸다. 그는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다. 그러나 통치 후반기에는 무리한 대외 전쟁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부패와 사치가 심해졌다.





→ **루이 14세**(좌)**와 17세기 중반 베르사유 궁전의 모습**(우)

생각 쑥쑥 탐구

새로운 변화의 시작, 과학 혁명과 계몽사상

17세기 유럽에서는 과학 혁명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재정·군사 국가들이 과학자들의 연구를 후원하면서 유럽 각지에 학회가 설립됐고, 사람들은 과학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계몽사상으로 이어져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바탕이 됐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인물들을 통해 과학 혁명과 계몽사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01 재판정에 선 과학자, 갈릴레이

과학 혁명은 천문학 분야에서 시작됐는데, 그 중심에 갈릴레이가 있었다.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해 우주의 모든 물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반박했다. 그는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며, 지구가 그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지지한다는 책을 발표했다. 갈릴레이의 주장은 당시 크리스트교의 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다. 종교 개혁을 거치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진 가톨릭교회는 갈릴레이를 종교 재판에 세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것을 강요했다. 갈릴레이는 결국 압력에 못 이겨 지동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포기했다. 그러나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그가 이룬 연구 성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됐고, 이는 유럽인의 우주관에 변화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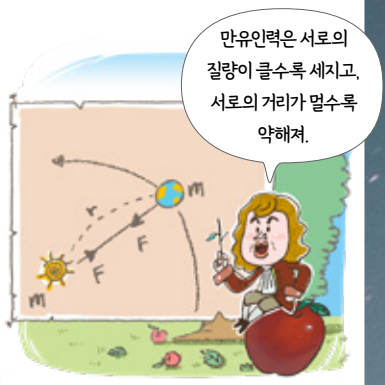
↑ **갈릴레이가 그린 달의 모습** 갈릴레이는 우주를 관측해 다양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인류 최초로 달의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지구뿐 아니라 다른 행성에도 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02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17세기에 활동한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비롯해 여러 가지 과학 법칙을 발견해 사람들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와 같다고 보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제시했다. 뉴턴은 과학 혁명 시기에 풍부하게 쌓인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자연 과학 지식을 모아 체계화했기 때문에 과학 혁명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 같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에 믿음을 갖게 됐다.



만유인력은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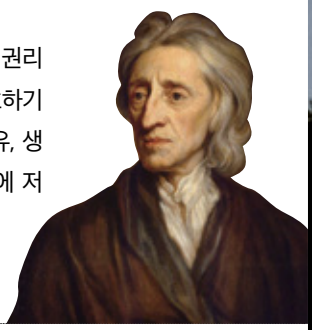
뉴턴은 만유인력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03 인간의 이성을 믿은 로크와 루소

계몽사상가들은 인간이 가진 이성의 빛으로 무지, 미신, 무비판적인 믿음, 불합리한 전통 등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은 당시 유럽 사회의 부정적인 전통과 관습을 깨뜨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계몽사상가들의 주장은 이후에 일어난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됐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로크와 루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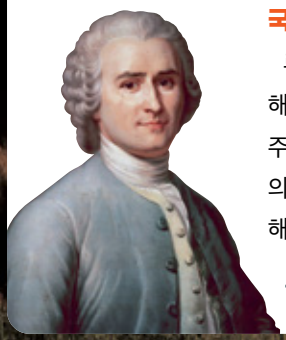
저항권을 주장한 로크

자연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고유한 권리를 뜻한다. 로크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정부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자유, 생명,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침해한다면 이에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크

국민 주권을 주장한 루소



루소 또한 로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루소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직접 국가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소

함께 탐구해요

❶ 검색 UP♪ 과학 혁명 시기의 과학자와 그들의 성과를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❷ 논술 UP♪ 과학 혁명이 계몽사상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써 보자.

❸ 당시 지배층은 로크와 루소의 사상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창의 쑥쑥 활동

개인 활동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나라의 가상 국기를 만든 후 발표합니다.

활동 방법

❶ 나라 고르기

[보기]에 있는 나라 중 가상 국기를 만들고 싶은 곳을 하나씩 고릅니다.

❷ 내용 정리하기

고른 나라에 대한 정보와 특징을 정리합니다.

- 나라의 기본적 정보(위치와 시기 등)
- 나라의 중요한 특징

❸ 가상 국기 만들기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만들고, 해당 나라를 선정한 까닭과 국기에 담긴 의미를 활동지에 적습니다.

❹ 가상 국기 발표하기

완성한 가상 국기를 친구들에게 소개합니다.

❺ 가상 국기 평가하기

모든 발표가 끝나면 서로의 국기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가상 국기가 해당 나라의 특징을 잘 드러냈는지 평가합니다.

유의 사항

- 각 나라의 특징을 우열의 관점으로 비교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보기]에 없는 나라의 국기를 만들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활동지

각 나라를 상징하는 가상 국기 만들기

국기는 나라의 특징을 특정한 빛깔과 모양으로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표현하거나 역사·지리적인 특징을 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조화를 이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눈이 많이 내리고 호수가 많다는 특징을 담아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나라 중 하나를 고른 다음, 그 특징을 담아 가상 국기를 만들어 봅시다.

01 나라 고르기

[보기]

☐ 명 110쪽



함대를 이끌고 항해해 조공·책봉 관계를 확대했지.

☐ 청 111쪽



우리 만주족은 소수이지만 넓은 지역을 다스렸어.

☐ 일본(에도 막부) 116쪽



에도 시대에는 가부키와 우키요에가 유행했지.

☐ 무굴 제국 1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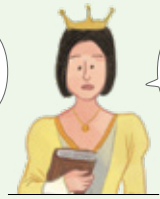
여러 분야에서 인도·이슬람 문화가 발전했어.

예시 ☑ 오스만 제국 121쪽



비이슬람교도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어.

☐ 에스파냐 126쪽



여러 탐험가들을 지원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어.

02 내용 정리하기

어떤 나라일까?

예시 오스만 제국은 넓은 영역을 지배하는 제국이었어. 수도인 이스탄불은 동서 교류의 중심지였지.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인정하는 정책을 폈지.

어떤 특징을 표현할까?

예시 이슬람 세계의 강자였던 오스만 제국의 넘치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싶어. 그리고 거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다른 종교를 인정했던 부분을 강조하려고 해.

어떤 이미지를 활용할까?

예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사용한 서명인 투그라의 모양을 활용할 거야. 또한 오스만 제국 사람들이 좋아해서 나라 곳곳에 심었다는 튤립을 그려 넣어 국기를 만들고 싶어.

03 가상 국기 만들기

예시



가상 국기 만들기 활동지

해당 나라를 선정한 까닭

작년에 이스탄불을 여행했는데, 오스만 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건축물이 많았다. 그곳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오스만 제국의 국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가상 국기에 담긴 의미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거대한 나라였다. 제국을 이끌었던 술탄의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 국기 중앙에 투그라를 그려 넣었다. 투그라는 당시 술탄이 공식 문서에 사용하던 서명이다. 오스만 제국은 넓은 …….

[한 줄 평가]



오스만 제국의 통치 체제가 잘 드러나는 국기라고 생각해. 다만 문화적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쉬워.



오스만제국이 넓은 영역을 다스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잘 표현했어.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는 점이 청과 비슷해.

평가하기

- 해당 나라의 특징을 국기로 잘 나타냈나요?
- 국기를 독창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나요?
- 다른 친구들에게 완성한 국기의 의미를 잘 설명했나요?
- 다른 친구들이 만든 국기를 잘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평가했나요?

스스로 생각하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로 확인하기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 봅시다.

1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나라가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을 써 보자.



↑ 최대 영역



↑ 패자

.....

.....

2 서로 관련 있는 내용끼리 연결해 보자.

청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한 타지마할
에도 막부	중국의 역대 주요 문헌을 모아 편찬한 『사고전서』
무굴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으나 이슬람 제국의 수도가 된 이스탄불
오스만 제국	무사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상공업이 발달한 조카마치

3 ㉠~㉣을 채워 유럽의 신항로 개척 이후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변화를 정리해 보자.

아메리카	㉠ .....
㉡	대서양 중심의 삼각 무역을 전개함. 금은이 대규모로 들어와 물가가 상승하고 상업이 발달함.
㉢	면직물, 향신료, 차, 도자기, 비단 등을 유럽에 수출함. 막대한 양의 은이 유입됨.
아프리카	㉣ .....

추가 확인 문제

역사로 세상 읽기

다음 자료를 읽고 빈칸을 채워 봅시다.



플랜테이션은 오늘날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01 아마존 산불의 원인은 무엇일까?



2019년 아마존에서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산불이 발생해 열대 우림이 크게 파괴됐어. 아마존에서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플랜테이션 농업이야.



원주민이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불을 내기도 하지만, 숲을 없애고 기업형 농업을 하기 위해 불을 냈다가 크게 번지는 경우도 많아.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에서 숲을 파괴하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기 시작했어.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거야. 플랜테이션 농업은 우리에게 값싼 농산물을 풍부하게 제공해 줬지만,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등을 불러일으켰어.

02 숲을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플랜테이션 농업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팜유 농업

팜유는 기름야자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과자나 라면 등을 만들 때 사용된다. 문제는 팜유의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열대 우림을 기름야자 나무(팜나무) 재배지로 개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지 주민과 동식물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인기 과일 바나나 농업의 위험

많은 나라에서 즐겨 먹는 바나나는 주요 생산국에서 플랜테이션으로 경작되며, 단일 품종으로 개량됐다. 이에 바나나가 전염병에 매우 취약해지자 농약을 많이 사용해 토양이 오염되거나 땅의 양분이 회복되지 않아 사막화되는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팜유 농장에 설치된 올가미에 걸려 사망한 코끼리**(2018)

03 플랜테이션 농업이 불러온 노동 문제



↑ **기름야자 열매를 모으고 있는 어린이**(2015)

과거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은 몇 시간 동안 돌이나 단단한 땅에 서서 일했고, 쉬는 시간에도 앉을 의자가 없어 대부분 다리 질병에 걸렸다. 플랜테이션 농업은 오늘날에도 낮은 임금, 아동 노동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아동들은 방과 후나 주말에 작업에 투입되며, 학교를 그만두고 농장에서 일하기도 한다. 또한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동자들은 인체에 해로운 살충제나 제초제 등을 사용하며 건강을 위협받는 경우도 많다.



검색해요

플랜테이션이 이뤄지는 지역과 작물을 찾아보자.

- 기업형 플랜테이션
-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플랜테이션
- _____

“ 오늘날 지구에게 플랜테이션이란

_____

_____ ”

166 쪽

제국주의자 세실 로즈의 동상이 철거되는 모습이다. 서양 열강은 군사력을 앞세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다. 이런 대외 팽창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한다.





144 쪽

마리안느는 프랑스를 의인화한 인물로, 공화국의 승리를 상징한다. 프랑스에서는 혁명 이후 공화정이 선포되는 등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157 쪽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크리오요이다. 그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를 에스파냐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했다.



185 쪽

우창에서 일어난 신식 군대의 봉기를 시작으로 각 성들이 혁명에 동조해 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IV 제국주의와 국민 국가 건설 운동

1.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 국가 체제
2. 산업 사회의 등장과 제국주의
3. 아시아의 국민 국가 건설 운동

이번 중단원에서는 시민 혁명을 국민 국가 형성과 연결해 파악하고,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탐구할 수 있다.

주제 28

미국 혁명과 민주 공화국의 탄생

관련 주제
→ 주제27(132쪽)
→ 주제32(156쪽)

핵심 질문
미국은 어떻게 성립했으며, 성립 후 어떤 나라로 발전했을까?

01 북아메리카 식민지와 영국의 갈등

17세기 이후 유럽인들은 종교의 자유 혹은 경제의 기회를 찾아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다. 특히 영국인들은 18세기 초까지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해안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독자적인 의회를 만들어 자치를 누렸다.

그러나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영국은 식민지에서 거래하는 설탕, 차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신문, 서적 등에 인지(수수료나 세금을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붙이는 종이 표)를 사서 붙이게 하는 인지세법을 제정했다. 이에 불만이 커진 식민지인들은 영국 의회에 식민지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세금을 거둘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식민지인들이 영국 선박에 올라가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 버린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다(1773).

식민지인들의 불만을 키운 인지세법

인지세법은 종이로 된 법률 문서와 인쇄물 등에 인지를 붙이거나 도장을 찍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신문, 팸플릿, 심지어 카드와 주사위에도 적용됐다. 이에 식민지인들은 인지세법에 반대하는 의미로 도장을 거꾸로 찍고 그것을 공격하는 악마 그림을 함께 찍어 내기도 했다.



→ 영국 왕의 상징인 왕관 도장이 찍힌 주사위

↑ 도장이 거꾸로 찍힌 신문



↑ 미국의 독립 과정



↑ **보스턴 차 사건**(1773) 아메리카 원주민의 모습으로 위장한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항구에 머무르던 영국 상선에 올라가 배에 실린 차 상자를 바다에 던졌다.

02 미국 혁명의 전개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영국이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는 강경한 정책을 펴자 식민지 대표들은 대륙 회의를 열고 영국에 항의했다. 곧이어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민간인들로 조직한 부대)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독립 전쟁이 시작됐다. 식민지 대표들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독립 선언문」**을 발표했다(1776).

처음에는 식민지 군대가 열세(상대보다 힘이나 세력이 약함.)했으나 워싱턴의 활약과 프랑스, 에스파냐 등의 지원으로 전세가 역전됐다. 결국 식민지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을 인정받았다(1783).

03 민주 공화국 미국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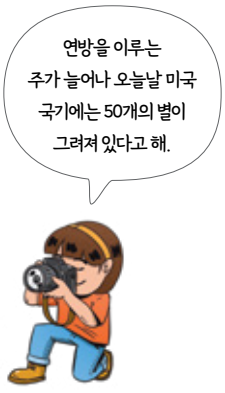
독립을 인정받은 13개의 식민지는 헌법을 제정했다. 이 헌법은 ❶연방주의, 공화주의, ❷삼권 분립에 기초를 두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가 구성되고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에 오르며 **민주 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미국)이 탄생했다. 미국 혁명은 전제 정치(나라의 권력을 개인이 장악해 제약 없이 시행하는 정치)에 시달리던 유럽인들에게 자극이 됐으며, 특히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럽 열강(정치, 경제, 군사 등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157쪽 참고).

❶ **연방주의** 미국은 주의 독자성을 최대한 존중해 중앙 정부와 주 단위의 지방 정부가 통치권을 나눠 행사하는 연방주의를 채택해 왔다.

❷ **삼권 분립** 국가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권으로 나누는 국가 조직의 원칙이다.



↑ **미국 혁명 당시에 사용된 깃발** 1777년에 미국 의회가 미국의 공식 국기로 인정했다. 흰색 별, 그리고 빨간색과 흰색으로 이뤄진 줄은 모두 미국 초기의 13개 주를 의미한다.



● 미국 혁명으로 모두가 자유를 얻었을까?

「독립 선언문」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포함된다는 진리를 스스로 확신한다.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은 정부를 세우며, 정부가 가진 권력의 정당성은 피지배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런 목적을 위배할 때는 ……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이다.



식민지 대표들은 「독립 선언문」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밝혔다. 다만 대농장주와 해운업자들의 반대로 노예제를 폐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탐구 ① 「독립 선언문」 발표 이후 미국 내 노예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말풍선에 써 보자.

함께 확인해요

❶ 미국 혁명으로 □□ □□□인 아메리카 합중국(미국)이 탄생했다.

❷ **생각 UP** 미국 혁명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일까?

주제

29 프랑스 혁명의 발발과 전파

관련 주제 ➔ 주제27(132쪽)

핵심 질문

시민 혁명의 대표적 사례인 프랑스 혁명은 이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01 혁명 전 프랑스 사회의 모순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전체 인구의 2% 정도인 성직자(제1 신분)와 귀족(제2 신분)이 전 국토의 약 40%를 소유하고 세금 면제의 특권을 누렸다. 반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평민(제3 신분)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다. 평민 중 상공업의 발달로 부유해진 시민 계급은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꿈꿨다.



➔ **혁명 전의 사회 모순을 그린 당시의 판화** '무거운 세금'이라고 쓰인 바위에 눌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평민 위에 성직자(왼쪽)와 귀족(오른쪽)이 올라가 있다.

02 프랑스 혁명의 전개

프랑스는 왕실의 사치와 전쟁으로 재정이 어려워졌다. 특히 미국 독립 전쟁에 참전하며 파산 상황에 이르자 국왕 루이 16세는 세금 확보를 위해 ❶**삼부회**(삼신분회)를 소집했다(1789). 삼부회에 모인 각 신분의 대표가 투표 방식을 놓고 대립하면서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는 새 헌법을 만들고 **공화정**을 선포하는 등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❶ **삼부회** 성직자, 귀족, 평민 세 신분의 대표가 모여 중요한 문제를 논의했다.

➔ **앵발리드**(프랑스 파리)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기 전에 들러 무기를 탈취한 장소이다.

혁명의 시작

삼부회에 모인 평민 대표는 신분별 투표가 아닌 머릿수에 따른 투표를 주장했다. 그러나 성직자 대표와 귀족 대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별도로 의회를 결성하고 새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테니스코트의 선언**).



봉기의 발생

루이 16세는 평민 대표가 결성한 의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전제 정치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농민이 봉기해 귀족을 공격하고 그 토지를 빼앗았다(148쪽 참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과 혁명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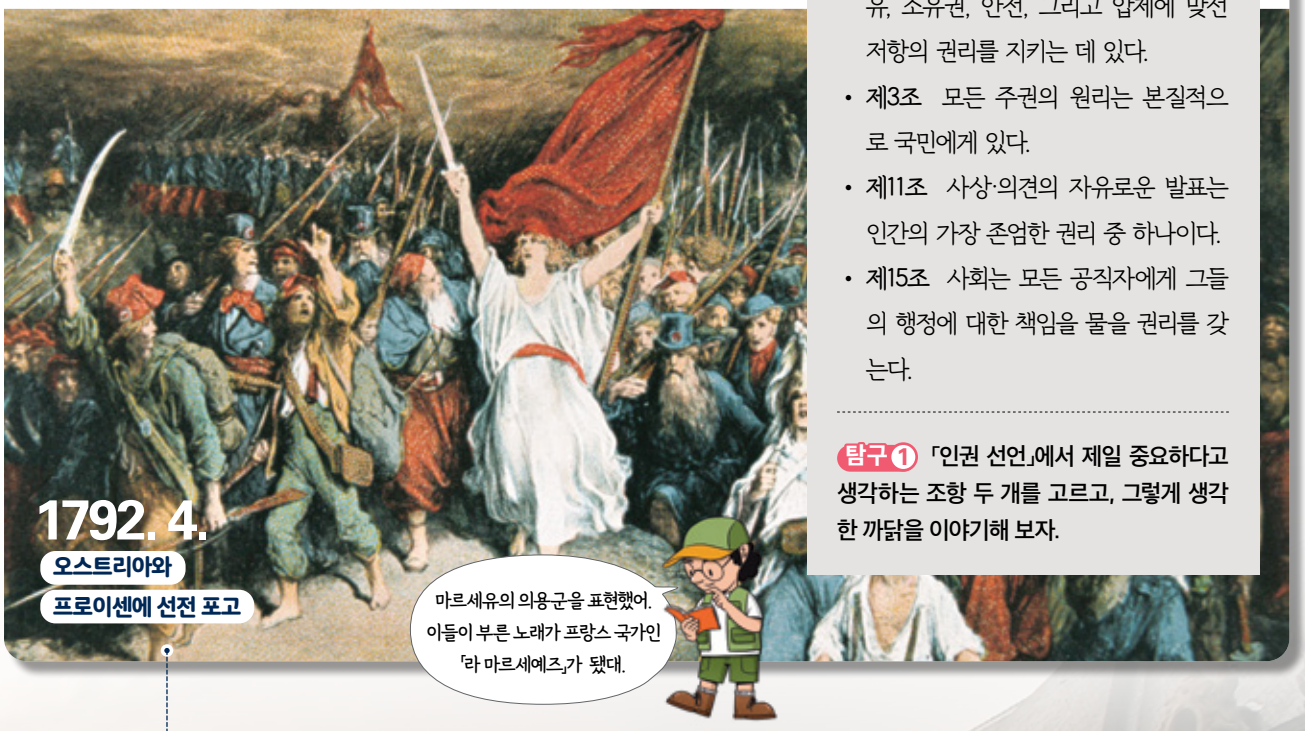
의회는 농민을 안정시키기 위해 봉건제를 폐지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 선언)」**을 발표하며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 이에 기존의 의회는 해산되고 새 의회가 구성됐다. 한편 프랑스 혁명이 주변국으로 확산될 것을 걱정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이 프랑스를 위협하자 새 의회는 이들 국가에 선전 포고를 하고 **혁명전쟁**에 들어갔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을 공식으로 알리는 것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 선언)」

-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 제2조 모든 정치적 단결의 목적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압제에 맞선 저항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다.
-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 제11조 사상·의견의 자유로운 발표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권리 중 하나이다.
-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그들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갖는다.

탐구 ① 「인권 선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 두 개를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이야기해 보자.



공화정의 성립과 공포 정치

혁명전쟁이 프랑스에 불리해지자 위기감을 느낀 파리 민중과 봉기한 의용군이 왕궁을 습격했다. 이들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했으며, 루이 16세를 반역죄로 처형했다. 공화정을 이끌던 급진파는 봉건제와 노예제를 폐지하는 한편,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공포 정치**를 시행했다.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

나폴레옹의 쿠데타

공포 정치가 계속되자 사람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급진파가 탄핵당하고 공포 정치는 중단됐으나 혼란은 계속됐다. 이때 혁명전쟁에서 활약하던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했다(1799). 이로써 프랑스 혁명은 사실상 끝을 맺었다.





↑ 나폴레옹 시대의 유럽

03 나폴레옹 전쟁과 혁명 이념의 전파

새 정부를 세운 나폴레옹은 제1 통령으로 취임했고, 이후 국민 투표를 통해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다(1804). 그는 『**나폴레옹 법전**』을 마련하는 등 국내 개혁에 힘쓰는 한편, 유럽 각국을 침략했다.

나폴레옹은 강력한 해군으로 맞서는 영국을 유럽 대륙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내렸고, 이를 어긴 러시아를 향해 대규모 원정에 나섰다. 그러나 원정은 실패했고, 유럽 각국이 프랑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결국 나폴레옹은 몰락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에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널리 퍼졌다. 그리고 각국에서는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추구하는 민족주의가 성장해 국민 국가 형성의 이념적 기반이 마련됐다.

• 나폴레옹에 대한 서로 다른 기록

1 『**알프스산맥을 넘는 나폴레옹**』(프랑스 말메종국립박물관) 나폴레옹 시기의 프랑스 궁정 화가가 그린 그림이다.

2 『**엘바섬으로 떠나는 현대 영웅의 여행**』(미국 의회도서관) 영국의 풍자화로, 엘바섬으로 유배를 가는 나폴레옹의 초라한 모습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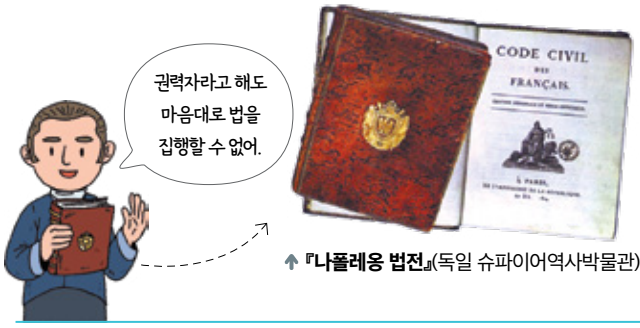




탐구 ② 서로 다른 분위기의 나폴레옹 그림이다. 각 그림에 담긴 의도는 무엇일까?

프랑스 혁명의 유산, 『나폴레옹 법전』과 미터법

『나폴레옹 법전』 나폴레옹은 통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전을 편찬했다. 이 법전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 평등, 재산권 등이 반영되어 '시민 법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법전은 전쟁 과정에서 유럽 각국에 전파되어 근대법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 『**나폴레옹 법전**』(독일 슈파이어역사박물관)

미터법 도량형은 나라 또는 지방마다 달랐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 파리 과학 아카데미가 주도해 도량형을 통일한 미터법이 만들어졌다. 나폴레옹은 권력을 잡은 이후 미터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해 프랑스가 정복한 나라들도 사용하도록 했다.



← **새로운 도량형의 도입을 선전하는 그림**(프랑스 카르나발레박물관) 왼쪽부터 부피 단위인 리터(ℓ), 무게 단위인 그램(g), 길이 단위인 미터(m)를 보여 주고 있다.

04 프랑스 혁명에 자극받은 아이티

라틴 아메리카의 카리브해에 있는 섬인 아이티는 프랑스의 식민지로, 18세기 말 세계 설탕 생산의 40%를 차지했다. 아이티의 사탕수수 농장과 설탕 공장에서는 수십만 명의 흑인 노예가 일하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의 소식이 전해지자 아이티의 흑인 노예들은 계획적으로 농장에서 탈출했다. 이들은 농장에 불을 지르고 지배 영역을 점차 확대했다.

아이티를 장악한 흑인 노예들은 노예제를 폐지했고,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했다. **투생 루베르튀르**는 아이티인들을 모아 독립 투쟁에 나섰다. 그는 나폴레옹이 보낸 군대에 체포되어 사망했지만, 아이티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해 마침내 독립을 이뤘다(1804). 이로써 라틴 아메리카의 첫 독립 국가가 탄생했다.



카리브해 지역 유럽 열강은 카리브해 지역에 많은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었다(↗127쪽 참고). 비옥한 토양과 많은 강수량은 사탕수수 재배에 알맞았다.

라 마르세예즈

가자, 조국의 자녀들아
영광의 날이 왔다!
압제에 맞서 피 묻은 깃발을 들었다!
들리는가! 잔인한 적들의 소리가



아이티 화폐 속 투생 루베르튀르

아이티인들과 프랑스군의 싸움 아이티인들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담긴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며 프랑스군에 맞서 싸웠다.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노예제 폐지

노예 무역으로 큰 수익을 보던 영국에서는 1770년대 이후 노예제의 비도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130쪽 참고). 그러나 프랑스 혁명 당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던 급진파가 공포 정치를 펴자 많은 영국인이 노예제 폐지 운동에 불안감을 느꼈고, 아이티에서 봉기가 일어나자 노예제 폐지 운동을 방해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대중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노예제가 아닌 노예 무역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런 노력 끝에 영국에서는 1807년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1833년에 노예제 폐지가 결정됐다.



노예제 반대 그림(1787) 노예제 폐지 운동에 활용됐다. 상단에 "나는 사람도, 형제도 아닙니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함께 확인해요

❶ □□□□이/가 쿠데타를 일으켜 새 정부를 수립하며 프랑스 혁명은 사실상 끝났다.

❷ **생각 UP** 주변 나라의 왕, 귀족, 민중은 각각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 쑥쑥 탐구

혁명을 위해 거리로 나선 프랑스 여성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을 당시 여성은 대부분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해 일하는 수동적 존재이며, 공적 생활은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시기 평등과 연대의 사상은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성들도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기를 열망했으며, 남성들처럼 거리로 나섰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여성들의 활동을 살펴볼까요?

01 베르사유 행진과 행동하는 여성들

1789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엄청난 양의 음식이 차려진 연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식량 부족으로 힘들어하던 파리 시민은 크게 분노했다. 10월 5일 약 5,000~10,000명의 군중은 왕궁의 곡식 창고를 개방하라고 요구하며 시내에서 19km 정도 떨어진 베르사유 궁전까지 행진했다. 당시 시위하던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시민들은 루이 16세로부터 빵 공급을 약속받고 파리로 돌아왔다.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면서 많은 여성이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자각했다. 시민 계급의 부인들은 교육과 자선 사업을 위해 여러 도시에서 여성 모임을 조직했다. 여성들은 혁명전쟁이 일어났을 때 의회에 여성 국민 방위대 조직을 요구하기도 했다.



애국적 여성 모임



베르사유 궁전으로 향하는 여성들



프랑스 혁명에 참여한 평민 여성

02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나온 지 2년 후인 1791년 9월 올랭프 드 구주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했다. 그녀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남성의 권리 선언이라 비판하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입장에서 이 선언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여성의 권리뿐 아니라 흑인 노예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여 노예제를 비판했다.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 **제1조**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 **제2조** 모든 정치적 단결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의 자유·소유권·안전 그리고 압제에 맞선 저항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다.
-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여성과 남성을 합한 것이다.



➔ **올랭프 드 구주를 표현한 당시의 그림** 올랭프 드 구주가 루이 16세와 그 부인인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전달하는 모습이다.

03 혁명에서 점차 배제된 여성들

올랭프 드 구주를 비롯한 많은 여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 시기에 여성에게는 선거권 등의 정치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 영역에서 점차 배제됐다. 프랑스 여성들이 기본적인 참정권을 획득한 것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15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프랑스 혁명 시기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사건들

- **1789** 여성이 베르사유 행진을 시작으로 모든 집회에 참여함.
- **1790** 수많은 여성이 정치 모임에 가입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함.
- **1791** 올랭프 드 구주가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함.
- **1792** 의회가 이혼법을 통과시키며 이혼이 합법화됨.
- **1793** 선거권 등이 남성에게만 한정되고, 올랭프 드 구주가 처형됨.
- **1794** 여성의 시위가 줄어들고 여성 공화주의자들이 정치를 포기함.
- **1795** 정부가 여성의 시위를 격렬히 탄압함.
  여성은 거리에서 다섯 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됨.



함께 탐구해요

1. 프랑스 여성들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한 까닭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2. 올랭프 드 구주가 흑인 노예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진 까닭을 추측해 보자.
3. 여성들이 혁명에서 점차 배제된 까닭이 무엇일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주제

30 빈 체제와 1848년 혁명

관련 주제 주제33(160쪽)

핵심 질문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등장한 빈 체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무너졌을까?

01 보수적인 빈 체제의 성립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 유럽 각국의 대표들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모여 유럽의 질서에 대해 논의했다(빈 회의, 1814~1815).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유럽 각 왕조의 지배와 영토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여러 국가에서 왕정이 복구되고, 각국의 군주들 사이에 동맹이 체결됨으로써 **빈 체제**가 수립됐다.

빈 체제하에서 각국은 혁명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혁명 이념의 확산을 막았다. 그러나 ❶**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❶ **자유주의** 왕이나 정부의 권력 또는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추구했다.

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빈 회의

빈 회의는 오스트리아의 외무 장관 메테르니히가 주도했다. 각국의 이해가 대립해 결론이 잘 나지 않았고, 공식적인 회의보다는 무도회, 음악회, 사냥 모임이 주를 이뤘다. 이에 "회의는 춤을 춘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빈 회의 모습


빈 회의 풍자화

빈 체제를 흔든 그리스 독립 전쟁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리스에서는 1821년 독립 전쟁이 일어났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발칸반도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그리스를 도왔다. 1830년에 그리스는 독립을 승인받았다(172쪽 참고). 유럽 국가들이 자유와 독립을 반대하던 빈 회의의 약속을 깨고 그리스의 독립을 지원하면서 빈 체제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오토의 아테네 입성」(독일 노이에피나코텍)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추천으로 독립국 그리스의 초대 왕이 된 독일인 오토가 아테네에 도착한 모습이다.

02 프랑스의 자유주의 혁명

빈 체제 이후 프랑스의 왕은 전제 정치를 펼치며 사회를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했다. 이에 파리 시민과 자유주의자들이 **7월 혁명**을 일으켰고,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으로 추대해 입헌 군주정을 회복했다(1830).

그러나 7월 혁명으로 들어선 정부도 부유한 금융가와 대지주의 이익만을 보호해 국민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마침내 중하층 시민과 노동자, 공화주의자가 합세해 **2월 혁명**을 일으켰다(1848). 결국 루이 필리프가 영국으로 망명하고 임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공화정이 수립됐다.

> 임시 정부는 공화정을 바란다. …… 이제부터 정부는 모든 계급의 시민으로 이뤄진 인민의 통일체이며,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부이다. 원리로 말하자면 '자유, 평등, 우애'이고 표어로는 '인민'이다.
> - 임시 정부가 프랑스 시민에게 발표한 선언

2월 혁명 당시 파리 시청 앞 집회 모습(프랑스 프티팔레)



미술 작품으로 보는 프랑스의 자유주의 혁명

프랑스의 화가인 들라크루아는 1830년에 7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렸다. 맨발로 바리케이드와 시신을 딛고 민중을 이끄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으로 '자유'를 표현했다.



삼색기



프랑스 혁명 당시 사용된 깃발이다. 파란색, 흰색, 붉은색은 각각 자유, 평등, 우애를 상징한다. 1794년에 프랑스의 국기가 됐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프랑스 루브르박물관)



프리기아 모자

프랑스 혁명 당시 유행한 모자로, 자유를 상징한다.

프리기아 모자를 쓴 프랑스인



03 유럽의 1848년 혁명

프랑스 2월 혁명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등 유럽의 여러 지역에 영향을 주어 국제적 혁명인 **1848년 혁명**으로 발전했다. 각지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해 ❷**국민 국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에 보수적인 빈 체제가 혁명의 물결로 흔들렸다. 1848년 혁명은 대부분 보수 세력의 반격으로 좌절됐지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유럽에 더욱 퍼지는 계기가 됐다.

❷ **국민 국가** 일정한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국민이라는 의식을 지니고 주권을 행사해 운영하는 국가를 말한다.





↑ 1848년 전후의 유럽

「보편적 민주 사회 공화국: 1848년 인민의 봄」(프랑스 카르나발레박물관)




1848년 혁명을 표현한 작품이야. 자유의 여신상 아래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깃발을 들고 줄지어 있어.


모여든 사람들 앞에는 몰락한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 등이 버려져 있어.


하늘에는 십자가를 든 예수가 있어. 그의 주변에 모여 있는 이들은 혁명에 참여해 숨진 사람들이라고 해.

탐구 ① 그림 속에 삼색기가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04 영국의 개혁과 선거권 확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에서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선거법 개정(문서 내용 등을 고쳐 바르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각지에서 일어나자 1832년 의회는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도시의 상공업자 등이 선거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선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은 **「인민헌장」**을 발표하고 선거권을 요구했다(**차티스트 운동**). 정부는 이를 탄압했으나 잇따른 선거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다.



↑ **개혁 요구 집회와 정부의 탄압**(영국 맨체스터도서관) 1819년 의회 개혁과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평화 집회를 정부군이 강제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차티스트 운동과 영국의 선거법 개정

❶ 차티스트 운동의 요구 사항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의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한 조직적인 정치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848년의 런던 집회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인민헌장」

-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21세 이상의 건전한 모든 남성의 투표권 보장
-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 투표 시행
- 선거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의원의 재산 자격 제한 폐지
- 상공업자나 노동자 등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원에게 수당 지급
- 선거인의 수에 비례해 의원을 선출하는 평등한 선거구 설치
-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할 수 없도록 12개월마다 의원 선거 시행



↑ **차티스트 운동 풍자화** 영국 의회가 차티스트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❷ 영국의 선거법 개정 과정

-『사료로 읽는 서양사 4: 근대편 II』(2015)

구분	개정 전	제1차 (1832)	제2차 (1867)	제3차 (1884)	제4차 (1918)	제5차 (1928)
확대된 유권자	귀족, 지주	도시의 신흥 상공업자	도시 소시민과 노동자	농촌·광산의 노동자	21세 이상의 남자, 30세 이상의 여자	21세 이상의 남녀
유권자 비율	3%	5%	9%	19%	46%	62%

탐구 ② 「인민헌장」 발표 당시 영국에서 정치에 참여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했을까?

탐구 ③ 「인민헌장」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선거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보자.

함께 확인해요

❶ 1848년 프랑스에서는 중하층 시민과 노동자, 공화주의자들이 합세해 □□ □□을/를 일으켰다.

❷ 선거권을 확보하지 못한 영국의 노동자들은 「인민헌장」을 발표하고 □□□□ 운동을 벌였다.

주제 31

관련 주제
주제24(124쪽)
주제40(192쪽)

새롭게 등장한 국민 국가

핵심 질문
분열되어 있던 이탈리아와 독일은 어떻게 국민 국가로 발전했을까?

01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의 탄생

이탈리아는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일부 지역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니**와 **가리발디** 등의 민족주의자들은 1848년 혁명의 영향을 받아 통일 운동을 전개했지만 실패했다.

그 후 사르데냐 왕국의 총리 **카부르**가 통일 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산업을 일으켜 국력을 키우는 한편,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 오스트리아에 맞섰다. 마침내 사르데냐 왕국은 중북부 이탈리아를 통합했다.

한편 가리발디는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를 차지했다. 이후 남북의 이탈리아가 통합되어 새로운 국민 국가인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했다. 이탈리아 왕국은 1870년에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까지 통합했다.





아! 애국 동포여. 그대가 삼걸(뛰어난 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이태리 삼걸전을 읽는 이들이여! 장래에 이 나라를 그대가 구원할 수 있게 되리니 이것이 독자에게 바라는 바이다.

-『이태리 건국 삼걸전』

← **「이태리 건국 삼걸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07년 신채호가 번역한 역사 소설이다.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자 이탈리아의 독립과 통일의 주역을 소개해 애국심과 자주독립의 의지를 높이려고 했다.

탐구 ① 밑줄 친 '삼걸'이 가리키는 인물들을 본문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이탈리아 사람들은 하나의 국민이 됐을까?



↑ **이탈리아의 통일**

2011년 이탈리아 북부의 한 도시에서 건국 영웅인 가리발디의 인형을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다. 이탈리아는 1870년에 통일됐지만, 상공업이 발달한 높은 경제 수준의 북부와 농업 중심의 낙후한 남부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갈등을 빚었다. 북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남부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며 불만을 가졌고, 남부 사람들은 북부 사람들과의 빈부 격차로 소외감이 컸다.





02 통일된 독일 제국의 수립

독일 역시 여러 나라로 분열된 채,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연방을 이루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세력을 키운 북부의 프로이센이 동맹국 간의 관세를 폐지하며 경제적 통합을 먼저 이루었다. 1848년에는 혁명으로 성립한 의회에서 통일 방안이 논의됐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152쪽 참고).

이후 독일 통일을 주도한 것은 프로이센이었다. 프로이센의 총리 **비스마르크**는 오직 '철(무기)과 피'를 통해서만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력을 키웠다(**철혈 정책**). 이를 바탕으로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를 연방에서 몰아내고 북독일을 통일했다. 그리고 프로이센의 세력 확장을 막아 온 프랑스를 공격해 승리하며 남부 지역까지 통합해 독일 제국을 선포했다(1871).



↓ **「독일 제국 선포」**(독일 비스마르크박물관) 프로이센의 빌헬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로 즉위함으로써 독일 제국이 수립됐다. 이는 독일이 하나의 국민 국가로 거듭났음을 의미했다.

그림 형제와 독일의 민족의식

Q. 그림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야?

백설 공주, 빨간 모자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림 형제 동화』의 작가야. 이들 형제가 살던 당시 독일에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널리 퍼지고 있었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림 형제는 독일 각지의 민담과 전설을 바탕으로 책을 써서 출판했지. 그리고 독일 문학과 독일어의 역사를 연구해 독일어 사전을 펴내기도 했어.

Q. 독일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어?

당시 독일인은 수십 개의 나라에 나뉘어 살고 있었어. 그림 형제의 책들은 분리된 공간에서 살아가던 독일인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데 기여했어. 이런 노력이 이어지며 독일인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은 점차 강해졌어. 이것은 독일이 통일 국가를 수립하는 데 하나의 원동력이 됐지.



← **『그림 형제 동화』 우표** 독일 사람들은 그림 형제와 그들의 작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하고 있다.

함께 생각해요

❶ □□□□은/는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를 차지했다.

❷ 프로이센의 □□□□□은/는 철혈 정책을 추진하며 독일의 통일을 주도했다.

주제

32 미국의 성장과 독립을 이룬 라틴 아메리카

관련 주제
주제28(142쪽)
주제40(192쪽)

핵심 질문
미국의 남북 전쟁은 왜 일어났고, 이후 미국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01 남북 전쟁과 미국의 산업화

미국은 독립 이후 서부 개척과 영토 매입으로 영토를 확장했다(158쪽 참고).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 차이로 남부와 북부가 대립했고, 특히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다. 남부는 흑인 노예를 이용해 면화나 담배를 재배하는 대농장이 발달해 노예제 유지를 원했다. 반면에 북부는 산업이 발달해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제 확대를 반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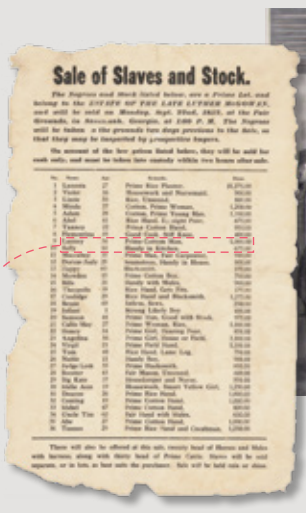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남부의 여러 주가 연방을 탈퇴해 연합을 결성하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링컨은 전쟁 중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되며 국내 시장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이민자도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은 신흥 공업 대국으로 성장했다.

미국의 영토 확장과 철도 건설



흑인 노예의 눈물

19세기에 들어 미국 내 흑인 노예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 노예가 재배한 면화를 수출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노예제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인종 차별 등이 발생했으며, 흑인 노예를 사고파는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노예 경매 포스터(1852) 노예의 이름, 나이, 특이 사항(성별, 하던 일, 건강 상태 등),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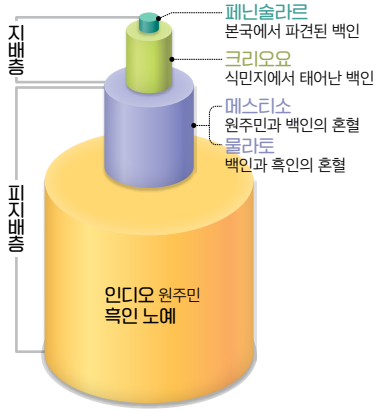
흑인 노예의 경매(1861) 백인 남성들에게 둘러싸인 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과 남성이 경매에 부쳐진 장면이다.

02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독립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의 식민 지배를 받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 각국의 왕실이 위기에 처하자 독립운동이 전개됐다.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은 이달고 신부, 볼리바르, 산마르틴 등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크리오요**)이었다.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는 독립운동이 일어난 라틴 아메리카에 간섭하려고 했으나 영국은 상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이에 반대했다. 미국도 아메리카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반대하는 **먼로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라틴 아메리카의 대다수 국가가 독립했다.

독립을 이룬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크리오요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 또한 미국과 영국이 각종 이권(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을 차지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식민지 시기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구성 크리오요는 같은 백인이지만 정치적으로 차별받았기 때문에 불만이 높았다.



이달고 신부 크리오요이자 가톨릭교회 성직자이다. 1810년에 멕시코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나 이듬해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출신의 크리오요이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를 에스파냐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했다.

산마르틴 아르헨티나 출신의 크리오요이다. 에스파냐에서 교육을 받은 직업 군인으로,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의 해방을 위해 노력했다.



함께 확인해요

❶ 미국 남부의 여러 주가 연방을 탈퇴해 연합을 결성하면서 □□ □□이/가 일어났다.

❷ **검색 UP**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독립 영웅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아르헨티나 화폐,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화폐, 이달고 신부 동상

생각 쑥쑥 탐구

미국 원주민, 빼앗긴 권리를 찾아 나서다

오늘날의 미국 땅에는 빙하기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드넓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오랜 기간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이후 이들의 역사는 어둡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이 되자 미국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이 어떤 역사를 지나왔는지 알아볼까요?

01 북아메리카에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다

현대 미국 원주민의 조상은 빙하기에 시베리아에서 알래스카를 거쳐 북아메리카로 건너갔다.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발견했고, 이곳에 정착해 생활했다. 훗날 이들을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인디언이라고 불렀다. 넓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들은 자연환경에 적응해 나름의 생활 방식을 만들었다. 강력한 정치권력을 가진 국가가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지역 또는 부족마다 자신들만의 마을을 이루며 살아갔다.



↑ **티피** 일부 원주민들은 들소 떼를 따라가며 사냥했고, 이동식 가옥인 티피에서 생활했다.

↓ **커호키아**(상상화) 미시시피강 유역에 위치했으며, 7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1만여 명이 모여 살던 도시로 추정된다. 남아 있는 유적을 보면 이 도시가 성곽처럼 흙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성벽 내부는 거주 지역, 공공 의례 지역, 작업장 등으로 구분됐음을 알 수 있다.





➔ 원주민의 이주

02 땅을 빼앗기고 보호 구역으로 내몰리다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자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농사짓고 생활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인들은 총기를 앞세워 원주민들을 그들이 살던 땅에서 몰아냈다. 유럽인, 아프리카인들과 함께 들어온 전염병 역시 원주민들을 위협했다.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동부에서 서부로 영토를 확장하자 원주민들은 보호 구역으로 강제 이주당했다.



➔ **「눈물의 길」**(미국 울라록박물관) 체로키족의 강제 이주 상황을 표현했다. 체로키족은 1,300km나 떨어진 보호 구역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16,000여 명 중 4,000여 명이 추위, 배고픔,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

03 원주민의 권리를 주장하다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 여성 등의 인권 운동이 활발해졌다. 그러자 미국 원주민들도 빈곤, 차별, 경찰 폭력 등의 문제에 항의하고,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1978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원주민 수천 명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까지 5,100km를 행진했다. 이 행진은 2008년에 부활했는데, 이때는 미국과 캐나다의 원주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원주민, 원주민 운동 지지자도 참여해 13,200km를 행진했다. 미국 정부는 2010년에야 과거 원주민을 탄압하고 강제 이주시킨 것을 공식으로 사과했다.



➔ **미국 원주민의 행진**(1978) 참가자들은 미국 서부 해안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동부의 워싱턴까지 미국을 가로질러 행진했다.

함께 탐구해요

❶ 미국 원주민들을 오랜 삶의 터전에서 몰아낸 것은 누구이며, 그 까닭은 무엇일까?

❷ 검색 UP! 미국 원주민들이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전개한 운동을 검색해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추천 검색어 레드 파워 운동

이번 중단원에서는 산업화와 제국주의 정책을 이해하고, 사회와 생태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주제

33 산업화와 사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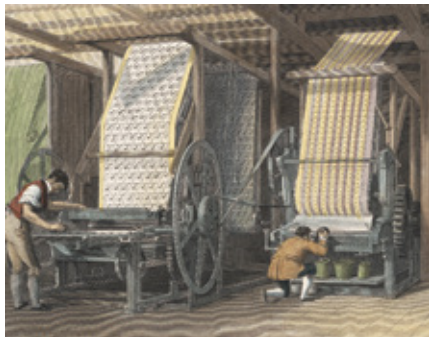
관련 주제
→ 주제22(118쪽)
→ 주제25(126쪽)
→ 주제30(150쪽)
→ 주제35(170쪽)

핵심 질문

기계를 이용해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01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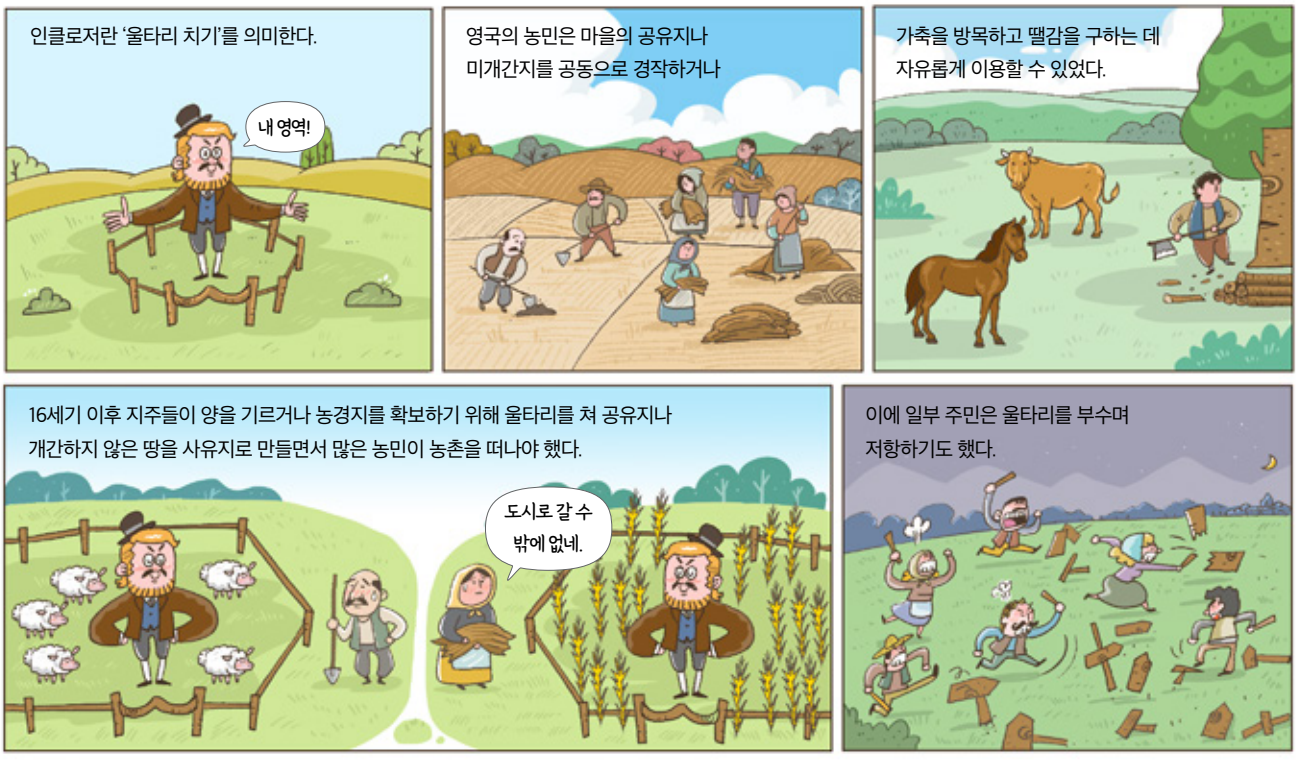
산업 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면직물 공업의 기계화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17세기 이후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서 수입한 면직물은 모직물에 비해 염색이 잘 되고 세탁도 쉬워 수요가 많았다. 면직물은 삼각 무역에서 노예를 구입할 때 사용되는 국제 상품이기도 했다(130쪽 참고).



↑ **런던의 공장에서 면직물을 염색하는 모습**(1834)

18세기에는 인도산 면직물을 수입하는 대신 국내 면직물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영국 내 면직물 공업이 발달했다. 영국은 산업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일찍이 식민지를 확보해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처로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자본을 축적했다. 한편 **인클로저**로 농촌을 떠난 농민들이 도시로 모여들어 노동력도 풍부했다.

영국 농민을 도시로 내몬 인클로저



02 생산 기술의 혁신과 교통 혁명

영국에서는 면직물 생산을 위해 실을 뽑는 방적기와 천을 짜는 방직기가 발명됐다. 특히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 기관**을 새로운 동력(기계를 작동하기 위한 에너지)으로 사용하면서 면직물 생산이 빠르게 늘었다. 기계의 발명과 기술 혁신으로 수공업 중심의 생산 방식은 **공장제 기계 공업**으로 바뀌어 갔다.

증기 기관의 개량은 광산, 공장 등 여러 분야의 산업에 활용됐으며, 교통수단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증기 기관차가 활발히 이용되면서 전국이 철도망으로 연결됐고, 이에 많은 사람과 물자를 먼 거리까지 짧은 시간에 나를 수 있게 됐다. 증기선은 범선(돛을 단 배)을 대신해 강과 바다를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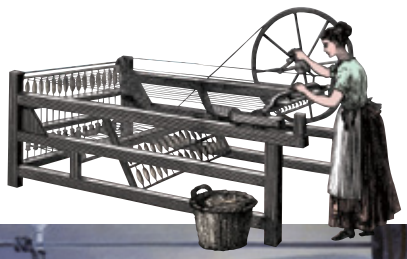
유럽 철도망의 확산

면직물 공업의 발달



↑ **물레를 돌리는 모습** 물레를 돌려 실을 뽑고 있다. 산업 혁명 이전까지 실을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 **제니 방적기를 사용하는 모습** 18세기 중반에 발명됐으며, 처음에는 한 번에 8가닥의 실을 뽑아낼 수 있었다. 이후에는 한 번에 120가닥의 실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개량됐다.





→ **영국의 면직물 공장** 18세기 후반에는 증기 기관의 동력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천을 짜는 방직기가 발명됐다. 한 사람이 여러 대의 기계를 동시에 작동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면직물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새로운 동력의 사용

↓ **제임스 와트의 증기 기관** 제임스 와트는 18세기 후반 수증기의 힘을 이용해 기계를 돌리는 증기 기관을 대폭 개량했다. 이는 증기 기관의 동력이 여러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증기 기관 작동 원리



교통수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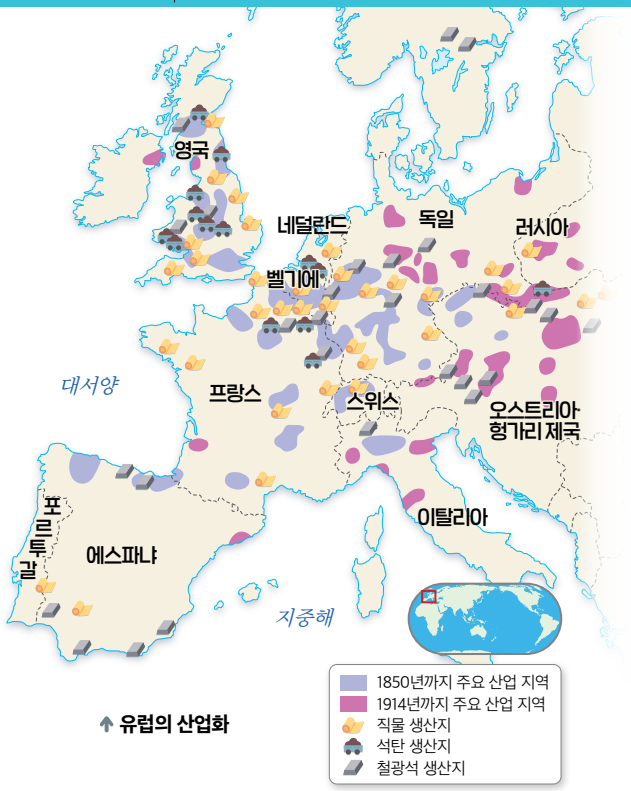


← **1850년대 미국의 증기선**

↓ **1830년대 영국의 증기 기관차**



탐구 ① 증기 기관의 동력을 이용한 기계를 모두 찾아 표시해 보자.



↑ 유럽의 산업화

03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성립

산업 혁명으로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이뤄지자 생산에 필요한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이 성장했다. 자본가는 공장을 설립해 경영했으며, 노동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했다. 이렇게 자본가가 이윤을 목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리 잡았다.

산업 혁명으로 농촌 중심의 사회는 도시 중심의 산업 사회로 전환됐다.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다양한 상품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물자가 풍부해졌고, 상품의 이동도 이전보다 자유로워졌다.

산업 혁명은 19세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으로 확산했으며, 19세기 말에는 러시아와 일본도 산업화를 추진했다. 산업화와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 체제도 널리 퍼졌다.

산업 혁명이 가져온 일상생활의 변화

❶ 축구의 대중화

축구는 상류층이 즐기던 스포츠였으나 산업 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당시 노동자들이 창단한 축구 구단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 19세기 런던에서 열린 축구 경기

❷ 백화점의 등장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물건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백화점이 등장했다. 당시 백화점의 주요 고객은 새롭게 부상한 중산층의 여성이었다.



→ 18세기 말 런던에 문을 연 백화점

❸ 차 문화의 유행

상류층이 즐겨 마시던 차는 산업 혁명 이후 영국인 대다수가 즐기는 음료가 됐다. 공장의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는 문화가 보편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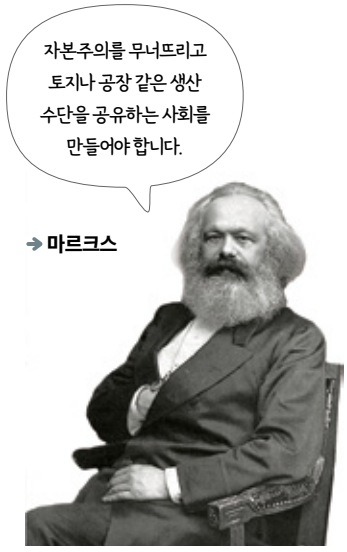
← 차를 마시는 영국 사람들

탐구 ② 산업 혁명 시기에 만들어진 영국의 축구 구단을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산업 혁명과 축구

04 사회·환경 문제와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

산업 혁명이 가져온 풍요는 모두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빈부 격차가 커졌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저임금을 받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악조건에서 일했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아이들도 일터로 내몰렸다. 도시 인구가 급증하며 주택이나 상하수도 등의 위생 시설이 부족해졌다. 노동자들의 거주지는 각종 전염병과 범죄에도 노출됐다(164쪽 참고).

산업 혁명 이후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노동자와 지식인들의 호응을 얻었고, 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 문제



탄광에서 일하는 아이들 좁은 갱도에서 하는 작업에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이용됐다. 아이들은 저임금을 받았으나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도시 문제



영국 런던의 주택가 공장 지대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자 많은 노동자는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는 주택가에서 생활해야 했다.

오염 문제



검은색 얼룩나방 산업 혁명 당시 석탄 가루와 매연으로 맨체스터의 나무가 검게 뒤덮였다. 이에 당시 흔했던 회색 얼룩나방보다 검은색 얼룩나방이 더 많아졌고, 오염이 줄어들자 다시 회색 얼룩나방이 많아졌다.

19세기 말 영국 셰필드의 모습 공장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로 공기가 오염된 모습이다. 1873년 런던에서는 짙은 노란색의 안개가 일주일간 도시를 뒤덮었고,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268명이 사망했다.

함께 확인해요

❶ 제임스 와트는 □□ □□을/를 대폭 개량해 기계의 효율을 높였다.

❷ 생각 UP 산업 혁명 이후 어떤 사회·환경 문제가 발생했을까?

생각 쑥쑥 탐구

산업화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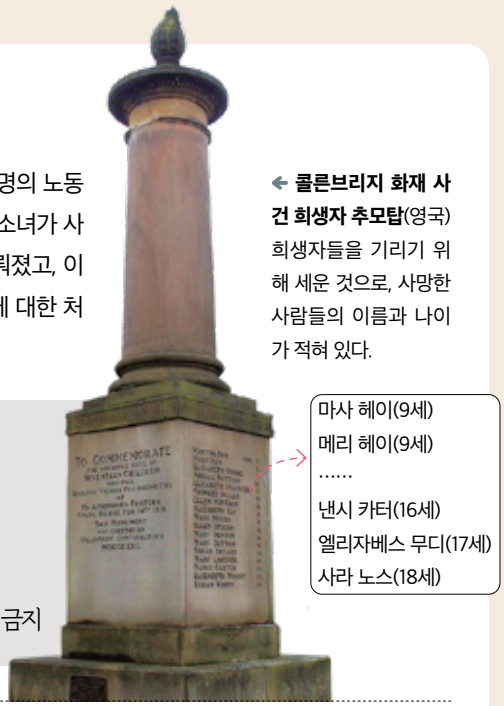
산업 혁명은 공장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도시는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불결한 도시 환경으로 질병과 전염병에 취약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01 노동 환경에 눈 뜬 사람들

1818년 2월 영국 콜른브리지에 있는 면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에는 26명의 노동자가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불길이 빠른 속도로 번지며 탈출하지 못한 17명의 소녀가 사망했다. 이 사건은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의회 차원에서 노동 실태 조사가 이뤄졌고, 이듬해에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됐다. 그러나 이 법은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공장법」(1819)
- 9세 미만 어린이 고용 금지
- 16세 미만 청소년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 금지

「공장법」(1833)
- 18세 미만 청소년 야간작업 금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 금지
- 9세 미만 어린이 고용 금지
- 13세 미만 어린이 하루 9시간 이상 노동 금지



← **콜른브리지 화재 사건 희생자 추모탑**(영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다.



19세기에 들어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고 대규모 파업을 일으키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동조합은 처음에 불법이었으나 노동자들의 노력 끝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점차 탄압받지 않게 됐다. 19세기 후반에는 유럽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얻었고 노동자 정당도 등장했다.

← **미국 철도 노동자의 파업**(1877)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자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파업한 모습이다.

02 공중 보건의 기반을 닦은 한 의사



← **세 질병을 브리타니아(영국을 상징하는 여신)에게 소개하는 템스강**(1858) 도시가 확대됐으나 폐기물 처리 및 하수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해 오염이 심각했다. 특히 템스강의 물은 각종 전염병을 유행시켰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자 영국의 의사였던 존 스노는 사망자의 주소를 지도에서 찾아 점으로 표시했다.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망자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몰려 있었다. 해당 지역의 중앙에는 공용 펌프가 있었다. 그가 이 펌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손잡이를 제거하자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수 구덩이에서 오염된 물이 흘러왔던 것이다. 이후 영국에서는 전염병과 질병을 막기 위한 공중위생법을 만들었고, 이것은 점차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함께 탐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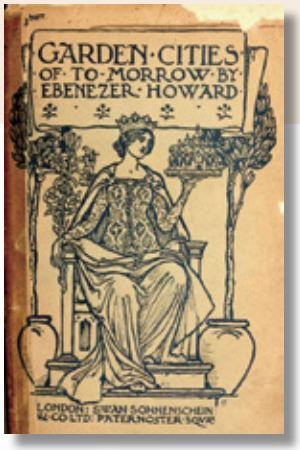
❶ **논술 UP** 산업화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써 보자.

❷ **검색 UP** 도시 환경을 개선한 사례를 추가로 검색해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추천 검색어 난지 한강 공원

03 도시 환경을 개선한 사람들

19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와 실업자가 도시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조직적인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에 1857년 뉴욕에 센트럴 파크가 건설됐다. 영국에서는 19세기 말 도시에도 시골처럼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는 '전원도시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국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빈민가가 없는 도시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원도시가 건설됐다.



↑ **『내일의 전원도시』**(미국 듀크대학교도서관) 1898년에 발간된 책으로, 전원도시 운동을 일으켰다.

↓ **뉴욕의 센트럴 파크**(미국)



주제

34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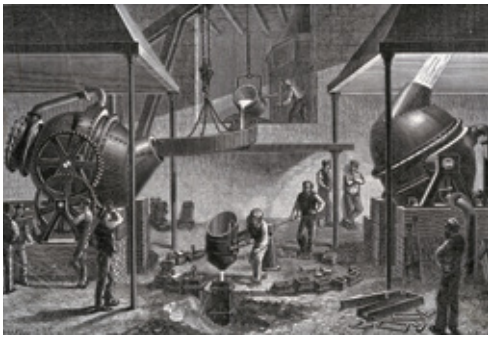
관련 주제
→ 주제26(130쪽)
→ 주제35(170쪽)
→ 주제40(192쪽)

핵심 질문
산업 혁명 이후 열강이 아프리카, 아시아 등을 식민지로 삼은 까닭은 무엇일까?

01 제국주의의 등장

19세기 후반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크게 발전했으며 소수의 거대 기업이 국내 시장을 독점했다. 기술 혁신으로 석유와 전기가 동력으로 활용됐고, 화학·철강 산업이 발달했다.

서양 열강은 석유, 고무, 철광석(철을 만드는 데 원료로 쓰이는 광석) 등의 공업 원료를 값싸게 구하고 생산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자본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국가는 군사력을 앞세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다. 이런 대외 팽창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한다(168쪽 참고).



↑ **영국의 강철 생산**(1888) 기술 혁신으로 강철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튼튼한 다리, 큰 선박, 높은 건물뿐 아니라 강력한 무기까지 제작할 수 있었다.

> 넘쳐나는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 한다. 또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팔기 위해 지구상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식민지로 장악해야 한다.
>
> - 세실 로즈[1], 『유언집』

[1] **세실 로즈** 영국의 제국주의자로, 아프리카 식민지 개척에 앞장섰다.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한 논리

백인의 짐





[1] **「케이프에서 카이로로」**(1902) 영국의 아프리카 침략을 문명과 야만의 전쟁으로 묘사했다. 왼편의 백인들을 이끄는 여신은 '문명'이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있으며, 오른편 흑인들의 깃발에는 '야만'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2] **미국의 비누 광고 포스터**(1910년경) 인종주의적 시각이 드러난 광고 포스터로, 하단에 "왜 너희 엄마는 요정 비누로 널 씻기지 않니?"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제국주의 국가는 **인종주의**와 **사회 진화론**을 내세웠다. 인종주의는 인종 간에 우열(우수한 것과 우수하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고방식이다. 사회 진화론은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살아남는다는 진화론을 왜곡해 우수한 사회만이 살아남고 뒤떨어진 사회는 사라진다고 주장한 논리이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제국주의 국가는 "우월한 서양인들이 미개한 식민지인들을 지배해야 한다."라고 선전했다.

탐구 ① 제국주의자들의 주장을 비판해 보자.

탐구 ② 인종주의라고 비판받는 광고의 사례를 검색해 보고, 그 문제점을 말해 보자.

추천 검색어 인종주의 광고, 인종 차별 광고

02 제국주의 열강의 세계 분할

탐험가들에 의해 아프리카의 내부 사정이 알려지자 제국주의 열강은 앞다퉈 아프리카를 침략했다. 열강은 특정 지역을 먼저 개척한 국가가 그 지역을 지배하기로 합의하고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카이로와 케이프타운을 남북으로 연결하려는 영국(종단 정책)과 아프리카를 동서로 이으려는 프랑스(횡단 정책)가 충돌하기도 했다(**파쇼다 사건**, 1898). 식민 지배에 맞서 아프리카의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저항이 전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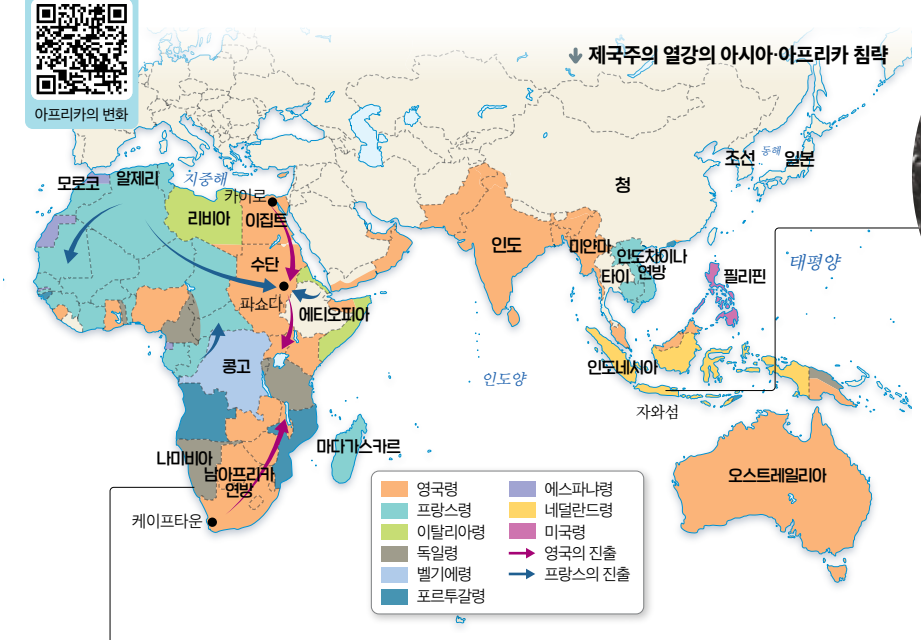
제국주의 열강은 아시아 지역도 침략했다. 인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영국은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프랑스는 인도차이나반도를 차지했으며,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을 점령해 넓은 식민지를 건설했다. 제국주의 열강은 동남아시아의 식민지에서 차, 커피, 사탕수수, 고무 등을 생산하는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했다(127쪽 참고).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풍자화 1884년에서 1885년에 걸쳐 열렸던 베를린 회의를 풍자한 그림이다. 이 회의에서 서양 열강은 아프리카 분할의 원칙을 논의했다.

아프리카의 변화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아프리카 침략





자와섬의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인들 네덜란드는 자와섬에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어 커피, 사탕수수 등을 재배했다. 이에 곡물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해 자와섬 사람들은 식량 부족에 시달렸다.



독일군에게 체포된 헤레로인들 헤레로인은 나미비아 등에 거주하는 민족이다. 이들은 1904년 독일의 지배에 맞서 봉기했다. 독일은 본국에서 군대를 파견해 헤레로인과 봉기에 합류한 나마인을 학살했다. 살아남은 이들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노동에 시달리거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함께 확인해요

❶ 서양 열강은 군사력을 앞세워 많은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는데, 이런 팽창 정책을 □□□□(이)라고 한다.

❷ 아프리카에서 종단 정책을 추진하던 영국과 횡단 정책을 추진하던 프랑스는 □□□ 사건으로 충돌했다.

생각 쑥쑥 탐구

산업화와 인종주의의 전시 공간, 박람회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들은 19세기 후반부터 박람회를 통해 자국이 발전하는 모습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제국주의 열강은 경쟁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그곳에는 화려한 볼거리뿐 아니라 지금 우리 시각에서는 불편하고 잔인한 구경거리도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나라에서 열린 박람회가 제국주의를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살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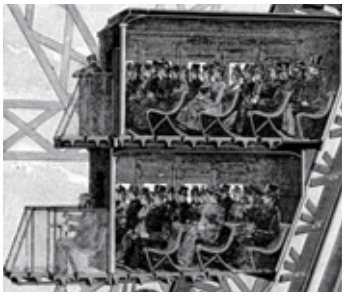
01 산업과 과학 기술의 발전을 과시한 박람회

런던 만국 박람회 1851년 영국은 왕실의 주도 아래 런던 만국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영국의 산업과 과학 기술의 발전을 뽐내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당시 전시장으로 쓰인 수정궁은 공장에서 생산한 철근과 판유리로 지어졌다. 그 안에는 10만 개 이상의 전시물이 진열됐으며,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장했다.



수정궁에 전시된 대형 기계들 런던 만국 박람회에서는 증기 기관 등 거대한 기계도 소개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파리 만국 박람회 영국과 경쟁 관계에 있던 프랑스는 1855년에 국제 박람회를 열었고, 1889년에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파리 만국 박람회를 개최했다. 프랑스는 박람회 시작에 맞춰 파리 시내에 에펠탑을 쌓아 올렸다. 300m가 넘는 철탑인 에펠탑은 당시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했으며, 이후 파리의 상징물이 됐다.



에펠탑의 엘리베이터 관람객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파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파리 만국 박람회 전시장과 에펠탑 전경

02 인간마저 구경거리로 전락시킨 박람회

세인트루이스 만국 박람회 1904년 미국은 루이지애나 매입 100주년을 기념해 세인트루이스 만국 박람회를 열었다. 세계 60여 개국이 참가한 이 박람회에는 전차, 비행기 등의 발명품뿐 아니라 사람도 전시됐다. 이전부터 유럽에서는 아프리카인, 아메리카 원주민, 아시아인을 구경거리로 전시하는 일이 흔했다.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서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국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미국이 에스파냐로부터 빼앗은 필리핀의 원주민을 데려와 전시했다.



← **박람회장에 전시된 아메리카 원주민 가족**(미국 미주리역사박물관) 관람객들은 박람회장에 전시된 원주민 마을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 **필리핀 원주민을 구경하는 관람객들**(미국 의회도서관) 원주민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관람객 앞에서 춤과 노래를 펼쳐야 했다.



도쿄 권업 박람회 인종 전시는 주로 백인들의 그릇된 우월감과 인종주의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일본도 자신들이 식민지 주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1907년 도쿄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조선관, 타이완관이 있었고, 그곳에 조선인과 타이완인이 전시됐다. 이는 조선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보다 앞서 1903년 개최된 오사카 내국 박람회에서도 일본은 자신들이 정복한 홋카이도의 아이누인, 오키나와의 류큐인과 함께 조선인, 타이완인을 전시했다.

> 우리 동포여. 예전에 우리가 아프리카 토인종을 불쌍히 여겼더니, 오늘에 이르러서는 어찌 그들이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게 될 줄 알았으리오.
>
> -「대한매일신보」(1907. 6. 21.)

↓ **도쿄 권업 박람회 기념사진**(서울시립대박물관) 왼쪽에서 두 번째에 서 있는 갓을 쓴 남자와 그 옆에 흰 옷을 입은 여성이 박람회에 전시된 조선인으로 추정된다.



함께 탐구해요

❶ 제국주의 열강이 경쟁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한 까닭은 무엇일까?

❷ 논술 UP 제국주의 열강의 박람회를 비판하고, 오늘날의 박람회는 어떤 행사가 되어야 할지 써 보자.



이번 중단원에서는 아시아에서 일어난 반제국주의 운동 및 국민 국가 건설 노력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

35 서아시아의 국민 국가 건설 운동

관련 주제
→ 주제23(120쪽)
→ 주제33(160쪽)
→ 주제34(166쪽)
→ 주제45(206쪽)

핵심 질문

제국 내의 독립운동과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을 겪은 오스만 제국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01 아라비아반도의 독립운동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던 오스만 제국은 18세기 이후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아라비아반도에서는 이슬람교 초기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와하브 운동**이 일어났다. 사우드 가문은 이 운동을 지원하면서 사우디 왕국을 세우고 아라비아반도의 주요 지역을 점령했다. 그러자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의 총독 무함마드 알리의 도움을 받아 사우디 왕국을 진압했다.

와하브 운동의 정신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성립



↑ **사우디 왕국의 세력권**(1727~1818)

와하브 운동 세력은 점령지의 주민들에게 이슬람교의 근본 원리를 엄격하게 강요했다. 또한 아랍인 중심주의를 내세웠는데, 이는 튀르크인이 세운 오스만 제국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 사우디 왕국은 멸망했지만, 와하브 운동의 정신은 1932년에 수립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건국 이념이 됐다.



←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사우디 왕국의 국기와 같이 초록색 바탕에 흰색의 아랍어가 쓰여 있다.



↓ **사우디 왕국 유적**(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사우디 왕국의 수도였던 디리야는 오아시스에 자리 잡은 요새 도시였다. 이곳에 남아 있는 당시 건축물들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됐다.



02 이집트의 근대화와 민족 운동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다가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았다. 나폴레옹 몰락 이후 총독이 된 **무함마드 알리**는 이집트에 대한 지배권을 점차 확대했다. 그는 공장을 설립하고 근대식 학교를 세웠으며, 서양의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양성하는 등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다.

이집트는 사우디 왕국을 멸망시켜 아라비아반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오스만 제국까지 위협했다. 이에 오스만 제국의 내정(국내의 정치)에 간섭하던 열강은 이집트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집트는 열강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라비아반도에서 철수했다.

한편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의 공사 등을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자금을 빌렸다. 이를 빌미로 두 나라는 이집트의 내정에 개입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간섭이 심해지자 이집트의 청년 장교 아라비 파샤가 '이집트인의 이집트'를 외치며 봉기했다. 봉기가 성공하며 민족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자 영국은 군대를 보내 이집트를 침공하고 보호령(서양 열강이 협정을 맺어 자국의 보호 아래 들게 한 지역)으로 삼았다.



↑ **영국 관리들과 대화하는 무함마드 알리** '이집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무함마드 알리는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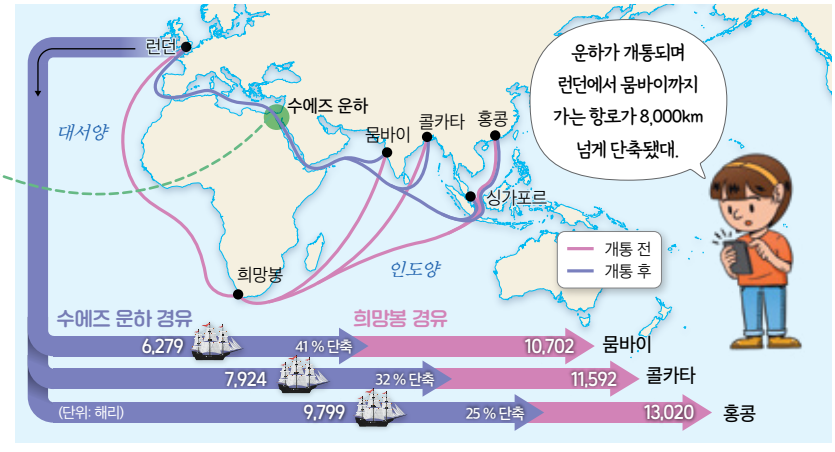


↑ **영국의 공격을 받는 알렉산드리아** 아라비 파샤가 봉기하자 영국은 함대를 동원해 알렉산드리아를 공격했다.

아시아와 유럽을 이은 수에즈 운하



↑ **19세기 수에즈 운하의 모습**



↑ **수에즈 운하 개통 전후의 변화**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로, 1859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869년에 개통됐다. 운하 건설에는 증기 기관으로 움직이는 굴착기 등 새로운 기계가 활용됐다. 그러나 당시 많은 이집트인이 공사에 강제로 동원되어 고된 노동과 전염병 등에 희생됐다. 수에즈 운하가 완성되며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항로는 단축됐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막대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영국에 헐값으로 넘기고, 이후에는 경영권까지 빼앗겼다.

탐구 ① 영국은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며 어떤 이익을 봤을까?

탐구 ② 수에즈 운하가 언제 이집트로 다시 돌아왔는지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수에즈 운하 국유화

03 위기 속에서 개혁을 추진한 오스만 제국



↑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서양 열강의 간섭을 풍자한 그림**



→ **오스만 제국의 영토 축소**



↑ **「오스만 제국의 재탄생」**(1908) 오스만 제국이 입헌 군주국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그림이다. 가운데 여성은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를 상징한다.

19세기에 오스만 제국에는 그리스의 독립과 더불어(150쪽 참고) 여러 민족 사이에 독립의 움직임이 번지고, 제국주의 열강의 압력이 이어졌다. 위기의식을 느낀 오스만 제국은 **탄지마트**라는 근대적 개혁을 시행했다(1839~1876). 탄지마트는 위로부터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시도였다.

탄지마트는 1876년의 헌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술탄을 견제할 의회의 설립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개혁에 불만을 품은 술탄은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했다. 술탄이 전제 정치를 펴자 청년 장교들이 주축이었던 **청년 튀르크당**은 입헌 정치를 요구하며 봉기했다(1908).

혁명에 성공한 청년 튀르크당은 헌법을 부활하고 근대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은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워 다른 민족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오스만 제국의 탄지마트

탄지마트 칙령(1839)

최근 150년 동안 우환이 잇따르고 여러 요인으로 …… 법령도 지켜지지 않아 …… 나약한 처지가 됐다. 모든 신민의 생명·명예·재산을 완전히 보장한다는 원칙 아래 새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주민 각자의 재산과 지위에 따라 적절한 조세를 부과하며 어떤 누구도 그 이상의 세금을 요구받지 않도록 한다. …… 모든 피고는 이슬람법에 의해 공개 재판을 받으며, 판결 이전에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

탄지마트는 튀르크어로 '개혁'을 의미하며, 핵심 내용은 술탄이 발표한 칙령에 제시됐다. 이는 민족과 종교를 초월해 제국 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었다.

탐구 ③ **밑줄 친 '우환'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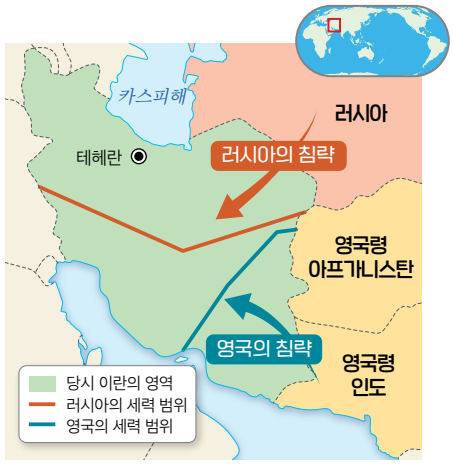
탐구 ④ **탄지마트 칙령의 내용을 통해 당시 오스만 제국이 안고 있던 문제를 추측해 보자.**

04 전제 정치와 열강에 맞선 이란의 입헌 혁명

19세기 이란은 영국과 러시아로부터 동시에 간섭을 받았다. 당시 이란의 왕은 열강의 압력에 굴복해 각종 이권을 넘겨줬다. 1890년에는 주요 수출품이었던 담배의 재배 및 판매에 관한 독점권을 영국 회사에 허가했다. 그러자 이슬람 성직자와 상인, 지식인 등이 이란 전역에서 **담배 불매 운동**을 일으켰다(1891).

왕은 여론에 밀려 담배 독점권을 다시 거두어들였으나 그 대가로 영국에 막대한 배상금(남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 주기 위해 주는 돈)을 지불해야 했다. 이후 이란은 재정 상황이 악화해 외국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렸고, 이에 서양 열강의 간섭이 더욱 거세졌다.

열강의 간섭과 함께 왕조의 부패가 심해지자 이란의 지식인들은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개설하는 **입헌 혁명**을 일으켰다(1906). 그러나 영국과 러시아가 개입해 혁명을 무산시키고 이란 영토의 상당 부분을 분할 점령했다.



↑ **영국과 러시아의 이란 간섭**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영토를 확보하고 있던 러시아는 이란의 북부를, 인도를 근거지로 세력을 확대하려던 영국은 이란의 남부를 세력권으로 설정했다.



↓ **담배 불매 운동 당시 궁궐 앞에서 시위하는 군중들** 정부가 1889년에 시작된 콜레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담배 이권을 영국에 넘기자 전국적인 시위가 폭발했다.

함께 확인해요

❶ 아라비아반도에서는 초기 이슬람교로 돌아가자는 □□□ 운동이 일어났다.

❷ 오스만 제국은 □□□□(이)라는 근대적 개혁을 시행했다.

❸ 생각 UP› 오스만 제국과 이란에서 많은 사람이 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까닭은 무엇일까?

주제

36 인도의 국민 국가 건설 운동

관련 주제
주제33(160쪽)
주제34(166쪽)
주제44(2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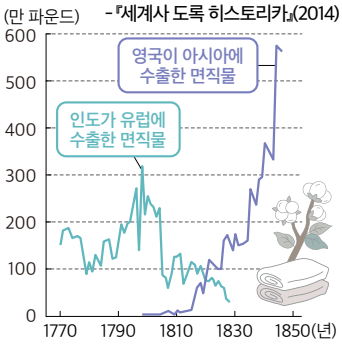
핵심 질문

무굴 제국이 쇠퇴하고 영국의 제국주의 침략이 확대되자 인도인들은 영국에 맞서 어떻게 싸웠을까?

01 영국의 식민 지배와 인도 사회의 변화

18세기에 이르러 무굴 제국의 권위가 약해지자 지방 세력이 성장해 서로 경쟁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동인도 회사는 벵골 지역을 발판으로 삼아 인도 각지에서 전쟁을 벌여 지배 영역을 확대했다.

영국은 인도의 면화를 싼값에 사들여 면직물을 생산한 뒤 인도에 팔았다(160쪽 참고). 값싼 영국산 면직물이 들어오자 인도의 면직물 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또한 인도 농민은 면화를 비롯해 커피, 차, 아편(양귀비 열매의 즙액을 굳힌 것으로, 진통제나 마취제 등으로 쓰임.) 등 수출용 작물의 재배를 강요받았다. 이에 영국에 대한 인도인의 불만이 커졌다.



-『세계사 도록 히스토리카』(2014)

↑ **인도와 영국의 면직물 수출**

02 세포이의 항쟁과 영국령 인도 제국의 수립



1857년 영국 동인도 회사가 고용한 인도인 용병(세포이)이 항쟁(맞서 싸움.)을 일으켰다. 이 항쟁은 식민 지배로 고통을 받던 농민, 상인, 수공업자 등이 합세하면서 순식간에 확대됐다. 이들은 수도인 델리를 점령했고, 위기의식을 느낀 영국은 반격에 나섰다. 통일적인 조직이나 명확한 목표가 없었던 상황에서 영국의 공격이 이어지며 항쟁은 진압됐다. 이후 영국은 무굴 제국의 황제를 폐위하고(1857), 영국의 왕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는 **영국령 인도 제국**을 수립했다(1877).

세포이들이 분노한 까닭은 무엇일까?

세포이는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였다. 당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세포이들에게 지급한 탄약 주머니는 기름을 먹인 종이로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힌두교도가 신성하게 여기는 소의 기름이나 이슬람교도가 꺼리는 돼지의 기름이 사용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세포이들은 인도의 전통을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영국이 자신들의 종교를 탄압한다고 여겨 크게 분노했다.



↑ **총탄과 화약을 종이로 싸서 만든 탄약 주머니** 탄약 주머니의 윗부분을 깨물어 찢은 후, 먼저 화약을 총구에 쏟아 넣고 총탄을 봉으로 밀어 넣어 사용했다.



↑ **영국군에 맞서 싸우는 세포이들**

세포이의 장전 방법

03 인도 국민 회의와 벵골 분할령 반대 운동

영국의 식민 지배가 확대되면서 인도에는 관리, 교사 등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설립됐다. 이에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다. 이들을 중심으로 영국의 승인을 받아 **인도 국민 회의**가 결성됐다(1885).

인도 국민 회의는 처음에 영국의 지배를 인정하며 인도인의 권익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러나 영국이 반영 운동의 중심지였던 벵골 지역을 분할한다고 발표하자(**벵골 분할령**, 1905) 영국의 제국주의 지배에 반대하는 자세를 보였다. 인도 국민 회의는 영국 상품 배척, 국산품 애용(스와데시), 자치(스와라지), 민족 교육의 4대 강령을 정해 반영 운동에 앞장섰다. 일부 이슬람교도들도 이 운동에 합류했고, 결국 영국은 벵골 분할령을 취소했다.

정당이나 단체 등이 그 기본 입장이나 방침 따위를 늘어놓은 것



인도 국민 회의 창립 대회(1885, 뭄바이) 인도 국민 회의는 초기에 변호사, 언론인, 교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벵골 분할령에 맞선 스와데시 운동

인도인들은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스와데시 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주춤했던 인도의 산업을 활성화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참여한 운동이었다. 당시 많은 회사가 인도인의 노동과 자본으로 제품을 생산했음을 광고했다. 나중에 인도의 민족 운동가인 간디도 이 운동을 이어 나갔다.

스와데시 행진 중인 인도인들(1906)



벵골 분할령은 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벵골 분할령

Q. 벵골 분할령이란?

1905년 영국 총독은 효율적인 행정을 명목으로 벵골주를 이슬람교도가 많은 동쪽과 힌두교도가 많은 서쪽으로 분할하겠다고 발표했어.

Q. 인도인들의 반응은?

반영 운동이 활발한 벵골주를 분할 통치하겠다는 조치는 인도의 민족주의를 자극했어. 지속적인 반영 운동에 1911년 인도 총독은 벵골 분할령을 취소했지.

Q. 벵골 동부의 반응은?

벵골 동부의 이슬람교도들은 대부분 분할에 찬성했어. 인도에서 소수였던 이슬람교도들은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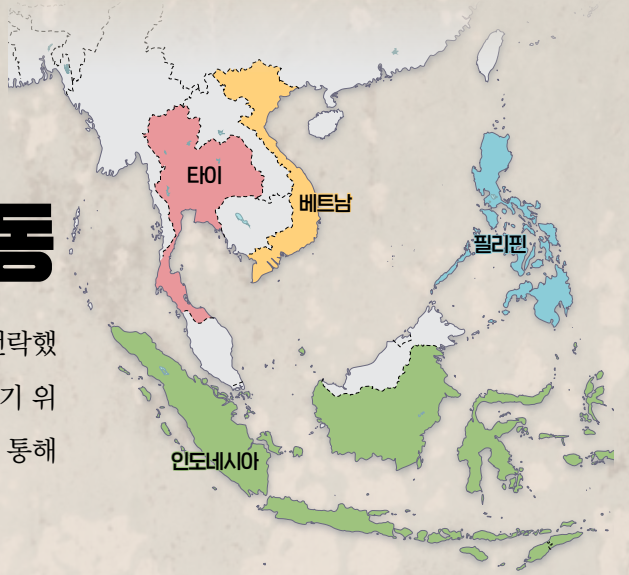
탐구 ① 인도 독립 이후 벵골 지역이 어떻게 됐는지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방글라데시

함께 확인해요

1. 1857년 영국 동인도 회사가 고용한 인도인 용병인 □□□은/는 항쟁을 일으켰다.
2. 인도인들은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며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 운동을 전개했다.

생각 쑥쑥 탐구

인물로 보는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



19세기 후반 동남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서양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외국의 침략에 저항하고 국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동남아시아 민족 운동을 이끈 인물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알아볼까요?

01 타이

타이의 주권을 지켜 낸 라마 5세

라마 5세는 인도, 자와, 싱가포르 등을 여행하며 식민 통치의 상황을 둘러봤다. 그는 타이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근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행정·사법·재정 등의 분야를 개혁하고, 전신, 우편, 철도 등도 도입했다. 밖으로는 영토의 일부를 영국과 프랑스에 양보하는 대신 주권을 지켜 냈다. 이런 노력으로 타이는 20세기 초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 라마 5세

↓ 독일을 방문해 비스마르크를 만난 라마 5세



02 베트남

실력을 키워 독립하고자 한 판보이쩌우

베트남은 19세기 말 프랑스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판보이쩌우는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해 인재를 키우려는 동유 운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운동은 프랑스의 요청을 받은 일본이 유학생들을 추방하면서 탄압받았다. 이후 판보이쩌우는 신해혁명이 일어나자(185쪽 참고) 중국에서 베트남 광복회를 결성해 민주 공화제를 추구하며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 판보이쩌우

한 베트남 학생의 일본 생활

당시 일본에 사는 유학생은 80여 명이었다. …… 그가 처음 일본에 유학할 때는 학업을 마치고 귀국해 칼을 휘둘러 적을 몰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일본에 머문 지 1년도 안 됐고 졸업도 못했는데, 일본 정부가 유학생들을 압박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떠나 중국으로 건너가야 했다.

-『응우옌툭콘전』

03 인도네시아

민족 운동을 이끈 이슬람 동맹과 여성 교육가 카르티니

이슬람 동맹 | 인도네시아의 대중적인 민족 운동 단체로, 강한 경제력을 지닌 화교 상인에 대항하는 이슬람 상공업자들의 조직으로 출발했다. 이슬람 동맹은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에 맞서 이슬람의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한편, 협동조합을 설립해 민중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운동도 전개했다.



↑ 이슬람 동맹



카르티니 | 귀족 집안 출신으로, 네덜란드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인도네시아의 여성 교육에 힘썼다. 학교 설립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카르티니는 25세의 젊은 나이로 숨졌으나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국가 독립 영웅의 한 명으로 선정됐다.

← 카르티니

04 필리핀

필리핀의 독립을 꿈꾼 호세 리살과 카티푸난



호세 리살 | 유럽에서 유학하던 호세 리살은 『나를 만지지 마라』라는 소설을 발표해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로 고통받는 필리핀인들의 삶을 그렸다. 이 소설로 유명 인사가 된 그는 필리핀으로 돌아와 교육 활동을 전개했으나 체포되어 처형됐다.

← 호세 리살

카티푸난 | 무장 독립운동 단체로,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에스파냐군에 맞서 봉기했다(205쪽 참고). 저항의 기운이 빠르게 퍼지자 위기를 느낀 에스파냐 총독은 8개 주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에스파냐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승리한 미국은 에스파냐를 몰아내고 필리핀을 지배하고자 했다. 이에 카티푸난은 필리핀 공화국을 선포했으나 결국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 **필리핀 국기** 필리핀 공화국이 사용했던 깃발로, 8개의 햇살은 카티푸난의 봉기로 에스파냐에 저항했던 8개 주를 의미한다.

함께 탐구해요

[보기]에서 각 인물이나 단체가 전개한 활동 형태를 나타내는 제시어를 모두 찾아 빈칸에 알맞게 써 보자.

[보기]
교육, 무장 투쟁, 외교, 종교

라마 5세	판보이쩌우	이슬람 동맹	카르티니	호세 리살	카티푸난

주제

37 동아시아 3국의 개항

관련 주제
주제19(110쪽)
주제21(116쪽)
주제34(166쪽)
주제43(20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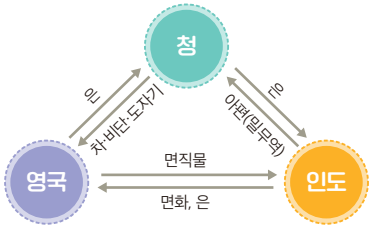
핵심 질문

제국주의 열강이 동아시아 지역을 침략하자 청, 일본, 조선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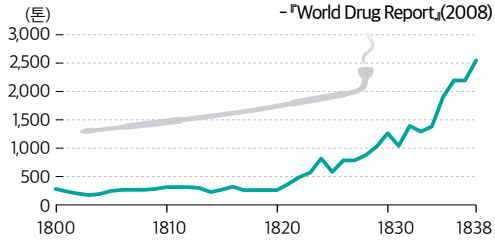
01 아편 전쟁과 청의 개항

다른 나라와 서로 물품을 사고팔 수 있게 항구를 여는 것

영국은 18세기 후반 이후 중국 시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청은 광저우 한 곳에서만 무역을 허용했고(112쪽 참고), 영국의 물건은 청에서 인기가 별로 없었다. 반면 영국에서는 중국 차의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가 늘었다. 영국은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산 아편을 청에 몰래 팔았다.



↑ 19세기의 삼각 무역



↑ 청의 연간 아편 수입량(1800~1838)

관세를 내지 않고 몰래 물건을 사 오거나 내다 팖.

아편 밀수로 막대한 은이 유출되고 아편 중독자가 많아지자 청은 아편 거래를 금지했다. 영국은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켰다(**제1차 아편 전쟁**). 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영국과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맺고 개항했다(1842).

청의 개항 이후에도 무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영국은 ❶애로호 사건을 구실로 프랑스와 함께 다시 청을 침략했다(**제2차 아편 전쟁**). 또다시 전쟁에 패배한 청은 톈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고 항구를 추가로 개방하는 등 영국과 프랑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청의 아편 문제

❶ **애로호 사건** 청의 관리가 애로호를 밀수선으로 의심해 검문하던 도중 배에 걸려 있던 영국 국기를 내린 사건이다.



↑ 아편 전쟁과 청의 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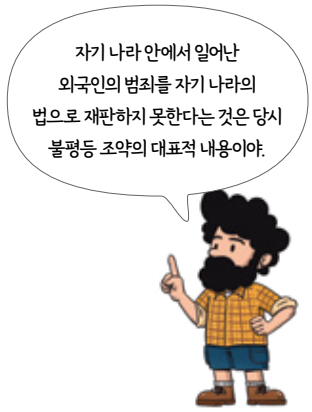
난징 조약

- 제2조 영국인은 광저우 등 5개 항구에 거주하며 방해 없이 무역에 종사하도록 한다.
- 제6조 영국인에 대한 부당한 조치로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청의 황제는 배상금을 지불한다.

↑ 청을 공격하는 영국 함대

02 페리의 내항과 일본의 개항

일본의 에도 막부는 아편 전쟁에서 청이 패배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서양 선박이 나타나면 공격해 물리친다는 방침을 철회했다(117쪽 참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와 개항을 요구하자 에도 막부는 미국과 불평등 조약인 **미일 화친 조약**(1854)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1858)을 잇달아 맺고 개항했다.



03 운요호 사건과 조선의 개항

18세기 후반부터 조선의 해안가에도 서양의 선박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했으나 조선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프랑스와 미국이 각각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일으켜 강화도를 공격하자 조선은 이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역사 ② 158쪽 참고). 그러나 개항에 반대하던 세력이 정권에서 물러나면서 조선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❷운요호 사건을 구실로 개항을 요구하자 조선은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했다(1876).

❷ **운요호 사건** 일본의 운요호가 허락 없이 강화도 앞바다에 들어오자 조선이 경고 사격을 하며 두 나라의 군대가 충돌한 사건이다.





페리의 함대 미국 함선들은 이 무렵 일본 해안가에 출몰하던 서양의 배들처럼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흑선'이라고 불렀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

- 제3조 시모다, 하코다테 외에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를 아래의 정해진 날부터 개방한다.
- 제6조 일본인에게 죄를 지은 미국인은 미국의 영사 재판소에서 미국 법으로 처벌한다.

조선을 침략하는 일본군 일본에서 그려진 상상화로, 일본군이 강화도 근처의 영종도를 침략하는 모습을 담았다. 당시 일본군은 조선인들을 죽이거나 약탈했다.

강화도 조약

- 제4조 조선은 부산 외에 통상하기 편리한 두 항구를 개항한다.
- 제10조 일본인이 조선의 각 항구에서 죄를 지은 것이 조선인과 관계된 사건일 경우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함께 확인해요

각 나라의 개항 과정을 비교해 보고, 개항하며 맺은 조약의 공통점을 말해 보자.

국가	계기가 된 사건	조약
청		
일본		
조선		

주제

38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민족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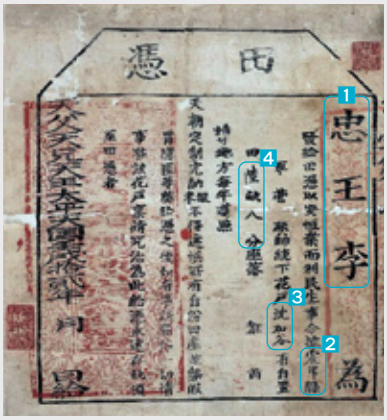
관련 주제 → 주제43(202쪽)

핵심 질문

외세의 강요로 개항한 청, 일본, 조선은 근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01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과 양무운동

아편 전쟁의 패배로 청 정부의 위신이 떨어졌다.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면서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홍수전은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 태평천국을 선포했다(**태평천국 운동**, 1851~1864). 그는 만주족이 세운 청 왕조의 타도(어떤 세력을 쳐서 무너뜨림), 토지의 균등 분배, 남녀평등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태평천국은 한인 관료가 조직한 의용군과 외국 군대의 공격을 받아 진압됐다.



태평천국의 토지 소유권 증명서(개인 소장) 태평천국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충왕 이수성이 발급한 문서이다.

1 문서 발급인의 이름 2 땅의 위치
3 땅을 받은 사람의 이름 4 땅의 면적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증국번, 이홍장 등의 관리는 서양 무기의 위력을 실감했다. 이들은 군대와 산업을 육성해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양무운동**을 추진했다. 청 정부는 각종 무기와 군함을 생산하는 군수 산업, 기선 회사(배로 사람이나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는 회사)·방직 공장 등의 근대적 기업을 육성했다. 그리고 서양의 과학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유학생을 파견했다.

이홍장 외국의 기술, 특히 무기 제조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저우 선정국 양무운동 당시 세워진 조선소 중 하나이다. 군함 등의 선박을 제작했을 뿐 아니라 외국어를 교육하고 외국 서적을 번역하는 학교도 있었다. 1884년 프랑스의 공격을 받아 심각하게 파괴됐다.



02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국민 국가 수립

미국에 굴복한 개항으로 막부의 권위는 흔들렸다. 이에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났다. 결국 에도 막부는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새 정부가 들어섰다(**메이지 유신**, 1868). 메이지 정부는 중앙 집권 체제를 수립하고 징병제 및 근대식 산업과 교육을 도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으로 기존의 특권을 잃은 무사들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농민들의 불만이 점차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 설립을 요구하는 **자유 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메이지 정부는 이를 탄압하는 한편, 천황의 절대 권력을 명시한 **「대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했다(1889). 이듬해에 제국 의회를 설립해 입헌 군주국의 모습을 갖췄다.



↓ **도쿄로 향하는 메이지 천황의 행렬**(프랑스국립도서관) 메이지 유신 이후 그동안 교토에 머물던 천황은 에도의 이름을 '동쪽의 수도'라는 의미의 도쿄(東京)로 바꾸고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대일본 제국 헌법」

- 제1조 만세일계의 천황이 대일본 제국을 통치한다.
-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탐구 ① 「대일본 제국 헌법」에 규정된 천황의 권한은 무엇일까?

일본에서도 전개된 산업 혁명

메이지 정부는 1870년대 초부터 서양의 근대 산업을 도입하고자 노력했다. 1880년대 후반이 되자 일본에서는 방적업 등의 경공업을 중심으로 산업 혁명이 시작됐다. 이에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됐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재벌들에게 힘이 집중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산업화 초기에는 농촌 출신의 여성들이 공장 노동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 **19세기 후반의 도쿄 방적 공장** 외국에서 수입한 방적기를 이용해 누에고치에서 실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다.



↑ **방적 공장에서 일하는 일본 여성들**

1882 임오군란



1884 갑신정변



1894. 1. 동학 농민 운동



1894. 7. 청일 전쟁

일본군이 청군을 기습 공격하며 청일 전쟁을 일으키자 전쟁터가 된 조선은 큰 피해를 봤다. 일본군은 바다와 육지에서 청의 군대에 큰 승리를 거뒀고, 청의 요청으로 두 나라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끝이 났다.

시모노세키 조약

- 제1조 청은 조선이 완전한 독립자주국임을 인정한다.
- 제2조 청은 요동반도, 타이완 및 그 부속 여러 섬을 일본에 넘겨준다.
- 제4조 청은 일본에 배상금 2억 냥을 지불한다.

탐구 ② 일본은 왜 청과의 조약에서 조선이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했을까?

03 조선의 동학 농민 운동과 청일 전쟁

조선은 개항 이후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어 차별받던 구식 군인들이 **임오군란**을 일으켰고(1882), 개항 이후 쌀값이 크게 올라 생활이 어려워진 도시 빈민들도 이에 합세했다. 청은 군대를 보내 임오군란을 진압하고, 조선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

청의 간섭이 심해지자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 청년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1884). 이들은 일본을 본보기로 삼아 근대적 개혁을 하고자 했으나 보수파의 반발과 청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했다.

1894년에는 농민들이 탐관오리 처단, 외세(외국의 세력) 반대, 조세 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며 봉기했다(**동학 농민 운동**). 이때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조선에 온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군을 공격해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 이에 동학 농민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일어났으나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진압됐다. 이후 조선에서는 일본의 간섭 아래 근대화 개혁이 이뤄졌다(역사 ② 167쪽 참고).



04 중국의 변법자강 운동과 의화단 운동

청일 전쟁에서 패배한 후 청에서는 법과 제도를 개혁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등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 입헌 군주제와 의회제를 도입하고자 했다(**변법자강 운동**, 1898). 그러나 이는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쿠데타로 100여 일 만에 실패했다.

한편 청이 여러 차례 전쟁에서 패배하며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자 민중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개항 이후 값싼 외국 상품이 청으로 들어와 상인들도 몰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들이 조직한 의화단이 외세를 몰아내자며 봉기해 베이징까지 진출했다(**의화단 운동**, 1899). 영국, 독일, 일본 등 8개국이 연합군을 결성해 의화단을 진압했고, 청에 신축 조약을 강요했다. 이로써 청은 막대한 배상금 지불을 약속하고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주둔(군대가 일정한 곳에 머무름.)하는 것을 허용했다.



캉유웨이

● 외세를 몰아내고자 한 의화단 운동과 신축 조약의 체결



서양 문물을 파괴하고 있는 의화단 멀리서 다가오는 기차를 무장한 의화단원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고, 일부는 철로를 파괴하고 있다. 왼편 언덕 위의 전봇대에 매달린 전선은 끊어져 있다.

탐구 ③ 의화단이 철로를 파괴한 까닭은 무엇일까?

탐구 ④ 신축 조약이 체결되자 당시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신축 조약

- **제5조** 청은 무기 및 무기를 제작하는 각종 기계를 중국으로 들여오지 않는다.
- **제6조** 청의 황제는 각국에 대한 배상금 4억 5천만 냥과 그 이자를 39년에 나눠 지급한다.
- **제7조** 반외세 단체의 설립이나 가입을 영원히 금지하고 위반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



8개국 연합군 왼쪽부터 영국, 미국, 러시아, 영국령 인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의 군인이다.

함께 확인해요

❶ 일본에서는 □□□ □□이/가 일어나 천황 중심의 새 정부가 들어섰다.

❷ 조선에서는 청의 간섭이 심해지자 급진 개화파가 □□□□을/를 일으켰다.

❸ 캉유웨이 등은 법과 제도를 개혁하자는 □□□□ □□을/를 전개했다.

주제

39 일본의 대외 침략과 신해혁명

관련 주제 → 주제41(196쪽)

핵심 질문

제국주의 국가의 대열에 합류한 일본의 침략 정책은 이후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01 일본의 침략과 대한 제국의 멸망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으로부터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넘겨받고, 배상금도 얻어 냈다. 그러자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에 압력을 넣어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했다(**삼국 간섭**, 1895).

이 무렵 조선에서는 독립 협회가 의회 설립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고종은 **대한 제국**을 선포하고(1897), 독립 협회를 해산했다. 그리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 오히려 황제권을 강화했다(1899).

「대한국 국제」

-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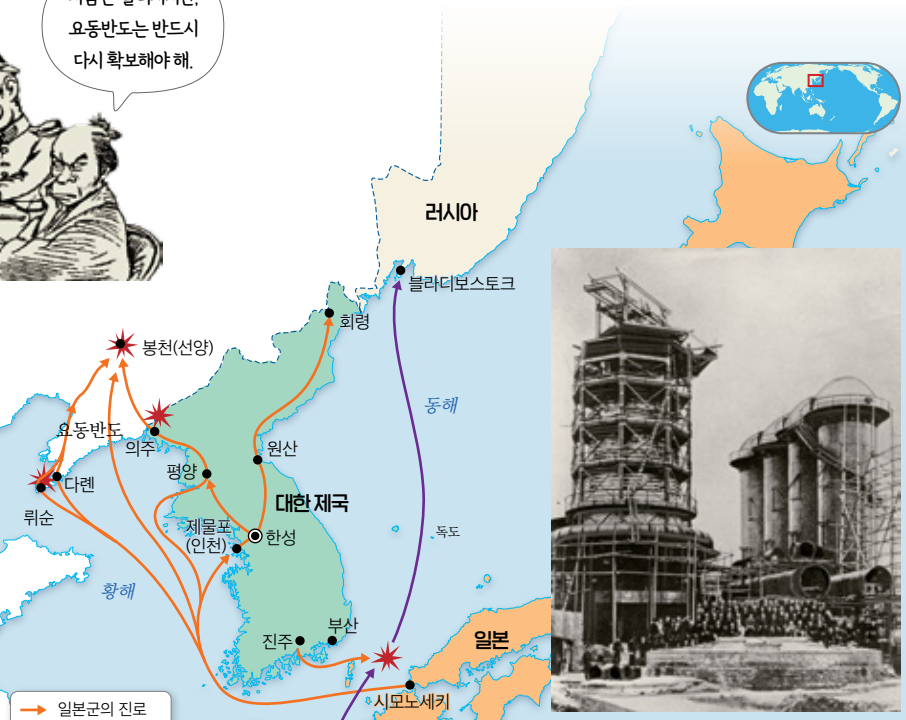
한편 삼국 간섭 이후 일본은 청일 전쟁의 배상금으로 군비(전쟁을 위해 갖춘 군사 시설이나 장비)를 확장했다. 이후 러시아가 만주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자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고, 러시아군을 기습 공격해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1904). 일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대한 제국의 주권을 차츰 빼앗았다. 한국인들은 일본에 저항했지만 일본은 대한 제국을 강제로 병합해 식민지로 삼았다(1910).



↑ **삼국 간섭 풍자화** 왼쪽부터 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을 표현했다.

↓ **서양식 옷을 입은 고종 황제**





↑ **러일 전쟁의 전개**

↑ **야하타 제철소**(일본 기타큐슈) 일본은 철로, 무기 등을 만드는 철강을 얻기 위해 대규모의 제철소를 세웠다. 제철소 건설에는 일본이 청으로부터 받은 배상금 일부가 사용됐다.

02 신해혁명과 공화제 정부의 탄생

의화단 운동 이후 청 정부는 '서양인의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외세에 허약한 모습을 보였다. 청 정부의 권위가 크게 떨어지자 청을 무너뜨리자는 혁명 세력이 성장했다. **쑨원**은 중국 동맹회를 결성해 **삼민주의**를 내세우고 몇 차례 무장봉기를 일으켰으나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청 정부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에서 건설하려던 철도를 국유화(나라의 소유가 됨.)하고 건설 비용을 외국에서 빌리려고 했다. 그러자 반대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우창에서 일어난 신식 군대의 봉기를 시작으로 각 성(省)이 혁명에 동조해 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신해혁명**, 1911). 이들은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했고, 중국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을 수립했다(1912).

그러나 쑨원으로부터 임시 대총통 자리를 넘겨받은 위안스카이가 사망한 이후, 각지의 군벌(군인이 사병을 조직해 이룬 정치 세력)이 땅을 나눠 차지하면서 중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 쑨원의 삼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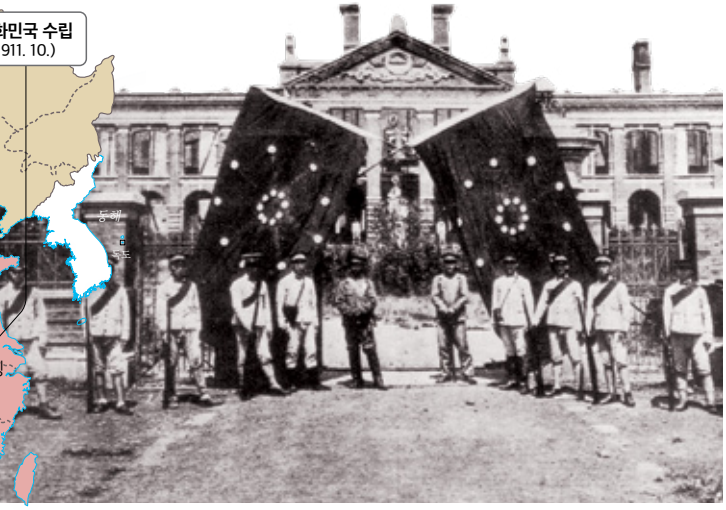
← 쑨원



탐구 ① 쑨원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지 추측해 보자.



↑ 신해혁명의 과정



↑ **우창 봉기를 주도한 군인들** 우창 봉기 직후 후베이성 정부 청사 앞에 서 있는 혁명군이다. 깃발에 그려진 별은 청이 멸망시킨 한족 국가였던 명의 18개 성을 의미한다.

한국인이 본 신해혁명

대륙에 명예로운 공화정체를 건설하되 피를 얼마 흘리지 않고 4개월 만에 공적을 이루니 ……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봐도 처음 있는 대성공이다. 또한 이는 우리 민족에게 더욱 밀접한 관계와 영향이 있다. …… 머지않아 반도 강산에도 해와 달이 다시 밝아져 더러운 기운을 멀리 쫓아낼 것이니 중화의 이번 성공이 곧 반도의 선봉이다.

- 베이징에서 조성환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12)

탐구 ② 밑줄 친 '더러운 기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함께 확인해요

❶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에 압력을 넣어 □□□□을/를 청에 반환하도록 했다.

❷ **생각 UP**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당시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창의 쑥쑥 활동

모둠 활동

2~4명으로 구성한 모둠 단위로 이번 단원에서 배운 국가의 화폐를 만들어 발표합니다.

활동 방법

❶ 국가 및 인물 고르기

[보기]에 있는 국가 중 하나를 고르고, 해당 국가에서 국민 국가 건설 운동 및 반제국주의 운동을 펼친 인물을 선정합니다.

❷ 화폐 구상하기

선정한 인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국가의 국민 국가 건설 운동 및 반제국주의 운동과 관련된 소재를 추가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화폐를 어떻게 구성할지 정리해 봅니다.

❸ 화폐 만들기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폐를 만들고, 해당 국가와 인물을 선정한 까닭과 화폐에 사용한 소재에 대한 설명을 활동지에 적습니다.

- 화폐는 지폐나 동전의 형태로 만듭니다.
- 소재의 중요도를 모둠에서 결정해 화폐의 가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❹ 화폐 발표하기

모둠별로 완성한 화폐를 소개하고, 화폐에 담긴 의미를 발표합니다.

❺ 화폐 평가 및 비교하기

각 모둠의 화폐가 해당 국가에서 전개된 국민 국가 건설 운동 및 반제국주의 운동의 특징을 잘 드러냈는지 의견을 나누고, 국가별 화폐의 특징을 비교해 봅니다.

유의 사항

- 인물을 고를 때는 정치뿐 아니라 학문, 예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발굴해도 좋습니다.
- 공동 작업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둠 친구들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

국민 국가 건설 운동의 특징이 담긴 화폐 만들기

국민 국가는 영토 안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듭니다. 화폐의 앞면에는 주로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인물의 초상을 배치합니다. 국민 국가 건설을 위해 힘썼거나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 인물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 문화유산, 자연 경관 등을 넣기도 합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국가 중 하나를 고르고, 해당 국가에서 전개된 국민 국가 건설 운동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화폐를 만들어 봅시다.

01 국가 및 인물 고르기

[보기]

- ☐ 미국 142쪽
- ☐ 프랑스 144쪽
- ☐ 독일 155쪽
- 예시 ☑ 아르헨티나 157쪽
- ☐ 오스만 제국 172쪽
- ☐ 무굴 제국 174쪽
- ☐ 베트남 176쪽
- ☐ 청 180쪽
- ☐ 일본 181쪽
- ☐ [ ]



02 화폐 구상하기

고른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

예시 산마르틴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백인으로, 군대를 이끌고 에스파냐군을 물리쳐 아르헨티나 독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어. 그는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칠레, 페루에서도 에스파냐군을 몰아냈지.

어떤 소재를 활용할까?

예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5월 광장을 선택했어. 아르헨티나가 독립을 선언한 곳이지. 오늘날 아르헨티나 국기에 그려져 있는 태양 문양도 활용하려고 해. 이것은 아르헨티나의 독립을 상징한대.

어떻게 화폐를 구성할까?

예시 앞면에는 아르헨티나가 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산마르틴을 배치할 거야. 그가 군대를 이끄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 뒷면에는 5월 광장과 태양 문양을 담으려고 해.

03 화폐 만들기

예시





화폐 만들기 활동지

해당 국가와 인물을 선정한 까닭

지구 반대편에서 전개된 국민 국가 건설 운동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아르헨티나의 화폐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건국을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산마르틴을 넣기로 했다.

화폐에 사용한 소재

화폐 앞면에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선 산마르틴의 모습을 담았다. …….

[한 줄 평가]


산마르틴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구나.


외세에 맞서 싸운 것은 세포이의 항쟁이나 의화단 운동도 있어. 이 사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

평가하기

- 의미 있는 국가와 인물을 선정했나요?
- 해당 국가에서 전개된 국민 국가 건설 운동의 특징을 화폐에 잘 표현했나요?
- 화폐에 담긴 의미를 다른 모둠 친구들에게 잘 전달했나요?
- 민주적으로 화폐의 내용을 구상하고, 화폐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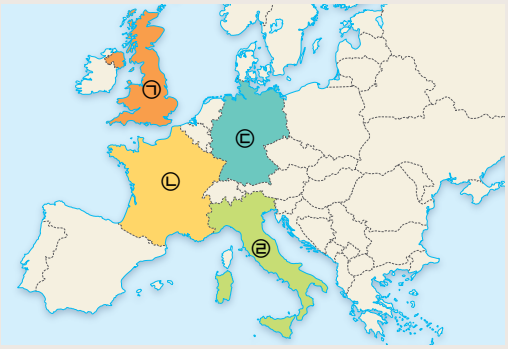
스스로 생각하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로 확인하기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 봅시다.

1 다음 사건들이 일어났던 나라를 지도에서 찾아보자.

- 「인권 선언」 발표
- 나폴레옹의 쿠데타
- 7월 혁명
- 2월 혁명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증기 기관이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되면서 공장제 기계 공업이 확대되고 교통수단에도 변화가 일어났어.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_____

_____

_____



3 각 나라에서 있었던 국민 국가 건설 운동을 연결해 보자.

조선	군대와 산업을 육성하는 양무운동 추진
청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가 근대식 산업과 교육 도입
일본	외세에 반대하며 개혁을 주장한 동학 농민 운동 전개
인도	영국 동인도 회사가 고용한 인도인 용병의 항쟁 발생

추가 확인 문제

역사로 세상 읽기

다음 자료를 읽고 빈칸을 채워 봅시다.



제국주의 침략은 아프리카에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

01 식민 지배는 어떤 문제를 불러왔을까?



르완다 학살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념관이야. 이 학살은 아프리카 부족 간의 갈등이 부른 끔찍한 사건이지. 그 배경은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침략에서부터 시작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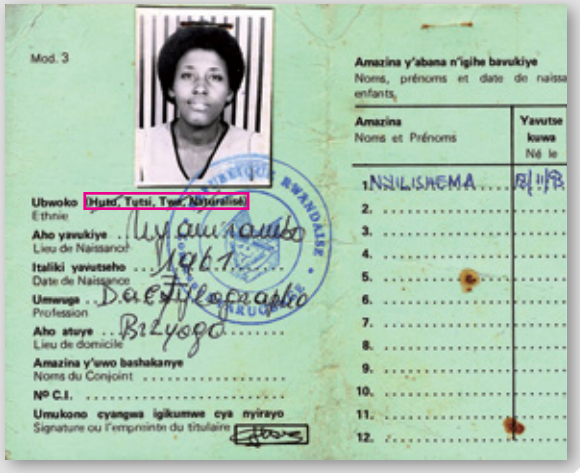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 아프리카에는 국경선이 만들어졌어. 이 국경선은 각 공동체나 부족의 전통적인 생활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 국가들이 편의대로 설정한 것이었어.



또한 유럽 열강은 식민 지배를 위해 부족 간 분열이나 갈등을 이용했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20세기 후반에 독립했지만, 부족 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분쟁이나 내전으로 확대되기도 했어. 르완다 학살도 그중 하나야.

02 식민지 시기 르완다에서 벌어진 일

르완다에는 후투족과 투치족이 있었으나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 외모에서 큰 차이점이 없었다. 그런데 르완다를 침략한 벨기에는 코의 높낮이나 피부색 등을 기준으로 삼아 후투족과 투치족을 분류했다. 외모로 종족을 구분하기 힘들었지만 벨기에는 르완다 국민의 85%를 후투족, 14%를 투치족으로 나눠 신분증을 발급했다. 그리고 소수이던 투치족을 우대해 식민 통치의 협조자로 활용했다. 다수였던 후투족은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이런 차별은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감정을 악화시켰다.



→ 투치족의 신분증 르완다는 독립 이후에도 오랫동안 출신 부족이 쓰인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했다.

03 르완다 독립 후 더욱 커진 부족 간의 갈등

1962년 르완다가 독립하자 인구의 다수를 차지했던 후투족이 권력을 잡았다. 식민 통치 기간에 억눌려 왔던 후투족이 투치족을 공격하면서 많은 투치족이 학살되거나 이웃 나라로 몸을 피했다. 투치족도 조직을 결성해 후투족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1993년에 국제 연합(UN)의 중재로 평화 협정이 맺어졌으나 이듬해 후투족 출신의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미사일에 맞아 추락하자 사태는 다시 악화했다. 투치족이 대통령을 암살했다고 생각한 후투족 군인과 무장한 민간인들이 투치족을 학살해 수십만 명이 희생됐다.



↑ 르완다로 돌아가는 투치족(1996) 탄자니아로 몸을 피했던 투치족은 탄자니아 정부에 의해 강제로 귀국해야 했다.



검색해요

제국주의 침략이 낳은 분쟁의 사례를 찾아보자.

- 콩고 내전
- 앙골라 내전
- _____

“ 르완다 학살과 같은 사건을 막으려면 _____ _____ ”

213 쪽

일본군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십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살해하는 난징 대학살을 저질렀다. 난징 대학살 희생자 기념관 입구에는 죽은 아이를 안고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193 쪽

제1차 세계 대전에서는 신무기의 등장으로 돌격전이 어려워져 땅을 깊게 파고 그 안에서 서로 대치하는 참호전이 전개됐다.



201 쪽

에멀라인 팽크허스트는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이끌어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우받도록 노력했다.



204 쪽

간디는 비폭력·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며 공직과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영국 상품 불매 및 국산품 애용을 주장했다.

V 세계 대전과 사회 변동

1. 제1차 세계 대전과 세계 질서의 변화
2.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3. 제2차 세계 대전과 평화를 위한 노력

이번 중단원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전쟁 이후 나타난 다양한 변화를 탐구할 수 있다.

주제 40

제1차 세계 대전과 이후의 세계

관련 주제
주제31(154쪽)
주제32(156쪽)
주제34(166쪽)
주제43(202쪽)
주제47(212쪽)

핵심 질문
제1차 세계 대전은 왜 시작됐고, 어떻게 전개됐을까?

01 제1차 세계 대전의 배경

19세기 후반부터 유럽 열강 사이에서 식민지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졌다.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독일이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어 세력을 넓히자 영국, 프랑스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고 했다. 이에 유럽은 3국 동맹과 3국 협상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했다.



↑ 3국 동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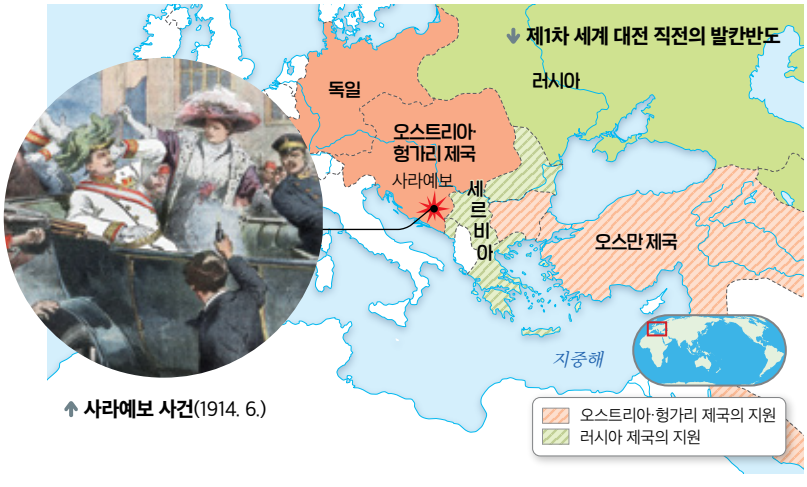


↑ 3국 협상

한편 발칸반도는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며 민족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 '유럽의 화약고(화약을 저장해 두는 창고)'라고 불렸다. 한때 발칸반도의 대국이었던 세르비아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러시아의 지원 아래 더 넓은 영토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 그러나 ❶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발칸반도로 세력을 확대해 오면서 세르비아의 불만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세르비아계 청년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자(**사라예보 사건**, 1914)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 포고를 했다.

❶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19세기 후반에 오스트리아가 헝가리 귀족과 타협해 수립한 제국이다. 오스트리아 황제가 제국 전체의 황제를 겸했다.

왜 발칸반도를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렸을까?



↑ **사라예보 사건**(1914. 6.)


유럽 남동부에 위치한 발칸반도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문화 집단이 사는 곳으로, 수백 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

19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자 각 민족이 독립운동을 벌였고, 이때 주변 열강은 앞다퉈 이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려고 했어.


특히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및 독일이 이 지역을 두고 러시아와 팽팽하게 대립했어.

이렇게 전쟁의 분위기가 감돌았던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렸어.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하며 결국 화약에 불이 붙었지.

탐구 ① 발칸반도에서 갈등이 심해진 배경은 무엇일까?

02 제1차 세계 대전의 전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선전 포고 이후 세르비아는 러시아에 도움을 청했고, 3국 동맹과 3국 연합이 잇달아 참전하며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 전쟁은 초기에 독일이 동부 전선(전쟁에서 직접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며 동맹국 측에 유리한 듯했으나 서부 전선에서 **참호전**이 지속되면서 길어졌고, **총력전**으로 전개됐다.

1. 전쟁터가 된 유럽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독일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프랑스와 영국도 참전했으며, 이탈리아는 중립을 선언했다.



2. 장기전이 된 서부 전선

독일은 서쪽으로 빠르게 진격해 영국, 프랑스와 전투를 벌였으나 강한 저항에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후 서부 전선에서는 참호전의 형태로 공방이 계속됐다.



3. 러시아가 참패한 동부 전선

동부 전선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러시아와 맞섰다. 러시아는 초기에 승리를 거두는 듯했지만 결국은 참패해 동맹국에 우위를 내줬다.





← **탱크** 철조망을 부수고 참호를 건너기 위해 만들었다.

• 신무기의 등장과 참호전

제1차 세계 대전에서는 발전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기관총과 대포의 위력이 더욱 강해지고 전투기, 잠수함 등의 신무기가 등장했다. 이에 돌격전이 어려워지자 땅을 깊게 파고 그 안에서 서로 대치하는 참호전이 전개됐다. 전쟁의 승부가 판가름이 나지 않자 참호 속의 적을 공격하기 위해 독가스가 사용되고 탱크가 개발됐다.

망원경으로 적군을 밤낮으로 감시했다.

참호 벽 속에 구덩이를 파서 휴식을 취했다.

모래주머니 뒤에 숨어 적군의 총탄을 피했다.



→ **기관총**(캐나다전쟁박물관) 탄알을 연속으로 쏠 수 있게 만들었다.

03 제1차 세계 대전의 종결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나라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참전하면서 제1차 세계 대전은 세계 규모로 확대됐다. 이후 막대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협상국 측으로 참전하면서 전세는 동맹국에 불리해졌다. 결국 협상국의 공세에 밀린 동맹국이 잇달아 항복하면서 제1차 세계 대전은 끝이 났다(1918).

❷ **무제한 잠수함 작전** 영국이 해상을 봉쇄하자 독일이 잠수함으로 중립국 선박까지 공격한 작전이다.

4. 세계로 확대된 전쟁

전쟁이 확대되자 다른 유럽 국가까지 참전했으며, 3국 동맹의 일원이었던 이탈리아는 협상국 측에 가담했다. 유럽 열강의 일부 식민지들도 전쟁이 끝난 뒤 전후의 자치와 독립을 기대하면서 전쟁에 참여했다.



5. 미국의 참전 선언

독일의 ❷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영국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미국인 128명이 사망했다. 이후 독일이 비밀리에 멕시코와 동맹을 추진해 미국을 위협하자 1917년 미국은 독일 등에 선전 포고를 했다.



6. 동맹국의 항복

러시아는 국내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전쟁에서 물러났다.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이 항복하고, 독일에서 혁명으로 새로 성립한 정부가 협상국과 휴전 조약을 맺으며 전쟁이 종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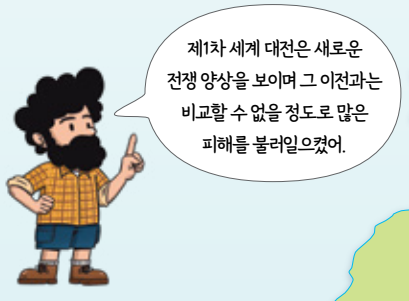
전쟁은 부정확하고 불확실하며 대가가 크다. …… 두 사람을 살해한 것(사라예보 사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결정하는 소송 비용치고는 터무니없이 비싼 액수이다.

-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베르사유 조약 영국 대표)



- 『The Great War』(2014)

↑ 제1차 세계 대전의 피해 규모





04 제1차 세계 대전의 결과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승전국(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고 평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파리 강화 회의를 열었다(1919). 미국 대통령 윌슨은 ❸14개조 원칙을 제안했으나 영국, 프랑스 등은 승전국의 이익을 우선했다. 결국 승전국들은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으로 독일은 식민지를 상실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렇게 승전국 위주로 성립된 국제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한다.

한편 국제 사회는 전후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기구인 국제 연맹을 창설했다(1920). 일부 국가들은 군비 축소를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많은 나라가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평화가 지속되기 어려웠다.

❸ **14개조 원칙** 전후 평화 구상을 담은 원칙들이다. 식민지의 주권 문제에 식민지 주민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민족 자결주의가 포함됐지만, 이것은 패전국의 식민지 일부에만 적용됐다.

함께 확인해요

[보기]
신무기, 참호전, 총력전, 선전전

❶ [보기]의 단어를 활용해 제1차 세계 대전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❷ 생각 UP ▸ 베르사유 체제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총력전, 제1차 세계 대전

❶ 총력전의 전개

제1차 세계 대전은 각 나라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으로 전개됐다. 유럽 각국은 식민지인은 물론 여성, 동물까지 전쟁에 동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입대, 모금, 전쟁 협조를 권유하는 선전전을 펼쳤다.



→ **전쟁에 동원된 베트남 병사들**(좌)**과 입대를 촉구하는 미국의 포스터**(우)

❷ 변화한 여성의 역할

전방에 많은 남성이 동원되면서 후방에서는 여성이 군수품 생산 등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분야의 산업에 투입됐다. 간호병 등 전방에서 전쟁을 수행한 여성들도 있었다.

↓ **공장에서 수류탄을 만드는 여성** ↓ **간호병으로 참전한 여성들**



❸ 인간들의 싸움에 희생된 동물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운송한 말, 정보나 명령이 적힌 종이를 다리에 묶고 전쟁터를 날아다닌 비둘기 등 여러 종류의 동물이 전쟁에 대거 동원됐다.



→ **셰르 아미**(박제,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 총을 맞고도 정보를 전달해 194명의 목숨을 구한 후, 무공 십자 훈장을 받았다.

↓ **말에 짐을 싣는 군인들** 말은 도로가 없는 산과 사막을 가로질러 걸을 수 있었다. 무기, 음식, 연료, 텐트 등을 옮기는 과정에서 수백만 마리의 말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탐구 ② 총력전으로 당시 사회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탐구 ③ 제1차 세계 대전에 동물이 어떻게 동원됐는지 더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제1차 세계 대전에 동원된 동물(코끼리, 낙타)

주제 41

러시아 혁명과 소련의 성립

관련 주제
주제39(184쪽)
주제46(208쪽)

핵심 질문
러시아 혁명은 세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01 러시아 혁명의 전개

19세기 말 러시아에서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 계층이 성장했고 지식인 사이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널리 퍼졌다. 그러나 차르(황제)의 전제 정치는 오히려 강화됐고, 러일 전쟁으로 민중의 생활은 어려워졌다. 이에 전제 정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됐다.

이후 러시아는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으나 패전을 거듭했고, 오랜 전쟁에 인명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이 잇따랐다. 1917년이 되자 노동자와 군인이 중심이 되어 전쟁 중지와 차르 타도를 외치며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❶소비에트를 조직해 차르를 몰아내고 임시 정부를 세웠다(**3월 혁명**, 러시아력 2월).

그러나 임시 정부는 개혁을 미루고 전쟁을 계속했다. 이에 레닌은 전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가 이끄는 ❷볼셰비키가 무장봉기를 일으켜 임시 정부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했다(**11월 혁명**, 러시아력 10월).

❶ **소비에트** '평의회'를 뜻하는 러시아어로, 노동자, 병사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됐다.

❷ **볼셰비키** 러시아 사회 민주주의 노동당 내의 한 분파이다. 정권을 잡은 후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 소비에트 정권은 지금 즉시 민주적인 평화와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이 이뤄져야 함을 국민에게 제의할 것이다. 소비에트 정권은 토지를 무상으로 농민 위원회에 넘기고, …… 생산을 노동자가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고, …… 러시아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진정한 자결권을 보장할 것이다.
>
>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선언문」(1917. 11.)



➔ **소비에트 정부의 선전 포스터**(1920) 레닌이 차르, 귀족, 자본가 등을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모습을 표현했다.

탐구 ① 밑줄 친 '휴전'은 어떤 전쟁에 대한 것일까?

탐구 ② 11월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었을까?

• 러시아 혁명의 주요 장면



1917. 3.

거리로 나간 민중 오랜 전쟁에 생활이 어려워지자 민중은 거리에서 '빵과 평화, 토지와 자유'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1917. 3.

러시아 임시 정부 3월 혁명으로 수립된 임시 정부는 전쟁을 계속하고 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민중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1917. 11.

연설하는 레닌 레닌은 임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지도 아래 11월 혁명이 전개됐다.



02 소련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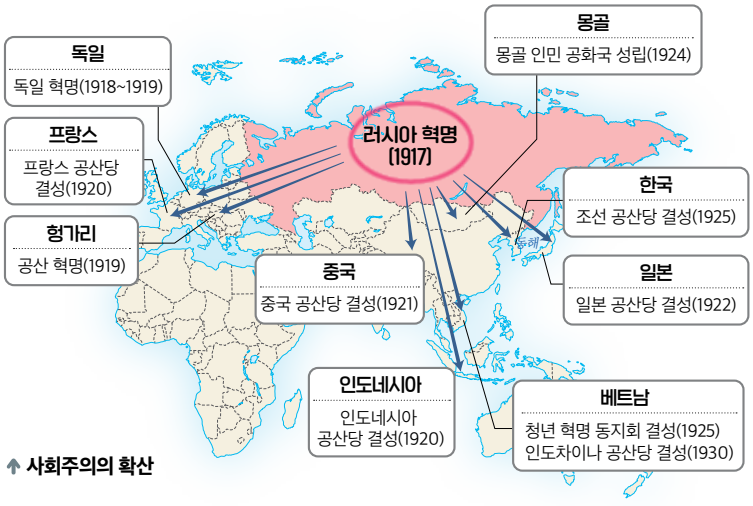
혁명 이후 레닌은 독일과 조약을 체결해 전쟁을 중단했다. 그리고 토지와 주요 산업 시설을 국유화하는 등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했다. 이에 반혁명 세력이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 저항하면서 내전이 일어났으나 정부는 이들을 제압했다. 그리고 1922년에 주변의 여러 소비에트 정부를 묶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을 결성했다.

레닌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스탈린은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그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및 농업 집단화(집단으로 조직함.)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소련은 빠르게 공업 국가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스탈린이 반대파를 대대적으로 숙청(반대파를 처단하거나 제거함.)하며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 **집단 농장에서 식사하는 소련 농민들**(1938) 농업 집단화 정책으로 집단 농장에서 일하게 된 소련 농민들은 정부의 물자 징발과 대기근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 혁명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



↑ **사회주의의 확산**

❶ **전 세계로 확산된 사회주의** 레닌은 혁명을 전파하고자 국제 공산당 연합 조직인 **코민테른**을 만들고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을 지원했다. 이에 사회주의가 여러 지역에 전해졌다.



↑ **레닌에 대한 글이 실린 『동아일보』 기사**(1921. 8. 30.)

❷ **한국에 소개된 사회주의** 1921년 『동아일보』에 「니콜라이 레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글이 약 두 달 동안 연재됐다. 이는 사회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을 보여 준다. 당시 코민테른은 한국의 독립운동도 지원했으며, 코민테른이 세운 학교에는 아시아 출신 사회주의자들이 다수 유학했다.

탐구 ③ 코민테른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한 인물들을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국제 레닌 학교, 박헌영, 호찌민, 덩샤오핑

이름	출신 지역	활동

함께 확인해요

❶ 레닌이 이끈 볼셰비키는 임시 정부를 무너뜨리고 □□□ 정부를 수립했다.

❷ 생각 UP 사회주의가 세계 여러 지역에 확산된 까닭은 무엇일까?

주제

42 발전하는 민주주의

관련 주제 → 주제48(216쪽)

핵심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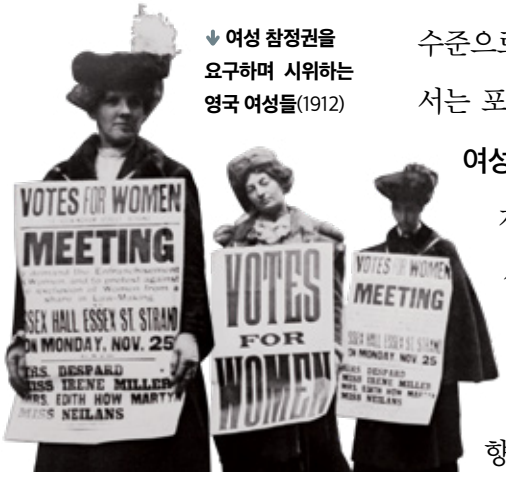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권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확립됐을까?

01 민주주의의 확대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유럽에서는 민주주의가 확대됐다. 전쟁 막바지에 독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민주적인 절차와 헌법을 토대로 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졌다(1919). 전쟁이 끝난 후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군주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섰다. 패전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도 독립해 많은 공화국이 새롭게 탄생했다.

한편 전쟁이 총력전으로 전개되면서 민중은 전쟁에 기여한 정도에 걸맞은 권리를 주장했다. 이에 힘입어 재산 소유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폐지되고, 성별, 재산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통 선거**가 점차 정착됐다.

02 여성 참정권 운동의 전개



↓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영국 여성들(1912)

19세기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남성과 평등한 수준으로 만들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영국에서는 포셋과 팽크허스트 등이 단체를 결성해 시위, 청원(법률 절차에 따라 법률 개정 등의 일을 국회, 관공서 따위에 청구하는 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을 전개했다(200쪽 참고).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확대되자 여성 참정권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1917년에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며 모든 여성이 선거권을 가졌고, 1918년에는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됐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쳤고, 여성 참정권은 세계 여러 나라로 점차 확대됐다.

세계 각 나라 여성의 참정권 획득 시기

1893 뉴질랜드
1917 러시아
1918 영국(30세 이상)
1919 독일
1920 미국
1928 영국(21세 이상)
1929 에콰도르
1945 세네갈, 토고
1946 프랑스
1948 대한민국

뉴질랜드  1893년에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다. 1919년에는 여성도 선거의 후보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영국  1918년에 일정한 세금을 내는 30세 이상 여성의 선거권만 인정했다. 1928년에 모든 성인 여성이 참정권을 얻었다.

세네갈, 토고  1945년에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다.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모든 인종의 여성이 동등하게 투표하게 된 사례이다.

대한민국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 새롭게 헌법을 만들어 남성과 평등한 여성 참정권을 보장했다.

03 노동자 권리의 제도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됐다. 세계 여러 나라는 점차 노동자의 선거권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생산 활동에 힘쓰며 희생했던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가 더욱 올라갔다. 이에 힘입어 1919년에는 ❶**국제 노동 기구(ILO)**가 설립되어 1일 8시간, 1주 48시간 노동을 국제 표준으로 확립했다.

노동자들의 날, 메이데이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은 1일 8시간 노동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실행했다. 이를 계기로 1890년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매년 5월 1일(메이데이, Mayday)에 노동 운동 관련 행사를 열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서 5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기리고 있다.



↓ **미국의 메이데이 행사**(1900)

탐구 ① 오늘날 노동자들은 어떤 요구 사항을 주장하고 있을까?

노동 시간 단축의 역사

- **1848** 영국, 성인 남성 1일 12시간 노동제 도입
- **1866** 국제 노동자 협회(IWA), 1일 8시간 노동제 채택
- **1886** 미국 노동자들, 1일 8시간 노동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 **1919** 국제 노동 기구, 1일 8시간, 1주 48시간 노동제 채택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선진국 중심으로 1주 48시간 노동제 도입
- **1935** 국제 노동 기구, 1주 40시간 단축 협약 채택
- **1936** 프랑스, 1주 5일 40시간 노동제 도입

❶ **국제 노동 기구(ILO)**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됐다. 이후 국제 연합(UN)의 전문 기구로 편입됐으며, 오늘날에도 활동하고 있다.

국제 노동 기구 설립 배경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 「바이마르 헌법」

- 제1조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2조 국회 의원은 비례 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된다.
- 제157조 노동은 공화국의 특별한 보호를 누린다. 공화국은 표준적인 노동 입법을 제공해야 한다.
- 제163조 만약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모든 독일인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 가장 민주적이고 현대적인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여러 나라의 헌법에 영향을 미쳤다.



탐구 ② 「바이마르 헌법」에서 참정권, 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자.

탐구 ③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사례를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제헌 헌법」, 참정권, 노동권

함께 확인해요

❶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재산, 성별에 제한 없이 누구나 선거하는 □□ □□이/가 점차 정착됐다.

❷ **생각 UP** 참정권이 확대되고 노동자 권리가 보호된 계기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생각 쑥쑥 탐구

서프러제트를 찾아서

19세기 초중반에 활발하게 전개된 참정권 운동으로 오랜 기간 정치에서 배제되어 왔던 시민의 권리가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투표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당시 여성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프러제트라는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01

노골적인 반대에 맞서다





↑ **영국의 여성 참정권 반대론자들이 배포한 엽서**(1909)

서프러제트는 참정권을 뜻하는 '서프러지(Suffrage)'에 여성을 뜻하는 접미사 '-ette'를 붙인 말이다. 이 말은 원래 영국의 여성 사회 정치 연합을 경멸하며 일컫는 단어였으나, 점차 여성 참정권을 위해 투쟁하는 여성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가 됐다. 당시 여성 참정권 반대론자들은 이들을 못생기고 이기적이며, 남편을 갖기를 바라지만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로 묘사했다. 또한 여성은 판단력이 부족하며,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되면 가족 제도가 위태로워질 뿐 아니라 남성의 권위도 위협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프러제트들은 이처럼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성 참정권 확보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갔다.



02

여성 참정권을 위해 싸우다

20세기 초반 영국에서는 에멀라인 팽크허스트를 중심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전개됐다. 이 운동의 목표는 여성의 참정권을 확보해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우받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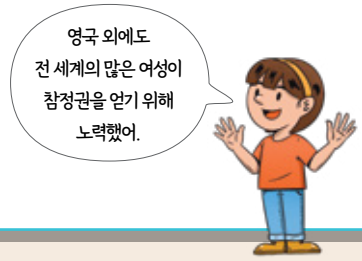
➔ **여성 참정권 획득을 위해 연설하는 팽크허스트**(1908)

함께 탐구해요

❶ **논술 UP** 여성 참정권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찾아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글을 써 보자.

❷ **검색 UP** 여성 참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인물을 검색해 그들의 이야기를 글이나 만화로 구성해 보자.

추천 검색어 에설 스미스, 수전 앤서니



이번 중단원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민족 운동을 이해하고, 그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주제 43

중국의 민족 운동

관련 주제
- 주제37(178쪽)
- 주제38(180쪽)
- 주제40(192쪽)
- 주제46(208쪽)

핵심 질문
제국주의 침략 속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난 중국에서는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01 5·4 운동과 중국 민족 운동의 발전

신해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은 군벌의 난립(질서 없이 여기저기서 나서는 것)으로 혼란에 빠졌다. 천두슈 등의 지식인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교를 비판하고 과학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신문화 운동**을 전개했다.

신문화 운동을 주장한 천두슈와 『신청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본, 프랑스로 유학을 다녀온 천두슈는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행해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자는 신문화 운동을 펼쳤다. 『신청년』은 신문화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후에는 사회주의를 다루는 데 중점을 뒀다.





제1차 세계 대전 중 중국의 군벌 정부는 일본에 굴복해 ❶21개조 요구를 수용했다. 전후 중국인들은 빼앗긴 이권을 되찾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의 산둥반도 이권이 인정되자 베이징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폐와 군벌 타도를 주장하는 **5·4 운동**이 일어났다(1919).

❶ **21개조 요구**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에 강제로 승인시킨 요구로, 독일이 산둥반도에서 누리던 이권을 일본이 이어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 신청년들이 이끈 5·4 운동

> 산둥을 잃는 것은 중국이 망한다는 것이다. …… 조선은 독립을 꾀해 "독립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라고 했다. 모름지기 국가가 망하고 영토를 넘겨줘야 하는 문제가 눈앞에 닥쳐도 국민이 끝내 떨쳐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20세기의 열등 민족이며, 인류에 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
> -「베이징 학생계 선언」(1919)

탐구① 밑줄 친 내용이 설명하는 운동은 무엇일까?

탐구② 5·4 운동 당시 중국 학생들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

5·4 운동 때 체포됐다가 석방된 학생들과 이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중국 전장시박물관)



02 중국의 반제국주의 투쟁과 국공 합작

5·4 운동 이후 쑨원이 대중 정당(대중에 기반을 두고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인 중국 국민당을 만들었고,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다(197쪽 참고). 국민당은 군벌과 제국주의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공산당과 힘을 합쳤다(**제1차 국공 합작**).

그러나 쑨원의 뒤를 이은 장제스가 각 지역의 군벌을 무너뜨리기 위한 북벌 과정에서 공산당을 배척해 국공 합작은 깨졌다. 이후 장제스는 군벌 정권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했다(1928).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 **대장정**을 펼치며 계속 저항했다. 공산당은 내전을 중지하고 중국을 침략해 오는 일본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다. 결국 중일 전쟁이 벌어지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협력했다(**제2차 국공 합작**).

중국의 항일 투쟁과 한국의 독립운동



신해혁명 이후 한국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으로 망명해 활동했어. 한국의 독립운동가 중 사회주의 계열의 인물들은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 항일전에 참여했다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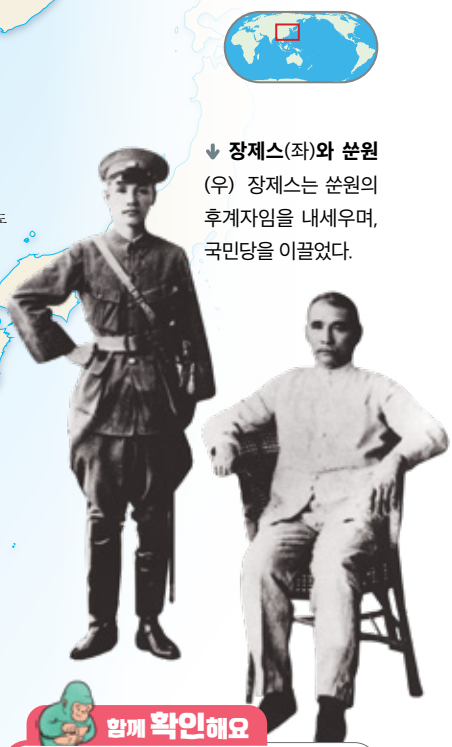


1920년대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 코민테른이 민족주의자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중국에서 제1차 국공 합작이 이뤄지자 한국의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여러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운동이 일어났어.

중국의 북벌과 공산당의 대장정



대장정에 나선 마오쩌둥 마오쩌둥은 국민당의 포위를 뚫고 370일 동안 1만여 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공산당 내의 주도권을 잡았다.



장제스(좌)**와 쑨원**(우) 장제스는 쑨원의 후계자임을 내세우며, 국민당을 이끌었다.

함께 확인해요

❶ □·□ 운동은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폐와 군벌 타도를 내세웠다.

❷ 공산당은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 □□□에 나섰다.

주제

44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

관련 주제
주제36(174쪽)
주제40(192쪽)
주제50(228쪽)

핵심 질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던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떤 민족 운동이 일어났을까?



↑ **암리차르 학살**(상상화) 영국군이 롤럿법 제정에 항의하는 인도인들을 사격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01 인도의 민족 운동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일부 인도인들은 자치권을 기대하며 영국에 협력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영국은 ❶롤럿법을 제정하는 등 오히려 식민 지배를 강화했다. 인도 국민 회의의 지도자였던 간디는 **비폭력·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며 공직과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영국 상품 불매 및 국산품 애용을 주장했다.

네루는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며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했다. 반영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자 결국 영국 정부는 인도인들에게 각 주의 자치권을 넘겨줬다(1935).

❶ **롤럿법** 식민 통치에 맞서는 인도인을 테러 용의자로 규정하고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인도 민족 운동의 두 지도자, 간디와 네루

네루가 본 3·1 운동

❶ 간디의 소금 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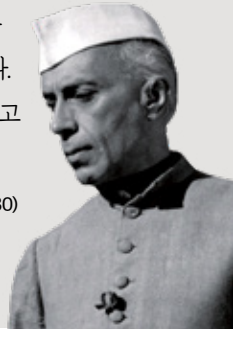
영국은 인도인의 소금 채취를 금지하고 소금에 세금을 매겼다. 1930년에 간디는 "인도 바닷가의 소금은 인도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아마다바드에서 염전이 있던 서부의 단디 해변까지 약 386km를 행진했다. 영국은 많은 인도인을 체포하며 이 운동을 탄압했으나 결국 인도 측과 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 **소금 행진** 중인 간디와 인도인들

❷ 네루의 반영 운동

>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권리를 빼앗고 억압한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바꾸거나 폐지할 수 있는 더 큰 권리가 있다. 영국 정부는 인도 국민의 자유를 빼앗았을 뿐 아니라 …… 경제적·정치적·문화적·정신적으로 인도를 파멸시켰다. 따라서 인도는 영국과의 관계를 끊고 완전한 독립을 이뤄야 한다.
>
> - 네루의 인도 국민 회의 정강(1930)



↑ **네루**

탐구 ① 두 인물이 전개한 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02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던 필리핀은 무장 투쟁 끝에 독립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됐다. 베트남도 독립을 기대하며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프랑스를 지원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식민 지배가 계속되자 **호찌민**은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조직해 프랑스에 맞섰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카르노**가 결성한 인도네시아 국민당이 네덜란드의 지배에 맞서 민족 운동을 전개했다.

동남아시아 화폐에 그려진 민족 운동가들



카티푸난에서 활동했던 아기날도는 미국과 에스파냐가 전쟁을 하자 미국의 원조를 받아 에스파냐에 대한 독립 전쟁을 지휘했다(177쪽 참고). 이후 그는 필리핀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으나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다.

아기날도는 미국에 계속 저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어.



← **아기날도가 그려진 필리핀의 지폐**(구권)**와 동전**(신권)



호찌민은 베트남 출신으로, 프랑스에 건너가 식민지 해방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프랑스 공산당 창립 당시 당원이 됐으며, 이후 단체를 결성해 사회주의를 전파했다. 1930년에는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창립하고 민족의 독립을 내세우며 싸웠다.

베트남 지폐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모두 호찌민이 그려져 있어.



← **호찌민이 그려진 베트남의 지폐**



↑ **수카르노**(좌)**와 하타**(우)**가 그려진 인도네시아의 지폐**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네덜란드의 탄압으로 몰락한 후 인도네시아 국민당 결성을 주도했다. 인도네시아 국민당은 이슬람 공동체와 깊은 관련을 맺으며 민족 운동을 전개했고, 수카르노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 운동을 이끌어 '민족의 지도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이 됐어. 하타는 당시 부통령이었지.



탐구 ② 각 나라의 화폐에 그려진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탐구 ③ 세 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해 위 설명 이후의 활동과 그것에 대한 평가를 검색해 보자.

함께 확인해요

❶ 인도의 □□은/는 비폭력·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다.

❷ □□□□이/가 결성한 인도네시아 국민당은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에 맞섰다.

주제

45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관련 주제
주제35(170쪽)
주제40(192쪽)
주제50(228쪽)

핵심 질문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민족 운동을 주도했을까?

01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 대전에 동맹국으로 참여했다가 패전하면서 많은 영토를 잃고 협상국으로부터 내정 간섭까지 받는 등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이에 무스타파 케말은 세력을 모아 협상국의 군대를 물리친 후 술탄을 몰아내고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웠다(1923). 초대 대통령이 된 무스타파 케말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으며, 문자 개혁, 여성 참정권 인정 등 근대화 개혁을 추진했다.

한편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아랍 민족은 독립을 기대하고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협상국을 지원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영국, 프랑스 등은 이 지역을 독립시키지 않고 계속 다스렸다. 이에 서아시아 각국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됐다. 그 결과 이라크, 시리아 등이 독립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통일 왕국을 수립했다.



↑ 제1차 세계 대전 후의 서아시아

무스타파 케말, 그는 누구인가?

❶ 문자 개혁

오스만 제국에서는 수 세기 동안 아랍 문자를 사용했으나 튀르크어를 아랍 문자로 옮기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 무스타파 케말은 국민이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로마자를 본떠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이 문자로 이전보다 더 쉽게 튀르크어를 표기할 수 있게 됐다.



→ 새 문자를 직접 설명하고 있는 무스타파 케말



❷ 여성의 권리 신장

무스타파 케말이 제정한 새 헌법에서는 여성의 법적 평등과 투표권이 보장됐다. 오늘날 튀르키예의 법률 중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대부분 무스타파 케말 시기에 제정됐다.

← 투표하는 튀르키예 공화국의 여성

❸ 튀르키예의 개혁가? 독재자?



튀르키예에는 나라를 세우고 그 기틀을 닦은 무스타파 케말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 튀르키예 의회는 그에게 '튀르크인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칭호를 수여하기도 했어.



그래서 튀르키예에서는 그의 이름이 붙은 공원이나 도로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 화폐에도 무스타파 케말이 그려져 있어.



하지만 무스타파 케말은 반대파를 숙청하고 소수 민족을 탄압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 또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

02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유럽 열강의 지배를 받던 아프리카에서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민족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이집트는 전후 지식인을 중심으로 반영 운동을 전개해 독립을 이루었다(1922). 그러나 수에즈 운하 경영권은 여전히 영국이 가지고 있었으며 영국군도 이곳에 계속 주둔했다(171쪽 참고).

이 무렵 '하나의 아프리카'를 추구하고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범아프리카 운동**이 전개됐다. 1919년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던 시각에 파리의 다른 한편에서 제1차 범아프리카 의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 등의 흑인 대표들이 참가했다. 범아프리카 의회는 이후 런던, 브뤼셀, 뉴욕 등에서 회의를 열어 흑인의 단결을 촉구했다.



↑ **카이로 시위**(1919)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이집트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집트에서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반영 운동이 일어났다.

아프리카인의 연대를 외친 범아프리카 의회

❶ 아프리카인 연대의 시작

19세기 후반부터 아프리카는 끊임없이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흑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아메리카 대륙의 흑인들이었다. 이들은 1900년 런던에서 범아프리카 회의를 개최하며 아프리카인 연대의 움직임을 일으켰다.



↑ **1900년 런던에서 열린 범아프리카 회의 초대장**

❷ 범아프리카 의회의 지도자, 듀 보이스



서구가 여전히 무력으로 인류를 지배하겠다고 한다면, 무력이 서구와 세계를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아프리카인들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 제5차 범아프리카 의회에서 듀 보이스(1945)

미국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흑인인 듀 보이스는 온건한 방법의 흑인 민권 운동에 반대하고 범아프리카 운동의 이론을 제시했으며, 1945년에 열린 제5차 범아프리카 의회에서 공동 의장직을 맡았다.

← **듀 보이스** 흑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자신의 저서에서 인종 문제를 제기했다.

탐구 ① 범아프리카 운동이 지향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함께 확인해요

❶ □□□□ □□은/는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우고, 근대화 개혁을 추진했다.

❷ **생각 UP**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민족 운동이 활발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번 중단원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 회복과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파악할 수 있다.

주제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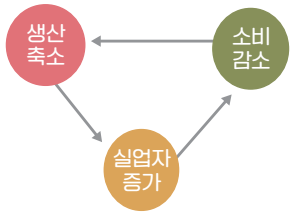
전체주의와 제2차 세계 대전

관련 주제
주제40(192쪽)
주제41(196쪽)
주제43(202쪽)
주제49(224쪽)

핵심 질문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체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01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대공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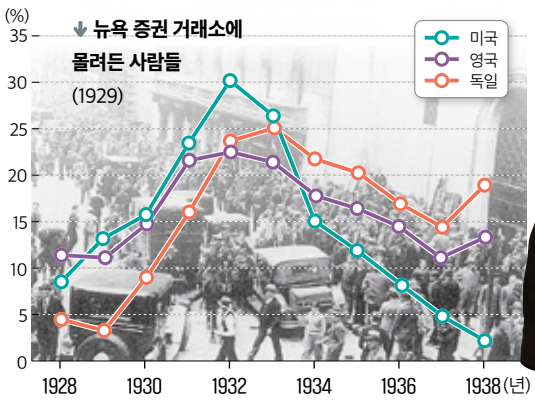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하며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전후에도 해마다 큰 무역 이익을 보며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다. 미국 기업은 생산량은 크게 늘렸으나 노동자의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아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재고(팔리지 않아 창고에 남아 있는 물건)가 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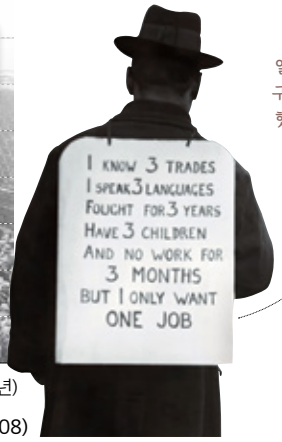
↑ 대공황의 악순환

결국 1929년 10월, 뉴욕 증권 거래소의 주가(주식이나 주권의 가격)가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는 대혼란에 빠졌다.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투자금을 잃고 연이어 파산했으며,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빠르게 전 세계로 파급되어 큰 혼란이 발생했다(**대공황**).

대공황 당시의 사회 모습



↑ 대공황 시기의 실업률 - 『World History』(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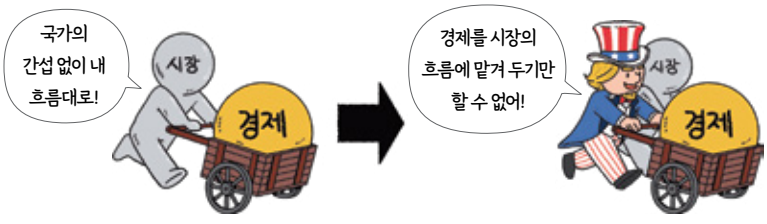


"나는 세 가지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고, 3개 언어를 구사하고, 3년간 전쟁에 참여했으며, 세 자녀가 있습니다. ..... 하지만 나는 오직 일자리 하나만 원합니다."

← 목에 광고판을 걸고 직업을 구하는 1930년대 실업자

대공황 극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 뉴딜 정책

경제는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 이론은 대공황 이후 설득력을 잃었다(217쪽 참고).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뉴딜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 정부는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등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 **1930년대의 미국 노동자들** 도로 공사를 하는 노동자들과 그들을 스케치하는 예술가가 모두 뉴딜 정책의 적용을 받았다.

02 전체주의의 확대

대공황이 일어나자 영국과 프랑스 등은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묶어 시장을 확보했다. 한편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대외 침략을 통해 대공황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민족이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고 개인을 전체에 예속하려는 **전체주의**가 확대됐다.

이탈리아 파시즘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위기에 시달리던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당을 만들었다. 무솔리니는 로마 진군[1]을 계기로 국왕의 제안을 받아 총리가 됐고(1922), 정권을 장악한 파시스트당은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었다.

독일 나치즘 베르사유 조약으로 많은 배상금을 부담한 독일은 경제가 회복되던 중 대공황으로 위기를 맞았다. 이때 히틀러의 나치당이 독일 민족주의, 반유대주의를 내세우며 대중의 지지를 받았고, 히틀러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1933).

일본 군국주의 일본은 대공황 이후 군부가 등장해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군국주의를 추구했다.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해 이듬해 만주국을 세웠다. 이후 국제 연맹을 탈퇴했고, 중일 전쟁을 일으켜 대륙 침략을 확대했다(1937, 203쪽 참고).

전체주의 세력이 부상하자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등이 손을 잡고 맞섰다. 에스파냐에서는 파시즘 세력이 공화 정부를 무너뜨리자 내전이 일어났으며, 긴 싸움 끝에 독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은 파시즘 세력이 승리했다. 그런 가운데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방공(공산주의 세력을 막아 냄.)을 구실로 추축(정치나 권력의 중심)국 진영을 형성했다(1937).

[1] **로마 진군** 전후 경제 위기로 이탈리아 사회가 혼란해지자 파시스트들이 로마로 진군한 사건이다.

• 나치 독일과 베를린 올림픽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열리자 나치 독일은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데 이 대회를 이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독일의 의도와는 달리 이 올림픽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육상 선수 제시 오언스가 네 개의 금메달을 땄고 한국인 손기정이 마라톤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 베를린 올림픽 포스터

• 전체주의를 추구한 무솔리니와 히틀러

(가)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단체도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파시스트는 영구 평화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 무솔리니, 「파시즘 독트린」

(나) 국가는 인종의 순수한 유지를 추구해야 한다. …… 자기가 병약하고 결함이 있는데도 아이를 낳는 것은 치욕일 뿐이며, …… 독일 민족에게 상응하는 영토를 이 지상에서 확보해야 할 것이다. - 히틀러, 『나의 투쟁』

탐구 1 (가), (나)에 공통으로 제시된 핵심 단어를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탐구 2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추구한 전체주의의 특징은 무엇일까?



↑ 군중의 환영을 받는 히틀러(1935)

03 제2차 세계 대전의 전개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됐다. 추축국의 공격에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함께 대항했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고 일본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자 소련과 미국이 연합국으로 참전하면서 전쟁이 더욱 확대됐다.

❷ **독소 불가침 조약** 1939년 독일과 소련이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한 조약이다.

1. 독일의 폴란드 침공

독일은 비밀리에 소련과 ❷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동부 전선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후 폴란드를 침공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됐다.



↑ **독일의 폴란드 침공**(1939)

2. 다시 전쟁터가 된 유럽

독일은 프랑스 파리까지 점령했다. 이탈리아는 독일 측에 가담해 그리스와 북아프리카를 침공했다. 유럽 대부분을 장악한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자 소련도 연합국으로 참전했다.



↑ **독일의 파리 점령**(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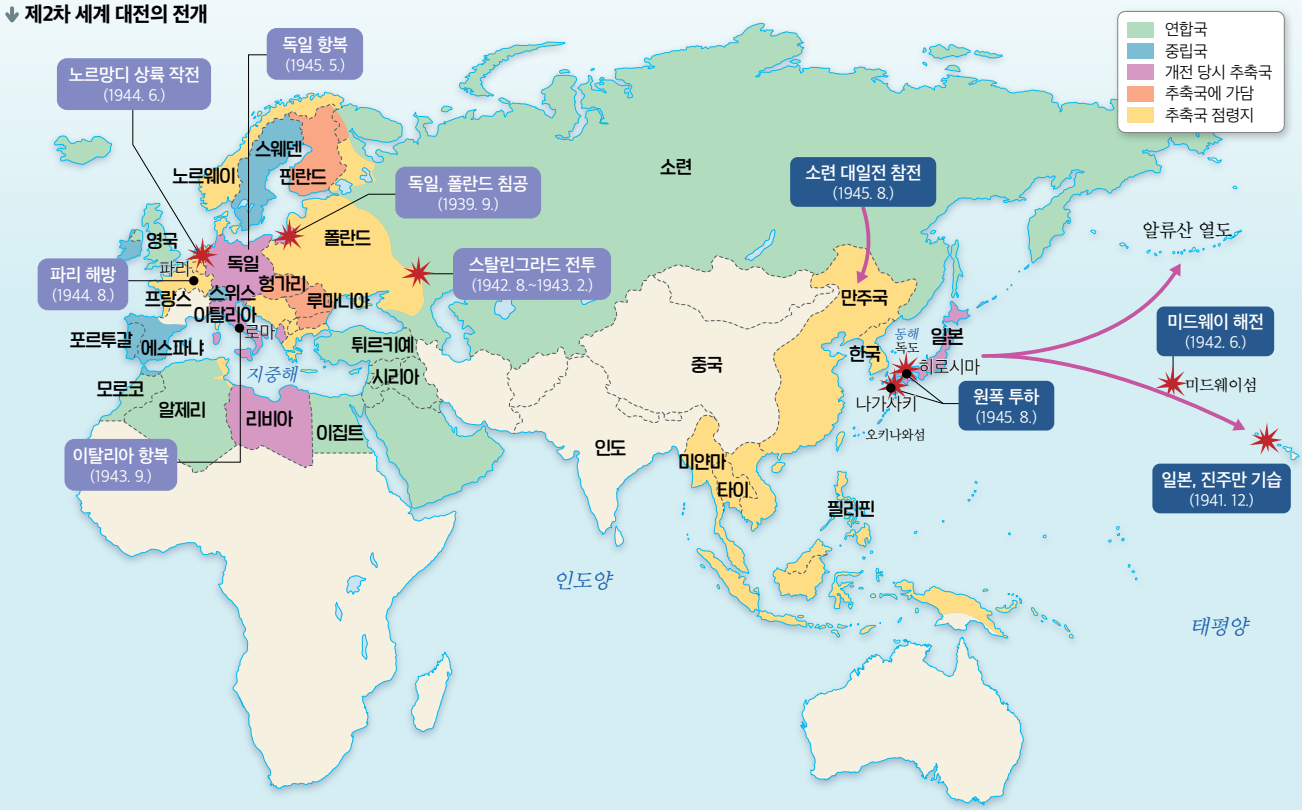
3.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이 길어지자 일본은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를 침략했다. 이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자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미국도 참전했다.



↑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1941)

↓ **제2차 세계 대전의 전개**



04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

전쟁 초기에는 추축국이 우세했지만, 전세는 점차 연합국 측에 유리해졌다. 독일은 소련의 반격으로 수세에 몰렸고, 일본도 중국의 계속된 저항에 부딪혀 나아가지 못했다. 이후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차례로 항복을 선언했고, 이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다.

4. 전세를 바꾼 두 전투

1942년부터 전세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태평양에서는 미국이 일본과 벌인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를 거뒀으며, 유럽에서는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을 크게 물리쳤다.



↑ **스탈린그라드 전투**(1942~1943)

5.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독일의 항복

연합군은 이탈리아로 진격해 무솔리니 정권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아 냈으며,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해 프랑스를 해방했다. 독일은 소련군이 베를린을 포위해 오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 **노르망디 상륙 작전**(1944)

6. 일본의 항복

미국은 일본 본토를 공습했고 중국도 일본에 계속 저항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일본은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고 소련이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 **원자 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1945)

전쟁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

제2차 세계 대전은 아이들의 삶도 바꿨다. 아이들은 식량이 부족해 굶주렸고, 학교에서는 전쟁을 위한 교육과 안전 훈련을 받기도 했다. 공장에서 무기나 부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공습이 있을 때는 어둡고 축축한 대피소에서 잠들어야 했다.



→ **히틀러 유겐트**(1939) 독일에서는 아이들에게 나치즘을 가르치고, 히틀러 유겐트라는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도록 했다. 여기에 합류한 아이들은 명령에 따르는 법을 배우고 싸울 준비를 했다.



→ **고철을 수집하는 미국 아이들**(1942) 전쟁 중에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서 아이들은 오래된 난로와 깡통 같은 고철을 모아야 했다. 이는 탱크, 선박, 비행기 등을 만드는 데 다시 사용됐다.



함께 확인해요

❶ 미국 정부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 정책을 추진했다.

❷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 전쟁을 일으켰다.

❸ 검색 UP 전쟁으로 고통받은 청소년들의 사례를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안네 프랑크, 소년병

주제

47 대량 학살과 인권 침해

관련 주제
주제40(192쪽)
주제46(208쪽)

핵심 질문
세계 대전 중의 전쟁 범죄로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

01 세계 대전으로 발생한 대량 학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인류의 비극이었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은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큰 전쟁으로, 사망자만 5,000만 명에 달했다. 연합국과 추축국 모두 피해를 봤으며, 전후방을 가리지 않은 폭격에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큰 고통을 겪었다. 추축국은 민간인을 계획적으로 공격하고 대량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다.



→ **독일의 폭격으로 파괴된 영국의 코번트리 대성당**(1940)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한 이후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곳에 강제 수용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유대인, 집시, 사회주의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을 이곳에 가두어 고된 노동에 동원하고 체계적으로 학살했다. 이를 **홀로코스트**라고 부른다. 특히 나치당은 독일의 고통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며 인종 차별 정책을 펼쳤다. 전쟁 중 나치가 학살한 유대인은 약 60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교과서 속의 홀로코스트



↓ **아우슈비츠 수용소**(폴란드 오시비엥침) 나치 독일이 유대인, 사회주의자 등을 가둔 수용소이다. 정문에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쓰여 있다. 이 표현에는 유대인은 일하지 않는다는 편견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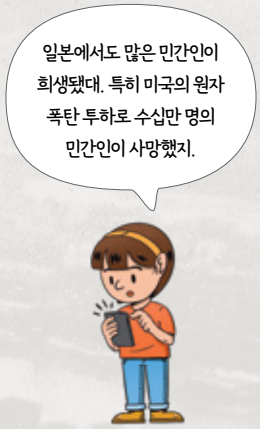
↑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아이들**(1945)

일본군의 민간인 학살 일본군은 중일 전쟁 당시 점령한 지역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곳에 사는 민간인을 학살했다.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한 후에는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십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살해했다(**난징 대학살**, 1937~1938).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도 일본군에 의한 학살, 노동, 굶주림 등으로 수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 **난징 대학살 당시 일본군의 만행에 관한 기사** 두 명의 일본군이 중국인의 머리를 베는 경쟁을 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이 "이 경쟁은 꽤 재미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는 기념의 현장

❶ 유대인 학살의 역사를 증언하는 다뉴브강 강가의 신발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헝가리의 다뉴브강 강가에서 나치즘 성향의 민병대가 수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신발을 벗게 한 뒤 총으로 쏴 살해했다. 2005년 헝가리의 예술가들은 당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당시 유행했던 모양의 신발을 예순 켤레 만들어 다뉴브강 강가에 설치했다.



→ **다뉴브강 강가의 신발들**(헝가리 부다페스트)



❷ 일본군에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비

필리핀 마닐라에 세워진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군은 필리핀에서 미군과 전투하던 과정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 위령비에는 "(일본군이) 10만 명이 넘는 남자, 여자, 아이들과 아기들을 살해했다."라고 쓰여 있으며, 학살로 죽어 가는 사람들이 조각되어 있다.

← **마닐라 전투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필리핀 마닐라)

❸ 난징 대학살 희생자 기념관

난징 대학살이 일어났던 자리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기념관 입구에는 죽은 아이를 안고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이곳에 가면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 현장과 희생자가 30만 명에 이른다는 내용이 새겨진 '재난의 벽'을 볼 수 있다.

→ **기념관 입구의 조형물**(중국 난징)



↑ **재난의 벽**(중국 난징)

탐구 ①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을 담은 기념물을 만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02 세계 대전 중의 인권 침해



전쟁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인 행위이다. 세계 대전 중에도 여러 지역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일부 국가는 다른 민족이나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며 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 강제 이주와 강제 동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은 다른 나라의 국민을 생체 실험에 이용하기도 했다.

← **일본군 포로수용소에 갇혔던 영국 군인들**(1945)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 빵을 배급받고 기뻐하고 있다. 일본군의 가혹한 대우로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려 온 이들은 대부분 앙상한 몸을 하고 있다.

강제 이주 다른 민족이나 인종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추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했다.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한 후 독일인을 이주시키기 위해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했다. 전쟁 막바지에는 소련의 스탈린이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 살던 타타르인을 독일에 협력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 **타타르인 강제 이주를 묘사한 그림** 소련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여러 소수 민족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바 있었다. 1989년 소련 의회는 소수 민족 강제 이주는 범죄라고 인정했다.

강제 동원 세계 대전 당시 점령국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식민지의 물자와 인력을 수탈했다. 이에 많은 식민지 주민이 군수 공장 등에 강제로 동원되어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특히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세계 각지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했다. 그 대상은 주로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일본이 점령한 지역의 여성들이었다. 취업 사기, 협박, 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본군에 끌려간 여성들은 인권을 유린당하며 고통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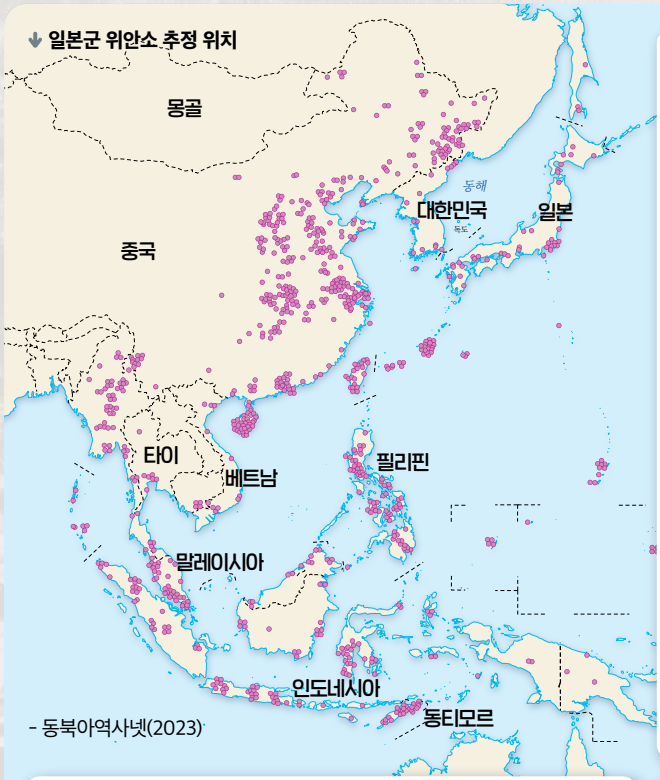


↑ **하시마**(군함도) 해저 탄광이 있는 섬으로, 많은 한국인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희생된 곳이다. 강제 동원의 역사를 기재하는 조건으로 세계 유산에 등재됐으나 일본은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탐구 ② 강제 동원이나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증언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의 삶

1990년대 이후 각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과거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군대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동북아역사넷(2023)

한국인 박영심의 증언

라슈(라시오) 위안소에서 치욕스러운 2년간의 세월을 흘려보낸 후 나는 다시 미얀마와 중국의 국경 지대인 마쓰야마(쑹산)로 끌려갔다. …… 놈들(난징의 일본군)은 이렇게 못되게 놀다가도 처녀들이 병에 걸리면 가차 없이 어디론가 실어 가거나 죽이곤 했다.

- 『짓밟힌 인생의 웨침』(1995)

2000년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여성 국제 전범 법정에서 박영심은 한 사진을 가리키며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혔다. 그녀는 중국 난징과 쑹산, 미얀마 라시오에서 있었던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 자신이 찍힌 사진을 들고 있는 박영심

네덜란드계 호주인 얀 루프 오헤른의 증언

우리는 일본식 꽃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받았는데, 위안소 문마다 그 이름들이 핀으로 박혀 있었다. 나는 키가 작고 똥똥한 대머리 장교가 일본도로 위협하는 가운데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다.

- 『신동아』(2007. 5. 25.)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 나고 자란 얀 루프 오헤른은 스물한 살에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다. 그녀는 1992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 일제의 만행을 고백하는 얀 루프 오헤른

동티모르인 이네스 마젤란 곤살베스의 증언

나는 위안소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 그 아이가 3개월이 됐을 즈음 일본군이 철수했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빼앗겼다.

- 『동티모르 전쟁에서 살아남은 여성들』(2007)

동티모르에 살던 이네스 마젤란 곤살베스는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그녀는 2000년의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을 계기로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 증언집을 들고 있는 이네스 마젤란 곤살베스

탐구 ③ 세 인물을 검색해 증언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자.

탐구 ④ 인권을 회복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함께 확인해요

❶ 나치 독일이 유대인, 사회주의자 등의 소수자를 체계적으로 학살한 사건을 □□□□□(이)라고 부른다.

❷ 일본은 점령지의 여성들을 일본군 '□□□'(으)로 동원해 유린했다.

주제

48 평화와 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

관련 주제
주제42(198쪽)
주제52(234쪽)

핵심 질문

전후 국제 사회는 전쟁의 비극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한국의 독립을 논의한 국제 회담

01 평화를 위한 노력과 새로운 국제기구의 등장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 연맹은 미국 등의 강대국이 불참했으며, 침략 행위를 막을 군사적 수단이 없었다(195쪽 참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연합국 대표들은 전후 처리와 평화 유지의 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1941년에 미국과 영국은 **「대서양 헌장」**을 발표해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밝히고 새로운 국제 평화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전후 대서양 헌장의 정신에 따라 **국제 연합(UN)**이 창설됐다. 국제 연합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국제 연합군(유엔군)을 파견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데, 무력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연맹과 달랐다.

「국제 연합 헌장」

우리는 ……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했다.

전범 재판을 받은 독일과 일본

1945년 8월 연합국은 민간인을 대규모로 해치는 전쟁 범죄를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일본의 도쿄에서 국제 군사 재판이 열렸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나치에 협력한 사람들을 재판해 처벌하기도 했다.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행위를 함.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1945~1946)



- 주요 나치 전범 총 24명이 기소됨.
- 괴링 등 12명이 사형, 헤스 등 3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음.
- 나치의 만행이 온 세상에 드러남.
- 전쟁 중 민간인 대상의 비인간적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함.

극동 국제 군사 재판(1946~1948)



- 주요 전범 총 28명이 기소됨.
- 도조 히데키 등 7명이 사형, 16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음.
- 히로히토 천황 등 고위급 전범 대부분 책임이 면제됨.
- 731부대가 벌인 생체 실험도 처벌받지 않음.

탐구 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열린 전범 재판의 효과와 한계를 이야기해 보자.

탐구 ② 독일과 일본이 전후 과거사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독일 과거사 반성, 일본 과거사 반성, 야스쿠니 신사 참배

02 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

국제 연합은 전쟁 중의 인권 침해를 반성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1948년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사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도 포함됐다.

「세계 인권 선언」

-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 제25조 1항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사회 복지를 포함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또는 기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세계 인권 선언」과 엘리너 루스벨트** (1949)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엘리너 루스벨트가 「세계 인권 선언」 작성을 주도했다.

03 사회 보장과 복지의 확대

제2차 세계 대전 전후로 노동자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대공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실업 급여, 사회 보험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했다(208쪽 참고). 각 정부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무렵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단결권, 단체 교섭 및 행동권, 최저 임금제 등을 확보했다.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한 ❶복지 국가 이념이 제시됐다. "요람(갓 태어난 아이를 태워 놀게 하는 물건)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이 정책은 전쟁 이후 많은 국가의 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❶ **복지 국가**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확대 및 행복의 추구를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 **각 나라가 복지 정책을 시행한 까닭은 무엇일까?**

대공황과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를 시장의 흐름에만 맡겨 둘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 케인스라는 경제학자는 국가가 경제에 계획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특히 그는 일자리를 늘리고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각 나라의 정부는 실업자와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정비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어. 이는 전쟁 이후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어.

함께 확인해요

❶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 평화 기구인 □□□□이/가 만들어졌다.

❷ **생각 UP**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세계 인권 선언」 조항처럼 작성해 보자.



↑ **가족 수당을 받는 영국인들**(1946)



창의 쑥쑥 활동

모둠 활동

4명으로 구성한 모둠 단위로 20세기 전반기에 평화와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조사하고, 그에게 평화상을 수여합니다.

활동 방법

❶ 인물 선정하기

[보기]에 있는 인물을 참고해 20세기 전반에 평화와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상을 수여할 인물을 한 명씩 고릅니다.

❷ 내용 정리하기

해당 인물이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과 인물이 평화와 인권 회복을 위해 전개한 활동을 정리하고, 그것을 평가해 의미를 부여합니다.

❸ 평화상 상장 만들기

-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의 이름을 정하고, 해당 인물을 선정한 까닭과 인물의 업적을 담아 상장 문구를 작성합니다.
- 상의 이름과 문구에 맞게 상장을 꾸밉니다.

❹ 평화상 시상하기

가상으로 평화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❺ 소감문 작성하기

각 모둠에서 선정한 수상자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소감문을 작성합니다.

유의 사항

- 국적,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인물을 조사해 선정합니다.
- 발표할 때는 인물의 생애, 중요한 활동, 평가와 의미를 정리해 발표함으로써 다른 모둠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지

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평화상 수여하기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전쟁 중에 굶주림, 질병, 학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인류의 평화를 위해 용기를 내어 말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사람을 찾아 평화상을 수여해 봅시다.

01 인물 선정하기

[보기]

예시 ☑ 헬렌 켈러(1880~1968) 194쪽



여성 참정권 운동, 장애인 권리 증진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미국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에 반대했다.

☐ 조피 숄(1921~1943) 209쪽



나치 독일 시기 히틀러의 독재에 맞서 비폭력 저항 조직인 백장미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 하세가와 데루(1912~1947) 209쪽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후, 일본 병사들을 상대로 일본의 중국 침략을 반대하는 라디오 방송을 했다.

☐ 오스카 쉰들러(1908~1974) 212쪽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 약 1,200명을 구출했다.

02 내용 정리하기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예시 헬렌 켈러는 1880년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녀는 청각 장애와 시각 장애를 지니고 있었어. 그녀가 살던 당시에는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장애인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어. 1914년에는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며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지.

어떤 활동을 했을까?

예시 헬렌 켈러는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의 참전과 병사 징집에 반대했어. 전쟁은 수백만 인류의 목숨을 빼앗고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호소했지. 그녀는 한때 장애인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글을 쓰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를 철회하고 인권 운동에 매진했어.

활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시 헬렌 켈러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퍼져 있던 사회에서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했어. 그녀는 여성 참정권 획득, 전쟁 반대, 장애인 권리 보장 등을 강력히 주장했지. 그리고 이런 주장을 통해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어.

03 평화상 상장 만들기

예시

용감한 평화인상

수상자: 헬렌 켈러

위 인물은 제1차 세계 대전 미국이 당시 전쟁에 참여하고 병사를 징집하는 것에 용감하게 반대했으며, 여성 참정권 획득, 장애인 권리 보장 등을 강력히 주장해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으므로 후대의 인류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을 드립니다.

○○○○년 ○월 ○일

○○학교 ○학년 ○반 ○모둠 일동



평가하기

- 평화와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잘 선정했나요?
- 해당 인물이 살았던 시대와 인물의 활동에 대해 충분히 조사했나요?
- 해당 인물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잘 반영해 상장 문구를 작성했나요?
- 모둠 구성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나요?

스스로 생각하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로 확인하기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 봅시다.

1 지도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보자.



[보 기]

㉠ 국제 연합이 창설되는 계기가 됐다.
㉡ 참호전이 전개되면서 전쟁이 길어졌다.
㉢ 대공황에 따른 경제 침체가 원인이었다.
㉣ 무제한 잠수함 작전 등으로 미국이 참전했다.

2 (가)에 들어갈 인물을 써 보자.

인도는 영국을 도와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다. 그러나 전후 영국은 롤럿법을 제정하는 등 오히려 인도에 대한 식민 지배를 강화했다. 이에 (가)은/는 비폭력·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며 반영 운동에 앞장섰다. 공직 및 세금 납부 거부, 국산품 애용 등을 외친 (가)의 운동에 많은 인도인이 동참했다.

.....

3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 보자.

① 대공황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은 뉴딜 정책을 추진했다. ( )

② 대공황 이후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 )

③ 일본은 대공황 이후 군부가 등장해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군국주의를 추구했다. ( )

추가 확인 문제

역사로 세상 읽기

다음 자료를 읽고 빈칸을 채워 봅시다.



난민들은 새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01 난민은 어떤 사람들일까?



2011년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을 피해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의 모습이야. 난민은 전쟁·재난을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을 말해. 세계 대전 당시에도 난민이 많이 발생했어. 일제 강점기에 해외로 망명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난민으로 볼 수 있어.



난민들은 이주한 나라에서도 취약한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 사회는 난민을 보호하고자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국제 연합 난민 기구를 만들었어. 민간 단체에서도 난민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난민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수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어.

02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난민 보호 노력

러시아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사회주의 혁명과 내전을 겪었는데, 이때 백만 명이 넘는 해외 체류 러시아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해외에 머물던 러시아인은 여권이 없어서 언제라도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었고, 다른 나라로도 갈 수 없었다. 이에 프리드쇼프 난센의 주도로 국제 연맹이 난민을 보호하는 임시 여권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임시 여권은 이후 나치 독일을 피해 외국에 숨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발급됐다. 난센은 그간의 업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때 받은 상금 전액을 난민 구호 사업에 기부했다.



← 난민을 보호하는 임시 여권



→ 프리드쇼프 난센

03 끝나지 않은 '난민의 시대'

오늘날 세계에는 1억 명이 넘는 난민이 있다. 난민 발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전쟁이다. 시리아에서는 끝나지 않는 내전에 나라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수가 천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도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한편 경제 파탄이나 기후 위기도 난민 발생의 이유가 되고 있다. 태평양의 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삶의 터전이 침수될 위기에 빠졌다.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기후 난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 **물에 잠긴 방글라데시 마을**(2012) 국토의 약 80%가 저지대에 놓인 방글라데시에서는 홍수·침식 피해로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검색해요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이유를 찾아보자.

- 아프가니스탄 난민
- 우크라이나 난민
- _____

"난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_____ (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_____ _____"

238 쪽

1991년이 되자 소련은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로 해체됐다.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자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던 레닌 동상도 철거됐다.





234쪽

냉전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에 권위적인 분위기가 커지고 억압적인 질서가 강해졌다. 1968년에 세계 곳곳의 청년과 노동자들이 기존의 질서와 체제에 저항하며 시위를 전개했다.



244쪽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세계 무역 기구(WTO)가 국제 무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하면서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243쪽

오늘날 국제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VI 현대 세계의 전개와 과제

1.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제3 세계의 등장
2. 냉전 체제의 완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
3. 세계화와 지역 세계의 변화

이번 중단원에서는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제3 세계의 등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구할 수 있다.

주제 **49**

냉전 체제의 형성

관련 주제
→ 주제46(208쪽)
→ 주제51(232쪽)
→ 주제53(238쪽)

핵심 질문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같은 편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왜 서로 대립하게 됐을까?

01 냉전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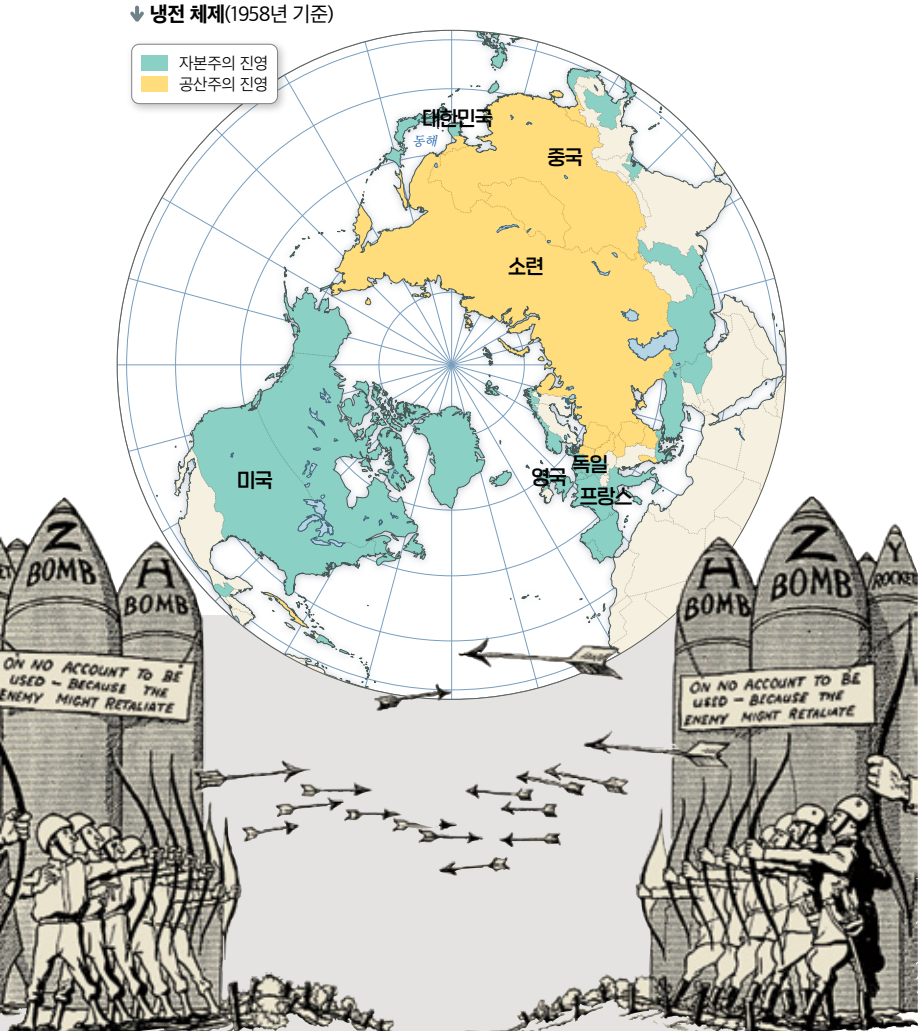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동유럽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정부들이 수립되고, 서유럽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이 성장했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공산주의에 맞서는 나라를 돕겠다고 발표하고(**트루먼 독트린**), 서유럽 경제 재건(다시 일으켜 세움.)을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마셜 계획**). 제2차 세계 대전 중 서로 협력했던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차츰 적대적으로 변했다.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과 함께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창설하고(1949) 소련은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를 설립했다(1955). 미국과 소련은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에 많은 양의 무기와 물자를 지원했고, 각각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을 이끌었다.

핵전쟁에 대한 우려로 미국과 소련 간에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두 진영의 대립 속에서 ❶냉전 체제가 형성됐다(226쪽 참고).

❶ **냉전(Cold War)** 무력 충돌이 아니라 경제, 외교, 정보 등을 수단으로 하는 국제적인 대립과 긴장 상태를 말한다.

냉전 체제(1958년 기준)



독일의 분단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한 독일 지역에 마셜 플랜을 적용하고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자 소련은 베를린을 봉쇄했다(1948). 봉쇄는 이듬해에 풀렸으나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됐고, 1960년대 초에는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기도 했다.

냉전을 풍자한 그림(1953) 양 진영의 핵무기에 "이 무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적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적힌 팻말이 걸려 있다.

탐구 ① 왼쪽 그림은 어떤 상황을 표현했을까?

02 동아시아 냉전과 대립의 격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국공 내전에서 승리를 거둬 **중화 인민 공화국**이 탄생했다(1949). 같은 해에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이듬해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1950). 6·25 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냉전과 대립이 한층 심해졌다.

중국의 공산화



중국에서는 전후 국가 재건을 둘러싸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벌어졌다. 국민당은 미국의 후원을 받았으나 전쟁은 공산당의 승리로 끝났다. 패배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옮겨 갔다.

6·25 전쟁의 발발



한반도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다. 미국은 즉시 국제 연합군을 조직해 한국군을 지원했고, 중국군이 북한군을 지원하면서 약 3년간 전쟁이 이어졌다.

일본의 경제 부흥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미국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전쟁의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경제 부흥의 기반을 마련했다.

냉전 체제 유지를 위한 이념 단속

미국의 매카시즘 1950년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인 매카시는 국무부에 205명의 공산당원이 있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이 발언으로 정계·학계·예술계·언론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낙인찍혀 어려움을 겪었다.



↑ 공산주의 활동에 대해 발언하는 매카시(1954)

소련의 즈다노비즘 1946년 소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여러 예술 작품에 대해 자본주의 색채가 강하다며 비난했다. 위원회의 서기인 즈다노프는 문화 예술계가 당의 노선에 따라야 한다며 검열을 시작했다. 당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박해받았다.



↑ 음악가들 앞에서 연설하는 즈다노프(1948)

탐구 ② 매카시즘, 즈다노비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관련 사례를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찰리 채플린, 아서 밀러, 쇼스타코비치

함께 확인해요

❶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대립 속에서 □□ 체제가 형성됐다.

❷ 생각 UP 6·25 전쟁은 냉전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 쑥쑥 탐구

냉전과 우주 개발 경쟁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우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 잡지는 "인간이 머지않아 우주를 정복할 것이다."라는 제목과 함께 거대한 로켓 우주선의 그림을 실었습니다. 이 무렵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 체제가 형성됐고, 두 나라는 우주 개발을 둘러싼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경쟁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 미국 잡지 『콜리어스』(1952)

01 소련,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이 핵무기인 원자 폭탄을 개발하자 소련도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소련은 1949년에 원자 폭탄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후 수소 폭탄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다. 먼 거리까지 미사일을 쏘는 군사 기술은 로켓을 쏘아 올리는 우주 비행을 가능하게 했다.

1957년 소련은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했고, 이를 소련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후에도 소련은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렸다. 1961년에는 인간을 태운 최초의 우주선인 보스토크 1호를 발사했다. 이 우주선은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돈 뒤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



↑ 소련 정부가 발행한 스푸트니크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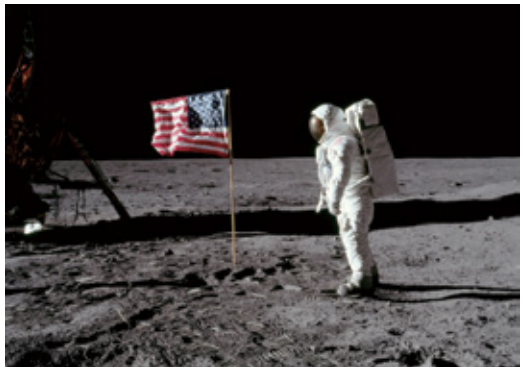


↑ **소련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유리 가가린**(1961) 보스토크 1호에 탔던 소련 공군 출신의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 이름을 알렸다.

02 미국, 달 표면에 인류의 첫 발자국을 찍다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다.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린 기술은 핵무기를 미국 본토로 날려 보낼 수 있는 기술이기도 했다. 위협을 느낀 미국은 곧 과학 연구와 교육 개혁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렸다.

1961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성공하자 미국 항공 우주국은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을 목표로 아폴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 결과 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마침내 달 표면에 착륙했다. 이로써 미국은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다.



↑ **달을 탐사하는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1969)



← **닐 암스트롱** 아폴로 11호의 선장으로, 달 탐사 후 위와 같은 소감을 남겼다.

함께 탐구해요

❶ 냉전 시기에 우주 개발 경쟁이 전개된 까닭은 무엇일까?

❷ 논술 UP› 다음 글을 읽고, 냉전 시기의 우주 개발 경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 미국 내부에서 아폴로 프로그램은 "고용, 의료, 교육에 들어갈 자금과 인력을 빨아들인다."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❸ 검색 UP› 최근 다시 달 착륙을 시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대해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아르테미스 계획, 창어 계획

주제

50 식민지 해방과 제3 세계의 평화 모색

관련 주제
- 주제44(204쪽)
- 주제45(206쪽)
- 주제56(246쪽)

핵심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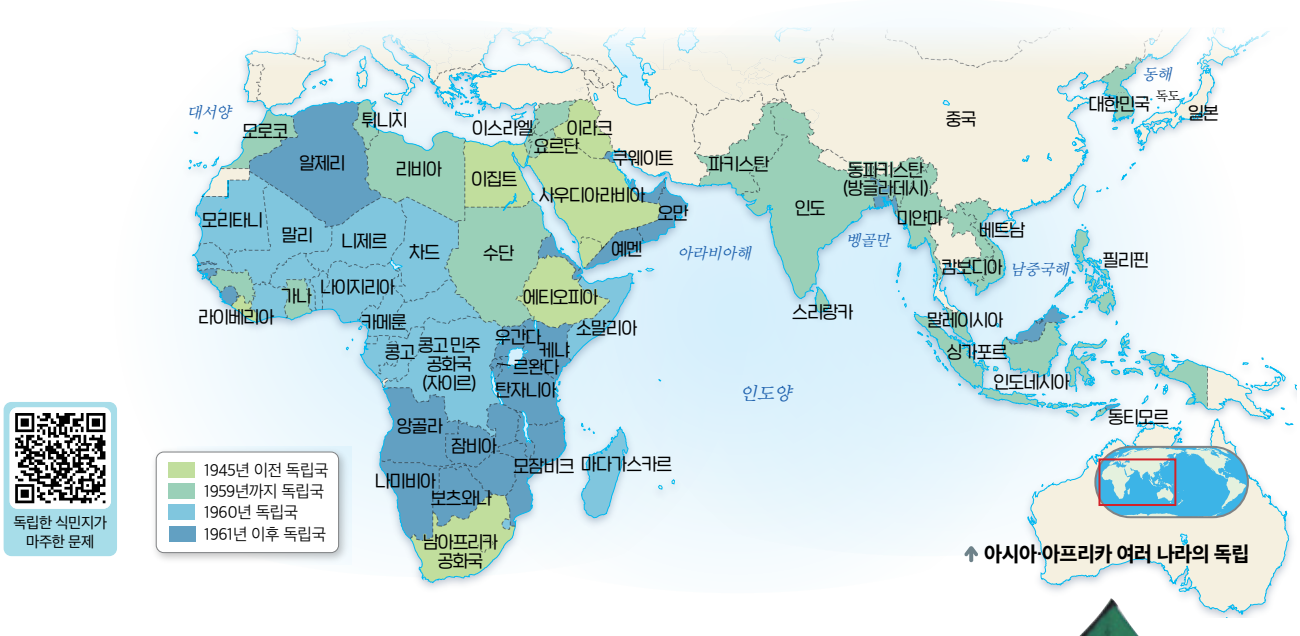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은 냉전 체제 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

01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독립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전 세계의 많은 식민지가 독립을 요구했다. 제국주의 열강은 식민지를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1945년부터 1965년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했다.

독립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인도는 영국의 결정에 따라 파키스탄과 분리 독립됐다(1947). 이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국제 분쟁으로 이어졌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유대인의 이스라엘 건국에 주변 아랍 국가가 반발하면서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났고, 오늘날까지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1960년은 아프리카 17개국이 독립해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렸으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유럽 열강은 아프리카 식민지의 독립을 반대하고 부족 간 갈등을 부추겼다(188쪽 참고). 이에 여러 아프리카 국가는 독립 이후에도 내전을 치르며 빈곤과 불안에 시달렸다.



↑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독립

8년의 투쟁으로 이룬 알제리의 독립

1960년 '아프리카의 해'에도 독립하지 못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있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도 그중 하나였다. 알제리인들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 힘껏 싸웠으나 프랑스는 알제리인을 고문하고 학살하는 등 잔혹한 진압 작전을 펼쳤다. 숱한 탄압에도 긴 저항을 이어 간 알제리는 1962년에 마침내 독립해 민주 공화국을 수립했다.



→ 독립에 환호하는 알제리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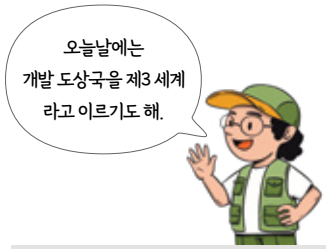
탐구 ① 알제리 외에 1960년이 지나 독립한 나라를 지도에서 찾아보자.

02 평화를 위한 제3 세계의 노력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두 진영 어디에도 속하기를 거부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국들이 등장했다. 이들 국가를 **제3 세계**라고 한다(230쪽 참고).

1955년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29개국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식민주의를 끝내고 민족 자결을 이루며 어떤 진영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평화 10원칙**을 발표했다. 또한 아프리카 식민지 해방 운동에 대한 지지와 군비 축소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의 요구는 미국과 소련의 비협조로 실현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는 1961년부터 정기적으로 **비동맹 회의**를 개최하며 계속해서 독자(남의 견해나 행동에 기대지 않음.) 노선을 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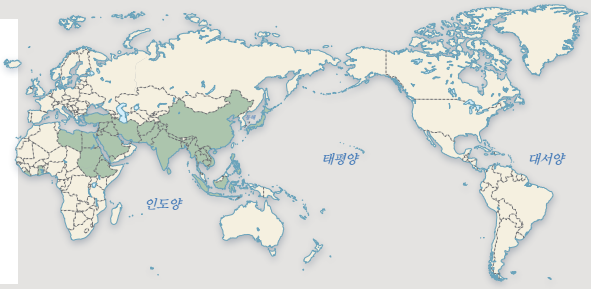
평화 10원칙(일부)

-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보존을 존중한다.
- 모든 인종과 국가 사이의 평등을 인정한다.
-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
- 서로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 제3 세계 형성의 시작,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이곳에 모인 분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낍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유색 인종 대륙 간 회의입니다. …… 이곳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남긴 불굴의 정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투쟁과 희생은 …… 이 회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수카르노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개막 연설



↑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참가국



←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한 제3 세계 지도자들

탐구 ② 제3 세계의 지도자들은 냉전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함께 확인해요

❶ 1960년은 아프리카 17개국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어 '□□□의 해'라고 불린다.

❷ 1955년 인도네시아의 □□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29개국의 대표가 회의를 열었다.



생각 쑥쑥 탐구

혁명가와 예술가의 삶으로 본 라틴 아메리카의 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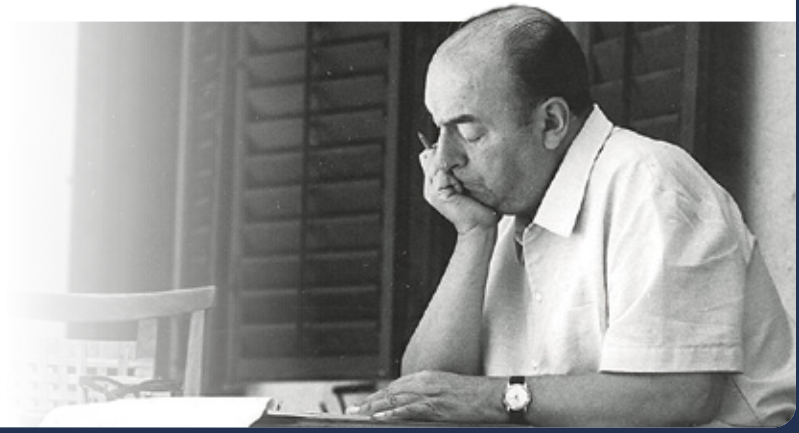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의 영향력이 큰 지역입니다. 냉전 시기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는 미국의 개입으로 분열이나 내전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각 나라에서 권력을 잡은 군부 세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억압과 폭력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냉전 시기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한 혁명가와 예술가의 삶을 통해 당시 역사를 알아볼까요?

01 칠레의 군부 쿠데타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던 시인

파블로 네루다(1904~1973)는 칠레의 시인으로, 지금도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외교관이자 정치가로서 민중의 삶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네루다의 정치적 동지였던 아옌데가 1970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 칠레 정부는 광산, 은행 등 주요 사업을 국유화하고 의료·교육 복지를 확대했다. 사회주의 정부 수립에 불안을 느낀 미국은 칠레 군부를 지원했고, 군부를 이끌어 쿠데타에 성공한 피노체트는 약 17년간 독재를 지속했다. 네루다는 아옌데 정권이 무너진 직후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를 쓰다가 병상에서 사망했다.



↑ 쿠바에서 인쇄된 파블로 네루다 우표



↓ **파블로 네루다** 서정적인 사랑의 시, 사회 현실을 비판한 시, 일상의 소박함을 노래한 시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다. 1971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02 쿠바 혁명과 어느 혁명가의 마지막

체 게바라(1928~1967)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사회주의 혁명가로, 젊은 시절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돌아다니며 대중의 가난, 기아, 질병을 목격했다. 그는 카스트로가 주도한 쿠바 혁명을 도우며 이름을 알렸다. 혁명 정부는 쿠바의 독립을 선언하고, 토지와 주요 산업 국유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이 반혁명 세력을 지원하면서 쿠바와 미국의 갈등이 깊어졌고,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자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후 체 게바라는 쿠바를 떠나 볼리비아 해방군에 들어가 투쟁을 벌이다가 볼리비아 정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 **체 게바라**(좌)**와 카스트로**(우)**의 만남**



→ **쿠바 혁명 광장에 있는 내무부 건물**(쿠바) 외벽에 체 게바라의 얼굴 그림과 함께 "언제나 승리할 때까지"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03 아르헨티나의 국가 폭력과 한 가수의 싸움

메르세데스 소사(1935~2009)는 아르헨티나의 가수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쿠데타가 일어났고, 1976년 초 비델라 군부가 권력을 잡으면서 공포 정치가 시작됐다. 군부는 자신들의 통치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을 '불순분자'로 지목하고 탄압했다.

소사는 군부의 억압에도 반독재와 저항의 노래를 부르며 민중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1979년 소사는 아르헨티나에서 영구 추방됐다. 그러나 그녀는 1982년 위험을 감수하고 고국에 돌아왔고, 얼마 후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은 무너졌다.

나는 오직 신께만 묻습니다

신께 기도합니다
내가 불의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하소서
내가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하소서
내가 거짓에 둔감하지 않게 하소서



↑ **노래하는 메르세데스 소사**

함께 탐구해요

1 각 인물은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했을까?

2 검색 UP 세 인물 중 한 명을 검색해 그(녀)의 삶에 대해 더 알아보자.

이번 중단원에서는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과 냉전 이후 국제 질서의 변화를 탐구할 수 있다.

주제 51

관련 주제 → 주제49(224쪽)

베트남 전쟁과 냉전 체제의 변화

핵심 질문
베트남 전쟁은 냉전이 한창이던 당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01 베트남 전쟁의 전개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베트남은 독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식민 통치를 지속하려고 했다. 베트남은 프랑스에 맞서 싸워 승리했지만,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으로 분단됐다(1954).

북베트남에는 호찌민의 주도하에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섰고, 남베트남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정부가 들어서 반공 정책을 펼쳤다. 그러자 베트남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이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을 결성해 남베트남 정부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 미국은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의 배후로 북베트남을 지목하고 대규모 폭격을 퍼부으며 **베트남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

미국은 베트남에 많은 무기와 병력을 투입했지만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사상자만 증가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에서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미군이 철수하고 남베트남이 함락되면서 베트남 전쟁은 끝이 났다(1975).



→ **남·북베트남의 영역** 미국은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인도차이나반도 전역에 공산주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여겼다.

베트남 전쟁이 남긴 상처, 네이팜탄과 고엽제



↑ **'네이팜탄 소녀'로 알려진 낌푹**(2022) 미군은 베트남에서 매우 높은 온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불태우는 네이팜탄을 사용했다. 당시 네이팜탄 폭격으로 화상을 입고 도로를 달리는 낌푹의 사진은 베트남 전쟁의 참혹함을 알렸다.



↑ **미군이 고엽제를 뿌린 이후 말라 죽은 나무들**(1976) 미군이 밀림 속의 베트남군을 찾기 위해 사용한 고엽제는 나무를 말리는 독성 화학 물질로, 베트남인의 건강과 생태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

탐구 ① 전쟁으로 생태환경이 파괴된 사례를 검색해 소개해 보자. 추천 검색어 에코사이드, 6·25 전쟁과 환경 파괴

02 냉전 체제의 변화

베트남 전쟁이 길어지자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은 새로운 외교 원칙을 발표했다(**닉슨 독트린**).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피할 것이며, 각 국가가 스스로 적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무렵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맹국 간의 관계도 변화했다.

변화를 감지한 서독 총리 브란트는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을 방문해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동방 정책**). 미국은 베트남에서 군대를 철수하면서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소련과 대립하던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소련도 미국과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맺어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합의했다. 군비 경쟁이 완화되고 미국과 소련의 대립 관계가 차츰 약해지며 냉전의 긴장이 느슨해졌다.

● 「군비 회담의 역사」(1985)



탐구 ② 위 만화에서 풍자하고 있는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의 실상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냉전 체제를 흔든 장면들



↑ **중국과 소련의 분쟁 풍자화** 중국과 소련은 사회주의 노선과 국경선을 두고 대립했다. 1969년에는 양국의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 **폴란드를 방문한 브란트**(1970)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유대인 위령탑에서 전쟁 당시의 잘못을 사죄했다. 이를 계기로 서독과 동유럽 국가들의 관계가 차츰 개선됐다.



↓ **마오쩌둥**(좌)**과 닉슨**(우)**의 만남**(1972)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주석 마오쩌둥과 만났다. 이 만남은 냉전 체제가 완화됐음을 세계에 알렸다.

함께 확인해요

❶ □□ 독트린은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피하겠다는 선언이다.

❷ **생각 UP** 적대적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관계를 개선한 까닭은 무엇일까?

주제

52 1968년, 권위와 억압에 맞선 사람들

관련 주제
→ 주제48(216쪽)
→ 주제56(246쪽)

핵심 질문

냉전에 대한 저항은 국제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01 1968년의 세계

냉전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에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가 강해졌다. 청년과 노동자들은 자신을 속박하는 기존의 질서와 체제에 저항하기 시작했고, 1968년에는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베트남 전쟁 반대를 비롯해 인종과 성별에 대한 편견, 물질만능주의(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등을 거부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기성세대가 만든 문화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동유럽에서는 소련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이 펼쳐졌다.



1968년 세계 각지의 시위



❶ 체코슬라바키아 프라하

"당신과 나의 자유를 위해!"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목표로 자유·민주화 개혁이 일어났다. 그러나 소련의 간섭과 침공으로 개혁이 중단되자 사람들은 거세게 저항했다.



❷ 프랑스 파리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프랑스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의 억압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노동자들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벌이며 대학생들을 지지해 1968년 혁명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❸ 독일 베를린

"호! 호! 호찌민!"

독일에서 열린 국제 베트남 회의에 참가한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에 반대했다. 이들은 베트남과 연대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호찌민의 이름을 환호했다.



❹ 일본 도쿄



"제국 대학을 해체하라!"

일본 대학생들은 기성세대의 억압과 불투명한 대학 운영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대학 정문에 대학을 해체하라는 구호를 적어 놓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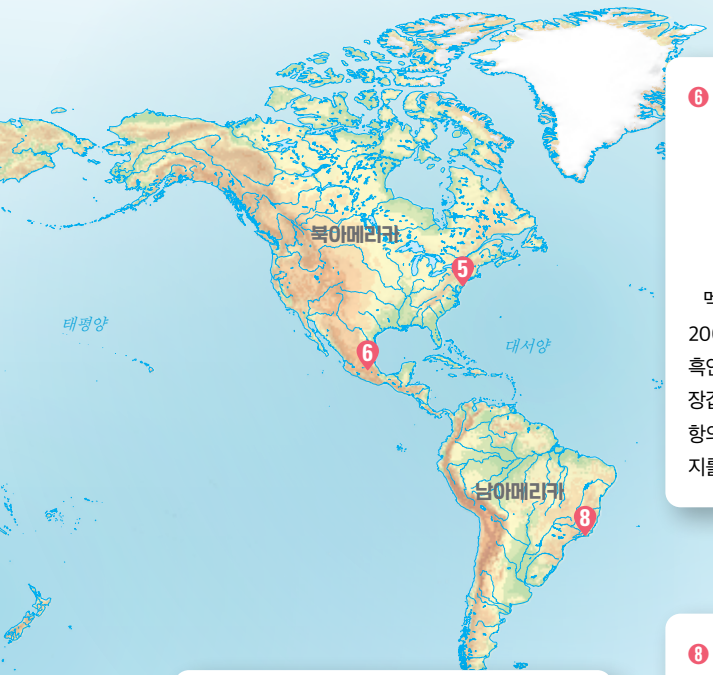
❺ 미국 애틀랜틱시티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 반대한다!"

여성 운동가들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미인 대회(미스 아메리카 대회) 개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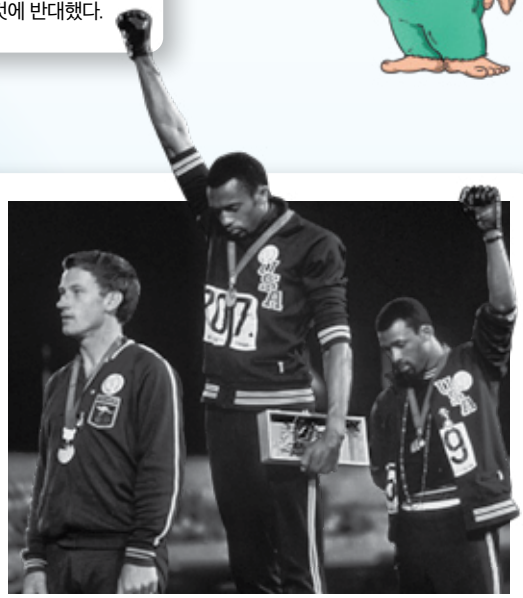




❻ 멕시코 멕시코시티

"인종 차별에 반대한다!"

멕시코 올림픽 당시 남자 육상 200m에서 메달을 차지한 미국의 흑인 선수들이 시상식에서 검은색 장갑을 낀 손을 들어 인종 차별에 항의했다. 그 옆의 백인 선수도 배지를 달아 항의에 동참했다.



❼ 세네갈 다카르



"우리도 파업에 동참한다!"

높은 물가, 실업,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의 지배를 반대하던 세네갈의 노동조합은 학생들과 함께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르

"독재를 타도하라!"

미국의 지원 아래 쿠데타에 성공한 브라질 군부는 독재를 일삼았다. 1968년 브라질 시민들은 군사 독재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다.



탐구 ❶ 1968년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시위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을까?

탐구 ❷ 각 시위에서 나온 주장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02 사회 운동의 확산

❶ **민권 운동** 국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운동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1968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저항으로 사회 운동이 이전보다 더욱 성장했다. 20세기 후반에는 **반전 평화 운동**, ❶**민권 운동**, **여성 운동** 등이 활발해졌다. 이에 **노동 운동** 중심이었던 사회 운동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했다.

평화를 위한 노력, 반전 평화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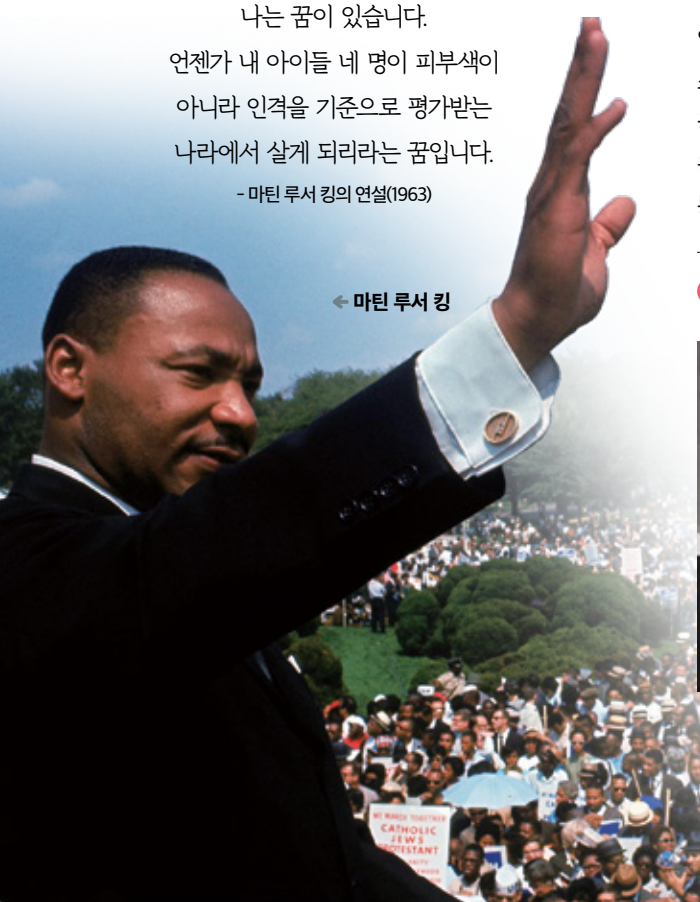
1968년 미군이 베트남 중부 미라이 마을의 민간인 수백 명을 무참하게 학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더욱 악화됐고, 국제 사회에서도 반전 여론이 빠르게 퍼졌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반전 평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미국 내 반전 운동**(1971)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렸던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이다. "내 아들이 베트남에서 죽었다. 무엇을 위해서?"라는 피켓이 눈에 띈다.

민권 신장을 위한 노력, 흑인 민권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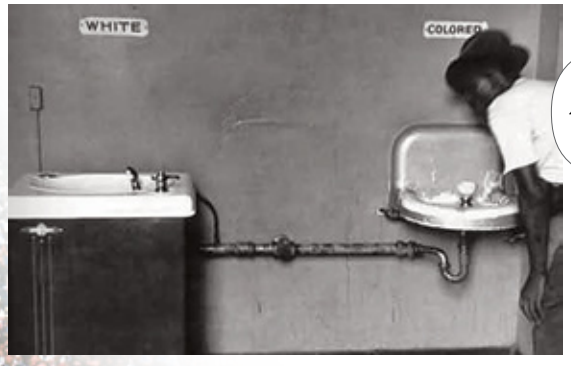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 네 명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 마틴 루서 킹의 연설(1963)



← **마틴 루서 킹**

20세기 미국에서는 백인과 흑인의 활동 공간을 분리하고 흑인을 차별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1955년에는 흑인인 로자 파크스가 백인에게 버스 앞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를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흑인 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마틴 루서 킹 목사는 철저한 비폭력 운동으로 흑인 차별 반대 시위를 이끌었다. 이런 노력으로 1964년 민권법이 통과되며 법적으로 흑인과 백인 사이의 차별이 없어졌다.

탐구 ③ 백인과 흑인의 활동 공간 분리가 왜 문제일까?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음수대**(1950) 크고 깨끗한 백인용(좌)과 작고 지저분한 유색인용(우)으로 구분됐다.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여성 운동

1960년대 후반부터 여성들은 더 치열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며 남성 위주의 권위적 문화와 여성 차별에 맞섰다. 여성들은 자기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교육, 취업, 임신과 출산 등 여러 부문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운동을 펼쳤다.



↑ **남녀 동일 임금을 주장하며 파업한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1968)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 노동 운동

1960년대 후반 노동 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번영을 누려 왔던 세계 경제의 성장이 더뎌지면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사회 보장의 폭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임금·노동 조건 개선뿐 아니라 고용 정책 개선, 노동자의 경영 참여, 사회 보장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 **노동 운동에 참여한 이탈리아의 노동자들**(1969)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 장애인 운동

1960년대 후반부터 활발해진 장애인 운동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회, 대우를 받을 권리를 요구했다. 또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관련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73년 미국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재활법이 통과됐다. 이는 장애인 시민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법률이었다.

함께 확인해요

❶ 19□□년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사회 질서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❷ **생각 UP** 20세기 후반의 사회 운동가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 **미국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하는 장애인들**(1972)



주제

53 냉전 체제의 붕괴와 국제 사회의 변화

관련 주제
→ 주제49(224쪽)
→ 주제55(244쪽)
→ 주제56(246쪽)

핵심 질문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국제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01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국제 질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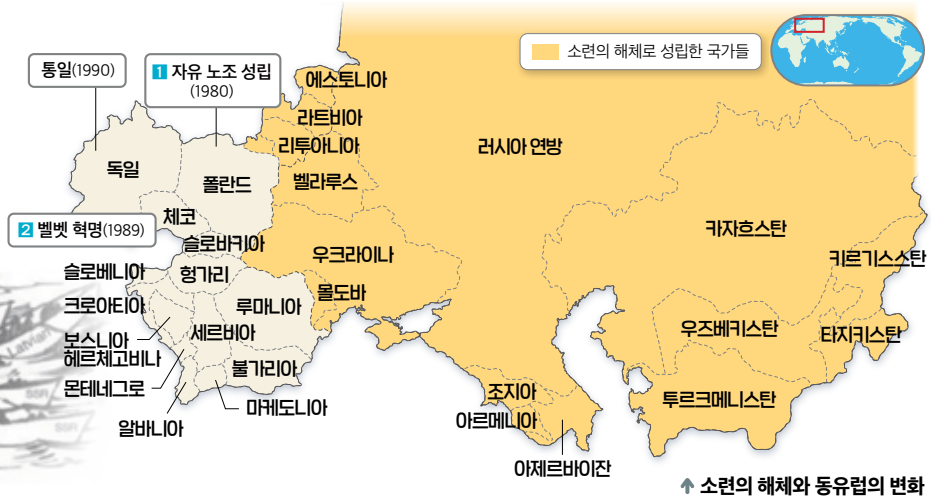
발전하거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1970년대 이후 소련은 국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정체되며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는 **개혁**(페레스트로이카)을 시작했다. 그는 시장 경제 원리를 받아들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미국과 협상해 군사비 지출을 줄이려고 했다. 또한 **개방**(글라스노스트) 정책도 펼쳤는데, 언론에 대한 검열을 폐지하고 정보를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했다.

개혁·개방 정책 속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동유럽에서 **민주화 운동**이 거세졌다. 1989년에는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통일이 이뤄졌다. 이 무렵 동유럽 여러 국가에서 공산당 지도부가 물러나고 개혁 정부가 들어섰다. 1991년이 되자 소련이 여러 나라로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진영은 붕괴했다.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확립됐고, 세계 각국은 이념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지역 단위의 연대를 강화했다(244쪽 참고).



소련의 해체를 풍자하는 그림 소련을 의미하는 큰 배가 침몰하고 있고, 연방을 이루던 국가들을 의미하는 작은 배들이 탈출하고 있다.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의 변화

1 폴란드의 자유 노조 성립(1980) 조선소 노동자였던 바웬사는 자유 노조 운동을 주도했으며, 사회주의 정권 몰락 이후 민주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2 체코슬로바키아의 벨벳 혁명(1989) "벨벳처럼 부드럽게, 피 흘리지 않고 공산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라는 의미로, 한 정치가의 연설에서 유래했다.



02 아시아의 사회 변화

1970년대 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며 아시아에서도 냉전 체제가 크게 변화했다. 중국은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후 베트남도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했다.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할 무렵 아시아의 시민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체제 개혁을 요구했다. 한국, 중국, 필리핀, 미얀마 등에서 독재 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문화 대혁명과 중국의 개혁·개방

1980~1990년대 아시아의 민주화 운동



시민들의 시위 끝에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1987, 역사② 190쪽 참고).

시민들의 투쟁으로 40년간 유지된 계엄령이 폐지되고 민주화 개혁이 시작됐다(1987~1990).

시민 연합이 주도한 시위를 정부가 폭력으로 진압한 후 새 헌법을 만들었다(1992).

부정 선거를 저지른 독재자 마르코스를 가톨릭교회와 시민이 힘을 모아 몰아냈다(1986).

학생 주도의 시위로 독재자 수하르토가 물러났다(1998).

톈안먼 사건

개혁·개방 정책 이후 사회 개방의 분위기 속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으나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1989).



↑ **톈안먼 광장에 모인 시민들**(1989) 민주의 여신상을 둘러싸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8888 항쟁, 그리고 그 후

군부의 지배를 받던 미얀마에서는 1988년 8월 8일 민주화를 요구하는 8888 항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군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권력을 되찾았다. 2015년에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세력이 총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군부는 2021년에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에 각지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군부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 **미얀마의 시위대**(2021) 한 시민이 저항의 표시로 세 손가락을 펴서 들고 있다.

함께 확인해요

❶ □□□□□은/는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을 주도했다.

❷ 생각 UP↗ 냉전 체제가 무너질 무렵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주요 요구 사항은 무엇일까?

생각 쑥쑥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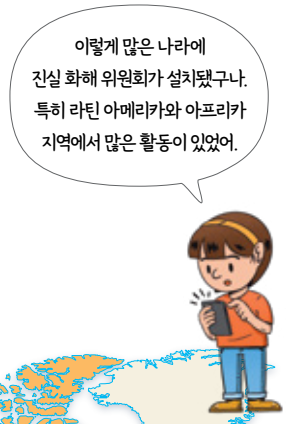
진실과 화해를 통해 어두운 과거 극복하기

'과거사 정리'란 전쟁이나 독재처럼 폭력과 억압이 커진 상황에서 일어난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를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말합니다.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어두운 과거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과거사 정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살펴볼까요?



01 어두운 과거를 밝히는 진실 화해 위원회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여러 나라는 과거에 발생한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각 나라는 진실 화해 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원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라틴 아메리카·아프리카·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냉전 시기 독재 정권이 저지른 국가 폭력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 국가는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배상에도 힘썼다.



- 「Mandating Truth」(2020)



대한민국의 진실 화해 위원회

↑ 진실 화해 위원회 활동이 전개된 지역

02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의 상처를 어루만지다

1961년에 건설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고 차별하던 정책(아파르트헤이트)을 지속하며 이에 저항하는 흑인들을 잔인하게 탄압했다. 1994년 대통령에 취임한 넬슨 만델라는 이런 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진실 화해 위원회'를 만들어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흑인에게 가해진 폭력과 범죄의 진상을 밝혔다. 그뿐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게 했으며,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국민 통합과 화해를 이루고자 했다.

> 용서하라는 말은 잊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런 잔학 행위가 다시 벌어지지 않게 막을 수 있다.
>
> - 남아공 진실 화해 위원회의 투투 대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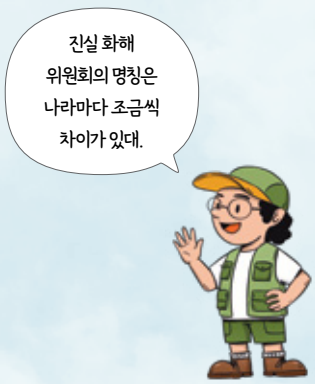
넬슨 만델라와 투투(1998)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 화해 위원회 위원장인 투투가 넬슨 만델라에게 조사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03 과테말라, 집단 학살의 과거를 반성하다

20세기 과테말라에서는 군부 독재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단체가 오랫동안 내전을 치렀다. 과테말라 군부는 저항 단체의 지지 기반이 된다는 이유로 농촌의 원주민을 살해하고 촌락을 철저히 파괴했다. 과테말라 내전은 1994년 국제 연합의 중재로 평화 협정이 체결되며 끝났다. 이후 '역사 진실 규명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어 군부가 주도한 원주민 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이들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과테말라 국내 무력 충돌 희생자 추모 기념 행사(2014) 현수막에 희생자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사라진 이들을 위한 정의'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함께 탐구해요

❶ **검색 UP** 지도에 표시된 국가의 진실 화해 위원회를 검색해 각 위원회가 설립된 목적을 소개해 보자.

추천 검색어 캐나다·칠레·알제리·한국 진실 화해 위원회

❷ **논술 UP** '과거사 정리'가 중요한 까닭이 무엇인지 써 보자.

주제

54 대중 소비 사회와 생태 환경의 위기

관련 주제 → 주제56(246쪽)

핵심 질문

대중 소비 사회는 언제 형성됐고, 이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01 대중 소비 사회의 등장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 조건을 개선했다. 이에 대량 생산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가 늘었다. 소비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며 **대중 소비 사회**가 형성됐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세탁기와 냉장고를 이용해 집안일을 하며, 자동차를 모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 **가전제품 광고**(1954) 기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각종 광고를 만들어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했다.

02 생태환경의 위기와 환경 운동의 시작

대중 소비 사회의 형성으로 생산과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환경 파괴와 오염이 심해졌다. 빠른 개발 과정에서 에너지원이 줄어들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했다.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고 동식물이 살아가는 환경이 변화했다.

1962년 레이철 카슨이 『**침묵의 봄**』을 출간하면서 환경 문제를 대중에게 알렸다. 카슨은 농업용 살충제의 화학 물질이 먹이 사슬에 영향을 미쳐 새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환경 관련 법률이 생겨나고 **환경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됐다. 1972년에는 로마 클럽이 ❶『성장의 한계』를 발간하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제 연합 인간 환경 회의가 열리면서 환경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됐다.

❶ **『성장의 한계』** 당시와 같은 추세로 인구 증가, 오염, 자원 약탈이 지속된다면 지구의 자원이 없어져 100년도 안 되어 인류가 파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간 환경 회의와 공해 문제

Q. 인간 환경 회의가 열린 배경은?

스웨덴은 주변국의 공해 물질로 골치를 앓고 있었어. 공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제회의가 열렸지. 이 회의에는 일본의 미나마타병 환자들도 참가해 공해병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렸어.

Q. 공해병이 어떤 병이길래?

공해병은 공해 물질 때문에 생긴 병이야. 대표적 사례가 미나마타병이지. 일본 미나마타 지역의 주민들이 수은으로 오염된 바다의 물고기를 섭취하면서 마비, 뒤틀림 등의 증세가 나타났어. 근처의 공장에서 수은을 사용하고 폐수와 함께 방류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해. 이후에도 공해병은 세계 곳곳에서 반복해 나타났어. 공해를 일으키는 산업이 수출되면서 공해병도 함께 옮겨간 거야.



↑ **스웨덴에 도착한 미나마타병 환자들**(1972)

03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1973년 중동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 이 무렵부터 환경보다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서 ❷**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1992년에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제 연합 환경 정책의 새로운 이념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기후 변화 협약**).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 협약을 실행하기 위해 교토 의정서(1997)와 파리 협정(2015) 등을 체결했다. 특히 파리 협정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도록 한 첫 국제 기후 합의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민간 단체가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❷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 개발을 추구하면서도 생태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발전을 의미한다.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보존하지 않으면 발전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빙하 앞에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2016)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핵 발전을 둘러싼 논란과 환경 운동의 전개

❶ 1970년대 환경 운동의 중심, 반핵 시위

냉전 시기 핵 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됐지만 핵보유국은 해저 및 지하에서 실험을 계속했다. 이에 서유럽을 중심으로 반핵 시위가 전개됐다. 이때 핵 실험 금지를 위한 초국적 환경 운동 단체가 탄생했는데, 그린피스가 대표적이다. 한편 서유럽에서는 녹색당을 비롯한 생태 정당들도 생겨났다.



↓ **미국의 핵 실험을 막기 위해 모인 그린피스 회원들**(1971)

❷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에너지원이 줄어들면서 핵에너지 사용의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면서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조차 지속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다. 사고 당시 엄청난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대기와 토양, 식수가 오염됐고 유럽 전역의 동식물이 방사능 피해를 봤다.



↓ **사고 당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1986)

함께 확인해요

❶ 레이철 카슨은 『□□□□』에서 농업용 살충제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❷ **생각 UP** 『성장의 한계』에서 지적한 문제는 해결됐을까? 지속되고 있을까?

이번 중단원에서는 세계화의 양상과 성과 및 과제를 알아보고, 앞으로 해결할 문제를 탐색할 수 있다.

주제 55

세계화의 여러 얼굴

관련 주제
→ 주제53(238쪽)
→ 주제56(246쪽)

주제 열기
세계화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01 세계화와 달라진 세계

세계화는 교통·통신·전자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 자본, 물자,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현상을 말한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면서 세계화는 빠르게 진행됐다.

자유 무역이 강조되며 각종 규제가 사라졌고,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며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국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가 이뤄졌다. 이에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이 성장했다. 인터넷과 전자 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상품을 실시간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 금융과 무역도 크게 발달했다.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세계 무역 기구(WTO)**가 결성되어(1995) 국제 무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하면서 상품과 자본의 이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변화하는 국제 상황 속에서 무역 경쟁이 치열해지자 지역 단위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는데, **유럽 연합(EU)**이 대표적이다.

지역별 협력체

세계 속 '하나의 유럽', 유럽 연합(EU)의 등장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은 줄곧 공존을 추구하며 국가를 초월한 경제 협력체를 발전시켰다. 특히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자 유럽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통합된 공동체를 희망했다. 결국 1993년 유럽 연합이 조직되어 유럽의 정치와 경제를 통합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농업, 환경, 무역 분야에서 공동 정책을 실행하며 단일 시장을 구성하고 공동 화폐를 사용한다. 또한 각국의 고유한 역할이라 여겼던 국방, 안보, 치안 등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 유럽 연합 회원국
- 유럽 연합(2023)





↓ 공동 화폐 유로화



탐구 ① 유럽 연합이 등장하면서 유럽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02 세계화에 따른 긍정적 변화

세계화로 국가 간 교역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은 싼값에 원하는 물품을 사고 생산자도 넓은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됐다. 이에 많은 사람의 생활이 이전보다 더욱 풍요로워졌다.

문화 교류가 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할 기회가 늘어났다.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 등의 전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식도 강해져 세계 시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인도의 휴대폰 부품 공장 인도, 베트남 등의 개발 도상국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전수를 위해 다국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03 세계화에 따른 부정적 변화

세계화의 풍요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이에 빈부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다. 상품 생산이 늘어나며 환경 파괴의 속도도 빨라졌고, 운송 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도 많아졌다. 다국적 기업의 공장이 들어선 지역에는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느슨한 규제를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품을 만들거나 근로 조건을 어기는 문제도 나타났다.



세계화 반대 시위 세계화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전 세계 1%의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됐다는 인식 아래 세계화 반대 시위도 격렬해졌다.

밥상 위의 세계화

세계화로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식재료를 외국에서 싼값에 들여올 수 있게 되어 식생활이 한층 풍성해졌다. 그러나 원산지의 거리가 멀수록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식재료 정보는 줄어들고, 유통 과정에서 보존제가 들어가는 등 위험도가 커지는 문제도 생겼다.



고등어구이

- 고등어: 대부분 노르웨이 등에서 수입함.
- 카놀라유: 주재료는 캐나다산 유채씨로, 대부분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이지만 물건을 구입할 때 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골뱅이무침

- 골뱅이: 대부분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수입함.
- 파, 오이, 양파, 고춧가루: 국산임.
- 참깨와 참기름: 일부 제품은 '수입산'이라고만 쓰여 있어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함께 확인해요

❶ □□□은/는 사람, 자본, 물자,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 세계가 긴밀해진 현상이다.

❷ **생각 UP**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

> 세계화 이후 세계는 눈에 띄게 더 작아지고 있다. 동시에 세계는 우리의 지평을 전례 없이 넓혀 왔기에 또한 더 커지고 있다.
>
> -『글로벌화의 역사』

주제 56

오늘날 세계의 과제

핵심 질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제 사회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일까?

지속가능한 사회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도 충족하는 사회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수히 많다. 대다수의 과제는 한두 국가나 기구가 아닌 국제 사회 전반의 노력과 변화를 요구한다. 오늘날 세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자.

과제 01 분쟁의 중단과 평화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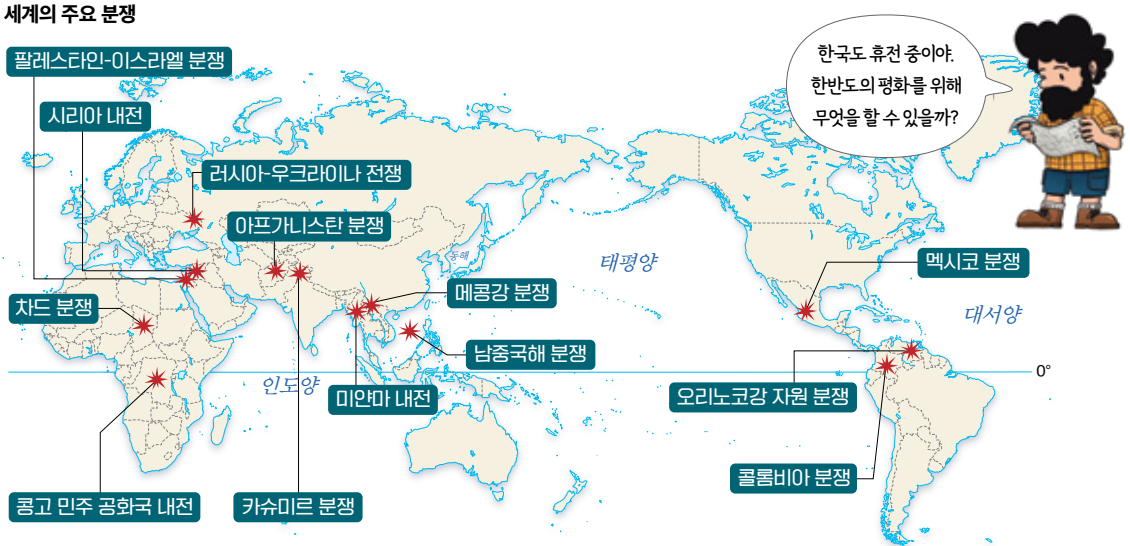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막대한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밀과 연료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식량 불안도 커졌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줄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쟁은 종족, 인종, 종교, 영토 등 다양한 원인이 뒤얽혀 발생한다.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존을 위협하는 분쟁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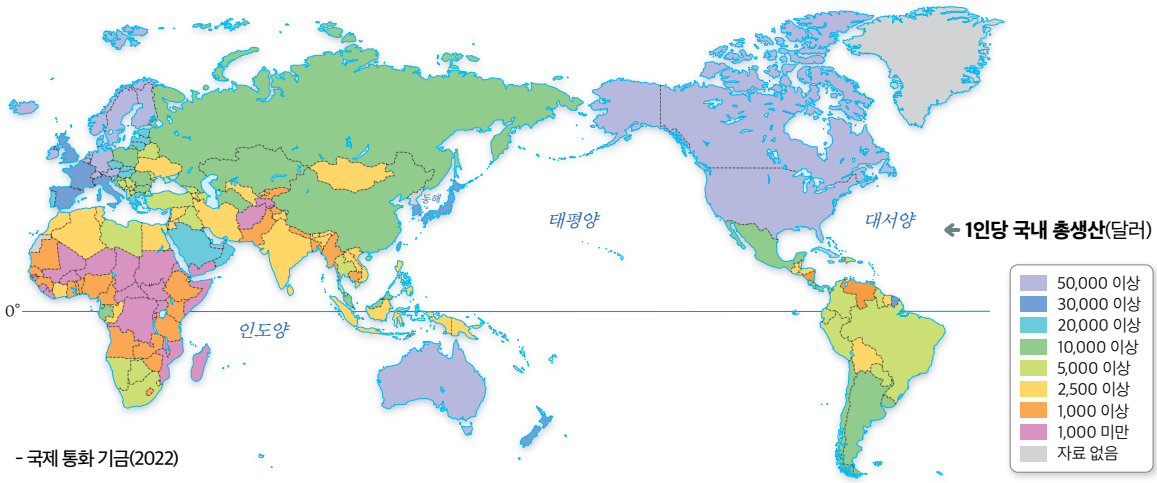
↑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주택가**(2022)

↓ **오늘날 세계의 주요 분쟁**



- 한국 국방 연구원(2023. 1.)

과제 02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 국제 통화 기금(2022)

프랑스 파리 경제 대학교의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2022년에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0%의 부자가 전체 자산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세계 하위 50%의 소유 자산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경제적 불평등은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심해져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20세기 초반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세계화가 확대되고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확대되면서 지역 간 격차도 더 커졌다.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남북문제라고 하는데, 이는 국제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빈부 격차(2018) 요하네스버그의 모습으로, 왼쪽은 빈민 거주지이고 오른쪽은 중산층 거주지이다.



과제 03 민주주의의 확대

지난 10여 년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기 나라의 이익만 추구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분쟁, 경제적 어려움, 기후 변화 등으로 이주민과 난민의 수가 늘어나자 많은 나라에서 일부 정치 세력이 국민의 배타적 정서를 부추기며 인기를 얻었다. 발달한 인터넷 기술로 더 쉽게 퍼지는 가짜 뉴스 또한 공정한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확산하고, 정치적 의도와 경제적 이익에 따라 여론이 왜곡되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과제 04 과학 기술의 올바른 활용

최근 인공 지능 기술이 언론, 교통, 물류 등 각종 분야에 적용되면서 미래 사회를 이끌 새로운 과학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인류는 과학 기술의 발달을 통해 경제 발전과 번영을 누려 왔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을 캐면서 아프리카에서는 환경 파괴가 심해졌다. 기술의 발달에 적응하지 못한 디지털 소외 계층이 나타났으며, 온라인 공간에서는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생기는 사고도 잦아졌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과학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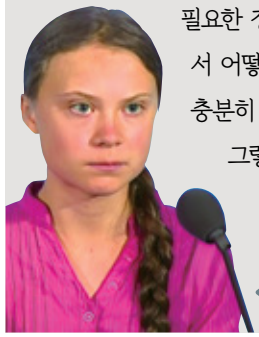
➔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 센터**(2021) 유럽 최대의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은행과 정부 기관, 언론사 누리집이 모두 중단됐다.

과제 05 기후 위기의 극복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량 멸종의 시작 지점에 있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돈과 경제 성장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학은 분명히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필요한 정책과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계속 외면할 수 있습니까?

- 그레타 툰베리의 국제 연합 연설(2019)



← 그레타 툰베리

빠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기후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가뭄과 홍수, 한파, 폭염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을 시작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문은 기후 위기에 처한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보여 준다. 지구 곳곳에서 이상 기후 현상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멸종 생물이 늘어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

←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2022)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 운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됐다.

함께 생각해요

❶ 오늘날 세계의 과제 중 한 가지를 선정하고, 그 까닭을 '나의 삶'과 관련해 서술해 보자.

가짜 뉴스 유포 문제가 가장 걱정돼.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했을 때 가짜 뉴스 때문에 혼란스러웠어.



❷ 모둠 친구들이 서술한 내용을 들어 보고, 어떤 과제를 함께 해결할지 결정해 보자.

우리 모둠에서는 다수 의견에 따라 가짜 뉴스 유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했어.



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각자 작성해 보고, 그것이 적절한지 친구들과 토의해 보자.

- 개인적 노력: 비판적 시각 기르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뉴스 공유하지 말기
- 국가적 노력: 가짜 뉴스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기
- 세계적 노력: 뉴스 내용 검증을 위해 서로 협조하기

❹ 우리 모둠이 정리한 해결 방안을 연설문 형태로 작성해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자.

우리 모둠이 선정한 오늘날 세계의 과제는 가짜 뉴스 유포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





창의 쑥쑥 활동

모둠 활동

3~4명으로 구성한 모둠 단위로 국제 분쟁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탐구해 탐사 보도 방송 대본을 작성해 봅니다.

활동 방법

❶ 주제 고르기

[보기]에 있는 주제들에 대한 기본적 사실을 사전 취재하고, 주제를 확정합니다.

❷ 내용 취재하기

확정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합니다.

- 분쟁이 발생한 까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입장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 얼마나 다르게 표현되는지 친구들과 토론합니다.

❸ 탐사 보도 방송 대본 만들기

조사한 내용을 도입, 전개, 결말로 나눠 대본을 작성합니다.

❹ 이견 조정 및 보완하기

작성한 내용을 모둠원들과 함께 살펴보고,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작성합니다.

❺ 방송 대본 평가하기

방송 대본을 전시하고, 어떤 모둠이 정확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는지 평가합니다.

유의 사항

- 인터넷 검색을 활용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전문 연구 기관, 주요 언론사 등)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 자료를 조사할 때 사실과 의견, 주장과 근거를 구분해 파악하고, 정보의 근거와 출처가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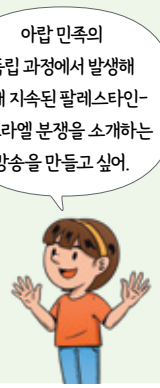
국제 분쟁을 주제로 탐사 보도 방송 대본 만들기

탐사 보도란 기자들이 범죄, 부정부패 등 특정 주제를 직접 샅샅이 파헤쳐 내보내는 보도입니다. 탐사 보도는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탐사 보도 기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번 단원에서 배운 국제 분쟁 사례를 소개하는 방송 대본을 작성해 봅시다.

01 주제 고르기

[보기]

- 예시 ☑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228쪽
- ☐ 카슈미르 분쟁 228쪽
- ☐ 미얀마 내전 239쪽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46쪽



02 내용 취재하기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 예시

1.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2.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이 발생한 까닭(기원)은 무엇일까?
3.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4.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부 기구(NGO)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어떻게 알아볼까? 예시

신문 기사 검색 사이트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볼 거야.

추천 검색어 팔레스타인 폭격, 가자 지구, 중동 전쟁

03 탐사 보도 방송 대본 만들기

예시

도입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지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가자 지구의 모습이다.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국경 지역을 차단하면서 이 지역은 사실상 고립되어 거대한 감옥이 됐다.

전개 1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의 기원

- 영국은 모든 지역에 있는 아랍인들의 독립을 지지하며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맥마흔 선언(1915)
- 영국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며, 이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벨푸어 선언(1917)

영국이 맺은 2개의 모순된 약속이 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결국 1948년 건국을 선언한 이스라엘과 이에 반대하는 중동 국가들 사이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 이후 테러와 암살, 보복 공격이 이어졌으며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다.

전개 2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평화 협정 체결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정치 지도자가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인정하는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충돌을 끝맺는 협정이었으나 협정을 반대하고 파기하려는 세력이 많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결말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은 오래 지속되면서 국제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자 이들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비정부 기구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평가하기

-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제를 선정했나요?
- 출처가 분명하고 내용이 정확한 자료를 조사했나요?
- 탐사 보도를 위한 방송 대본을 적절하게 구성했나요?
- 탐사 보도를 위한 방송 대본에 국제 분쟁 상황이 잘 드러났나요?

스스로 생각하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로 확인하기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 봅시다.

1 지도의 두 진영이 대립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보자.



[보 기]

㉠ 독일과 일본에서 전체주의가 나타났다.

㉡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 연맹이 창설됐다.

㉢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다.

㉣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본주의, 공산주의 진영을 이끌었다.

2 다음 전쟁이 냉전 체제에 미친 영향을 서술해 보자.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은 남베트남 정부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 이후 미국은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의 배후로 북베트남을 지목하고 대규모 폭격을 퍼부었다.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노동자의 임금이 늘어나고 노동 여건이 개선되며 대중 소비 사회가 형성됐어.

대중 소비 사회의 형성으로 _____



추가 확인 문제

역사로 세상 읽기

다음 자료를 읽고 빈칸을 채워 봅시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남겼을까?

01 코로나19가 만든 세상은 어땠을까?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상점의 상품 진열대가 텅텅 빈 모습이야. 2019년에 처음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야 했지. 이를 위해 사람들은 생활 필수품을 사재기했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은 멈춰 섰어. 학교와 관공서 등이 문을 닫았고, 국가 간의 이동과 교류마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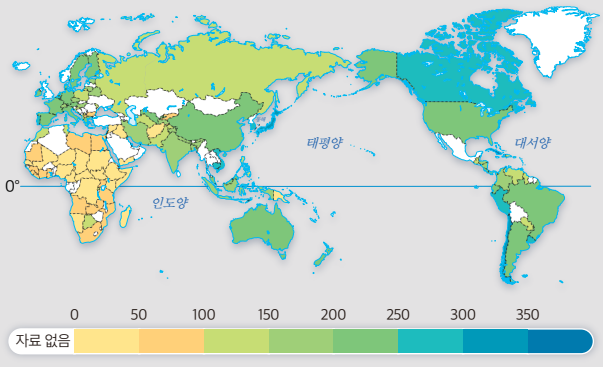
국가 차원의 방역이 잘 이뤄지고, 백신도 개발되면서 코로나19가 불러온 혼란은 어느 정도 수습됐어. 하지만 코로나19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고민거리를 남겼어.

02 코로나19로 늘어난 오늘날 세계의 과제

장면 1 코로나19 종식을 늦춘 백신 불평등

백신 접종은 코로나19에 맞서는 거의 유일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에 백신 공급이 쏠리고 가난한 나라로 백신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백신 불평등 혹은 백신 양극화가 심해졌다. 세계 보건 기구(WHO)에 따르면 코로나19 변이가 생겨나면서 추가 접종을 결정한 부유한 국가들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백신 공급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아프리카의 백신 접종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았다.

- 아우어 월드 인 데이터(2023. 1.)



↑ 100명당 투여된 코로나19 백신 접종량

장면 2 자유인가, 야만인가? 마스크 논쟁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많은 나라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정책이 시행되자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얼굴을 드러내고 진실로 소통할 수 없다면 인간의 사회적 삶은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주장하며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마스크 반대 시위대는 새로운 야만일 뿐입니다.



장면 3 불안감이 키운 혐오 범죄

코로나19 유행 초기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중국 후난성이 지목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중국인, 나아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범죄가 늘었다. 미국 백악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는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에 73%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국내에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 커진 상황과도 유사하다.





검색해요

코로나19 유행 당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찾아보자.

- 백신 외교
- 세계 보건 기구와 코로나19
- _____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꼭 기록해야 해. 왜냐하면 _____ _____"

찾아보기

ㄱ

가나 문자 69
가리발디 154
간다라 양식 47, 48, 49
간석기 25
갈릴레이 134
갑골문 33
강화도 조약 179
개선문 41
게르만족 60, 78~81, 86, 97
견당사 69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7
계몽사상 133, 134, 135, 144
고증학 113
곤여만국전도 113
공장법 164
공장제 기계 공업 161, 188
공포 정치 145, 147, 231
공행 112
공화정 40, 41, 44, 45, 141, 144, 145, 151, 185, 198
과거제 64, 66, 102, 107, 110, 111
과학 혁명 134, 135
곽수경 109, 120
관료제 46, 132, 133
교회 개혁 운동 87
구교 125, 132
구석기 24
95개조 반박문 124, 125
국공 합작 203
국제 노동 기구 199
국제 연맹 195, 209, 216, 221, 252
국제 연합 189, 199, 216, 220, 225, 241, 242, 249
군국주의 209
군벌 185, 202, 203
군현제 51
굽타 양식 71
굽타 왕조 70, 71, 98
귀족 사회 61
균전제 61, 65
그라쿠스 형제 40
그리스 정교 81, 88, 89, 90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37, 39
그림 형제 155
극동 국제 군사 재판 216

ㄴ

나가사키 117, 131, 179, 210, 211
나치즘 209, 213
나폴레옹 57, 145, 146, 150, 171, 188
나폴레옹 법전 146
난징 대학살 190, 213
난징 조약 178
남북문제 247
남북 전쟁 156
남인 107
냉전 223~226, 229, 230, 232~234, 238~239, 244, 252
네루 204, 229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66, 74
노르망디 상륙 작전 210, 211
노트르담 대성당 89
농노 86, 91, 133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 216
뉴딜 정책 208, 220
뉴턴 135
닉슨 독트린 233

ㄷ

다리우스 1세 35, 37, 44, 56, 74
다우선 93
다이묘 116, 117
다이카 개신 69
담배 불매 운동 173
대공황 208, 209, 211, 217, 220
대량 학살 212
대륙 봉쇄령 146
대륙 횡단 철도 156
대승 불교 46, 47, 73
대운하 64, 98, 108
대일본 제국 헌법 181
대중 소비 사회 242, 252
데지마 117
델로스 동맹 37
도요토미 히데요시 116
독립 선언문 143
독소 불가침 조약 210
동아시아 문화 64, 66, 68, 98
동아시아·인도양 교역권 100, 108
동인도 회사 130, 131, 132, 174, 175, 188
동학 농민 운동 182, 188
뗀석기 24

ㄹ

라 마르세예즈 145, 147
라마야나 71
러일 전쟁 184
레닌 196, 196, 222
로마법 대전 80
로마-카르타고 전쟁 40
로크 135
루소 135
루이 14세 133
루이 16세 144, 145, 148, 149
루터 124, 125
룽먼 석굴 62
르네상스 91, 94, 95, 124

ㅁ

마녀사냥 125
마누 법전 70
마르코 폴로 109
마르크스 163
마셜 계획 224
마우리아 왕조 46, 47
마젤란 126
마치니 154
마케도니아 15, 37, 38, 40, 238
마테오 리치 113, 114
마하바라타 71

만주족 111, 136, 180
먼로 선언 157
메디나 14, 75, 76, 77, 82, 83, 93, 170
메이지 유신 181, 183
메카 14, 59, 74, 76, 77, 82~85, 93, 110, 121, 170
메테르니히 150, 152, 157
모스크 77, 82, 84, 85, 88, 93, 98, 123
모헨조다로 32
몽골인 92, 107, 109
무굴 제국 101, 111, 118, 119, 136, 138, 174, 186
무솔리니 209, 211
무스타파 케말 206
무제한 잠수함 작전 194, 220
무함마드 알리 170, 171
문치주의 102, 103
미국 혁명 135, 142, 143, 144, 153
미나렛 82, 83, 84, 119
미일 수호 통상 조약 179
미일 화친 조약 179
미켈란젤로 94, 95
민족주의 146, 154, 155, 171, 172, 203, 209

ㅂ

바그다드 76, 77, 82, 83, 93, 108, 121, 172
바르샤바 조약 기구 224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126
바빌로니아 왕국 30
바스쿠 다가마 126
바이킹 86, 87, 98
박람회 168, 169
백년 전쟁 92
번수의 114, 115
베다 32
베르사유 궁전 133, 148, 149, 155
베르사유 체제 195
베를린 장벽 224, 238
베스트팔렌 조약 125
베이징 조약 178
베트남 전쟁 232, 233, 234, 236
벵골 분할령 175
변법자강 운동 183
병마용갱 10, 11, 13, 21, 51
보스턴 차 사건 142, 143
보통 선거 198
보험업 130
복지 국가 217
볼리바르 157
볼셰비키 196, 197
봉건제 33, 86, 89, 116, 145
부병제 65
분서갱유 51
북대서양 조약 기구 224
브라흐마 70
비단길 16, 52, 54, 55, 62, 102, 120
비슈누 70
비스마르크 155, 167, 176
비잔티움 문화 77, 88, 89, 122
비잔티움 제국 74~83, 86, 88, 90, 95, 97, 99, 106, 108, 121~123, 138
비폭력·불복종 운동 191, 204, 220
빈 체제 150, 151, 152
빈 회의 150

ㅅ

사고전서 113, 138
사대부 104, 105, 107
사라예보 사건 192, 194
사르데냐 왕국 152, 154
사마르칸트 38, 54, 64, 75, 76, 776, 82, 93, 106, 108, 120
사마천 52
사산 왕조 페르시아 70, 74, 75, 76, 80
사자의 서 120
사파비 왕조 120, 121
사회권 217
사회주의 163, 196, 197, 202, 203, 209, 212, 215
사회 진화론 166
산마르틴 157, 186, 187
산스크리트어 71
산업 혁명 8, 118, 160~164, 166, 181, 188
산킨코타이 116
삼각 무역 17, 130, 160, 178
삼국 간섭 184
3국 동맹 192, 193, 194
3국 협상 192
삼부회(삼신분회) 144
3성 6부제 65, 69
30년 전쟁 125
3월 혁명 152, 196
3·1 운동 18, 202
상비군 132
상업 혁명 130
상좌부 불교 46, 47, 72, 73
색목인 107
샤르트르 대성당 89
서로마 제국 황제 79, 81
서민 문화 104, 107, 113
서유기 113
선우 53
선전전 195
성리학 104, 113
성 베드로 대성전 42
성상 숭배 금지 81
성 소피아 성당 80, 88, 98, 122, 123
성직자 임명 87
세계 무역 기구 223, 244
세계 시민주의 39
세계 인권 선언 217
세실 로즈 140, 166
세포이의 항쟁 174, 187
셀주크 튀르크 83, 90, 92, 121
소비에트 196, 197
소크라테스 39
수니파 76, 82
수도교 41
수메르인 30
수에즈 운하 171, 207
술레이만 1세 101, 121
술탄 83, 92, 93, 121, 122, 123, 137, 172, 206
술탄·칼리프 121
스파르타 34, 36, 37, 38
슬라브족 80
시모노세키 조약 182
시아파 76, 82, 120
시크교 119
시황제 10, 13, 51, 53, 56
신교 124, 125, 132

신무기 191, 193, 195
신문화 운동 202
신사 113
신석기 25, 26
신성 로마 제국 87, 90, 121, 125
신자유주의 244, 247
신축 조약 183
신항로 개척 17, 55, 101, 126~131, 138, 159
신해혁명 176, 185, 202, 203
14개조 원칙 195
11월 혁명 196
십자군 전쟁 83, 90~93, 95, 98, 99, 124
쐐기 문자 30, 34
쑨원 185, 203

ㅇ

아고라 36
아라베스크 무늬 84
아리아인 32
아바스 왕조 64, 82, 83, 84, 92, 98, 105
아비뇽 92, 98
아소카왕 47, 56
아스카 문화 69
아스테카 제국 127, 128
아시리아 34
아우구스투스 21, 41, 43, 44
아우랑제브 황제 118, 119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124
아이티 147, 157, 240
아잔타 석굴 사원 71, 98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34, 37, 43, 74
아크바르 황제 118
아테네 34, 36, 37, 38, 44, 49, 80, 150
아편 전쟁 178, 179,180
아프리카의 해 228
아헨 대성당 79, 96, 97, 98
안·사의 난 65
알렉산드로스 15, 38, 39, 43, 48, 57
알렉산드리아 38, 40, 43, 48, 54, 74, 75, 80, 93, 171
앙코르 와트 46, 73
애로호 사건 178
야마토 정권 69
야스쿠니 신사 참배 216
양명학 113
양무운동 180, 188
에도 막부 116, 117, 136, 138, 179, 181
엥겔스 163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149
역참 34, 108
영국 국교회 125
영국령 인도 제국 174
예니체리 122
예루살렘 40, 42, 43, 75, 80, 90, 92, 93, 108, 121, 172
예수 15, 42, 75, 81, 90, 95, 152
예수회 113, 125
예정설 125
오경정의 66
5·4 운동 202, 203
오스만 제국 101, 120~123, 126, 136~138, 146, 150, 152, 170~173, 186, 192, 194, 206, 220
오스트랄로피테쿠스 23
옥타비아누스 21, 41
옹정제 115
와하브 운동 170
왕권신수설 132
왕안석 103
우루크 30
우르 30
우르두어 119
우마이야 왕조 76, 77, 79, 82, 86, 98
우키요에 117, 136
운요호 사건 179
울루스 106
위진 남북조 시대 60~63
윈강 석굴 62
유럽 연합 244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80
육유 110
율령 체제 65
의화단 운동 183, 185, 187
이달고 신부 157
이븐바투타 108, 109
이스탄불 80, 88, 121, 122, 123, 137, 138, 172
이스파한 120
이슬람교 14, 15, 16, 35, 59, 66, 75~77, 82~85, 90, 92, 93, 96, 98, 109, 118~120, 122, 136, 170, 173
이슬람 동맹 177
21개조 요구 202
2월 혁명 151, 152, 188
이홍장 180
인권 선언 145, 188
인권 침해 156, 212, 214, 217, 240
인도 국민 회의 175, 204
인민헌장 153
인종주의 166, 168, 169
인지세법 142
일본군 '위안부' 214, 215
임진왜란 15, 111, 116, 117
입헌 혁명 173
잉카 제국 127, 128

ㅈ

자본주의 경제 체제 162
자유 민권 운동 181
자유주의 150, 151, 152, 155, 196
장건 55
장안 46, 53, 54, 60, 64, 66, 67, 69, 93
장원 86, 87, 90, 91
재정·군사 국가 132, 133, 134
전국 7웅 50
전체주의 208, 109, 252,
전후 처리 216
절도사 65, 102
정통 칼리프 시대 76
정화 110
제국주의 16, 140, 166~169, 184, 186, 188, 189, 202, 203, 204, 207, 247
제3 세계 228, 229
제임스 와트 161, 163
제자백가 50
조공·책봉 관계 110, 111, 136
조닌 117
조닌 문화 117
조로아스터교 35, 55, 67, 74, 75
조카마치 117, 138

종교 개혁 15, 124, 125, 134
종단 정책 167
주식회사 130
중국 동맹회 185
중상주의 정책 132
중일 전쟁 203, 209, 210, 213
중화민국 185, 213
증기 기관 161, 168, 171, 188
지구라트 30
지즈야 76, 118, 122
진승·오광의 난 51

ㅊ

차르 196
차티스트 운동 152, 153
참호전 191, 193, 195, 220
채륜 52
천일야화 85
1848년 혁명 150, 152, 153, 154
천호장 106
철혈 정책 155
청년 튀르크당 172
청담 사상 61
청일 전쟁 182, 184
총력전 193, 195, 198
춘추 5패 50
춘추 전국 시대 50
7월 혁명 151, 188
칭기즈 칸 92, 100, 106, 107

ㅋ

카노사의 굴욕 87
카니슈카왕 47
카롤루스 대제 59, 79, 81, 86, 96, 97
카르피니 109
카리브해 127, 147
카부르 154
카슈미르 분쟁 246
카스트제 32, 83, 119
카타콤 42
카티푸난 177, 205
칼리프 76, 77, 82, 83, 121
칼뱅 125
코민테른 197
코페르니쿠스 135
콘스탄티노폴리스 40, 41, 54, 75~78, 80, 82, 83, 88, 90, 93, 108, 121~123
콘스탄티누스 대제 41, 42
콜럼버스 15, 126, 127, 158
콜로세움 41
쿠란 75, 76, 77, 84, 119
쿠샨 왕조 43, 46, 47, 70, 74
크리스트교 15, 16, 35, 40, 42, 43, 55, 56, 59, 66, 67, 77~79, 81, 82, 87, 88, 90, 92, 93, 96, 97, 99, 113~115, 117, 122, 124~126, 131, 134, 177,
크리오요 141, 157
큰 강 유역 28, 29, 33
클레멘스 11세 115
키루스 2세 34

ㅌ

타지마할 119, 138
탄지마트 172
탈라스 전투 64, 82
태평천국 운동 180
테무친 106
텐안먼 사건 239
텐진 조약 178
튀르키예 공화국 206, 207
트루먼 독트린 224
티무르 120
티무르 왕조 110, 118, 120

ㅍ

파라오 20, 31, 33
파르테논 신전 39, 57
파르티아 43, 55, 74
파리 강화 회의 195, 202, 207
파쇼다 사건 167
파시즘 209
판보이쩌우 176
페르세폴리스 35, 38, 74
페리클레스 37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37, 39
평민회 40, 45
평화 10원칙 229
폴리스 36~39, 44
표트르 대제 133
프랑스 혁명 135, 143~151, 153, 168
프랑크 왕국 77~81, 86, 87, 96~98
플랜테이션 127, 129, 138, 139, 167
피라미드 20, 29, 31, 128

ㅎ

하라파 32
한인 107, 180
한자 동맹 91
한화 정책 61, 98
함무라비 법전 30, 33
함무라비왕 30
해상 교역 72, 105, 108
향료 55, 73
향신료 93, 105, 109, 126, 131, 138
헤이안 시대 69
헨리 8세 125
헬레니즘 문화 38, 39, 47, 48, 88
현장 66, 113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23
호모 사피엔스 23
호모 에렉투스 23
호모 하빌리스 23
호민관 40
호세 리살 177
홀로코스트 212
홍건적 110
화교 177
화이사상 110
황건적의 난 52, 63
황소의 난 65
횡단 정책 167
후우마이야 왕조 86
훈고학 80
흉노 51, 53, 55, 60, 98
흑사병 91, 92
히로시마 182, 210, 211
힌두교 70~73, 96, 118, 119, 174, 175

인용 자료 및 사진 출처

인용 자료 출처

- **8쪽(오락실)** - 『오마이뉴스』(ohmynews.com), 「주거 빈곤, 청년 실업 … 모든 것이 20년 전 그날, 시작됐다」, 2018. 1. 27.
- **18쪽(일본 언론의 보도)** -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1, 「조선 폭동 정보, 당국자의 이야기」
- **18쪽(중국 언론의 보도)** - 김주용, 「중국 신문에 보이는 3·1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 - 북경 『국민공보』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66,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9, 360쪽.
- **22쪽(24시간으로 표현한 지구의 역사)** - 더 플래닛(theplanet.kr)
- **23쪽(인류의 진화 과정)** - 이상희, 『인류의 진화』, 동아시아, 2023, 6쪽.
- **30쪽(함무라비 법전)** - 제임스 B.프리처드,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391~392쪽.
- **34쪽(키루스 원통 비문)** - 영국박물관(britishmuseum.org), Collection, 「The Cyrus Cylinder Inscriptions」
- **37쪽(페리클레스 연설)** - 투키디데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솔, 2011, 168~169쪽.
- **40쪽(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연설)** - 김창성, 『사료로 읽는 서양사1』, 책과함께, 2014, 337~338쪽.
- **47쪽(아소카왕 대석비문)** - 마이클 우드, 『인도 이야기』, 살림, 2018, 141쪽.
- **51쪽(진의 정책)** - 사마천, 『사기 본기』, 민음사, 2010, 221~222쪽.
- **53쪽(한과 흉노 관리의 대화)** - 동북아역사넷(contents.nahf.or.kr), 사료라이브러리, 『중국정사외국전』, 「한나라 사신이 흉노의 습속을 비난하자 중항렬이 고유한 환경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반박함.」
- **57쪽(로제타석 반환 분쟁)** - KBS뉴스(news.kbs.co.kr), 「'로제타 스톤' 유물 반환 분쟁…해결?」, 2009. 12. 10.
- **65쪽(당률)** - 조선시대 법령자료(db.history.go.kr/law), 『당률소의』
- **66쪽(이백의 산중문답)** - 두산백과사전(doopedia.co.kr), 「산중문답」
- **67쪽(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109~111쪽.
- **76쪽(수니파, 시아파 전체 비율)** - 퓨리서치 센터(pewresearch.org), 「Mapping the Global Muslim Population(2009)」
- **76쪽(주요 이슬람 국가 분포도)** - 『연합뉴스』(yna.co.kr), 「중동 이슬람국가 종파 분포」, 2016. 1. 3.
- **77쪽(모나 헤이더 가사)** - 『한겨레』(hani.co.kr), 「"히잡을 쓰든 말든 내 맘대로 할 거야!"」, 2022. 10. 23.
- **99쪽(교황의 사과문)** - 『동아일보』(donga.com), 「교황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폭력에 사과"」, 2011. 10. 29.
- **103쪽(거란의 통치 방식)** -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125쪽.
- **107쪽(원의 인구 구성)** - 伊藤道治 외, 이근명 편역, 『중국 역사(하)』, 신서원, 2003, 178쪽.
- **108쪽(이븐바투타의 여행기)** - 이븐바투타, 정수일 역, 『이븐바투타 여행기2』, 창비, 2001, 327쪽.
- **108쪽(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 마르코 폴로, 채희순 역, 『동방견문록』, 동서문화사, 2011, 318, 327~328쪽.
- **110쪽(육유)** -미조구치 유조 외, 동국대동양사연구실 역, 『중국의 예치 시스템』, 청계, 2001, 111쪽.
- **112쪽(16~18세기 은의 유통)** - 카를로 M. 치폴라, 장문석 역, 『스페인 은의 세계사』, 미지북스, 2015, 117~121쪽.
- **114쪽(신견록)** - 방호, 손준식 역, 『중서교통사5』, 학고방, 2021, 315~331쪽.
- **114쪽(번수의가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로)** - 방호, 손준식 역, 『중서교통사5』, 학고방, 2021, 315~331쪽.
- **115쪽(홍표의 일부)** - 果美侠, 「康熙 "红票" 考 ——兼谈 "传教信票" 及康熙对传教士的集体召见」, 『故宫博物院院刊』 195, 故宫博物院, 2018, 112~119쪽.
- **115쪽(클레멘스 11세의 교령)** - 歷史学研究会, 『世界史史料4』, 岩波書店, 2010, 131쪽.
- **115쪽(옹정제의 금교령)** - 黄爱平, 「从清代档案看雍正乾隆时期福建地区的传教与禁教」, 『西学与清代文化』, 中华文史网, 2007, 543쪽.
- **124쪽(95개조 반박문)** - 김한식 외, 『역사 교육 자료집』, 신서원, 1999, 420쪽.
- **129쪽(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 변화)** - Westermann, 『Diercke Weltatlas』, Westermann,
- 1996, 160쪽.
- **129쪽(1701~1810년의 대서양 노예 무역)** - Philip D. Curtin, 『The Atlantic Slave Trade: A Census』, Univ of Wisconsin Pr, 1969, 215쪽.
- **143쪽(독립 선언문)** - 歷史學研究會, 『世界史史料7』, 岩波書店, 2008, 160~161쪽.
- **145쪽(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歷史學研究會, 『世界史史料6』, 岩波書店, 2007, 29~30쪽.
- **147쪽(라 마르세예즈)** - 프랑스의회(assemblee-nationale.fr), Histoire, 「Les paroles de la Marseillaise」
- **149쪽(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 올랭프 드 구주, 박재연 역,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꿈꾼문고, 2019, 26~27쪽.
- **151쪽(임시 정부가 발표한 선언)** - 歷史學研究會, 『世界史史料6』, 岩波書店, 2007, 162~163쪽.
- **153쪽(인민헌장)** - 歷史學研究會, 『世界史史料6』, 岩波書店, 2007, 146~147쪽.
- **153쪽(영국의 선거법 개정 과정)** - 이영효, 『사료로 읽는 서양사4: 근대편II』, 책과함께, 2015, 306쪽.
- **154쪽(이태리 건국 삼걸전)** - 량치차오, 『이태리 건국 삼걸전』, 지식의풍경, 2001, 120~121쪽.
- **164쪽(1819년 공장법)** - 양동걸, 「아동 노동과 영국의 산업 혁명」, 『경제논집』 26,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87, 367쪽.
- **164쪽(1833년 공장법)** - The National Archives(www.nationalarchives.gov.uk), Education, 「1833 Factory Act」
- **166쪽(세실 로즈의 유언집)** - Cecil John Rhodes, W. T. STEAD 편,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Cecil John Rhodes』, Review of Reviews, 1902, 166쪽.
- **169쪽(도쿄 권업 박람회 기사)**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nl.go.kr/newspaper), 『대한매일신보(국한문)』, 「東京博覽會에 出品한 我婦人同胞」, 1907. 6. 21.
- **172쪽(탄지마트 칙령)** - 歷史學研究會, 『世界史史料8』, 岩波書店, 2009, 120~121쪽.
- **174쪽(인도와 영국의 면직물 수출)** - 谷澤 伸 외, 『流れ図世界史図録 ヒストリカ』, 山川出版社, 2014, 136쪽.
- **176쪽(응우옌툭콘전)** - 歷史學研究會, 『世界史史料9』, 岩波書店, 2008, 335~336쪽.
- **178쪽(중국의 연간 아편 수입량)** - 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WORLD DRUG REPOR』,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08, 174쪽.
- **178쪽(난징 조약)** - 歷史學研究會, 『世界史史料9』, 岩波書店, 2008, 16~17쪽.
- **179쪽(미일 수호 통상 조약)**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kodomo.go.jp), 史料編, 「日米修好通商条約」
- **179쪽(강화도 조약)** -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고종실록』13권, 고종 13년 2월 3일.
- **181쪽(대일본 제국 헌법)** - 일본국립국회도서관(ndl.go.jp), 憲法条文·重要文書, 「大日本帝国憲法」
- **182쪽(시모노세키 조약)** -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251쪽.
- **183쪽(신축 조약)** -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258~259쪽.
- **184쪽(대한국 국제)** - 우리역사넷(contents.history.go.kr), 『신편 한국사42』, 「〈대한국 국제〉의 내용과 역사적 성격」
- **185쪽(한국인이 본 신해혁명)** - 국회도서관, 「조성환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 『도산안창호자료집2』, 국회도서관, 1998, 27~55쪽.
- **194쪽(제1차 세계 대전 회고)** - 리처드 오버리 편, 이종경 외 역, 『지도와 사진으로 보는 더 타임스 세계사』, 도서출판 예경, 2019, 274쪽.
- **194쪽(제1차 세계 대전의 피해 규모)** - Scott Addington, 『The Great War 100: The First World War in Inforgraphics』, History Press, 2014, 189~190쪽.
- **196쪽(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선언문)** - 이영세, 『심마니 세계사』, 역사넷, 2006, 161쪽.
- **199쪽(바이마르 헌법)** - 박건용 역, 『독일 바이마르 헌법』, 투멘, 2009, 7~50쪽.
- **202쪽(베이징 학생계 선언)** -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272쪽.
- **204쪽(네루의 인도 국민 회의 정강)** - 전국역사교사모임, 『처음 읽는 인도사』, 휴머니스트, 2018, 175쪽.
- **207쪽(듀 보이스의 연설)** - 비자이 프라샤드, 박소현 역, 『갈색의 세계사』, 뿌리와이파리, 2015, 48~49쪽.
- **208쪽(대공황 시기의 실업률)** - Jackson J. Spielvogel, PH. D., 『World History』, McGraw Hill, 2008, 793쪽.
- **209쪽(무솔리니의 파시즘 독트린)** - 정헌경, 『단숨에 정리되는 세계사 이야기』, 좋은날들, 2014, 281쪽.
- **209쪽(히틀러의 나의 투쟁)** - 아돌프 히틀러, 서석연 역, 『나의 투쟁』, 범우사, 1989, 413~414, 647쪽.
- **215쪽(일본군 위안소 추정 위치)** - 동북아역사넷(contents.nahf.or.kr),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운영」
- **215쪽(박영심의 증언)** -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 위원회, 『짓밟힌 인생의 웨침』,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 위원회, 1995, 80~81쪽.
- **215쪽(얀 루프 오헤른의 증언)** - 『동아일보』(donga.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 증언한 첫 백인 여성 얀 루프 오헤른」, 2007. 5. 7.
- **215쪽(마젤란 곤살베스의 증언)** - 전쟁과여성인권아카이브(archives.womenandwar.net), 기록, 「제14차 아시아연대회의 이네스 마젤란 곤살베스 소개(한국어)」
- **216쪽(국제 연합 헌장)** - 이영세, 『심마니 세계사』, 역사넷, 2006, 188~189쪽.
- **217쪽(세계 인권 선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edu.humanrights.go.kr), 자료 공간, 「세계 인권 선언문」
- **229쪽(평화 10원칙)** - 이영세, 『심마니 세계사』, 역사넷, 2006, 196쪽.
- **229쪽(아시아·아프리카 회의 개막 연설)** - CVCE(cvce.eu), Collections, 「Opening address given by Sukarno (Bandung, 18 April 1955)」
- **231쪽(나는 오직 신께만 묻습니다)** - Lyrics Translations (lyricstranslate.com), Lyrics, 「Mercedes Sosa - Sólo le pido a Dios」
- **236쪽(마틴 루서 킹의 연설)** - 앤드루 버넷, 정미나 역, 『스피치 세계사』, 휴머니스트, 2017,

190~191쪽.
- **240쪽(진실 화해 위원회 활동이 전개된 지역) -** Adam Kochanski, 「Mandating Truth: Patterns and Trends in Truth Commission Design」, 『Human Rights Review』21,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2020, 35쪽.
- **241쪽(투투 대주교의 발언) -** 이동기,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 아카넷, 2013, 263~264쪽.
- **244쪽(유럽 연합 회원국) -** 유럽 연합(european-union.europa.eu), Country profiles
- **245쪽(세계화의 의미) -** 위르겐 오스터함멜, 닐스 P. 페테르손, 배윤기 역, 『글로벌화의 역사』, 에코리브르, 2013, 17~18쪽.
- **246쪽(오늘날 세계의 주요 분쟁) -** 한국국방연구원(kida.re.kr), 세계 분쟁(WoWW)
- **247쪽(1인당 국내 총생산) -** 국제 통화 기금(imf.org),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249쪽(그레타 툰베리의 연설) -** NPR(npr.org), Environment, 「Transcript: Greta Thunberg's Speech At The U.N. Climate Action Summit」
- **251쪽(맥마흔 선언) -** 보스턴대학교(bu.edu), 「The Husain-McMahon Letters(excerpt)」
- **251쪽(벨푸어 선언) -** BBC(bbc.com), 「Balfour Declaration: The divisive legacy of 67 words」, 2017. 11. 2.
- **253쪽(100명당 투여된 코로나19 백신 접종량) -** 아우어 월드 인 데이터(ourworldindata.org), Coronavirus, 「Coronavirus (COVID-19) Vaccinations」
- **QR 08(갑골문 기록) -** 윤창준, 『갑골문과 중국 고대사회』, 어문학사, 2022, 53, 65, 71, 74, 78, 198, 286쪽.
- **QR 39(베르사유 조약의 일부) -** 국제노동기구(ilo.org), 「PartXIII of the Treaty of Peace of Versailles」
- **QR 40(네루의 편지) -**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2』, 휴머니스트, 2005, 187쪽.
- **QR 42(독일 교과서 서술) -** 김가영, 「제2차 세계 대전에 관한 독일과 일본 역사 교과서의 비교 분석: 전쟁에 대한 기억과 반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6, 43, 64쪽.
- **QR 46(프란츠 파농의 주장) -** 노경덕, 『사료로 읽는 서양사5』, 책과함께, 2022, 342~343쪽.

- 집필진이 직접 집필한 것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음.

사진 출처

| 대여 |

- **게티이미지 코리아 - 10**(병마용갱), **24**(라스코 동굴 벽화), **25**(움집), **27**(올멕두상), **27**(노르테치코 피라미드), **30**(함무라비 법전), **30**(지구라트), **33**(갑골문), **33**(코끼리 청동 그릇), **35**(다리우스 1세 조각), **35**(페르세폴리스 부조), **36**(도기 조각), **39**(아테네 학술원), **43**(파르티아샷), **46**(석가모니), **47**(인도 지폐), **48**(알카즈네), **49**(간다라 불상), **49**(붓다 발자국), **51**(병마용갱), **51**(병마용), **55**(로마 귀부인), **55**(청동말), **64**(대운하), **67**(대안탑), **70**(힌두교신들), **77**(히잡 시위), **79**(카롤루스 대제상), **79**(카롤루스 대제 동상), **80**(콘스탄티노폴리스), **84**(쿠란), **85**(신드바드의 모험), **89**(스테인드글라스), **98**(9·11 테러), **110**(자금성), **113**(마테오 리치), **119**(시크교도), **119**(타지마할), **120**(레기스탄 광장), **120**(울루그베그 천문대), **122**(유대교도), **123**(술탄 아흐메트 사원), **125**(칼뱅), **125**(마녀 처형), **127**(광산 원주민), **127**(아프리카 노예들), **129**(천연두로 고통받는 원주민들), **133**(베르사유 궁전), **140**(세실 로즈 동상 철거), **141**(마리안느 동상), **144**(혁명 전의 모순), **144**(테니스코트의 선언), **145**(마르세유의 의용군), **148**(베르사유 궁전으로 향하는 여성들), **151**(프리기아 모자를 쓴 프랑스인), **152**(보편적 민주 사회 공화국), **153**(개혁 요구 집회와 탄압), **157**(볼리바르), **158**(티피), **159**(원주민의 행진), **160**(면직물을 염색하는 모습), **161**(물레를 돌리는 모습), **161**(미국의 증기선), **163**(런던의 주택가), **163**(세필드), **164**(미국 철도 노동자의 파업), **166**(영국의 강철 생산), **166**(케이프에서 카이로로), **168**(에펠탑의 엘리베이터), **171**(수에즈 운하), **172**(오스만 제국 풍자화), **173**(담배 불매 운동), **174**(총탄), **174**(세포이들), **175**(인도 국민 회의 창립 대회), **176**(비스마르크를 만난 라마 5세), **179**(페리의 함대), **181**(도쿄 방적 공장), **183**(의화단), **184**(야하타 제철소), **191**(참호전), **195**(베트남 병사들), **195**(수류탄을 만드는 여성), **195**(간호병으로 참전한 여성들), **195**(말에 짐을 싣는 군인들), **196**(러시아 임시 정부), **196**(연설하는 레닌), **197**(소련 농민들), **200**(엽서), **203**(마오쩌둥), **203**(장제스와 쑨원), **209**(히틀러), **210**(폴란드 침공), **210**(파리 점령), **211**(히틀러 유겐트), **211**(미국 아이들), **212**(코번트리 대성당), **213**(난징 대학살 기사), **213**(마닐라 전투 희생자 위령비), **214**(영국 군인들), **216**(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 **217**(수당을 받고 있는 영국인들), **221**(난센), **222**(레닌 동상 철거), **225**(매카시), **225**(즈다노프), **226**(유리 가가린), **229**(제3 세계 지도자들), **231**(체 게바라와 카스트로), **232**(낌푹), **233**(마오쩌둥과 닉슨), **235**(미스 아메리카 반대 시위), **237**(여성 운동), **238**(자유 노조 성립), **238**(벨벳 혁명), **247**(빈부 격차), **249**(미래를 위한 금요일), **252**(코로나19 유행), **QR 22**(천문대 복원 모형), **QR 45**(파리 점령), **QR 47**(마오쩌둥과 덩샤오핑)
- **셔터스톡 - 20**(파라오), **21**(불상), **21**(병마용), **21**(아우구스투스), **22**(지구), **31**(파피루스 자르기), **35**(페르세폴리스), **39**(파르테논 신전), **41**(아피우스 가도), **41**(수도교), **41**(콜로세움과 개선문), **42**(성묘 교회), **42**(성 베드로 대성당), **47**(아소카왕 돌기둥), **49**(룽먼 불상), **51**(만리장성), **54**(낙타), **57**(로제타석 신성 문자), **57**(로제타석 민중·그리스 문자), **57**(자히 하와스), **57**(하나 볼트), **58**(윈강 석굴), **59**(카바 신전), **59**(카롤루스 대제 동상) **62**(룽먼 석굴), **62**(윈강 석굴), **69**(도다이지 대불), **71**(엘로라 석굴), **72**(파간), **72**(왓 마하탓), **72**(보로부두르1), **73**(문묘), **73**(미선 유적), **73**(프람비난), **73**(앙코르 와트), **74**(낙쉐 로스탐), **74**(샤푸르 1세 부조), **75**(카바 신전), **77**(우마이야 모스크), **79**(아헨 대성당), **82**(코르도바 모스크), **82**(카이로 모스크), **83**(부하라 영묘), **83**(델리 미나렛), **84**(쿠란 구절), **84**(미흐랍), **88**(성당 내부 모자이크), **88**(성당 내부 돔), **88**(성 소피아 성당), **88**(우크라이나 성 소피아 성당), **89**(아치형 천장), **89**(노트르담 성당), **90**(예루살렘), **93**(인도네시아 모스크), **97**(아헨 모자이크), **97**(아헨 고딕), **97**(아헨 왕좌), **97**(아헨 관), **97**(아헨 보물), **100**(칭기즈 칸 동상), **101**(발견 기념비), **101**(술레이만 1세 동상), **101**(타지마할), **117**(가부키), **120**(이맘 광장), **122**(루멜리 히사르), **123**(톱카프 궁전), **127**(농장에서 일하는 흑인), **128**(마추픽추), **130**(종호 사건), **141**(볼리바르 동상), **143**(미국 국기), **144**(앵발리드), **148**(파리), **157**(이달고 신부), **161**(면직물 공장), **165**(브리타니아와 템스강), **165**(센트럴 파크), **167**(아프리카 분할 풍자화), **178**(영국 함대), **190**(난징 대학살 희생자 기념관 조형물), **191**(팽크허스트 동상), **191**(간디 동상), **195**(미국 포스터), **205**(필리핀 지폐), **205**(필리핀 동전), **205**(베트남 지폐), **223**(세계 무역 기구), **223**(환경 운동), **226**(우주), **230**(파블로 네루다 우표), **231**(쿠바 내무부 건물), **244**(유로화), **245**(고등어구이), **245**(골뱅이무침), **QR02**(불교), **QR02**(이슬람교), **QR 09**(만국의 문), **QR 09**(동물 투쟁도), **QR 22**(오늘날의 천문대), **QR 22**(천문대 지하 부분), **QR 24**(인공위성 사진), **QR 24**(두 사원), **QR 24**(술탄 아흐메트 사원 내부), **QR 24**(그랜드 바자르), **QR 42**(독일 학교), **QR 42**(화장터), **QR 42**(아우슈비츠), **QR 42**(헌화), **QR 47**(경제특구), **QR 49**(유럽 연합 본부), **QR 49**(아프리카 단결 기구 기념식), **QR 49**(누리마루 APEC 하우스), **QR 49**(남아메리카 공동 시장 본부)
- **연합뉴스 - 97**(아헨 통합 상징), **215**(오헤른), **215**(곤살베스)
- **플리커 - 31**(피라미드), **34**(뿔잔), **53**(흉노 금관), **87**(천국과 지옥), **109**(원의 천문대), **128**(테노치티틀란 상상화), **212**(아우슈비츠 수용소), **213**(다뉴브강 강가의 신발들), **QR 49**(멕시코, 미국, 캐나다 정상)

| 출판 서적 |

- **국립중앙박물관,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국립중앙박물관, 2008. - 39**(이시스-티케 여신상)
- **김희보, 『그림으로 읽는 세계사 이야기3』, 가람기획, 2001. - 206**(무스타파 케말), **228**(얄제리인들)
-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15. - 10**(낭야대 각석)
-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2』, 휴머니스트, 2005. - 163**(마르크스)
- **중국사학회, 『중국통사3』, 범우사, 2011. - 105**(점토 활판), **105**(불화살)
- **중국사학회, 『중국 역사 박물관6』, 범우사, 2008. - 105**(나침반)
- **지안나 과달루피, 『중국의 발견』, 생각의 나무, 2004. - 109**(마르코 폴로)
- **테레스 비타르, 『시공디스커버리 총서69(술레이만)』, 시공사, 1998. - 122**(예니체리)
- **화봉책박물관, 『민족과 영토』, 화봉책박물관, 2004. - 154**(이태리 건국 삼걸전)
- **木畑洋一 외, 『新版世界史A』, 実教出版, 2014. - 210**(진주만 기습),
- **詳説世界史図録編集委員会, 『山川詳説世界史図録』, 山川出版社, 2014. - 131**(일본 은화), **196**(선전 포스터)

| 누리집 |

- **가디언(theguardian.com) - 162**(차를 마시는 사람들), **167**(헤레로인들), **189**(르완다로 돌아가는 투치족), **201**(연설하는 팽크허스트), **207**(듀 보이스), **245**(세계화 반대 시위), **QR 47**(문화 대혁명)
- **가톨릭신문(catholictimes.org) - 115**(홍표)
- **경향신문(khan.co.kr) - 217**(엘리너 루스벨트), **QR 25**(초기 인쇄소의 모습)
- **고대문명연구소(irec.study) - QR 08**(갑골문)
- **국립현대미술관(mmca.go.kr) - 234**(파리 시위)
- **국제노동기구(ilo.org) - QR 39**(국제 노동 기구 본부)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amnesty.or.kr) - 251**(가자 지구의 상황)
- **그리스 아테네국립고고학박물관(namuseum.gr) - 49**(아테네 조각상)
- **그린피스(greenpeace.org) - 138**(아마존 산불), **243**(피아니스트), **243**(그린피스 회원)
- **내셔널갤러리오브아트(nga.gov) - 112**(신들의 연회)
-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geographic.com) - 146**(새 도량형 도입 선전 그림), **151**(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159**(눈물의 길), **163**(검은색 얼룩나방)
- **네덜란드국립도서관(kb.nl) - 126**(동방견문록)
- **네덜란드 국립문서보관소(nationaalarchief.nl) - 231**(메르세데스 소사)
- **네덜란드 반고흐미술관(vangoghmuseum.nl) - 117**(미우라야의 다카오)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도시아카이브(amsterdam.nl) - 130**(동인도 회사)
- **네덜란드 열대박물관(collectie.wereldmuseum.nl) - 177**(카르티니)
- **노르웨이국립도서관(nb.no) - 221**(임시 여권)
- **뉴욕데일리뉴스(nydailynews.com) - QR 42**(수용소의 사람들)
- **뉴욕타임스(nytimes.com) - 156**(흑인 노예의 경매), **199**(메이데이 행사), **245**(인도의 공장)
- **더 내셔널(thenationalnews.com) - 77**(모나 헤이더), **QR 47**(대기근)
- **독일 비스마르크박물관(museen-sh.de) - 155**(독일 제국의 수립)
- **독일역사박물관(dhm.de) - QR 26**(약탈하는 군인들)
- **독일 연방기록보관소(bundesarchiv.de) - QR 43**(포츠담 회담)
- **독일 페르가몬박물관(smb.museum) - 39**(페르가몬 신전 제단)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org) - QR 49**(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본부)
- **동남아시아연합세계대학교(research.uwcsea.edu.sg) - 181**(일본 여성들)

- **동아디지털아카이브(donga.com) - 197**(동아일보 기사)
- **머니투데이(news.mt.co.kr) - 169**(도쿄 권업 박람회 기념 사진)
-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mna.inah.gob.mx) - 128**(태양의 돌)
- **문화유산 온라인(bunka.nii.ac.jp) - 63**(도쿄삼존상)
- **미국 내셔널아카이브(archives.gov) - QR 43**(독일 항복 서명), **QR 43**(포츠담 선언)
- **미국 디킨슨칼리지(dickinson.edu) - 134**(갈릴레이가 그린 달의 모습)
-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metmuseum.org) - 28**(청동 거울), **28**(청동 팔띠), **28**(청동 신상), **36**(올림피아 제전 달리기), **43**(뿔잔), **43**(수련 화분 조각), **85**(아스트롤라베), **105**(송의 도자기), **108**(원의 패자), **QR 06**(쐐기 문자 기록1), **QR 06**(쐐기 문자 기록2), **QR 06**(쐐기 문자 기록3), **QR 06**(쐐기 문자 기록4), **QR 06**(쐐기 문자 기록5)
- **미국 미주리역사박물관(mohistory.org) - 169**(아메리카 원주민 가족)
-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elca.org) - 124**(면벌부)
- **미국 빌리아일랜드 만화 도서관&뮤지엄(cartoons.osu.edu) - QR 33**(백인의 짐 1)
- **미국 브루클린박물관(brooklynmuseum.org) - QR 07**(심장 스카라브 앞), **QR 07**(심장 스카라브 뒤), **QR 07**(미라 붕대), **QR 07**(저승의 서), **QR 07**(네페르카우의 석비), **QR 07**(샤브티), **QR 07**(장례 조각상)
-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fsi.stanford.edu) - QR 47**(홍위병)
- **미국 시카고역사박물관(chicagohistory.org) - 156**(노예 경매 포스터)
- **미국 아서 M. 새클러 갤러리(asia.si.edu) - 76**(이슬람 전사)
- **미국 앨라배마대학교(internationalconflict.ua.edu) - 183**(8개국 연합군)
- **미국 윈스럽대학교(digitalcommons.winthrop.edu) - 41**(로마법)
- **미국 의회도서관(loc.gov) - 94**(미켈란젤로), **146**(현대 영웅의 여행), **183**(캉유웨이), **207**(카이로 시위), **QR 41**(도서관), **QR 43**(대서양 헌장 문서)
- **미국 커호키아 마운즈(cahokiamounds.org) - 158**(커호키아)
- **미국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edu) - 119**(아우랑제브 황제)
-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clevelandart.org) - 84**(아라베스크)
-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edu) - 243**(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 **미국 하버드미술관(harvardartmuseums.org) - 61**(죽림칠현)
- **미국 항공우주국(nasa.gov) - 227**(닐 암스트롱)
- **미국 UCLA 도서관 디지털 컬렉션(digital.library.ucla.edu) - 219**(헬렌 켈러)
- **바이두 백과(baike.baidu.com) - 102**(과거를 주관하는 황제), **112**(마제은)
- **베트남 꽝닌성 전자 포털(quangninh.gov.vn) - 73**(화옌사)
- **보스턴글로브(bostonglobe.com) - 127**(원주민의 날 시위)
- **브라질 국립문서보관소(gov.br/arquivonacional) - 235**(리우데자네이르 시위)
- **브리태니커(britannica.com) - 129**(노예 수송선), **135**(로크), **142**(보스턴 차 사건), **150**(빈 회의의 모습), **161**(제니 방적기를 사용하는 모습), **198**(시위하는 영국 여성들), **208**(미국 노동자들), **211**(스탈린그라드 전투), **211**(노르망디 상륙 작전), **QR 41**(뉴욕의 은행), **QR 41**(식량 배급), **QR 41**(판잣집), **QR 42**(파괴된 유대인의 상점)
- **사주지로세계유산(silkroads.org.cn) - 52**(채륜 종이)
- **서울경제(sedaily.com) - 219**(하세가와 데루), **233**(브란트), **QR 43**(대서양 헌장)
- **서울신문(seoul.co.kr) - 227**(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
- **스미소니언협회(si.edu) - 195**(세르 아미)
- **아시아타임즈(asiatimes.com) - 139**(기름야자 열매를 모으는 어린이), **204**(간디와 인도인)
- **아시안아트뉴스페이퍼(asianartnewspaper.com) - 107**(원대 잡극 배우 조각상)
- **아주경제(ajunews.com) - 184**(삼국 간섭 풍자화)
- **아카이브814(archive814.or.k) - 215**(박영심)
- **열대우림행동네트워크(ran.org) - 139**(올가미에 걸려 사망한 코끼리)
- **영국도서관(bl.uk) - 71**(라마야나), **87**(농노), **132**(동인도 회사), **214**(타타르인 강제 이주)
- **영국박물관(britishmuseum.org) - 28**(청동 무기), **31**(사자의 서), **32**(하라파 인장), **34**(키루스 원통), **37**(페리클레스), **43**(파르티아 기마병), **55**(로마 금화), **56**(로제타석 전시), **112**(청화백자), **117**(요시츠네 벚나무와 노리요리의 사당), **150**(빈 회의 풍자화), **162**(백화점)
- **영국 보드레이안도서관(digital.bodleian.ox.ac.uk) - 85**(이슬람 지도)
-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vam.ac.uk) - 171**(무함마드 알리)
- **영국왕립무기고박물관(royalarmouries.org) - 121**(오스만 제국의 대포)
- **영국 왕실컬렉션(rct.uk) - 168**(수정궁에 전시된 기계들)
-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cudl.lib.cam.ac.uk) - 78**(수도사들)
- **오마이뉴스(ohmynews.com) - 232**(말라 죽은 나무들), **234**(베를린 시위), **QR 43**(일본 항복 서명)
- **요크셔라이브(examinerlive.co.uk) - 164**(콜른브릿지 화재 사건 희생자 추모탑)
- **우리역사넷(contents.history.go.kr) - 67**(예빈도)
- **월스트리트저널(wsj.com) - 226**(콜리어스), **246**(우크라이나), **251**(평화 협정), **QR 47**(덩샤오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unesco.or.kr) - 214**(하시마), **QR 25**(구텐베르크 성경)
- **유엔난민기구(unhcr.or.kr) - 220**(시리아 난민)
- **유엔환경계획(unep.org) - 242**(미나마타병 환자들)
- **이집트국립박물관(egyptianmuseumcairo.com) - 49**(이집트 불상)
- **이탈리아 나폴리국립고고학박물관(mann-napoli.it) - 38**(이소스 전투)
- **이탈리아 우피치미술관(uffizi.it) - 94**(메디치)
- **인도네시아 소노부도요박물관(sonobudoyo.com) - 177**(이슬람 동맹)
- **인디아타임스(timesofindia.indiatimes.com) - QR 40**(네루와 인디라 간디)
- **인디아투데이(indiatoday.in) - 204**(네루)
- **일리노이대학 어바나-샴페인(news.illinois.edu) - 30**(쐐기 문자 만들기)
- **일본 도쿄국립박물관(www.tnm.jp) - 66**(이백)
- **일본 도호쿠대학 부속 도서관 가노문고 화상DB(i-repository.net) - 113**(곤여만국전도)
- **조선일보(chosun.com) - 216**(극동 국제 군사 재판), **234**(프라하 시위), **239**(톈안먼 광장의 시민들), **QR 43**(카이로), **QR 47**(대약진 운동), **QR 47**(덩샤오핑)
- **중국 고궁박물원(dpm.org.cn) - 104**(청명상하도), **115**(옹정제), **QR 19**(청명상하도)
- **중국국가박물관(chnmuseum.cn) - 67**(당삼채)
- **중국민족박물관(cnmuseum.com) - 67**(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67**(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탁본)
- **중국서화망(zgshw.net) - 66**(장강적설도)
- **중국 제2역사당안관(shac.net.cn) - 185**(우창 봉기를 주도한 군인들)
- **중국 지난시박물관(jnmuseum.com) - 55**(흙인형)
- **중앙일보(joongang.co.kr) - 212**(아우슈비츠의 아이들), **QR 36**(청의 아편굴), **QR 47**(중화인민 공화국 선포)
- **캐나다건축박물관(cca.qc.ca) - 180**(푸저우 선정국)
- **캐나다전쟁박물관(warmuseum.ca) - 193**(기관총)
- **쿠로가와 고대문화연구소(kurokawa-institute.or.jp) - 33**(청동 솥)
- **타이완 국립고궁박물관(www.npm.gov.tw) - 63**(송자천왕도), **106**(칭기즈 칸)
- **파이낸셜타임즈(ft.com) - 118**(유럽 상인), **121**(콘스탄티노폴리스 전투의 모습)
- **프랑스국립도서관(bnf.fr/fr) - 84**(지혜의 집), **144**(바스티유 감옥 습격), **149**(올랭프 드 구주), **181**(메이지 천황의 행렬)
- **프랑스 로댕미술관(musee-rodin.fr) - 117**(탕기 영감)
-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컬렉션(collections.louvre.fr) - 133**(루이 14세), **145**(나폴레옹의 쿠데타)
- **프랑스 말메종국립박물관(musees-nationaux-malmaison.fr) - 146**(알프스산맥을 넘는 나폴레옹)
- **프랑스 에펠탑(toureiffel.paris/fr) - 168**(박람회 전시장과 에펠탑)
- **프랑스 오르세미술관(musee-orsay.fr) - 40**(그라쿠스 형제 동상), **135**(루소)
- **프랑스 툴루즈박물관(museum.toulouse-metropole.fr) - 24**(주먹 도끼1)
- **프랑스 파리박물관 컬렉션(parismuseescollections.paris.fr) - 148**(애국적 여성 모임), **148**(평민 여성), **151**(2월 혁명)
- **프레시안(pressian.com) - 175**(스와데시 행진 중인 인도인들)
- **한겨레(hani.co.kr) - 184**(고종), **208**(증권 거래소에 몰려든 사람들), **223**(68 혁명), **236**(음수대), **239**(미얀마의 시위대), **241**(넬슨 만델라와 투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www.klsi.org) - 237**(노동 운동)
- **홀로코스트백과사전(encyclopedia.ushmm.org) - QR 42**(화물차), **QR 42**(선별당하는 사람들), **QR 42**(가스실로 가는 사람들), **QR 42**(노동하는 사람들), **QR 42**(나치), **QR 42**(추방 행렬)
- **Aachener Zeitung(aachener-zeitung.de) - 97**(팔각형)
- **ADEAC(adeac.jp) - 116**(산킨코타이 행렬)
- **Africa Is a Country(africasacountry.com) - 235**(다카르 시위)
- **allAfrica(allafrica.com) - 188**(르완다 학살 피해자 기념관)
- **American Antiquarian Society(americanantiquarian.org) - 142**(신문)
- **ART UK(artuk.org) - 133**(영국 의회의 모습)
- **Atlanta Black Star(atlantablackstar.com) - 166**(비누 광고 포스터)
- **Banknote World(banknoteworld.com) - 205**(인도네시아 지폐)
- **BeWeB(beweb.chiesacattolica.it) - 115**(클레멘스 11세)
- **Bloomberg(bloomberg.com) - 237**(장애인 운동)
- **CafeBiz(cafebiz.vn) - 169**(필리핀 원주민과 관람객들)
- **CNN(edition.cnn.com) - 235**(멕시코 올림픽), **236**(마틴 루서 킹), **249**(툰베리), **QR 43**(카이로 선언)
- **Common Dreams(commondreams.org) - 236**(반전 평화 운동)
- **DiceDB(db.drnod.de) - 142**(주사위)
- **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dp.la) - QR 30**(철도를 파괴하는 원주민)
- **Dunhuang Foundation(dunhuangfoundation.us) - 55**(장건)
- **e뮤지엄(emuseum.go.kr) - 24**(주먹 도끼2), **25**(돌도끼날), **25**(빗살무늬 토기), **63**(백제 금동대향로), **74**(봉수형 유리병)
- **Fundación Pablo Neruda(fundacionneruda.org) - 230**(파블로 네루다)
- **Gallica-BnF(gallica.bnf.fr) - 93**(만사 무사)
- **GENOCIDE ARCHIVE OF RWANDA(genocidearchiverwanda.org.rw) - 189**(투치족의 신분증)
- **German-stamps.org(german-stamps.org) - 155**(그림 형제 동화 우표)
- **Histoire pour Tous(histoire-pour-tous.fr) - 146**(나폴레옹 법전)
- **HNL(hln.be) - 31**(미라관)
- **Hürriyet Daily News(hurriyetdailynews.com) - 206**(투표하는 여성)
- **KBS 뉴스(news.kbs.co.kr) - 211**(히로시마)
- **LUTHERSTADT EISLEBEN(eisleben.eu) - 124**(루터 기념 동상)
- **Military History Matters(military-history.org) - 171**(알렉산드리아), **QR 36**(아편 폐기 과정)

- MIT Visualizing Cultures(visualizingcultures.mit.edu) - QR 33(백인의 짐 2)
- Muslim Heritage - 85(치과 치료)
- NISGUA(nisgua.org) - 241(추모 기념 행사)
- Project Gutenberg(gutenberg.org) - 165(내일의 전원도시)
- Roots.sg(roots.gov.sg) - 71(마하바라타)
- Smithsonian MAGAZINE(smithsonianmag.com) - 196(거리로 나간 민중)
- The Currency Collector(thecurrencycollector.com) - 104(송의 동전과 지폐)
- THE HISTORY OF PARLIAMENT(thehistoryofparliament.wordpress.com) - 153(차티스트 운동 풍자화)
- Visit Saudi(visitsaudi.com) - 170(사우디 왕국 유적)
- WORLD HISTORY ENCYCLOPEDIA(worldhistory.org) - 92(살라흐 앗딘), 145(루이 16세 처형), QR 30(들소의 머리 더미)
- 嗇色園(siksikyuen.org.hk) - 63(향 피우는 모습)

- 저작자 및 발행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음.

QR 목록

- QR 01(qr.hnedu.co.kr/r/5V0brfJavp) - 표지(해냄에듀 홈페이지)
- QR 02(video.hnedu.co.kr/video/951338122) - 15(연대 표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
- QR 03(qr.hnedu.co.kr/r/sILGXF0CYf) - 19(활동 도우미)
- QR 04(qr.hnedu.co.kr/r/6rhAcdd0-0) - 24(구석기 도구들)
- QR 05(qr.hnedu.co.kr/r/2ZvKLvadG-) - 25(신석기 도구들)
- QR 06(qr.hnedu.co.kr/r/daM2Mc-OIW) - 30(쐐기 문자 기록)
- QR 07(qr.hnedu.co.kr/r/4vLBSRaZBy) - 31(내세관과 관련된 이집트 유물들)
- QR 08(qr.hnedu.co.kr/r/HetWRoL-5E) - 33(갑골문 기록)
- QR 09(qr.hnedu.co.kr/r/eT9UZ-fFTn) - 35(만국의 문과 동물 투쟁도)
- QR 10(qr.hnedu.co.kr/r/pHOc2GTnm8) - 41(로마의 도로와 수도교)
- QR 11(qr.hnedu.co.kr/r/NZ7ACDCGl7) - 44(활동지)
- QR 12(qr.hnedu.co.kr/r/w4_Q-11vZd) - 49(초창기 불교에서 표현한 부처)
- QR 13(qr.hnedu.co.kr/r/p8vJ7MSane) - 56(추가 확인 문제)
- QR 14(qr.hnedu.co.kr/r/MYqpt5DG-u) - 60(삼국지 연의)
- QR 15(qr.hnedu.co.kr/r/lwtnIzpj_x) - 86(중세 서유럽 봉건 사회 구조)
- QR 16(vatican.va/various/cappelle/sistina_vr) - 95(시스티나 성당 VR), 바티칸
- QR 17(qr.hnedu.co.kr/r/H1z_D1_tWB) - 96(활동지)
- QR 18(qr.hnedu.co.kr/r/uGG-DyRndw) - 98(추가 확인 문제)
- QR 19(qr.hnedu.co.kr/r/gVA_7aqafQ) - 104(그림 살펴보기)
- QR 20(qr.hnedu.co.kr/r/altIMMp553) - 109(여행로 보기)
- QR 21(qr.hnedu.co.kr/r/RfYHeu4pGE) - 110(정화의 배와 콜럼버스의 배)
- QR 22(qr.hnedu.co.kr/r/EYUMYkTIIM) - 120(천문대 살펴보기)
- QR 23(qr.hnedu.co.kr/r/wZQkq3h_mK) - 121(이슬람 왕조 변화)
- QR 24(qr.hnedu.co.kr/r/2D5LLv_n4C) - 123(이스탄불 더 보기)
- QR 25(qr.hnedu.co.kr/r/V2PQQAUMZo) - 124(인쇄술의 발달)
- QR 26(qr.hnedu.co.kr/r/_6ugzQBZAc) - 125(유럽의 종교 전쟁)
- QR 27(qr.hnedu.co.kr/r/GXDwskcs0C) - 133(유럽 각지의 재정·군사 국가)
- QR 28(qr.hnedu.co.kr/r/yE-Gwhj-Z9) - 136(활동지)
- QR 29(qr.hnedu.co.kr/r/ZmIm0FcVuU) - 138(추가 확인 문제)
- QR 30(qr.hnedu.co.kr/r/N6RSW2G-MK) - 156(미국 철도 개발의 희생양)
- QR 31(qr.hnedu.co.kr/r/7oKpOQMF-h) - 161(유럽 철도망의 확산)
- QR 32(qr.hnedu.co.kr/r/BN4DtlujxM) - 161(증기 기관 작동 원리)
- QR 33(qr.hnedu.co.kr/r/3KXyzLfHCI) - 166(백인의 짐)
- QR 34(qr.hnedu.co.kr/r/leycytlsk5) - 167(아프리카의 변화)
- QR 35(qr.hnedu.co.kr/r/oaGShnCnVg) - 174(세포이의 장전 방법)
- QR 36(qr.hnedu.co.kr/r/qsAj16YFQR) - 178(청의 아편 문제)
- QR 37(qr.hnedu.co.kr/r/zmUE2a-zax) - 186(활동지)
- QR 38(qr.hnedu.co.kr/r/1rLrV4PYio) - 188(추가 확인 문제)
- QR 39(qr.hnedu.co.kr/r/o2SPkv9B4A) - 199(국제 노동 기구 설립 배경)
- QR 40(qr.hnedu.co.kr/r/85UL1IRSww) - 204(네루가 본 3·1 운동)
- QR 41(qr.hnedu.co.kr/r/Az7lcx9p34) - 208(대공황 당시의 사회 모습)
- QR 42(video.hnedu.co.kr/video/951339573) - 212(독일 교과서 속의 홀로코스트)
- QR 43(video.hnedu.co.kr/video/951351917) - 216(한국의 독립을 논의한 국제 회담)
- QR 44(qr.hnedu.co.kr/r/XN3o1yivoh) - 218(활동지)
- QR 45(qr.hnedu.co.kr/r/KPNOEg-zmG) - 220(추가 확인 문제)
- QR 46(qr.hnedu.co.kr/r/AfmRk85nEh) - 228(독립한 식민지가 마주한 문제)
- QR 47(video.hnedu.co.kr/video/951352505) - 239(문화 대혁명과 중국의 개혁·개방)
- QR 48(www.jinsil.go.kr/fnt/bbm/bbs/selectBoardArticleView.do?nttId=22949&upper_menu_no=100000&menu_no=110000) - 240(대한민국의 진실 화해 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QR 49(qr.hnedu.co.kr/r/jGC2bPzjEV) - 244(지역별 협력체)
- QR 50(qr.hnedu.co.kr/r/x6_MzFHFu1) - 250(활동지)
- QR 51(qr.hnedu.co.kr/r/Lxu6FjC8zQ) - 252(추가 확인 문제)
- QR 52(db.history.go.kr) - 266(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 QR 53(archive.history.go.kr) - 266(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국사편찬위원회
- QR 54(contents.history.go.kr) - 266(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 QR 55(contents.nahf.or.kr) - 266(동북아역사넷), 동북아역사재단
- QR 56(db.history.go.kr/goryeo) - 266(고려시대 사료 DB), 국사편찬위원회
- QR 57(sillok.history.go.kr) - 266(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 QR 58(kdp.aks.ac.kr/people) - 266(한국의 과거급제자), 한국학중앙연구원
- QR 59(nl.go.kr/newspaper) - 266(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국립중앙도서관
- QR 60(search.i815.or.kr) - 266(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독립기념관
- QR 61(archive.much.go.kr) - 266(근현대사 아카이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 QR 62(archives.kdemo.or.kr) - 266(오픈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QR 63(emuseum.go.kr) - 266(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국립중앙박물관
- QR 64(heritage.go.kr) - 266(국가유산포털), 국가유산청
- QR 65(iha.go.kr) - 266(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국립무형유산원
- QR 66(gis-heritage.go.kr) - 266(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국가유산청
- QR 67(nculture.org) - 266(지역N문화), 한국문화원연합회

연표로 역사 읽기 기원전 → 1500년

기원전 | 기원후 | 500 | 800

한국

- 약 3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시작
- 8000년경 신석기 시대 시작
- 15세기경 청동기 문화 보급
- 5~4세기경 철기 문화 보급
- 108 고조선 멸망
- 57 신라 건국
- 37 고구려 건국
- 18 백제 건국
- 3 고구려, 국내성 천도
- 313 고구려, 낙랑군 축출
- 371 백제, 고구려 평양성 공격
- 372 고구려, 불교 전래, 태학 설치
- 384 백제, 불교 전래
- 427 고구려, 평양 천도
- 433 나제 동맹 체결(~553)
- 475 백제, 웅진 천도
- 527 신라, 불교 공인
- 562 대가야 멸망
- 612 고구려, 살수 대첩
- 645 고구려, 안시성 전투
- 660 백제 멸망
- 668 고구려 멸망
- 676 신라, 삼국 통일
- 698 발해 건국

동아시아·동남아시아

- 2500년경 중국 문명 시작
- 1600년경 중국, 상 왕조 성립
- 11세기경 중국, 주 건국
- 770 주의 동천, 춘추 시대 시작
- 403 중국, 전국 시대 시작
- 221 진, 최초로 중국 통일
- 202 한, 중국 재통일
- 141 한, 무제 즉위
- 25 후한 건국
- 220 후한 멸망, 삼국 시대 시작
- 304 5호 16국 시대 시작
- 317 동진 건국
- 4세기경 일본, 야마토 정권 수립
- 439 북위, 화북 통일
- 589 수, 중국 통일
- 618 당 건국
- 629 현장, 인도로 출발
- 645 일본, 다이카 개신
- 710 일본, 나라 시대 시작
- 755 당, 안·사의 난
- 794 일본, 헤이안 시대 시작

서아시아·인도·중앙아시아

-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작
- 2500년경 인도 문명 시작
- 1750년경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 제정
- 663 아시리아, 오리엔트 통일
- 525 아케메네스 왕조, 오리엔트 통일
- 317년경 마우리아 왕조, 북인도 통일
- 30년경 크리스트교 성립
- 45년경 인도, 쿠샨 왕조 성립
- 226 사산 왕조 페르시아 성립
- 320년경 굽타 왕조 성립
- 500년경 인도, 힌두교 성립
- 552 돌궐 제국 성립
- 610년경 이슬람교 성립
- 622 헤지라(이슬람력의 원년)
- 651 사산 왕조 페르시아 멸망
- 661 우마이야 왕조 성립
- 750 아바스 왕조 성립
- 751 탈라스 전투

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

- 3000년경 이집트 문명 시작
- 492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발발
- 431 펠로폰네소스 전쟁 발발
- 334 알렉산드로스, 원정 시작
- 264 로마-카르타고 전쟁 발발
- 27 로마, 제정 시작
- 80 로마, 콜로세움 완성
- 313 로마, 크리스트교 공인
- 375 게르만족의 이동 시작
- 395 로마, 동·서로 분열
- 476 서로마 제국 멸망
- 486년경 프랑크 왕국 건국
- 529 비잔티움 제국,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 537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성 소피아 성당 건립
- 726 성상 숭배 금지령
- 732 투르·푸아티에 전투

828 장보고, 청해진 설치
900 후백제 건국
901 후고구려 건국
918 고려 건국
926 발해 멸망
935 신라 멸망
936 고려, 후삼국 통일
993 거란의 1차 침입

1019 귀주 대첩
1107 윤관, 여진 정벌
1126 이자겸의 난
1135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1170 무신 정변
1231 몽골의 침입
1232 강화도 천도
1270 개경 환도, 삼별초의 항쟁

1388 위화도 회군
1392 고려 멸망, 조선 건국
1394 조선, 한양 천도
1416 4군 설치
1434 6진 설치, 『삼강행실도』 편찬
1446 훈민정음 반포
1485 『경국대전』 완성

1000 · 1300 · 1500

875 당, 황소의 난
907 당 멸망, 5대 10국 시작
916 거란 건국
946 거란, 국호를 요로 개칭
960 송 건국
973 송, 과거에 전시 도입

1115 여진, 금 건국
1125 거란 멸망
1127 남송 시작
1185 일본, 가마쿠라 막부 성립
1206 칭기즈 칸, 몽골 통일
1234 금 멸망
1271 원 성립
1279 원, 중국 통일

1315 원, 과거제 시행
1336 일본, 무로마치 막부 성립
1351 원, 홍건적의 난
1368 명 건국
1405 명, 정화의 항해 시작
1421 명, 베이징 천도
1467 일본, 전국 시대 시작

890년경 앙코르 왕조 성립
962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왕조 성립

1037 셀주크 튀르크 건국
1055 셀주크 튀르크, 바그다드 점령
1206 델리 술탄 왕조 성립
1258 아바스 왕조 멸망
1299 오스만 튀르크 건국

1370 티무르 왕조 성립
1453 오스만 제국,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800 카롤루스 대제, 서로마 제국 황제 대관
870 메르센 조약
909 파티마 왕조 성립
910 클뤼니 수도원 건립
962 오토 1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대관
987 프랑스, 카페 왕조 성립

1054 크리스트교, 동·서로 분열
1077 카노사의 굴욕
1096 십자군 전쟁 발발
1299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 출판

1302 프랑스, 삼부회 소집
1309 아비뇽 유수
1337 프랑스, 백년 전쟁 발발
1347 유럽에 흑사병 창궐
1453 비잔티움 제국 멸망
1460 마야 문명 멸망
1492 콜럼버스, 서인도 제도 도착

연표로 역사 읽기 1500년 → 현재

한국

1506 중종반정
1592 임진왜란 발발
1597 정유재란 발발
1623 인조반정
1627 정묘호란 발발
1636 병자호란 발발
1659 기해예송
1680 경신환국

1708 대동법 전국적으로 시행
1725 영조, 탕평책 시행
1750 균역법 시행
1776 규장각 설치
1794 수원 화성 축조 시작
1801 신유박해
1811 홍경래의 난 발발

1876 강화도 조약 체결
1884 갑신정변
1894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
1897 대한 제국 성립
1905 을사늑약 체결
1910 국권 피탈
1919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500 → 1700 → 1860 → 1920

동아시아·동남아시아

1590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통일
1603 일본, 에도 막부 성립
1616 후금 건국
1636 후금, 국호를 청으로 개칭
1644 청, 베이징 입성

1757 청, 광둥 무역 체제 성립
1772 청, 『사고전서』 편찬
1840 아편 전쟁 발발
1842 청, 영국과 난징 조약 체결
1851 청, 태평천국 운동 시작
1854 일본, 미일 화친 조약 체결
1858 일본,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

1868 일본, 메이지 유신
1894 청일 전쟁 발발
1898 청, 변법자강 운동
1899 청, 의화단 운동 발발
1904 러일 전쟁 발발
1905 베트남, 동유 운동 전개
1911 신해혁명
1912 중화민국 성립
1919 중국, 5·4 운동

서아시아·인도·중앙아시아

1501 이란, 사파비 왕조 성립
1526 인도, 무굴 제국 성립
1633 영국, 벵골 침략 시작

1736 사파비 왕조 멸망
1839 오스만 제국, 탄지마트 단행
1857 인도, 세포이의 항쟁 발발

1885 인도 국민 회의 결성
1905 이란 입헌 혁명
영국, 벵골 분할령 발표
1908 오스만 제국, 청년 튀르크당의 혁명
1909 무스타파 케말, 민족 운동 전개
1919 간디, 비폭력·불복종 운동 전개

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

1517 루터의 종교 개혁 시작
1519 마젤란 일행, 세계 일주 시작
1521 아스테카 제국 멸망
1533 잉카 제국 멸망
1555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1600 영국, 동인도 회사 설립
1618 30년 전쟁 발발
1648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1689 영국, 「권리 장전」 승인

1701 프로이센 성립
1776 미국, 독립 선언
1789 프랑스 혁명 시작
1805 이집트, 무함마드 알리 집권
1814 빈 회의 개최
1821 그리스 독립 전쟁 발발
1827 프랑스, 알제리 침략
1830 프랑스, 7월 혁명
1848 프랑스, 2월 혁명

1861 미국 남북 전쟁 발발
1882 3국 동맹 성립
1898 수단, 파쇼다 사건 발생
1907 3국 협상 성립
1914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1917 러시아 혁명
1919 베르사유 조약 체결
국제 노동 기구(ILO) 설립

1927 신간회 조직
1938 국가 총동원법 발표
1945 8·15 광복
1946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 6·25 전쟁 발발

1960 4·19 혁명
1961 5·16 군사 정변
1972 7·4 남북 공동 성명
1980 5·18 민주화 운동
1987 6월 민주 항쟁
1991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2000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2007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2018 판문점 선언 발표

1960

2000

1921 중국 공산당 결성
1924 중국, 제1차 국공 합작
1934 중국 공산당, 대장정 시작
1937 중일 전쟁 발발, 제2차 국공 합작
1941 태평양 전쟁 발발
「대서양 헌장」 발표
1945 일본 항복
1946 중국, 제2차 국공 내전 시작
1949 중국,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1971 중국, 국제 연합(UN) 가입
1972 미국 닉슨 대통령, 중국 방문
1975 베트남 전쟁 종결
1978 미국·중국, 국교 정상화
1988 미얀마, 8888 항쟁
1989 중국, 톈안먼 사건
1993 일본, 고노 담화
1997 영국, 중국에 홍콩 반환

2008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최
20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2019 코로나19 발생
2021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

1922 이집트 독립
1923 터키 공화국 수립
1928 인도 독립 연맹 결성
1948 제1차 중동 전쟁 발발
1955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개최

1961 제1차 비동맹 회의
1964 베트남, 통킹만 사건 발발
1967 제3차 중동 전쟁 발발
1973 제1차 석유 파동 발생
1979 소련,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0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
1988 팔레스타인, 독립국 선언
1991 걸프 전쟁

2003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
2012 시리아 내전 발발
2023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발발

1920 국제 연맹 창설
1922 소련 성립
1929 미국, 대공황 발생
1939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1945 독일 항복, 국제 연합 창설
1947 미국, 트루먼 독트린, 마셜 계획 발표
1948 「세계 인권 선언」 발표
1949 독일, 동독·서독 분열
1956 이집트, 수에즈 운하 국유화

1962 알제리 독립
1968 68 혁명
1969 미국, 닉슨 독트린 발표
1985 소련, 개혁·개방 추진
1989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1990 독일 통일
1991 소련 해체
1993 유럽 연합(EU) 출범

2001 미국, 9·11 테러 발생
2008 세계 금융 위기 발생
2010 아이티 대지진 발생
2015 파리 협정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역사 학습을 돕는 누리집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한국 역사와 관련한 주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archive.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가 국내외에서 수집한 사료를 제공하는 누리집입니다.

우리역사넷
contents.history.go.kr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는 누리집입니다.

동북아역사넷
contents.nahf.or.kr
동아시아 역사 문제 및 독도 관련 자료와 연구물을 제공하는 누리집입니다.

고려시대 사료 DB
db.history.go.kr/goryeo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 고려 시대 역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입니다.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입니다.

한국의 과거급제자
kdp.aks.ac.kr/people
고려와 조선 시대에 활동한 주요 인물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입니다.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nl.go.kr/newspaper
1883년부터 1960년까지 발간된 신문 자료를 제공하는 누리집입니다.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search.i815.or.kr
일제 강점기 때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입니다.

근현대사아카이브
archive.much.go.kr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수집한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입니다.

오픈아카이브
archives.kdemo.or.kr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emuseum.go.kr
전국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의 사진뿐 아니라 박물관 정보 등을 제공하는 누리집입니다.

국가유산포털
heritage.go.kr
대한민국의 유적, 유물 등 65만여 건의 문화유산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입니다.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iha.go.kr
전통 공연, 전통 기술, 생활 관습 등 무형 문화유산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입니다.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gis-heritage.go.kr
문화유산 정보와 지도 정보를 결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누리집입니다.

지역N문화
nculture.org
각 지역 문화와 관련한 자료와 다양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입니다.

집필진



이성호 대표 저자
(현) 서울 배명중학교 교사

역사 ① 프롤로그, 대단원 Ⅰ, Ⅱ 집필
역사 ② 대단원Ⅵ 집필



오지원
(현) 충북 원봉중학교 교사

역사 ① 대단원 Ⅰ, Ⅲ 집필
역사 ② 대단원Ⅵ 집필



강화정
(현) 서원대학교 교수

역사 ① 대단원 Ⅰ, Ⅵ 집필
역사 ② 대단원Ⅵ 집필



윤세병
(현) 공주대학교 교수

역사 ① 프롤로그, 대단원 Ⅰ, Ⅳ 집필
역사 ② 대단원Ⅵ 집필



고진아
(현) 경기 인창고등학교 교사

역사 ① 대단원 Ⅰ, Ⅴ 집필
역사 ② 대단원Ⅵ 집필



이지현
(현) 서울 청량고등학교 교사

역사 ① 대단원 Ⅰ 집필
역사 ② 대단원Ⅲ, Ⅵ 집필



박상민
(현) 충북 주성고등학교 교사

역사 ① 대단원 Ⅰ 집필
역사 ② 대단원Ⅱ, Ⅵ 집필



정희연
(현) 경기 향남중학교 교사

역사 ① 대단원 Ⅰ 집필
역사 ② 대단원Ⅳ, Ⅵ 집필



양현승
(현) 경기 동탄국제고등학교 교사

역사 ① 대단원 Ⅰ 집필
역사 ② 대단원Ⅴ, Ⅵ 집필



천장수
(현) 경기 능실중학교 교사

역사 ① 대단원 Ⅰ 집필
역사 ② 대단원 Ⅰ, Ⅵ 집필

검정 심의회

심사위원장 유시현(광주교육대학교)

간사 백은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내용 조사>

김석우(원광대학교) 김옥진(이솔고등학교) 김현진(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이용일(대구교육대학교) 이정민(경상국립대학교) 이정빈(경희대학교) 이평수(성균관대학교)
황선익(국민대학교)

<표기·표현>

정희창(성균관대학교, 대표) 하정수(동국대학교) 김은일(충북대학교) 이계식(형석고등학교)
이현정(서울고등학교) 박혜진(연세대학교) 진가연(KAIST) 김다솔(전남대학교)
한승규(호남대학교) 박선영(연세대학교) 김민옥(부산외국어대학교) 박정아(서경대학교)

검정위원 강수웅(소래고등학교) 양정필(제주대학교) 이상일(일죽중학교) 이지원(생명중학교)
장문석(서울대학교) 전현재(포산중학교) 홍성화(부산대학교) 홍승우(경북대학교)

검정심사관리 위원회

위원장 김성혜(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획위원 조기희(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표) 이용백(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민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성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민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운영위원 장일(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표) 조석범(한국교육과정평가원) 권예빈(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심사지원팀장 이영석(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심사진행팀장 김재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심사운영팀장 손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심사자료팀장 황승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획지원 연해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개발진

개발 총괄 정덕균

편집 유은형, 곽지섭, 임다은, 정금숙, 이현지

디자인 임진성

일러스트 김소정, 디스타임투모로우, 나일영, 오승만, 이형기

중학교

역사 ①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심사를 하였음.

초판 발행 2025. 3. 1.

정가 원

지은이 이성호 외 9인

발행인 송영석(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30 해냄빌딩 4층 (주)해냄에듀)

인쇄인 벽호(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43번지)

- 교과서의 본문 용지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 교과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전화: 1566-8572, www.textbook114.com 또는 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전화 02-2608-2800, www.kolaa.kr)**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내용관련문의 (주)해냄에듀 역사팀 전화: (02)323-9953 전송: (02)323-9950

공급업무대행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10881)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439-1(신촌동 734-1)

개별구입문의 홈페이지 주소 www.ktbook.com 전화:(031)956-8581~4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ISBN 978-89-6446-213-3